제 1 장

《날이 밝았다. 빨리 나오라!》

온통 깨진 벽돌과 기와쪼각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페허의 한가운데서 여러장의 벽돌이 엉켜붙은 벽체쪼각이 움찍 들리우더니 그밑에서 텁수룩한 머리에 얼굴에는 먼지가 오른 한 사내아이가 기여나오며 쨍쨍한 목소리로 웨쳤다.

두주먹으로 눈굽을 대강 비비고난 그는 방금 동녘하늘에서 솟아오른 아침해를 바라보다가 그만 눈이 부셔 실눈을 지었다. 달콤한 아침바람이 주변의 느릅나무숲속으로 불어와 류달리 상쾌한감을 주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나서 다시 내쉬였다. 마치 배속에 그득히 서려있는 온갖 어지러운 공기를 말끔히 내보내려는듯이…

이 사내아이의 나이는 열대여섯살쯤 되는데 왼쪽눈섭끌에는 상처자리가 있고 둥그스름한 얼굴에는 한쌍의 그리 크지 않은 눈이 유난히 반짝이였다.

《전시야, 날 좀 잡아당겨줘!》

전시라는 아이가 방금 기여나온 그 구멍안에서 또 한명의 사내아이가 머리를 내밀며 소리쳤다. 버섯모양의 귀박죽에 부리부리

한 두눈, 게다가 입까지 큰 그 사내아이는 마치 절간에 있는 부처와 비슷하였다. 남보다 어깨죽지가 넓은 그가 작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자니 여간 힘들지 않은 모양이였다.

《샤오망즈, 넌 언제 봐야 둔하단 말이야!》

전시가 벽돌과 기와쪼각들을 풀썩풀썩 밟으며 굴입구로 다가가 그에게 막 손을 내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들이며 샤오망즈(송아지라는 뜻)를 향해 히죽이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새까만 자기의 발가락을 구멍우로 얼굴을 빠금히 내민 샤오망즈의 입가까이에 대고 《망즈야, 내 발가락을 한번 깨물어봐. 요거, 요거…》하면서 그를 놀려주기 시작하였다.

《야, 더럽다. 내 이제 올라가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너 혼자 올라와봐. 히히!》

전시는 샤오망즈의 머리우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히히닥거렸다. 그의 천진스러운 웃음소리는 적막한 이 페허에 저으기 생기를 부어주는듯싶었다.

이윽하여 힘겹게 땅우로 솟구쳐오른 샤오망즈는 두팔로 굴아구리를 짚고 가까스로 기여나왔다. 샤오망즈는 전시와 나이가 비슷하나 몸집은 전시보다 더 다부지고 듬직해보였다. 샤오망즈가 올라오자 전시는 자기를 《복수》할가봐 후닥닥 내빼면서 계속 쫄랑거렸다.

《망즈야, 따라와봐. 따라와보란데. 어서…》

샤오망즈는 어디 두고보자는 뜻으로 전시에게 주먹을 휘둘러보이고는 한무릎을 꿇고 다시 앉아 굴안에 대고 소리쳤다.

《샤오도우즈, 고우성얼, 빨리 올라와!》

샤오망즈는 손을 들이밀어 열둬살쯤 되여보이는 사내아이를 끌어올렸다. 고슴도치같은 둥근 머리며 유리알처럼 디룩거리는 한쌍의 눈, 두말하지 않아도 그는 샤오도우즈(콩알이라는 뜻)이다. 뒤이어 샤오도우즈와 비슷한 나이에 길죽한 얼굴을 가진 고우성얼(개먹이라는 뜻)을 끌어올렸다. 그다음 벽체쪼각을 들어 다시 굴아구리를 막아버렸다.

큰 고무풍선인양 나무우듬지에 조용히 솟아오른 아침해가 온 대

지를 밝게 비쳐주고있었다. 난데없이 두마리의 참새가 짹짹거리며 검푸른 나무잎사이로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쫓고 따르며 들까분다. 그러다가 곧추 하늘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도시의 북쪽방향으로 날아가버린다.

이 근처는 몹시 한적하여 새들과 벌레들이 우짖는 소리를 내놓고는 다른 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한달전에 팔로군 한개 부대가 이 북방의 도시 쑹쟝시를 해방하였다. 원래 이곳은 도시의 남쪽교외에 주둔하고있던 왜놈들이 죽은 제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령탑》이 있던 자리였다. 그러던것이 이 도시를 공격한 팔로군에 의해 박산나고 지금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더미로 되여버렸다. 바로 이곳 재더미에서 얼마전에 부모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전시네 방랑아들이 우연히 굴입구를 발견하게 되였다. 처음에 그들은 굴속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호기심이 나서 역사질하여 겨우 한사람이나 드나들수 있게 굴아구리를 넓힌 다음 먼저 전시가 들어가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지하궁전》이 있을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매일저녁 어두울 때 들어갔다가 이른새벽에 나오군 하였다.

요즘에 와서 전시네에게는 돈을 벌수 있는 일감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느 한 기업주의 짐을 날라주는것이였다. 한동안 날라보니 비록 힘이 들고 여간 고달프지 않았지만 품삯은 그만하면 높았다. 한 밀차를 날라다주면 은돈(옛날 화폐) 절반을 주군 하였다. 이 좋은 일감은 그들에게 무술을 배워준다는 쥬탸오룽(아홉마리의 룡이라는 뜻)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사》가 알선해준것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즘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는 돈이 생긴셈이였다.

샤오도우즈는 굴에서 나오면 습관적으로 도시의 제일 높은 건물우에 나붓기는 붉은기를 바라보군 하였다. 붉은기아래의 그 건물은 본래 왜정때 경찰서가 도사리고있던 곳인데 지금은 팔로군이 차지하여 《쑹쟝시군관제위원회》청사로 쓰이고있다.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샤오도우즈는 그 기발을 바라볼 때마다 아

직 따뜻한 품이란 전혀 모르고 자란 애어린 가슴속에서 이름할 수 없는 그 어떤 불안한감이 서려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것은 저 붉은 기발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것을 가져다주겠는지 아니면 어떤 나쁜것을 가져다주겠는지 딱히 알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고있는것은 저 붉은 기발이 휘날린 때부터 세월이 그전보다 차츰 좋아지고있다는것이였다.

이윽고 샤오도우즈는 펄럭이는 붉은기를 가리키며 앞에서 걸어가는 샤오망즈를 향해 소리쳤다.

《망즈형, 저기 그 기발이 그대로 있어!》

고우성얼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샤오망즈가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응해주었다.

《응, 봤어! 빨리 가자. 늦으면 또 매맞아!》

샤오도우즈는 맨발로 울퉁불퉁하게 널려있는 벽돌과 기와쪼각우를 조심히 걸어갔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해서인지 갑자기 굴속에서 나오니 약간 떨리는감이 있으나 겨울날조차 마대쪼박을 걸치고 지내야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보통일로 되였다.

샤오도우즈는 땅바닥에서 금박을 칠한 자그마한 벽돌쪼각을 집어들었다. 손으로 문대여보니 꽤나 매끈매끈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이것이 《충령탑》에 새겼던 글자였다는것이 생각났다.

흥! 한달전만 해도 이 《충령탑》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었다. 이 탑가까이에는 일본사람들을 내놓고는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것이다. 왜놈들은 만저우국사람, 아니 모든 중국사람들에게 이 탑에 가보지도 못하게 했을뿐아니라 지나가는 경우에도 멀리서부터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게 했었다. 그러던 이 《충령탑》이 산산쪼각나서 금빛글자를 이렇게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되였으니 참말로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는 생각했다.

샤오도우즈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어느새 전시가 달려와 와락 그의 손을 잡아챘다.

《너 뭘 꾸물거리니? 그러면 래일 너를 안데리구 가겠어!》

샤오도우즈는 금박을 칠한 벽돌쪼각을 그에게 내밀면서 물었다.

《전시형, 이것봐. 이건 정말 금으로 새긴 글자나?》

《금은 무슨 개똥같은 금이야!》하고 전시가 샤오도우즈의 손에서 벽돌쪼각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끌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갔다.

벽돌쪼각이 널려있는 곳을 벗어난 그들은 이어 어느 한 부드러운 잔디밭에 이르렀다. 이 잔디밭을 지나 동쪽으로 가면 원래 일본군병영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팔로군의 포탄에 맞아 몽땅 무너져버렸다. 그들은 잔디밭을 따라 서쪽방향으로 좀 걷다가 인차 수림속으로 접어들었다. 낮에도 어둑컴컴한 이 수림속은 땅과 나무 할것없이 온통 진록색이끼로 뒤덮여있었다.

이 수림속에는 자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몇백년전에 이 호수가 생겨났지만 물이 마른적이 없었고 아무리 많이 퍼내도 물량이 적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본놈들도 여기에 물뽐프를 설치하고 이 물을 퍼서 근방의 잔디와 화초들에 주군 했다. 이곳 토배기로인들은 호수밑에 룡주둥아리가 있는데 바다와 련결되여있기때문에 천년이든 만년이든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림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느라면 동서방향으로 뻗어나간 비교적 넓은 도로가 나진다. 이 도로는 쑹쟝시 서쪽교외와 농촌지대를 련결하는 유일한 큰 도로였다.

도로를 따라 얼마간 걸어가면 길가에 상당히 화려한 한 건물이 자리잡고있다. 이 건물이 바로 왜놈들의 진쟈(절간)라는 건물인데 놈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제놈들의 덴쇼다이신(천조대신)에게 참배하군 했다. 둘레의 네 담벽은 인조대리석미장을 하였고 동쪽에는 세개의 작은 문이 나있다. 다만 한사람이 겨우 드나들수 있는 작은 문들이였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2층짜리 건물은 콩크리트로 축조하고 청색기와를 씌운 든든한 집이였다. 문앞에는 넓은 꽃밭이 있는데 맨드라미와 백금풀(백급) 등과 같은 화초들로 여러가지 모양을 형상하였다. 큰 꽃밭둘레에는 또 작은 꽃밭들이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있어 이채롭게 보였다. 정문으로부터 인도블로크를 깐 길이 나있다. 그옆으로는 정교하게

다듬은 느릅나무들이 가지런히 늘어서있다.
건물의 서쪽켠에는 지붕마루가 뾰족한 나무건물이 몇채 따로 있는데 그 건물들은 마치 머리에 수건을 쓴 불쌍한 로파의 모습같아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불쾌감을 주었다. 이 진쟈를 이미 팔로군이 넘겨받아 그안에 놓여있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치우고 《쑹쟈시혁명렬사유자녀보육원》으로 리용하고있었다.
이곳은 지대가 높고 또한 일본놈들이 독차지하고 일체 외부인원들의 출입을 엄금했기때문에 여기 형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비록 일본놈들이 투항하고 이 지대를 팔로군이 차지하고있지만 사람들의 낡은 관념과 심리상태는 아직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보육원의 남쪽 둔덕밑에 평지붕으로 된 건물이 한채 있다. 이 건물은 서쪽켠에 있는 화려한 진쟈의 건물과 달리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건물인데 여기는 왜정때 일본사람들을 위해 화초를 가꾸고 진쟈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거처하고있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남아 일하고있고 그들의 생활비는 군관제위원회에서 지불해주고있었다.
이 며칠동안 전시네 네 아이들은 짐을 날라주기 위해 내내 이곳을 지나가군 하였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들은 낮은 담장안에서 아침체조를 하고있는 보육원의 원아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군 하였다.
언제인가 한번은 샤오도우즈가 전시에게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전시형, 우린 언제면 저애들처럼 살아볼가?》
전시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딴전을 부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흥! 뭘 부러울것 있다구 그래. 난 싫어. 이 〈손오공〉이 제일이야. 하늘이 좌상이면 난 두번째 형님이다.》
이렇게 말하던 전시가 느닷없이 돌을 하나 집어들고 《야! 멋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치며 보육원 원아들을 향해 냅다 던지였다. 그바람에 한 원아가 그만 돌에 맞아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옆에 있던 다른 원아들이 우르르 밀려와서 전시를 보고 왜 가만히 있

는 아이를 때리는가고 야단법석하였다.

이때 그들중 나이가 좀 많은 한 아이가 와서 《됐어, 그만해. 망나니같은 아이들과는 맞서지 말아야 해.》하고 다른 원아들을 달래였다.

이 말을 들은 전시는 버럭 화가 났다.

《개똥같이, 뭘 우리가 망나니라구? 야! 난 〈손오공〉이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하느님이란 말이다. 누가 믿지 않겠으면 나와 씨름 한판 해보자. 이긴 사람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진 사람한테는 아들이라고 부르게 하자.》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으시댔다.

보육원 원아들이 와야와야 떠들자 마침 한 녀선생이 달려나와 그들을 말리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 싸움판이 벌어질번 하였다. 그때 전시앞에 다가온 녀선생이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타일렀다.

《동생, 싸우지 마세요. 우린 단결해야 해요. 동생도 다 무산계급이 아니나요. 자, 어서 가보세요.》

녀선생은 다정한 표정으로 전시를 떠밀었다.

녀선생으로부터 난생처음 《단결》이요, 《무산계급》이요 하는 말을 들은 전시는 한동안 어정쩡해하였다. 비록 그 녀선생이 한 말뜻은 알수 없었으나 전혀 나쁜 말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음날부터 전시는 보육원의 원아들에게 더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육원에 대한 고까운 감정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고우성열을 포함하여 자기들을 《망나니》라고 한 말이 여전히 가슴속에 새겨져있었기때문이다.

전시네들이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앞을 지나갈 때마다 네마리의 큰 잡종개가 문구멍으로 뛰여나와 그들을 물려고 달려들군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집안에 대고 《개 좀 보라요. 사람을 물려고 해요!》하고 소리쳐도 누구 하나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어느 한 사람은 얼굴을 내밀고 뻔히 보면서도 개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전시와 샤오망즈는 이 개들이 다시는 달

려들지 못하게 단단히 혼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개들을 골탕먹이겠는가 하고 거듭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하나 생각해냈다. 참새를 구워 그속에 바늘을 꽂아넣어 개한테 먹이자는것이다. 그래서 짐을 날라주는 여가를 리용하여 참새를 잡는 늙은이한테서 참새 한마리와 바늘을 얻어왔다. 이슥고 밤에 굴안에서 그 참새를 구운 다음 바늘들을 사방에 꽂아넣었다.

다음날 아침 전시네들은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 쌍놈의 개새끼들, 두고보자.》하고 벼르면서 평지붕집앞을 지나갈 때였다. 개들이 막 달려나오자 제꺽 그 구운 참새를 개에게 던져주었다. 그중 제일 크고 검누른 개가 다른 개들을 물어제끼고 덥석 그 참새를 씹어삼켰다. 잠시후 그 큰 개가 갑자기 캥캥거리면서 나딩굴더니 이어 태질하기 시작하였다. 전시네들은 슬그머니 그자리를 뜬 다음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서 살펴보니 바늘을 삼킨 그 개가 여전히 처참하게 울고있었다.

《퉤! 싸지, 쌍놈의 개새끼 또 덤벼들어봐.》

샤오도우즈는 어찌나 속시원했던지 한발을 힘있게 구르고는 침을 탁 내뱉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틀이 지나 전시네들은 개들의 동정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평지붕집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전같으면 막 달려나와 기승을 부리던 개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문안에서 짖어대고있었다. 그것도 단조롭게 몇번 짖고는 이내 그치는 것이였다. 웬일인가 하여 문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마리의 개가 모두 쇠사슬에 매여있었다. 그러나 구운 참새를 먹은 제일 큰 검누른 개는 보이지 않았다.

《참새를 먹은 그놈의 개가 죽은 모양이야.》

샤오도우즈는 속삭이듯 말했다.

《주인이 잡아치웠겠지.》

이번에는 샤오망즈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는 평지붕집앞을 지나갈 때 더는 개한테 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였다.

전시네 네 아이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것처럼 차바퀴자리

가 무질서한 도로를 따라 밀치락밀치락하면서 서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장난이 심한 전시는 곧바로 걸어가지 않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좌우로 비칠비칠하면서 걸어갔다. 게다가 입으로는 그 무슨 류행가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있는 샤오망즈를 건드려주기도 하였다.

원래 샤오망즈는 평소에 말을 잘하지 않는 성미였고 또한 주위에 대한 반응도 비교적 뜬 축이였다. 그는 거적때기같은 등거리를 걸치였는데 앞자락을 열어헤치면 마치 비늘을 씌운것같이 얼룩진 배가 보였다. 이것을 본 전시가 또 샤오망즈를 놀래주고싶은 생각이 들어 진흙을 빵처럼 빚어 그의 배꼽우에 찰싹 붙여놓았다. 그러자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샤오망즈가 참지 못하고 전시의 엉치를 한발로 차려고 들자 전시가 날래게 뺑소니를 쳤다.

비록 밥을 얻어먹으며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제나름의 생활이 있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 까닭에 장난도 심하고 롱질도 잘하며 웃기도 잘한다. 그렇다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뿐아니라 서로 배척하고 질시하는 일은 더우기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네 네사람들중 그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건드릴 때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는다.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내대고 도와나선다.

전시네들이 얼마쯤 가느라니 오른쪽앞에 무성한 나무숲이 나타났다. 먼저 샤오망즈가 걸음을 멈추고 둘레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나서 제꺽 고우성얼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에는 가마니에 넣은 짐이 그득히 실린 두대의 밀차가 있었다. 밀차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주인이 없는 밀차같았다.

이윽하여 고우성얼은 이미 밀차앞에 매여있는 바줄을 어깨에 메고 앞에서 끌고 샤오망즈는 뒤에서 힘있게 밀었다. 밀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어 전시와 샤오도우즈도 다른 한 밀차를 밀고 뒤따라섰다.

밀차가 어찌나 무거운지 마치 큰 쇠덩어리를 실은것 같았다. 얼

마 못가서 그들은 너무 힘들어 숨을 좀 돌리려고 하였다.
이 밀차에 무엇을 실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쥬탸오룽《도사》가 이미전에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둔것이 있기때문이다. 첫째로, 밀차를 넘겨받을 때와 지정된 장소에 날라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며 도중에 세워놓고 주인을 찾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둘째로, 밀차에 실어놓은 짐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며 절대로 뒤져보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이 두가지 요구를 위반했을 때에는 품삯을 주지 않을뿐아니라 아예 죽여버린다는것이였다.
해가 중천에 떴어도 도로에는 행인들이 아직 많지 않았다. 마침 이 계절은 산간지대에서 나는 열매와 약초들을 채취하는 시기였다. 례하면 돌배와 머루, 개암과 다래, 참나무버섯 등이 있고 또한 도라지, 구기자와 불로초 등 없는것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한창 사냥계절이였다. 그러니 농사군들은 성시에 드나들 사이가 없었고 산간지대에로 통하는 이 도로에는 이른아침뿐아니라 대낮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서쪽으로 더 가느라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느면 크지 않은 벌이 나지고 도로 남쪽에는 검푸른 콩밭이 있다. 북쪽에는 거의 막물진 참외밭이 하나 있다.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거무충충한 와이포산이 보인다. 바로 그 와이포산에서 비적들이 준동한다고들 하여 사람들은 거기에 갈념을 못하였다.
앓다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는 고우성얼은 워낙 몸이 허약한데다가 그 무거운 밀차를 끌고가자니 온몸이 비지땀으로 흠뻑 젖었고 두다리를 사시나무떨듯 후들후들 떨었다. 이것을 본 샤오망즈는 가슴이 아팠다.
《성얼아, 바줄을 밀차우에 올리던져. 내 혼자서 밀고가마.》
《망즈형, 혼자서 어떻게 밀고간다구 해?》
《일없어. 내 걱정말아. 빨리 비켜. 말 안들으면 쥐박겠어.》
고우성얼은 멈춰서서 얼굴에 난 땀방울을 팔굽으로 문대며 주눅이 든 눈길로 샤오망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지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하였다.

《형, 일없어.》
샤오망즈는 고우성얼에게 다가가 자기의 등거리를 벗어 그에게 넘겨주고나서 그의 이마에 내밴 땀까지 닦아주었다.
《됐어, 넌 끌지 말어. 뒤에서 따라오기만 해.》
《형도 땀…》하고 고우성얼은 샤오망즈의 이마에 촘촘히 내밴 땀방울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망즈가 그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됐다는데. 비켜. 안비키면 널 박아주겠어.》
샤오망즈가 말끝마다 《박아준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한번도 고우성얼에게 손댄적은 없었다. 이것은 샤오망즈가 무조건 자기의 말대로 하라는 일종의 높은 《요구성》이라는것을 고우성얼은 잘 알고있다.
샤오망즈가 거듭 재촉했으나 고우성얼이 바줄을 몸뒤로 가져다대고 놓지 않으려 하자 그는 바줄을 빼앗아 밀차우에 올리던졌다. 고우성얼은 눈물이 글썽해서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고우성얼은 원래 산둥성에서 살다가 부모들을 따라 여기 쑹쟝시에 피난해왔다. 두달전까지 성안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그만 가족모두가 장티브스에 걸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지에서 사망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경찰서에서는 그의 부모들의 시신을 쓰레기차에 싣고 어디론가로 가서 내버렸다고 한다. 그때 고우성얼은 부모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치며 비통하게 울었다. 이것을 본 샤오망즈가 겨우 달래여 고우성얼을 부모들의 시신에서 떼여냈다. 그때로부터 샤오망즈가 고우성얼을 데리고 전시, 샤오도우즈와 함께 밥을 동냥하면서 살아왔다. 샤오망즈는 자기가 배를 곯으면서도 얻어온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우성얼에게 먹이였고 전시와 샤오도우즈랑 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약을 구해왔다. 그래서 장티브스를 앓던 고우성얼이 어느정도 완치되였던것이다.
지금도 샤오망즈는 고우성얼의 병이 다시 도지지 않겠는가 하고 늘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그가 얼른 고우성얼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었다.

《성열아, 배고프지?》

고우성열이 처음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가로저었다.

《아니, 배고프지 않아.》

샤오망즈는 고우성열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먹을것을 좀 구해다가 그에게 먹인 다음에 떠나리라 작정하고 뒤따라오는 전시를 멈춰세웠다.

《왜 그래?》 전시는 밀차를 세우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뭘 먹을것이 없을가?》 샤오망즈가 조용히 물었다.

전시는 허물이 난 왼쪽눈을 껌벅이다가 느닷없이 샤오망즈의 배를 툭툭 건드리면서 익살스럽게 한마디 하였다.

《어랍쇼. 이 배님이 먹을것을 좀 달래? 그런데 말이야, 이 배를 채울 진수성찬이 어디 있어야지. 좀 참으려무나.》

그러자 샤오망즈는 전시의 엉치를 한발로 차면서 《고우성열이한테 먹이려고 그래.》하고 말하였다.

《응, 그래?》

샤오망즈의 말뜻을 알아차린 전시는 이어 주위를 한번 빙 둘러보았다. 마침 도로의 북쪽켠에 있는 참외밭이 보였다.

《아직 참외가 있을가? 내가 가서 보구 올게 좀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난 전시가 참외밭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샤오망즈가 덥석 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우리 이 밀차를 감춰두고 가보지 않을래? 혹시 누가 보면…》

《아, 그렇지. 에익, 형님 말씀이 옳소이다.》하고 전시는 맞잡은 두손을 높이 흔들면서 익살을 부렸다. 이것을 보고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열이 모두 키득키득 웃었다.

전시와 그 동무들은 다시 밀차를 밀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전시는 천성적인 락천가였다. 그는 어떠한 불행과 지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결코 락심하거나 주저할줄 몰랐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자주 극장에 몰래 들어가 연극도 보고 재담도 들어온데다가 거리를 방황하면서 어려운 생활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보았기때문일것이다. 그도 역시 수난에 부대끼던 가난뱅이집 자식이였다.

전시는 원래 와이포산에서 멀지 않은 위슈촌에서 살았다. 2년전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날 목재소의 감독을 하던 차오광단이 그의 아버지를 강제로 내몰아 나무를 찍게 하였다. 그날 아버지는 두아름되는 큰 나무통에 깔려 그만 잘못되였다. 그후 얼마 안있어 차오광단은 곱게 생긴 그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기 첩노릇을 하라고 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더이상 살아갈수가 없어 밤에 목을 매달고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시를 보고 어떻게 하나 살아서 전씨의 대를 꼭 이어야 한다고 유언하였다. 이렇게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살아오면서 불평등한 이 세상을 저주해오던 전시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자 방랑아들속에서 자칭 《손오공》노릇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온것이다.

전시와 샤오망즈는 두대의 밀차를 산밑에 있는 돌바위뒤에 숨겨놓고 참외밭과 멀지 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윽하여 전시는 참외밭 한가운데 있는 원두막을 조용히 가리켰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먼저 가서 그 령감이 뭘 하는지 보구 손쓰겠어.》

샤오망즈는 전시가 엉뚱한데가 있어 이런 일은 잘하리라고 생각했지만 한쪽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조심해라. 그 령감의 낫에 찍히우지 말구.》

《걱정말어. 내 제꺽 해치우고 올테니.》

전시는 입을 한번 삐죽해보이고는 이어 참외밭으로 다가갔다. 풀잎에 이슬이 어찌나 많은지 전시는 얼마 안가서 두다리가 흠뻑 젖었다.

비록 막물이라고는 하지만 눈여겨보니 아직 그닥 시들지 않은 넝쿨밑에 적지 않은 참외가 달려있었다. 요즈음 날씨가 가문데다가 물기가 얼마 없어 참외가 이를데없이 맛있을것이다. 허리를 굽히고 원두막뒤로 에돌아간 전시는 귀를 강구고 막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사람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귀를 수수대로 엮은 벽

에 더 가까이 대고 듣던 전시는 그만 흠칫하였다. 안에서는 웬 사람들이 수자맞추기놀음으로 술먹기내기를 하는것 같았다.

누가 여기서 술놀이를 하고있을가? 참외를 가꾸는 농사군령감일가? 아니, 그는 술놀이를 할 처지가 못되는 사람이야.…

전시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문앞쪽으로 옮겨가서 흙이 떨어진 담벽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전시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두사람이 술을 마시고있는데 그중 한사람은 뜻밖에 자기들에게 일을 시키고 무술을 배워주는 그 쥬탸오룽이였던것이다.

큰 체통에 눈과 입이 마치 세점으로 찍어놓은듯한 네모난 얼굴이며 웃옷자락을 열어헤친 앞가슴과 팔에 새긴 아홉마리의 룡대가리, 그의 모습을 보면 떠돌아다니면서 무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과 흡사하였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향불을 가지고 몸에다 룡대가리와 같은 짐승들과 글자를 새기는데 그렇게 새긴 그림과 글자는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전시와 그의 동무들은 이 쥬탸오룽을 제일 무서워하였다. 한것은 이 《도사》를 잘못 노엽혔다가는 무술을 못배우는것은 둘째치고 맞아죽던가 그렇지 않는다 해도 별반 좋은것이 없었던것이다.

팔로군이 이 도시에 들어온 다음부터 쥬탸오룽을 거리에서 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다나니 전시네들은 무술을 배울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 쥬탸오룽은 전시네들을 어쩌다 만나도 그전처럼 욕하거나 때리지 않고 비교적 좋게 대해주었다.

사실 이 쥬탸오룽은 그들에게 무술을 변변히 배워준적이 없었다. 남들이 하는 무술동작을 모방해서 흉내를 냈을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전시네들은 이 《도사》를 존대하지도 않았을뿐아니라 몹시 미워했다. 정말이지 이 두해동안에 저 쥬탸오룽이 전시네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가.

전시는 이 쥬탸오룽이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고 또한 왜 여기서 술놀이를 하고있는지 무척 궁금해났다. 그래서 그는 두눈을 부릅뜨고 원두막안을 더 깐깐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두사람이 다 허리춤에 싸창을 차고있는것을 보았다.

(이놈들이 혹시 비적이 아닐가?)

이런 의혹이 머리속에 실리자 저도모르게 짚이는 생각이 있어 전시는 조용히 동무들이 있는데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그 순간 갑자기 원두막안에서 국자가 가마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오는것이 아닌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전시는 다시 조심스럽게 담벽에로 다가갔다. 한쪽눈으로 담벽구멍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는 그만에야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들을 못살게 굴다가 끌내 죽게 한 목재소 감독 차오광단이 번대머리를 번들거리며 소매를 걷어올린채 끓는 가마에다 만두를 넣고 있는것이 보였기때문이였다.

전시는 얼떨떨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참외를 지키는 령감은 왜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같지 않은 저런 놈들이 어떻게 돼서 여기에 와서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있는가?

련이어 여러가지 의문을 던지던 그는 별안간 부모들의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시에 떠올랐다. 원래 그전에 부모들이 억울하게 죽은 후 전시는 언제든지 차오광단을 찾아 꼭 복수하리라고 속다짐하고있었던것이다. 만일 부모들의 복수를 하지 못하면 어찌 자식이라고 하겠는가. 마침내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절대로 놓치면 안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수하겠는가? 그놈들한테 총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놈들한테 맞아죽을수 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병이 나은지 얼마 안되는 고우성얼이 배고파하는데 무엇을 빨리 구해다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지금은 부모들의 원쑤를 갚는것보다 먹을것을 먼저 구하는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전시는 가마에서 끓고있는 만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만두를 고우성얼에게 갖다먹이면 얼마나 좋을가. 배도 채우고 몸보신도 하고…

문득 그에게 좋은 수가 한가지 떠올랐다. 그는 곧 샤오망즈가 있는데로 되돌아왔다.

《고우성얼이 먹을 복이 있는걸. 좀 있다가 만두를 먹자구.》 전시는 너스레를 떨면서 장담하였다.

《정말?》 샤오망즈가 그에게 따져물었다.
《그럼.》
전시는 능청스러운 표정을 짓고 고우성얼과 샤오도우즈를 끌어안으며 방금전에 있었던 일을 죄다 이야기했다.
《안돼. 그러다가 잡히면 어쩔려구?》
샤오도우즈는 근심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겁쟁이같은것. 담이 작아선 아무것두 못해!》
전시는 두눈을 연방 깜빡거리며 만두를 가져올 방도를 말했다. 전시가 내놓은 방도에 대해 듣고있던 샤오망즈는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못해 찬성하였다.
《좋아. 만약 가서 일이 잘 안되면 즉시 돌아와야 해.》
전시가 내놓은 방법은 아주 단순하였다. 전시는 샤오도우즈를 데리고 원두막으로 가고 샤오망즈는 고우성얼을 데리고 참외밭으로 들어갔다.
얼마 안있어 참외밭에 들어간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이 갑자기 곤두박질하듯 참외밭밖으로 내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단났어요.… 팔로군이 와요! 팔로군이 와요!…》
이어 두 아이는 날래게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러자 이 고함소리에 놀라 원두막안에서 술추렴을 하던 쥬탸오룽과 다른 한놈이 각기 싸창을 빼들고 후닥닥 뛰쳐나와 가까이에 있는 수수밭으로 정신없이 달아나는것이 보였다. 가마에서 다 익은 만두를 뜨던 차오광단은 처음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다가 뒤늦게야 숨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시가 들어와서 상에 있던 술병을 들고 그놈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다. 차오광단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문짝이 넘어가듯 쾅 하니 나가자빠졌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조리를 잡은 샤오도우즈는 가마안에 있는 만두를 소랭이에다 와락와락 퍼담고나서 이어 상우에 있는 통닭구이까지 집어들었다. 그런 다음 허리를 굽히고 숲속으로 냅다 뛰여갔다. 전시는 뒤에서 주위를 살피면서 그의 뒤를 따라 숲속으로 돌아왔다.
원두막주변에는 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다만 참외밭 한가운데서

한마리의 찌르레기가 찍찍거리며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있을뿐이다.
그러나 전시는 모든 일을 면밀히 타산하지 못하였다. 수수밭에 숨었던 쥬탸오룽과 다른 한놈(《금붕어눈》이라는 놈인데 눈이 금붕어눈처럼 생겼다 하여 그렇게 별명을 붙인것이다.)이 전시와 샤오도우즈가 만두와 통닭구이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는것을 보았다.
얼마후 더 다른 정황이 없자 그들은 전시의 수에 속히웠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쥬탸오룽과 금붕어눈은 싸창을 허리춤에 찔러넣고는 다시 원두막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차오광단을 붙들고 연거퍼 흔들어댔다.
《여, 깨여나라구. 어서 깨여나란데.》
한참만에야 차오광단이 정신이 들어 두눈을 천천히 떴다.
《팔… 팔로군이 갔어?…》
《팔로군은 무슨 놈의 팔로군이야. 쌍놈의 새끼들. 그 밀차를 미는 가난뱅이새끼들이 한짓이야. 있다가 내 그 새끼들을 몽땅 해치우고말테다.》
쥬탸오룽이 퉤 하고 침을 내뱉고나서 기염을 토했다.
《뭐, 가난뱅이새끼들?…》
번대머리를 몇번 흔들흔들하던 차오광단은 다시 쓰러졌다.
전시네들이 지금까지 날라다준 짐은 비적들의 군수물자였다.
매일아침 일찌기 비적들은 누구도모르게 군수물자를 실은 두대의 밀차를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앞에 있는 수림속에 조용히 갖다놓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전시와 그의 동무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통로를 따라 와이포산까지 날라가는것을 감시하군 하였다. 이것이 바로 쥬탸오룽이 짐을 넘겨받고 넘겨줄 때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되며 도중에서 주인을 찾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규정의 진의도였다. 놈들은 이렇게 타산하고있었다. 만약 팔로군에게 발견된다고 해도 자기네 사람들은 잡힐 우려가 없는것이고 다만 손해볼수 있는것은 기껏해서 두 밀차정도의 군수품뿐이다. 그 4명의 아이들이나 어떤 추궁을 받을수 있겠는데 그까짓 아이들의 생사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은 걱정할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걸려들수 있는것은 쥬탸오룽이다. 그러나 팔로군이 나타났다고 해도 아마 쥬탸오룽의 그림자도 잡지 못할것이다. 군수물자를 날라가는 전구간에 비적들이 설치한 감시초소가 있기때문에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서로 련락하게 되여있었다. 지금까지 전시와 샤오망즈는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원래 오늘 전시네들을 감시하기 위해 도로주변에 나오게 된자들은 쥬탸오룽과 금붕어눈이였다. 그리고 목재소 감독이였던 차오광단은 위슈촌에 박혀있는 밀정이였는데 오늘따라 쥬탸오룽과 금붕어눈을 위해 한잔 하려고 일부러 참외지기령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술과 고기, 만두를 가지고 와서 감시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한때를 즐기려고 했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전시에게 발견되여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제 2 장

통닭구이와 만두를 전시네한테 다 떼우고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쥬탸오룽과 금붕어눈은 화가 치밀어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그들은 당장 무슨 일이라도 칠것처럼 으르렁거리다가 이발을 사려물고 전시네들을 찾아 떠났다.

그들이 원두막을 떠난지 얼마 안되였을 때였다. 수수밭에서 스적스적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한 사내아이가 불쑥 나타났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그는 한 열예닐곱살쯤 되여보였다. 동그란 얼굴에 한쌍의 검은 눈이 류달리 반짝이는 그는 얼핏 보기에도 보통 담찬 사내아이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의 걸음걸이가 어찌나 빠른지 몇발자국을 걷지 않은것 같은데도 벌써 원두막앞에 이르렀다.

원두막안에 들어선 그는 담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차오광단을 한

참 자세히 쳐다보기도 하고 또 원두막안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눈여겨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때 눈을 간신히 뜨고 약간 몸을 일으킨 차오광단이 의혹이 실린 시선으로 처음 보는 이 사내아이를 바라보았다.

《넌 또 누구야? 여긴 뭘 하러 왔어? 냉큼 나가지 못해!》

《주인님, 난 길가던 아이인데 배가 너무 고파 더 가지 못하겠어요. 좀 마음 쓰시여 도와주십시오.》

지금 차오광단의 뒤통수는 칼로 에이는듯이 아팠고 머리는 마치 허공중에 거꾸로 드리운듯 어질어질하였다. 그는 원래 밥동냥하는 거지들을 몹시 미워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성가시게 구는것을 보자 심사가 꼬여 더는 참을수 없었다.

《이 개새끼야! 먹을 밥이 있어두 개한테 주면 주었지 너같은 거지새끼한테는 안줘!》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요. 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구 안주겠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왜 욕하면서 야단이요.》

《야, 이놈! 그만한것두 약과인줄 알라. 썩 나가지 못해?!》

《당신은 지내 몰상식하구만요. 그러다간 제명에 못살아요.》

사내아이는 손을 홱 내젓고는 휭 하고 밖으로 나갔다.

사내아이가 나가자 차오광단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쾅쾅 내리치면서 《아이쿠! 정말 세상이 이렇게도 달라졌는가? 이젠 저 거지새끼들까지 큰소리를 치니… 아이쿠!》하고 통탄하다가 땅바닥에 또 쓰러졌다.

한편 원두막에서 나온 쥬탸오룽과 금붕어눈은 한참만에야 돌바위뒤에서 전시네들을 찾아내였다. 쥬탸오룽은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뒤에 숨어서 망을 보고 금붕어눈더러 혼자 가서 손을 쓰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시를 맨 먼저 해치우고 나머지 세 아이들은 혼쌀만 내주되 그것들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하였다.

4명의 방랑아들은 원두막에서 가져온 만두와 통닭구이를 삽시에다 먹어치웠다. 하루하루 밥을 동냥하여 먹는것에 비하면 그야

말로 진수성찬이였다. 웬만해서 먹기 힘든 만두와 통닭구이를 난생처음 먹어보는 그들이였다.

《전시형, 아까 망즈형보구 진수성찬이라는 말을 하더니 정말 생겼는데. 전시형은 앞을 내다볼줄 알거든.…》

샤오도우즈는 손에 묻은 기름기까지 말끔히 빨고나서 배를 슬슬 쓸어만졌다.

《그래서 이 전시를 손오공이라구 하는거야. 손오공이 손바닥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3만 8 000리를 내다본다는것을 몰라?》

전시는 손바닥을 이마우에 갖다대고 제법 손오공의 흉내를 내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자 모두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얘들아, 이젠 빨리 짐을 나르자. 늦겠다.》

먼저 전시가 일어서자 이어 다른 애들도 입언저리를 문대면서 뒤따라 일어섰다.

그들이 서둘러 밀차를 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금붕어눈이 싸창을 빼들고 나타났다. 서슬푸른 눈길로 전시네들을 쭉 훑어보던 금붕어눈은 입을 귀밑까지 찍 벌리고 째지는듯한 소리를 질렀다.

《이제는 다 처먹었으니 배들이 불렀겠지. 이번에 네놈들은 만두와 통닭구이를 채먹은 봉창을 톡톡히 치뤄야겠다.》

이렇게 뇌까리고 전시의 멱살을 와락 틀어잡은 금붕어눈은 그의 이마에 총구를 갖다대며 악의에 차서 지껄였다.

《이놈, 담도 크지. 음식을 채간것도 용서못할짓인데 술병으로 감독님을 까눕히고 도망쳐? 내 오늘 네놈을 염라대왕한테 보내서 지옥의 명부에 네놈의 이름을 써넣게 할테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놈은 전시의 머리꼭대기를 싸창으로 힘껏 내리깠다. 전시는 풀썩 그자리에 쓰러졌다. 이것을 본 샤오망즈는 더는 참지 못하고 범같이 몸을 날려 금붕어눈에게로 덮쳐들었다. 그가 금붕어눈을 부여잡고 막 때리기 시작하자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도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자 바위를 등지고 선 금붕어눈은 매를 맞으면서도 반격을 가할수 없었다. 놈은 두팔을 들어 허우적거리며 막는데만 급급하였다.

《이놈들… 네놈들이 담이 보통 크지 않구나.… 팔로군과 내

통… 하고있는게 분명해.… 이 나으리가 오늘 망나니같은 네놈들을 모조리 지옥에 보낼테다!》

금붕어눈이 마침내 싸창의 격철을 제끼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였다. 난데없이 한사람이 그림자마냥 바위우에 나타났다. 이 사람은 바로 원두막에 나타났던 허줄한 옷을 입은 그 사내아이였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손오공》처럼 추상같이 소리쳤다.

《가만!》

《응? 이건 또 뭐야?》

금붕어눈은 순간 흠칠 놀라며 고개를 휙 돌려 바위우의 사내아이를 일별하였다. 보니 그도 역시 밥을 동냥하는 거지였다. 그놈은 징그러운 이발을 드러내놓고 히죽이 웃으며 《거지 한놈이 또 뒈지려고 왔구나. 네놈부터 요정낼테다.》하고 총구를 들어 사내아이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사내아이는 날래게 몸을 옆으로 살짝 피하였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탄알이 귀전으로 뿅 하고 스쳐지나갔다. 거의 동시에 그 사내아이의 손에서 번쩍하는 그 무엇이 금붕어눈한테로 날아갔다. 그찰나 그놈은 윽 하더니 황소처럼 두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부여잡은채 통나무 넘어가듯 뒤로 쾅 하고 나자빠졌다.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그리고 고우성얼은 모두 깜짝 놀라서 금붕어눈의 가슴에 박힌것을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 단도였다. 샤오망즈네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윽고 바위에서 뛰여내린 사내아이는 허리를 굽혀 그 단도를 뽑아 신바닥에 대고 검은 피를 말끔히 닦은 다음 허리에 찬 칼집에 꽂았다. 뒤이어 금붕어눈이 떨군 싸창을 집어들고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보듯 둬번 들었다놨다하더니 웃으며 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동생들, 놀랐어?》

샤오도우즈는 가까스로 웃으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응, 좀…》

샤오망즈는 고우성얼을 부여잡은채 한참만에야 겨우 한마디 했다.
《형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주었군요. 정말 고마와요.》
이어 그 사내아이가 허리를 굽혀 땅에 쓰러져있는 전시를 끌어안으며 소리쳐불렀다.
《동생, 동생.》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고우성얼도 에워싸고 전시를 불렀다. 전시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속에서 피가 흘러나와 사내아이의 손을 붉게 물들였다. 샤오도우즈는 겁에 질려 막 울면서 사내아이에게 애원하였다.
《형님, 이애를 꼭 살려주세요. 예? 좀 살려주세요. 이애는 좋은 아이예요.…》
급해맞은 샤오망즈와 고우성얼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거듭 애원하였다.
이때 바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몇방 나더니 《그놈 잡으라. 그놈을 놓치지 말라!》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뒤따라 급한 발걸음소리가 한동안 들려오다가 잠잠해졌다. 조금후에 완전무장한 몇명의 팔로군들이 바위있는데로 달려왔다. 그중 한사람이 전시를 안고있는 사내아이에게 물었다.
《부상당했소?》
《예, 빨리 구급처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몸집이 건장한 한 팔로군전사가 두말하지 않고 전시를 안고 위슈촌마을쪽으로 달려갔다. 샤오도우즈는 울먹울먹하며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간청했다.
《나도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게 해줘요.》
사내아이는 그를 만류하였다.
《마음놓아라. 며칠 지나면 다 나을수 있어.》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고우성얼은 의혹이 가득 실린 눈길로 자기와 꼭같은 옷을 입고 꼭같이 가난해보이는 사내아이를 줄곧 바라보았다. 한마디 물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말문을 열수 없었다.
그 사내아이가 바위뒤에 세워둔 밀차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이것

저것 만져보고나서 나이가 비교적 많은 샤오망즈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무슨 짐을 나르니?》

《몰라요. 주인님이 못보게 해요.》

샤오망즈가 도리머리를 하며 낮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사내아이가 밀차에 실은 짐에 대해 물어보자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얼른 밀차에 다가가 등을 돌려대고 서있었다. 한것은 그 사내아이가 짐을 뒤져볼가봐 두려웠던것이다. 짐을 뒤지면 이미전에 쥬타오룽이 한 말대로 큰 변을 당할수 있었다.

사내아이는 옆에 있는 팔로군들을 피끗 바라보고는 웃으면서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동생들, 우린 다같이 밥을 얻어먹는 아이들이야. 우린 남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아. 이제부터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없애치우자꾸나.》

이때 샤오망즈는 참외밭옆의 숲속에서 한 전시의 말이 떠올랐다. 그것은 쥬타오룽과 금붕어눈이 원두막안에서 술놀이를 하고있는데 자기 부모들을 죽인 차오광단이란 놈이 만두를 끓여 그들을 대접한다는것이였다. 놈들이 총까지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아 다 같은 비적이 틀림없었다. 게나 가재는 다 같은 패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금붕어눈이 와서 총탁으로 전시를 까눕혔겠는가? 참말이지 마음 좋은 이 형님들이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전시뿐아니라 자기들도 모두 죽었을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쥬타오룽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진정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마음이 뒤틀리면 죽이려고까지 하니 그야말로 개보다도 못한 놈이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샤오망즈는 분개하여 가슴이 활랑거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샤오망즈는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깐놈, 우린 이제부터 쥬타오룽의 도움이 필요없어. 그놈도 이 죽은 놈과 한패다. 소뿔은 단김에 빼라구 했는데 오늘은 그 내막을 꼭 밝혀내고야말테다. 후에 쥬타오룽을 찾아가 결판을 짓자.》

노기등등한 샤오망즈의 모습을 바라보던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도 저으기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해 밀차바퀴를 냅다 차는것이였다.

《옜다, 그깐놈의 절반짜리 은돈은 없어도 된다.》

이윽고 힘이 센 샤오망즈가 밀차에 올라 와락와락 짐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맨우에 올려놓은것은 가마니였는데 헤쳐보니 그안에는 몽땅 석탄이 들어있었다. 그다음 가마니밑을 들여다보니 가지런히 놓인 나무상자가 보였다. 모두 묵직하였다.

이때 옆에서 새물새물 웃고있던 한 젊은 팔로군전사가 밀차의 짐을 깐깐히 살피다가 짬이 난 그곳에 손을 들이밀어 힘껏 잡아챘다. 그러자 삑 하면서 상자뚜껑이 못채로 뽑혀올라왔다. 샤오망즈가 다급하게 상자안에 덮어놓은 방습종이를 잡아제끼자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모두가 흠칫 놀랐다. 상자안에는 누런색탄알이 한가득 차있는것이였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도 그것을 보고 입만 쩍 벌리고 다물지 못했다.

사내아이는 이미 짐작하고있은듯 옆에 있는 팔로군전사들을 마주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때 또 몇명의 팔로군전사들이 달려왔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한놈의 비적이 도망쳤다고 한다. 두말할것없이 숨어서 망을 보던 쥬탸오룽이 도망친것이였다.

노상 새물새물 웃는 그 팔로군전사가 샤오망즈의 앞에 다가와서 짐을 나르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샤오망즈가 처음에 누가 자기들에게 일감을 알선해주었고 그의 생김새는 어떠하며 또한 매일아침 어디에서 짐을 넘겨받고 어디까지 날라다주며 누가 품값을 주는가 등에 대해 하나하나 대답해주고나서 말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열번 넘어 날랐는데 은돈을 절반만 받았구 나머지는 쥬탸오룽이 후에 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니? 계속 나르겠니?》

《아니, 그만둘래요.》

《왜?》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야요. 백푼을 준다 해도 안나르겠어요.》

《아니다. 집을 계속 날라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니?…》 젊은 전사가 웃으며 물었다.
《더는 나를수 없어요. 또 나르면 우린 그놈들한테 잡혀죽어요.》
샤오도우즈는 젊은 전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성급하게 대답했다.
《마음놓거라. 너희들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그의 말뜻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며 멍하니 바라볼뿐이였다. 그래도 밥을 몇해 더 먹은 샤오망즈가 그의 말뜻이 어느정도 리해되는지 좀 주춤해하다가 흔연히 대답했다.
《그럼 나르겠어요. 그런데 전시가 없으면 밀차 두대를 다 밀고 갈수 없어요.》
《응, 그건 걱정말아. 내가 있잖니.》
옆에 있던 사내아이가 제꺽 한마디 덧붙였다.
3명의 방랑아들은 일제히 그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듯 좋아라고 손벽을 쳤다.
《좋아요. 형님하구 같이 있으면 우리도 무섭지 않아요!》
한참 말을 주고받던 샤오망즈가 불쑥 두대의 밀차를 바라보면서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그럼… 이 밀차들은 어떻게 할가요?》
《상자뚜껑을 원래대로 박아넣구 그다음 지정된 장소에 날라가면 돼.》
이번에도 그 꼬마전사가 새물새물 웃으며 말하였다.
이윽하여 팔로군전사들은 저들끼리 무엇이라고 한참 토론하다가 인차 수림속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여기에 떨어진 그 사내아이는 샤오도우즈와 함께 한 밀차를 밀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은 다른 한 밀차를 밀고 원래 가던 도로를 따라 와이포산기슭에 있는 산신당뒤에까지 날라갔다.
이 산신당은 이미 황폐화된 곳이였다. 사방에 깨진 기와쪼각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담장도 볼품없이 무너져있었다. 또한 절

간안도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었다. 마사진 창문들은 바람에 삐거덕거리고 계단에 깔았던 돌들이 뽑히워 여기저기 나딩굴고있었다. 산신상은 이미 땅바닥에 너부러져있는데 머리는 떨어져나와 한쪽구석에 놓여있었다. 《산신령자리》라는 누런 글자로 쓴 편액은 붉은색꽃무늬로 장식한 들보에 거꾸로 걸려있었다. 벽구석과 빈 공간에 이르기까지 온통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있어 그야말로 음침하고 어수선하였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절간은 어느 돈있는 부자가 지었다고 한다. 어느해 봄날 그 부자가 처첩을 데리고 이 와이포산에 경치구경을 하러 왔다가 공교롭게도 북산기슭에서 한쌍의 큰 곰들을 만났는데 그 곰들이 부자내외를 보자 으르렁거리며 따라왔다고 한다. 그 부자내외는 이제는 영낙없이 죽었구나 하고 아우성을 치고있는데 난데없이 한마리의 큰 범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곰들이 무서워 냅다 달아났다고 한다. 이렇게 구원된 부자는 그후 범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이 와이포산근처에 산신당을 짓고 해마다 여기에 찾아와 향불을 피우고 산신(그 지대에서는 범을 산신이라고 한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사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일것이다. 그 부자가 바로 이런 속임수로 자기의 영상을 높이고 사람의 운명은 이미 주어져있는것처럼 백성들을 우롱했을것이다.

그 사내아이는 산신당의 안팎을 한바퀴 돌아본 다음 샤오망즈네들과 함께 인차 성시로 돌아섰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서로 허물없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속마음을 터놓았다. 특히 밥을 동냥하는 이 형님이 전시를 구원해준데 대해 샤오망즈네 세 아이들은 더 말할나위없이 고맙게 여기였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그 사내아이에 대한 여러가지 수수께끼같은 의문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그 하나는 성안에서 이런 마음 좋고 무술이 높은 가난뱅이형님을 처음 보는것이고 다음은 비적과 팔로군이 서로 대치하고있는 와이포산근처에서 그를 만나게 된것이다.

성시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오다가 샤오망즈가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물었다.

《형님, 이름은 어떻게 부르구 집은 어데 있나요? 그리구 여긴 어떻게 오게 되였는가요?》

《난 왕샤오린이라구 한다.》

사내아이는 웃음을 담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의 얼굴엔 그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비껴있었다.

《난 집두 직업두 없어. 가는데가 나의 집이다. 너희들과 같애.》

《그럼 칼쓰는 법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불쑥 샤오도우즈가 물었다.

《스승한테서…》

《그 스승은 어데 있나요?》

《그 스승은 산둥성에 있었는데 한때 의화단폭동에도 참가하였고 또한 양놈들도 많이 죽였단다.》

《형님두 내내 사람을 죽이는가요?》

이때까지 아무 말없던 고우성열이 입을 열었다.

《아니, 누가 나를 해치려 할 땐 그놈을 죽여버리지.》

《응, 나두 형님처럼 그런 재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샤오도우즈는 부러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 배우고싶니?》

《나? 배우고싶어요. 헌데 형님이 배워줄수 있나요?》

《그럼. 네가 배우겠다면 제자로 받겠어.》

《정말?》

《정말 아니구. 후회하지 않겠니?》

《아니.》

《좋다. 그럼 손가락을 걸자.》

《걸자.》

두 소년은 힘있게 손가락을 걸었다.

《우린 굳게 약속했어. 죽을 때까지 변치 말자.》

샤오도우즈는 손가락을 걸고나서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였다.

《난 좋게 됐어. 난 좋게 됐단 말이야.》

샤오도우즈가 손가락을 건것을 보고 어진 고우성열도 마음이 근

질거리기 시작했다. 그도 자기를 보호할수 있는 재간을 배우고 싶었던것이다. 그러나 왕샤오린이라는 형님이 자기를 제자로 받아줄수 있겠는지? 그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가 도로 내리웠다.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담?

옆에서 손가락을 들고 주춤거리는 고우성얼의 마음을 알아차린 왕샤오린은 빙그레 웃었다.

《고우성얼이도 배울 생각이 있니?》

순간 고우성얼은 너무 기뻐 《나두 배우고싶어요.》하고 말하려고 하다가 슬며시 머리를 숙였다.

《난 둔해서… 그래두 받아줄수 있나요?》

《그렇잖구. 네가 둔하다구 누가 그러던? 그건 허튼소리야.》

《그럼… 나하구두… 손가락을 걸수 있나요?》

《있잖구, 자!》

이렇게 말하며 왕샤오린은 고우성얼을 끌어안고 그의 손가락을 힘있게 걸어주었다.

고우성얼은 너무 기뻐 눈언저리에 눈물이 글썽하니 고였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기를 진정 사람으로 여기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때문이다. 그는 옆에 멍하니 서있는 샤오망즈를 끌어당기며 왕샤오린에게 말했다.

《여기 우리 망즈형과도 걸어줘.》

《거야 물론.》

왕샤오린은 대범하게 샤오망즈와도 손가락을 걸었다. 뒤이어 두팔을 벌려 이 3명의 불쌍한 방랑아들을 한품에 꽉 껴안았다.

《이제부터 우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다. 전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우린 생사고락을 함께 하자꾸나.》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그리고 고우성얼, 이들의 세쌍의 눈길이 새로 사귄 이 마음 좋은 형님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못했다.

이것이 어떤 꼬임수가 아닐가 하는 의심쩍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들은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에게서 《거지》라고 불리우며 온갖 모욕과 멸시만을 받아왔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왕샤오린에게서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기색은 조금도 볼수 없었다.

노상 입이 무겁고 성격이 듬직한 샤오망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샤오린형, 우리와 진정한 친구로 사귀려고 한다면 다같이 남천문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맹세하자요.》

그들이 아직 마음놓지 못하고있음을 간파한 왕샤오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남천문을 향해 맹세하자.》

이렇게 말하고나서 왕샤오린은 세 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의 도랑을 넘어 풀밭에 이르렀다. 그가 먼저 남쪽을 향해 무릎을 꿇자 이어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고우성얼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왕샤오린이 선창을 했다.

《민국 사십륙년 구월 오늘부터 나는 샤오망즈와 전시, 샤오도우즈, 고우성얼과 한형제이다.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한다.》

이어 샤오망즈가 왕샤오린이 하는대로 맹세를 다졌다.

《민국 사십륙년 구월 오늘부터 나는 왕샤오린과 전시, 샤오도우즈, 고우성얼과 한형제이다.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한다.》

샤오망즈가 맹세한 다음 이어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도 그들처럼 맹세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샤오망즈가 전시를 대신하여 맹세를 하였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비치는 해빛이 사람들에게 류달리 따스한감을 주고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수수밭에서는 마치 큰 대오가 지나가듯 쏼랑쏼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흰솜같은 한덩이의 구름이 서쪽으로 서서히 떠가고있었다. 뒤숭숭한 세월속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악독한 세력과 싸우려고 불우한 아이들이 결의형제를 맺은데 대해 어떤 사람들은 철부지들의 유치한 소행이라고 여길수 있다. 하지만 행복한 생활과 광명한 래일에 대한 그들의 지향과 념원은 한없이 진실하고 귀중한것이였다.

결의형제를 뭇는 《의식》이 끝난 다음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왕샤오린의 손을 각각 잡고 너무 좋아 껑충껑충 뛰며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형제를 만난듯 기뻐했다. 줄창 의혹에 찬 눈길로 왕샤오린을 바라보던 샤오망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샤오린형, 아무리 봐도 형님은 한갖 밥을 얻어먹는 거지같지 않아요.》

《뭘 보구 그러니?》

왕샤오린은 여전히 웃으며 물었다.

《형님이 팔로군과 잘 알고있고 또한 그들과 잘 휩쓸리지 그리구 금붕어눈을 죽이구 싸창까지 뺏아 몸에 척 차는것을 봐선 아무리 생각해두 거지갈지 않아요.》

왕샤오린이 제창 대답하지 않고 반문하였다.

《얘들아, 너희들 보기엔 팔로군이 좋니, 나쁘니?》

샤오망즈가 눈만 깜빡거리며 말을 못하자 뒤이어 고우성얼이 말문을 이었다.

《글쎄,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적보다 강한것 같애.》

샤오도우즈가 제꺽 말줄기를 이었다.

《아니, 셈판없이 강해.》

왕샤오린은 세 형제들을 땅에 앉게 한 다음 잠시 망설이다가 침울한 기색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먼 남방에 있었다. 너희들처럼 몹시 가난했단다. 후에 우리 지방에서 홍군이 조직되였다.…》

《홍군이란 뭐나요?》 샤오도우즈가 성급히 물었다.

《못사는 사람의 군대란다.》

《못사는 사람에게도 군대가 있나?》

《그럼, 있지. 지금의 팔로군이 바로 그때의 홍군이란다.》

《그럼 팔로군도 못사는 사람들의 군대란 말이나?》

《그래, 팔로군은 못사는 사람들의 군대란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전에 홍군에 참가했단다. 그때 내 나이는 일곱살이였지. 홍군으로 떠나갈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모네 집에 맡겼어. 얼

마 안있어 우리 이모네 마을에 국민당반동파들이 달려들었어.》

《국민당반동파란 뭐나?》 역시 샤오도우즈가 물었다.

《비적과 같은 나쁜 놈들이지. 이놈들은 홍군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죽였단다. 씨종자도 놔두면 안된다는거야. 그래서 우리 이모는 내가 놈들의 손에 잡힐가봐 뒤산으로 몸을 피하라구 했어. 후에 알게 되였는데 우리 이모와 이모부는 모두 그 놈들한테 학살당했어.》

《국민당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격분하여 한마디씩 했다.

《난 이모네 집에서 도망친 다음 줄곧 밥을 빌어먹으면서 다녔지. 그러던 어느날 한 교예업자가 내 몸매가 날씬하구 팔다리동작이 빠르다면서 나를 받아줬어. 그렇지만 교예업자는 나를 사람취급을 하지 않았어. 내 몸주위에 대구 칼던지기련습을 하지 않겠니. 이것봐.》

샤오린은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팔에는 온통 상처자리였다.

《난 몇번 죽을번 했는지 몰라. 그래서 후에 나두 몰래 칼던지기련습을 했지. 물론 내가 칼던지기련습을 한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쑤를 죽이구 국민당반동파와 같은 나쁜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지. 난 칼던지기기술을 배운 다음 몰래 도망쳤어. 그리구 밥을 얻어먹으면서 예까지 왔단다.》

《여긴 어떻게 왔나요?》

덤덤히 있던 샤오망즈가 얼른 끼여들어 한마디 물었다.

《듣자니 여기에 팔로군이 있다구 해서. 그래서 팔로군에 입대하여 원쑤를 갚으려고 해. 헌데 그들에게 몇번 사정해봤는데 지금은 비적을 잡느라구 바빠서 그러는데 한 며칠 지나서 비준해주겠다나. 그래서 그들을 좀 알게 되였지.… 그리구 이 총은…》 샤오린은 옷섶을 헤치고 방금전에 금붕어눈에게서 빼앗은 싸창을 꺼냈다. 《비적을 잡기 위해서 가지고있자는거다.》

왕샤오린의 설명을 한바탕 듣고서야 샤오망즈네들은 품고있던 의문들이 어느정도 풀리기 시작하였다.

샤오망즈는 활기를 띠고 왕샤오린에게로 다가들었다.

《샤오린형, 우린 다같이 부모도 없구 집도 일자리도 없어요. 다 원쑤를 갚을 기회만 기다리고있어요. 형님, 우리한테두 칼쓰는 법을 좀 배워달라요. 그리구 총두 하나 구해줘요. 어때요?》

《좋다, 그렇게 하자.》 왕샤오린은 흔연히 대답하였다.

제 3 장

1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와이포산은 마치 뼈만 앙상한 괴물의 몸뚱이를 련상시켰다. 맑은 날에는 바위들이 해빛에 비쳐 살아있는듯이 번뜩거리고 흐린 날에는 특히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에는 마치 누워있는 괴물이 하늘을 올려다보는듯 하였다. 와이포산에는 깊고 험한 골짜기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있고 가파로운 바위들에는 서로 관통된 천연동굴들이 헤아릴수없이 많았다.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가는 다시 되돌아나올수 없는 정도로 산세가 몹시 험하였다.

여기에 바로 베이만(북만)의 비적집단 《광복군》의 한개 지대가 둥지를 틀고있었다. 두목은 한때 괴뢰만저우국 쑹쟝시경찰서장을 하던 마치이고 참모장은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이며 전 위만군장교였던 구나이린이였다. 이 《광복군》지대에는 직접 국민당 난징정부와의 다리역할을 하는 한 녀특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녀특무는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기때문에 마치와 구나이린을 내놓고는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여기 비적들은 강요에 의해 끌려온 농사군들을 내놓고는 대다수가 괴뢰만저우국때의 형형색색의 출신들로 꾸려져있었다. 이를테면 허세를 부리던 반동관료배들과 위만군에 복무했던자들, 가난뱅이의 등껍질을

벗겨먹던 지주들과 부농나부랭이들 그리고 일본놈의 앞잡이들과 특무들, 깡패들과 건달배들이였다. 14년동안 믿고 의지해오던 일제놈들이 패망하고 가난뱅이들을 보살펴주는 공산당의 팔로군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자 자기들의 운명이 끝장났다는것을 느낀 이놈들은 제각기 한 지역을 차지하고 공산당과 맞서려고 하는가 하면 적어도 대등한 지위에서 대상하려고 기도하였다. 지어 어떤 놈들은 《우린 너희들을 다치지 않으니 너희들도 우리를 다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계선을 긋고 각기 한쪽켠을 차지하자는 《담판》까지 제기해왔었다.

이 비적무리들은 결코 민가를 습격하여 재물이나 략탈하는 그런 토비들이 아니라 우로는 국민당상층부와 긴밀한 련계를 맺고 아래로는 여러 악당패들과 결탁하여 공산당을 없애치우고 옛 지위를 되찾으려는 정치적목적을 가진 비적들이였다. 그놈들은 충분한 무장장비들을 가지고있었는데 그것은 일제가 투항할 때 저들이 가지고있던 군수품을 몽땅 이 비적들에게 넘겨주었기때문이다. 《광복군》이 가지고있는 군수품으로는 한개 중대나 대대정도가 아니라 한개 련대 지어 사단까지도 장비할수 있었다.

쟝지에스도당은 동북의 전지역을 공산당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륙지와 해상, 공중을 통하여 저들의 군대를 대량적으로 들이밀었다. 하지만 쟝지에스의 병력도 제한되여있기때문에 창춘 이북에는 더 파견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넓은 동북지역에 병력을 분산시켜놓으면 팔로군이 하나하나 공격하여 각개격파할가봐 두려웠기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쟝지에스는 자원이 풍부한 창춘 이북의 넓은 땅을 공산당에게 쉽게 내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특무들과 관리들을 선발하여 유명무실한 위임장들을 주어 동북땅에 들여보냈다. 이 《파견원》들은 지난 기간에 만저우국에 관계했던자들이나 비적두목들을 만나 서로 손을 잡게 하였다. 그리고 비적들의 인원수와 전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직위와 관직을 밝힌 《위임장》을 수여했다. 그리고는 거기에 틀고앉아 국민당《파견원》의 권한으로 비적부대들을 감독통제하였다. 그들의 기본목적은 어

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팔로군이 발을 완전히 붙이기 전에 먼저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있다가 내란을 일으키는것이였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산당의 눈과 살속에 박힌 가시가 되여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며 못살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공산당중앙과 마오주석은 《공고한 동북근거지를 창설하자!》는 결정을 즉시 채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북지역에서의 투쟁이 간고하리라는것을 예견하여 《큰 길을 내주고 량쪽의 사랑채를 차지하자!》라는 전략적방침에 따라 사업중심을 국민당이 점령하고있는 도시와 떨어진 넓은 농촌지대에 둘것을 제기하였다. 팔로군의 전략은 동북근거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인민대중을 발동하는 한편 력량을 점차적으로 축적하였다가 일단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면 반공격으로 넘어가자는것이였다.

와이포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비적두목 마치는 비록 《광복군》의 관할하에 속해있지만 충분한 군수품을 가지고있는데다가 국민당의 《높은 관리》가 뒤받침해주고있기때문에 코대가 여간 높지 않았다. 표면상으로는 《광복군》총사령과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척 하지만 실상 돌아서서는 코방귀를 뀌였다.

마치의 비적들이 도사리고있는 와이포산밀림에는 사면팔방에 무수한 감시초소가 설치되여있었다. 일단 팔로군이나 낯선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면 감시초소에서 즉시 대화기(일본놈들이 넘겨준것이다.)로 마치에게 보고한다. 만약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비적들이 몽땅 출동하여 정면공격을 하거나 복잡한 지형을 리용하여 매복했다가 불의에 기습하는 전법을 썼다. 인원이 적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쏴죽이거나 혹은 생포하여 제놈들의 소굴로 끌고가군 했다.

이런 내막을 잘 모르고 최근에 팔로군들이 정찰을 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왔다가 여러번 실패를 당했었다.

이날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제 소굴로 돌아간 쥬탸오룽은 마치와 구나이린에게 산기슭에서 팔로군을 만났던 정형에 대해 죄다 보고하였다.

마치는 허우대가 크고 살진 얼굴에 살짝 곰보가 있어 별명을

《큰 서양말》이라고 불렀다. 그대신 구나이린은 바싹 마른 명태짝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라꽹이원숭이》라고 불렀다.

쥬탸오룽의 보고를 들은 마치와 구나이린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만약 팔로군이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도로에서 방랑아들을 만났다면 십중팔구 이 비밀수송통로가 그들에게 발견되였을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목조르기를 당할 위험이 조성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경우를 이미 예견하였지만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한편 쥬탸오룽은 처음에 전시가 차오광단을 찾아 한방망이 조긴것으로 보아 혹시 이 4명의 거지아이들이 이미 팔로군과 내통하고 있는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상한것은 만약 그들과 내통하고있다면 왜 샤오망즈가 팔로군이 온다고 소리쳤겠는가? 그리고 팔로군이 진짜 왔다면 왜 원두막을 포위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 않았겠는가?

약삭바른 구나이린은 이것이 혹시 우연하게 생긴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말하여 거지아이들이 만두를 먹기 위해 일부러 《범을 유인하여 양을 내쫓고 토끼들이 마음놓고 풀을 먹게 하는 전술》을 써서 원두막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있는 만두와 통닭구이를 모조리 걷어가지고 간것인데 우연히 그 근방에서 활동하고있던 팔로군들에게 발견되여 의심을 사게 한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치는 쥬탸오룽에게 사람을 데리고가서 두가지 일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첫째로, 산신당뒤에 가서 그 군수품을 실은 밀차가 그대로 있는가를 알아보라는것이고 둘째로, 차오광단의 생사여부와 위슈촌에 팔로군이 주둔하고있는가를 알아오도록 하는것이였다.

마치에게서 임무를 받은 쥬탸오룽은 혹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가봐 겁에 질려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거렸다. 그렇지만 그는 조폭하고 잔인한 마치에 대해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하는수없이 졸개들을 몇명 데리고 산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쥬탸오룽은 팔로군의 매복에 걸리지 않으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살짝살짝 옮겨가는 방법으로 산신당에 다가갔다. 그는 난데없는 총알에 맞을가봐 자기는 숨어서 살피고 졸개를 시켜 절간에 갔다오게 하였다.

얼마 안있어 절간에 갔던 졸개가 이죽거리며 돌아왔다.

《있어요. 두 밀차가 그대로 있수다.》

졸개가 한 말을 들은 쥬탸오룽은 혹시 이것이 팔로군이 놓은 미끼가 아니겠는가 하여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그놈은 다시 다른 졸개 두명을 시켜 절간 앞뒤와 안팎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다.

얼마 안있어 졸개들이 돌아와 팔로군은커녕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고 꼭같은 보고를 했다.

쥬탸오룽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려고 하였다. 그는 졸개들에게 농사군처럼 가장하고 행동하되 만일 팔로군을 만나도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단단히 훈시하고나서야 각기 나무단을 한짐씩 지고 두명, 세명씩 갈라서 산아래로 내려갔다.

산신당에 이르러보니 과연 뒤담장옆에 두대의 밀차가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본 쥬탸오룽은 대번에 눈에 거슬리기는 했으나 다른 졸개들은 이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표정이였다.

그는 그 밀차를 즉시 밀고가게 하지 않고 먼저 바위돌이 있는데로 가보았다. 금붕어눈은 죽은채로 너부러져있고 가슴팍에는 검은 피가 엉켜있었다. 그러나 싸창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팔로군들에게 맞아죽고 총은 그들이 걷어간것이 분명하였다.

쥬탸오룽은 가슴이 섬찍했다. 그때 자기가 머리를 써서 망을 보는척 하면서 숨어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금붕어눈처럼 이미 황천객이 되였을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자기는 하늘이 보살펴준 덕분에 살아난 행운아라고 생각하였다.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으면 후에 복이 차례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신을 더 바싹 차리고 살아야 하겠다고 그놈은 속다짐했다.

쥬탸오룽은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자고 졸개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이윽고 놈들은 일부는 곧바로, 일부는 도로와 떨어진 가시덤불길로 에둘러서 원두막을 향해 걸어갔다.

원두막안은 본래대로였다. 만두와 통닭구이가 없어진것을 내놓고는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지어 절반되게 마셨던 술고뿌까지 그대로 있었다. 다시 원두막에서 나가 살펴보니 밭에는 한쌍의 큰 발자국과 한쌍의 작은 발자국이 헨둥히 나있었는데 이것은 전시와 샤오도우즈가 왔다간 이외 그밖의 다른 사람이 더 오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원두막옆에는 약간한 피자욱이 보였다. 여기가 바로 차오광단이 쓰러졌던 자리였다.

이상의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차오광단은 죽지 않고 자기절로 일어나서 위슈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원두막의 안팎이 그대로 보존되여있지 못했을것이다. 이렇게 되자 쥬탸오룽은 어느정도 담이 좀 커지게 되였고 위슈촌에도 한번 가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놈은 제꺽 허리춤에서 싸창을 꺼내 잔등에 진 나무단속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한것은 사용할 때 편리하기도 했지만 자기 몸에 또 한자루의 싸창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쥬탸오룽뿐아니라 마치의 졸개들은 모두 한사람이 두자루의 싸창을 가지고있었다.

위슈촌어구에 이른 쥬탸오룽은 두명의 졸개를 남겨 감시를 서게 하였다. 만일 팔로군이 나타나면 총소리를 울리여 신호를 하라고 일러두었다. 나머지는 쥬탸오룽과 함께 마을로 들어갔는데 역시 서로 보일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제각기 걸어갔다.

한편 자기 집 구들에 누워있던 차오광단은 천정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원두막에서 전시에게 한방망이 얻어맞은 그는 다행히 죽지 않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머리가 쑤시고 아파 줄곧 누워있었다. 방금전에 녀편네가 알아본데 의하면 마을에는 한개 소대가량 되는 팔로군이 주둔하고있는데 그들은 늘 산기슭에 가서 수색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금붕어눈이 죽기 전에 싸창손잡이로 내리깐 그 전시라는 거지아이는 팔로군들이 안고와서 마을 동쪽에 있는 류가네 집에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한다. 만약 전시의 상처가 다 나으면 자기 손에 죽은 부모들의 복수를 하

려고 늘 벼르고있을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자기에게 큰 위협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화근을 어떻게 없앨것인가?

직접 찾아가서 아예 없애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무사치 못할것이다. 단둘이 만나 몰래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기회가 생기겠는가. 그러니 부득불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다음 기회를 보아 그들이 전시를 죽이게 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는 또 다른 생각도 해보았다. 마을에 주둔하고있는 팔로군이 한개 소대밖에 안되니 제꺽 산에 련락을 띄워 밤에 조용히 내려와서 몽땅 소멸해치우면 되지 않겠는가.

차오광단이 이런 생각을 굴리고있는데 비적 한명이 집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뒤따라 쥬탸오룽도 그의 앞에 나타났다. 순간 차오광단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앉으며 황소같이 두눈을 부릅떴다.

《하느님맙시사. 자네들이 어떻게 왔나? 지금 마을에 팔로군이 주둔하고있는데.》

그 말에 쥬탸오룽은 너무 놀라 온몸이 그대로 굳어져 독안에 든 쥐처럼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줄로 생각했다. 비록 손에 총을 들고있지만 두다리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렸다.

《빌어먹을것. 그럼 왜 아직두 산송장처럼 그냥 누워만 있어. 빨리 산에 소식을 띄우지 못하구.》

쥬탸오룽은 성이 독같이 나서 두눈을 부라렸다.

《나두 지금 생각하고있는중이네.》

《제길할! 그놈의 생각만 하고있다가 우리가 다 귀신이 된 다음에…》

쥬탸오룽의 욕설에 차오광단도 어지간히 언짢았지만 치밀어오르는 노기를 가까스로 참으며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는 쥬탸오룽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쑤군거렸다.

《걱정말라구. 팔로군이 한개 소대밖에 안돼. 그래서 내 생각은…》

차오광단의 말을 한참 듣던 쥬탸오룽은 연방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흔연히 한마디 했다.

《그럼 우린 가겠어. 밤에 자네의 전지불신호만을 기다리겠네.》
이렇게 말하고난 쥬탸오룽은 제꺽 나무단속에서 싸창을 꺼내여 허리춤에 찔러넣은 다음 두 비적과 함께 뒤창문을 뛰여넘어 종종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처음 올 때처럼 주위를 예리하게 살피면서 요리조리 에돌아 산신당에 이르렀다. 와보니 두 밀차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쥬탸오룽은 즉시 졸개들을 시켜 두 밀차를 끌고가게 하였다.
쥬탸오룽의 긴장했던 마음이 어느정도 풀리였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등골에서 내밴 땀이 엉치에까지 흘러내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송 외워댔다.
《나무아미타불, 다행히 팔로군을 만나지 않았으니 살았구나.》

2

차오광단은 뒤창문으로 멀어져가는 쥬탸오룽을 바라보고나서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이윽고 천천히 창문을 닫고 걸쇠고리를 건 그는 기쁨에 겨워 흥얼거리며 자리에 누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쓴듯 오싹 몸을 떨었다. 문앞에 허술한 옷을 입은 한 사내아이가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바로 자기가 원두막에 누워있을 때 나타났던 그 거지였다.
《야, 이놈이? 너 또 뭘 하러 왔어?》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차오광단은 눈길이 예리한 이 거지아이를 보자 가슴속에 두려운감이 서려올랐다.
《이자 쥬탸오룽과 무슨 말을 했소?》
왕샤오린은 조용하면서도 준절한 어조로 물었다.
왕샤오린의 이 물음은 마치 차오광단에게 사형선고라도 내린것처럼 넋을 잃게 하였다. 놈은 겁에 질려있는 그 시각에도 속으로 하나의 의문점이 스쳐지나갔다. 저 가난뱅이자식이 과연 밥을 동냥하는 거지가 맞는지? 그렇다면 자기에게 따져묻는듯한 말

투로 말을 건넬수 있겠는가?

《야, 밥을 빌어먹는 놈이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무슨 상관이야?》

차오광단은 상대를 한번 타진해볼겸 짐짓 배짱있게 큰소리로 대꾸했다.

《오늘은 이 가난뱅이가 네놈을 단단히 취조하려고 한다. 날 따라와!》

《저놈의 말버릇 봐라. 그래 뭣때문에 널 따라간단 말이야?》

《따라가면 알게 돼.》

《넌 도대체 뭘 하는 놈이야?》

《난 팔로군정찰병이다!》

왕샤오린의 말이 끝나기 전에 차오광단이 얼른 베개밑에서 권총을 꺼내여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 그 순간 왕샤오린이 어느새 날래게 달려들어 차오광단의 총을 차버리고 번쩍거리는 뾰쪽한 칼끝을 그놈의 가슴에 갖다댔다.

《이놈, 가만 있지 않으면 아예 죽여버리고말테다.》

그러자 덴겁을 한 차오광단의 두눈이 꿋꿋해지고 마치 물먹은 담장마냥 펄썩 주저앉아 두손을 빌며 애걸했다.

《예, 예. 제발 목숨만. 제발 목숨만!》

왕샤오린은 권총을 집어들고 단도를 칼집에 꽂아넣은 다음 《가자.》하고 쥐새끼를 잡듯 차오광단의 뒤덜미를 잡아일으켰다.

왕샤오린은 한달전에 부대를 따라 베이만에 왔다. 그는 여기서 준동하는 비적들의 종적을 찾기 위해 밥을 동냥하는 거지로 가장하고 내내 쑹쟝시와 와이포산사이로 오가면서 정찰하였다. 전시와 샤오망즈 등 가난한 아이들이 밀차를 밀고가는것과 길 량쪽에서 늘 수상쩍은 사람들이 몰래 그들을 감시하고있는것도 그는 이미 알고있었다. 오늘 원두막에서 벌어진 일도 그가 수수밭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진상을 명백히 알고있었다. 그는 4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편으로 신호를 해서 근처에 매복하고있던 팔로군 전사들에게 알렸고 그다음 전시를 죽이려고 달려든 금붕어눈을 처단했던것이다.

왕샤오린은 자기가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샤오망즈와 샤오

도우즈, 고우성얼과 결의형제를 맺었다. 그가 이 불쌍한 방랑아들을 극진히 대해주게 된것은 한때 자기도 이 아이들처럼 온갖 고초를 다 겪어보았기때문이였다. 그렇다고 자기 신분에 대해 아직은 말해줄수 없었다.

왕샤오린은 비적의 밀정 차오광단을 정찰분대에 넘겨준 다음 임무수행정형을 보고하기 위해 곧바로 중대부로 갔다. 원래 위슈촌에 주둔하고있는 팔로군은 한개 소대가 아니라 한개 중대였다. 다만 적들을 속이기 위해 한개 소대만 군복을 입고 기타 소대는 모두 사복을 입고 와이포산근방에 분산되여 활동하고있었다. 팔로군은 적을 잡을 그물을 쳐놓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왕샤오린이 중대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등뒤에서 달려오는 발자국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 같은 정찰분대에 있는 전우 샤오류였다. 바로 오전에 밀차에 실어놓은 짐을 헤쳐볼 때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에게 노상 새물새물 웃으며 대해주던 그 전사였다.

《샤오류, 왜 이렇게 뛰여오니? 뭘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중대장동지가 찾아서 가는 길이야. 그리구 동무두 찾아.》

샤오류는 줄곧 새물새물 웃으며 대답했다.

《나두? 무엇때문일가?》

《아마 새로운 임무를 줄것 같애.》

샤오류는 정색해서 말을 이었다.

《정말? 거짓말 아니겠지? 거짓말할 때는 동무를 가만두지 않겠어.》

《진짜 나두 몰라.》

왕샤오린은 샤오류가 알면서도 짐짓 모르쇠하는줄로 알고 그의 옆구리를 막 꼬집어주었다.

그러자 샤오류는 《아아, 간지럽다!》하고 옆으로 몸을 꼬며 피했다.

왕샤오린이 또 그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자 샤오류가 내빼기 시작하였다. 왕샤오린은 샤오류를 기어코 따라잡으려고 있는 힘껏 따라갔다. 마당안에서 숨박곡질하듯 몇바퀴 돌고서야 그들은 숨이 차

서 헐레벌떡하며 모두 땅에 주저앉고말았다.
《난 차오광단을 잡아왔어. 빨리 중대장동지한테 보고해야겠어.》
이윽하여 왕샤오린이 먼저 엉치의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정말?》
《그럼.》
《이제는 마치놈의 코를 꿸 때가 됐구나.》
두 꼬마정찰병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어깨나란히 중대부에 들어섰다.
이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책상우에 놓인 지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두 꼬마전사들이 들어오는것을 보고 허리를 펴면서 고개를 돌린 중대장은 그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음, 보아하니 큰고기를 못잡았어도 미꾸라지라도 낚은게지?》
《중대장동지, 제가 차오광단을 체포해왔습니다.》
왕샤오린은 흥분하여 힘있게 대답하였다.
몸집이 다부진 청잉창중대장이 의미있는 눈길로 조용히 미소를 짓고있는 쉬성페이정치지도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차오광단을 잡아온것이 앞으로의 정황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밀정노릇을 하는 이 차오광단을 더 둬두어야 백해무익한것이다.
《어서 말하라구. 그놈을 어떻게 체포해왔는가를.》
중대장은 영민한 꼬마전사들을 걸상에 앉히며 물었다.
그러자 왕샤오린은 중대장을 기쁨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쥬탸오룽과 그 졸개들이 산에서 내려와 두 밀차를 살펴본 다음 원두막에 들렸던 일이며 또한 은밀히 마을에 들어와서 차오광단을 만나 밀담을 한 정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전지불로 신호를 하게 되여있다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왕샤오린의 보고를 다 듣고난 중대장은 네모진 입술을 꽉 다문채 방안을 둬바퀴 돌고나서 정치지도원앞에 다가갔다.
《정치지도원동문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즉시 차오광단을 심문합시다. 놈들의 기도를 정확히 료해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 일망타진합시다.》
《그놈은 내가 가서 심문해보겠소. 그럼 이 동무들과 얘기나 나누시오.》
이렇게 말하고 문앞에 이른 중대장은 다시 왕샤오린과 샤오류한테로 돌아와 두 꼬마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꼬마들…》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중대장이 오늘따라 별로 이상하게 느껴졌다. 중대장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정치지도원이 그를 타이르듯 한마디 했다.
《청동무, 어서 가보오.…》
중대장은 알았다는듯 정치지도원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가 불쑥 왕샤오린에게 물었다.
《중대에 온지 몇년 됐더라?》
《5년됐습니다.》
《샤오류는?》
《2년째입니다.》
《그래 혁명에 대해 얼마나 배웠소?》
두 꼬마전사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래도 중대밥을 더 먹은 왕샤오린이 어정쩡하게 대답하였다.
《약간 배웠습니다.》
중대장은 《음》하고 나지막하게 뇌이고는 다시 물었다. 《옷이 꿰지면 제손으로 기울수 있소?》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사람이 다 힘있게 대답하였다.
《좋소.》하고 두 전사의 볼을 가볍게 튕겨주고나서 중대장은 또다시 주춤거리다가 흔연히 한마디 했다.
《있다가 동무들을 만나러 가겠소.》
그는 이 말을 남기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방문을 나섰다.
두 꼬마전사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기만 하였다. 그들은 자기보다 머리 절반 더 큰 정치지도원을 줄곧 바라보며 마

음속에 품고있는 의문을 풀어주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정치지도원은 의연히 말이 없었다. 샤오린은 손바닥에 내밴 땀을 옷섶에 문대려다가 무의식중에 허리춤에 총이 있다는것을 감촉했다. 그는 옷섶을 헤치고 두자루의 권총을 꺼내여 정치지도원앞에 내놓았다.
《이 무기는 금붕어눈과 차오광단한테서 로획한겁니다.》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받고 한참 살펴보던 정치지도원은 웃으며 다시 샤오린에게 주었다.
《자, 보시오. 이 총에서 뭘 찾아볼것이 없소?》
샤오린은 의아한 눈길로 총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 총에서 무엇을 발견할것이 있단 말인가? 보아야 일본놈들이 제작한 14년식권총이고 별명은 《거부기함》이였다. 그는 총을 이렇게도 뒤져보고 저렇게도 뒤져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때 정치지도원이 한마디 튕겨주었다.
《총번호를 잘 보시오.》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즉시 눈길을 총번호에 돌리였다. 두 총을 나란히 하고 번호를 대조해보던 그들은 저도모르게 《야!》하는 탄성을 질렀다. 순차적으로 이어져있는 번호였던것이다.
이윽고 정치지도원은 책상빼람에서 또 한자루의 14년식권총을 꺼내 샤오류에게 주었다.
《자, 보시오.》
《이것두 번호가 나란히 이어진 권총이구만요!》
두 전사는 부르짖었다.
《이렇게두 신통할가?》
《그렇소.》 정치지도원은 두 꼬마전사를 자리에 앉히고 설명했다. 《일본놈들이 생산한 14년식권총이 천자루 만자루겠는데 어떻게 되여 여기서 세자루의 권총번호가 신통히 순서대로 이어져있겠는가? 이건 무엇때문인가? 그 리치를 생각해보시오.》
샤오류는 두눈을 슴뻑거리고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때 왕샤오린이 갑자기 환성을 올리듯 소리쳤다.
《번호가 순서대로 된것은 이 권총들이 한 상자에서 꺼낸 새

총이라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랑아들이 운반하던 그 밀차에 실었던 무기상자?…》

《옳소!》 정치지도원이 손을 아래로 내리그으며 탄성을 올렸다. 《다른 동무들의 보고에 의하면 오전에 방랑아들이 밀고가던 두 밀차에 실은 무기를 보았다고 하는데 동무들도 그자리에 있어서 봤겠지만 그 무기상자는 바로 이것을 증명해주고있소. 다시말하여 이 근방에 병기창고가 있는것이 분명하오. 그럼 이 병기창고가 어데 있겠는가?》

《이 성안에 있습니다. 밀차는 성시안에 있는 수림속에서 끌고나갔단 말입니다.》 왕샤오린이 말을 이었다.

《놈들에 대한 정찰을 더욱 심화시켜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그것을 알아내야 하오. 그래야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수 있소. 마치와 같은 몇명 안되는 비적들이나 없애치운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요. 다른 비적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병기창고를 장악하면 마치 놈들의 식량공급을 끊어놓는것과 같소. 그렇지 않소?》

《옳습니다!》 샤오린과 샤오류가 함께 대답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시군관제위원회에서는 동무들에게 성시에 들어가서 정찰할것을 지시했소. 특히 샤오린동무…》 정치지도원은 샤오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동문 이미 그 방랑아들과 결의형제를 맺었다지? 이 관계를 잘 리용해야겠소. 그리구 우리 당조직에서는 집없는 방랑아들을 키우기 위해 성시에 있는 혁명렬사유자녀보육원에 새로운 반을 내오고 그들이 걱정없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있소. 동무들은 그곳에 가서 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잘 이끌어주어야 하겠소. 명심할것은 절대로 그들을 때리거나 멀리해서는 안된다는거요. 이건 우리 당의 기본임무의 견지에서 봐도 그렇고 또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공고한 동북근거지를 빨리 창설하는 문제와도 직접 관계되는 일이요. 내가 말한 내용을 알만 하오?》

《알겠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

《명심하오. 우선 이번 임무는 매우 위험하고 또한 간고하오. 게

다가 비적들은 여기 사람들과 지형에 대해 아주 잘 알고있소. 그리구 교활하고 잔인하기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불상사를 내고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당할수 있소. 동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중대를 떠나 단독임무를 수행하게 되오. 그래서 나와 중대장동무랑 마음이 놓이지 않소.》

여기까지 말하고 정치지도원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먼곳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다심한 어머니의 마음인양 그의 얼굴에 서운한 빛이 어려있었다. 아니, 이것은 아들을 멀리 보내는것보다 더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였다. 이제 두 꼬마전사들이 어떤 위험하고 치렬한 투쟁을 하여야 하는가를 그들은 아직 잘 모를수 있지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잘 알고있었다.

그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았다. 만약 투쟁의 간고성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면 꼬마전사들이 위압당할수 있고 또한 반대로 과소평가하면 그들이 적에 대해 각성없이 경솔하게 행동할수 있다. 어쨌든 중대에서 구대원들의 사랑속에 자란 이 꼬마전사들이 아직 어린것만은 사실이다. 정치지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물었다.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소? 꽤 해낼수 있겠소?》

《꼭 해내겠습니다. 마음놓으십시오.》

《아니요.》 정치지도원은 꾸밈없이 말해주었다. 《난관이 많을거요. 하지만 당이 있고 중대가 있고 비적들을 미워하는 인민대중이 있는 한 어떤 난관도 이겨낼수 있소. 만약 그 어떤 예상치 않던 정황에 맞다들면 덤비지 말구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고 결심하기 힘든 문제는 제기해서 지시에 따라 집행해야 하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왕샤오린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여올랐다.

《정치지도원동지, 우린 언제 출발합니까?》

잠자코있던 샤오류가 물었다.

《이제 곧 준비하시오. 샤오류도 돌아가서 사복을 갈아입고 행장과 기타 소지품은 안가지고 가도 되오. 놈들한테 의심을 살수 있으니 앞으로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주겠소. 갈 때 전시를 보육원에 데려다주시오.》

3

위슈촌마을의 류가네 집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전시는 몸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채 하루종일 구들에 누워있었다. 그는 난생처음 이런 치료를 받고보니 별생각이 다 들었다. 몸을 조금만 다쳐도 아부재기를 치는 연약한 부자집 도련님이나 아가씨쯤 된다면 몰라도 자기와 같은 가난뱅이 자식이 이런 요란한 치료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전번에 머리에 피가 좀 나온것은 둘째치고 쥬탸오룽이 손짬에 끼운 뾰족한 칼로 자기의 왼쪽눈섭을 길게 째놓은것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절로 밀가루를 대충 바르는것으로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팔로군누나가 와서 얼굴을 씻어준다, 몸을 씻어준다, 또한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준다고 하면서 한나절이나 야단법석하였다. 정말이지 면구스러워 몸둘 곳을 찾지 못할 정도였다. 이뿐이 아니라 류아주머니는 딸 샤오디얼을 시켜 자기를 간호하게 한것이다. 어쩌다가 몸을 좀 뒤채이거나 혹시 일어나 앉으려고 하여도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는지 샤오디얼이 달려와서 《움직이지 말어!》하고 날카롭게 소리치군 하였다. 참말로 야단이 아닐수 없었다. 이거야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니 죽은 사람이나 같지 않은가. 이 샤오디얼은 또 어떠한가. 어떤 때는 좀 못본척도 해야 하겠는데 그런 융통성이 조금도 없었다. 정말 내가 이제 상처가 다 나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테다 하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속생각뿐이지 실지로는 그렇게 말할수 없었다. 전시에게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언젠가 전시는 류가네 집의 외딸인 샤오디얼(촌뜨기라는 뜻)과 함께 자랐다. 비록 나이는 동갑이지만 샤오디얼은 평시에 무슨 일을 하든 제법 누나처럼 그리고 무엇이나 다 아는 어른들처럼 이래라저래라하면서 훈시질을 하군 하였다.

전시가 샤오디얼네 집에 오게 된것은 그의 부모들이 목재소 감

독 차오광단에 의해 죽은 다음부터였다. 의지가지할데가 없는 그를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었던것이다. 그러나 전시는 커가면서 샤오디얼의 집에 그냥 얹혀살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샤오디얼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항일련군에 참가했는데 2년전에 부대가 관내(중국 만리장성 이남지대)로 이동해갔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살림형편이 몹시 어려웠다.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하루종일 힘들게 일을 해도 별로 차례지는것이 없으니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전시는 모녀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것 같아 밥먹는 입을 하나라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몰래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때로부터 전시는 지금까지 외지에서 방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 팔로군에 의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니 이런 좋은 집, 이런 좋은 샤오디얼에 대해 그가 과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할수 있겠는가?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고서야…

전시는 두손으로 뒤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줄곧 세 동무를 생각하였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지? 몸이 다부진 샤오망즈이며 령리한 샤오도우즈이며 마음 어진 고우성얼… 바로 그전에 그들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며 한생을 절대로 갈라지지 말자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본적이 없었고 형제들과 떨어져있는 그런 괴로움을 처음 당해본다.… 여기에 계속 누워있을수 없다. 가야 한다. 빨리 도망쳐야 한다. 샤오망즈랑 자기를 손꼽아기다리고있을것이다.

전시는 이렇게 생각하며 집안을 한번 살펴보았다. 마침 샤오디얼이 보이지 않자 그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구들가로 슬그머니 옮겨가려고 하는 순간 바깥창문아래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누워있어! 왜 또 일어나?》

웨침소리와 함께 닭알형 얼굴에 부리부리한 큰 눈을 가지고 웃을 때에는 코가 약간 벌름거리는 처녀애가 밖에서 뛰여들어왔다.

《너 또 도망치려고 그러지?》

《아… 아니, 너무 갑갑해서. 창문을 좀 열려고…》
샤오디얼은 아무말없이 얼른 신발을 벗고 구들에 올라섰다. 그리고 창문을 우로 제끼고 고리에 건 다음 다시 땅바닥에 내려섰다.
전시는 샤오디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를 불러세우고 사정했다.
《디얼아, 나 좀 밖에 나가 놀도록 해주렴. 시간이 되면 꼭 돌아올게.》
《안돼. 팔로군언니가 넌 움직이면 안된다구 했어.》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한대?》
《너를 붙잡아가지 뭐.》
《붙잡아가서는 또 어떻게 한대?》
《때리지 뭐.》
《그럼 어서 때려보렴.》
전시는 얼른 손바닥을 내밀고는 샤오디얼이 진짜 때릴 용기가 있으랴 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샤오디얼이 어디 한번 맞아보라는 격으로 주저없이 전시의 손바닥을 내리쳤다. 이때 전시가 날쌔게 샤오디얼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바빠맞은 샤오디얼은 얼굴을 붉히며 《이 손을 놔. 놓지 못하겠니?》 하고 손을 뽑으려고 모지름을 썼다.
벌개진 샤오디얼의 얼굴을 보고 전시는 저도모르게 어줍은 생각이 들어 제꺽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그의 머리속으로는 이제는 어릴 때 함께 있으면서 철없이 놀던 그 시절의 샤오디얼이 아니라 어느덧 열대여섯살되는 큰 처녀애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였다. 그리고 샤오디얼의 집에서 병치료를 할 때 그가 늘 함께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지 않고 내내 밖에 나가있었던 그 심정도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손을 뽑고 달려나간 샤오디얼은 창문가에 서서 방안에 대고 《넌 달라졌어. 그전처럼 착한 애가 아니야.》하고 꾸지람하듯 큰소리쳤다. 그리고는 붉게 상기된 얼굴을 돌리고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멀어져가는 샤오디얼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전시는 방금전에 있

은 자기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잠기였다.
그는 샤오디얼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뭐, 내가 달라졌다고? 착한 애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나쁜 아이로 되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떤것이 좋고 어떤것이 나쁜가?
전시는 자신에게 연거퍼 반문하다가 문득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가슴을 저리게 하는 괴로운 감정을 털어버리고 《손오공》시기의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것이 제일 편안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것은 그가 량부모를 여윈 후 가슴속깊이 새겨진 좌우명과 같은 신조였다. 다시말하여 누가 자기를 사랑해주든 말든 모욕하든 말든 그리고 기쁨과 슬픔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며 모두 무의미한것으로 치부해버리는것이였다. 마치 일년 열두달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고싶은대로 흘러가는것이였다.
샤오디얼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슬그머니 열려진 창문으로 기여나가 슬쩍 땅바닥에 내려섰다. 그 순간 몸이 울려서 그런지 갑자기 머리에 찌르는듯한 아픔이 왔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참고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빠져나와 북쪽방향으로 달려갔다.
뒤마당의 터밭에서 남새를 뜯고있던 샤오디얼이 문득 달려가는 전시를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서라! 서지 못하겠니?》
《네가 날 보구 나쁜 아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난 간다.》
전시는 돌아서서 한마디 대꾸했다.
《아니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이틀 지나서 돌아와.》
멀어져가는 전시를 보며 샤오디얼은 안타까와 눈물만 흘리였다. 그는 부모없는 전시를 더 따뜻이 대해주지 못한것을 여간 후회하지 않았다. 특히 방금전에 그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자신을 몹시 원망하였다. 사실 그렇게 말한것은 결코 본의가 아니였다.
샤오디얼이 자신을 질책하고있을 때 람루한 옷을 입은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나타났다.

《샤오디얼, 너 왜 울고있니?》

《전시가 달아났어.》

샤오디얼은 얼굴을 돌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달아나다니?》

《왜?》

《…》 샤오디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언제 갔니?》 샤오류가 다그쳐 물었다.

《저게 보이는…》 샤오디얼은 도로를 따라 멀어져가는 전시의 그림자를 가리켰다.

그것을 본 왕샤오린은 샤오류를 보고 《따르자!》하고 막 달려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디얼이 전시를 체포하려는줄로 알고 급히 그들을 막아나섰다.

《그만둬.》

이렇게 말하던 샤오디얼이 문득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람루한 옷을 입은것을 보고 무척 의아해서 물었다.

《그런데 왜 이런 옷을…》

왕샤오린은 샤오디얼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급히 대답했다.

《우린 전시를 보육원에 데려다줄데 대한 임무를 받았어. 그리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로군이라는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돼. 알겠지?》

《그건 뭣때문에?》

《더 물어보지 말어. 어쨌든 말 못해. 앞으로 알게 돼.》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이렇게 말하고나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청중대장이 급히 다가왔다. 그는 두사람을 한쪽옆으로 끌고가서는 이어 바지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두자루의 권총을 꺼내였다. 한자루는 범표권총인데 그것을 샤오류에게, 다른 한자루는 브라우닝인데 그것을 샤오린에게 주었다.

《자, 가지고 가라구. 꼭 필요할거야.》

샤오린은 말없이 권총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가슴에 갖다댔다. 그는 이 권총이 다년간 중대장이 몹시 아끼며 가지고다니던것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 소중한 권총을 임무수행에 앞서 서슴없이 자기에게 주는것은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에 대한 중대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샤오린은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불현듯 5년전 그가 12살때 팔로군에 입대하기 위해 부대에 찾아갔던 일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군대에 받을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것을 청잉창중대장이 그를 앞으로 훌륭한 혁명전사로 키울것을 결심하고 자기 중대에 받았던것이다. 그후 중대장은 그를 자기의 련락병으로 데리고다니면서 친동생처럼 따뜻이 보살펴주었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어 오늘은 어엿한 정찰병으로 자래웠던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샤오린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자, 빨리 떠나라구. 조심하라구. 절대로 실수하거나 망탕 행동해서는 안돼. 알겠지?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며 중대장은 환하게 웃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위를 한번 훑어보았다. 전시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전시가 왜 보이지 않소?》

《전시가 달아났습니다!》

샤오류가 전시가 간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럼 빨리 따라가야지.》

《알았습니다!》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흥분된 눈빛을 반짝이며 중대장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중대장은 제꺽 그들의 손을 내리우면서 《이런 차림을 했는데 거수경례를 하면 되나.》하고 웃으며 가볍게 타일렀다.

그제서야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피식 웃으며 자기들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자, 빨리!》하고 중대장이 독촉해서야 그들은 전시가 달려간 그 방향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했다.

중대장과 샤오디얼은 그들의 뒤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제 4 장

1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따뜻한 가을날의 해별이 땅거죽을 비치고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과 차바퀴자리가 무수히 나있는 도로우에는 재가루같은 흙먼지가 한층 깔려있었다. 전시가 뛰여가며 풀썩풀썩 흙먼지를 일으키자 그 먼지가 불어오는 소슬바람에 한가닥의 연기마냥 흩날려갔다.

전시가 달리고 또 달리는데 문득 뒤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그는 샤오디얼이 따라오는줄로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녀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의 목소리,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라 두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상하였다.

누굴가? 혹시 샤오망즈네들이 아닐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주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자세히 보니 자기보다 키 큰 두 사내아이가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오고있었다. 아무리 자세히 보아야 누군지 알수 없었다.(와이포산밑에서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나타났을 때 전시는 이미 금붕어눈에게 맞아 쓰러져있었다.) 그는 마음이 다소 긴장해졌다. 혹시 비적들이 차오광단의 복수를 하려고 자기를 따라오는것이 아닐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다리에 더 힘을 주어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흥! 네놈들이 총을 쏘기 전에는 나를 붙잡을 생각은 하지 말라. 더우기 성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형제들이 많기때문에 설사 따라잡는다 해도 나를 어쩌지 못해.

전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귀를 기울여 자기를 찾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그런데 찾는 소리가 멀어지는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자 당황해지였다. 사실 지금까지 그는 뛰는데서는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사람의 속도가 보통 빠르지 않았다. 다행히 성 서쪽켠 둔덕아래의 평지붕집근방에 이른 전시는 여기 지형을 잘 알기때문에 마치 다람쥐마냥 오른쪽에 있는 수림속으로 몸을 숨길수 있었다.

수림을 꿰질러 아스팔트도로에 나선 전시는 이어 즐비하게 늘어선 주택지구의 골목에 이르렀다. 여기는 그가 잘 아는 곳인데 골목의 갈래가 많아서 어느 구석으로나 들어가면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바로 이 두해동안 그는 여러 꼬마형제들과 함께 이 복잡한 골목을 리용하여 몇번이나 추격에서 벗어나군 하였었다.

이제 더는 따라오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땀도 들일겸 전시는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 맞은켠에 있는 낡은 건물우에 올라갔다.

그런데 생각밖에 그 두명의 낯모를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고있었다. 정말 지독했다.

그들은 건물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다가 그중 한명이 《이 자식 정말 빨리도 뛰는데. 분명 여기서 없어졌는데.》하고 말하자 다른 한명이 《우린 남쪽에 있는 그 페허지에 가보자구. 그들은 저녁마다 거기서 자군 하니까.》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골목을 따라 남쪽으로 달려갔다.

뛰여가는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전시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야단났구나. 저 두사람이 남쪽에 있는 우리의 페허지를 어떻게 알고있을가? 혹시 샤오망즈가 이 비밀을 루설한것이 아닐가? 아니면 이 두 비적놈이 이미부터 우리들을 감시한것이 아닐가? 빨리 샤오망즈에게 페허지에 있는 《지하궁전》에 다시 가지 말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재빨리 건물꼭대기에서 내려와 정양거리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거기는 그들이 늘 활동하던 곳이였다.

정양거리는 쑹장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번쩍거리는 여러가

지의 간판들과 갖가지 상품들이 가득히 진렬되여있는 매대들, 게다가 기다란 나팔이 달린 축음기에서 《쑹화강에 미인이 많다》와 같은 류행가들이 울려나와 흥성이는 시장의 분위기를 더한층 돋구어주고있었다. 음식점들의 문앞에서는 접대부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귀맛 좋은 말치레를 해가며 극성을 부렸다.

《에, 지지구 볶으구 튀긴 갖가지 료리들, 술맛 돋구는 여러가지 안주들을 비롯한 산해진미가 다 있습니다. 에, 그리구 뽀즈와 만두도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요술을 부리며 철알을 입에 넣고 삼키는 광대들과 구경군들, 사주쪽지를 들고 점치는 사람들, 남녀인물과 풍경을 그린 그림을 팔고 사러 온 사람들로 몹시 흥성거렸다.

전시는 붐비는 사람들을 비집고 왔다갔다하면서 짐짓 장거리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새까맣게 된 맨발을 천천히 옮기며 제법 휘파람까지 불면서… 다만 머리우에 감은 붕대가 눈에 좀 거슬릴뿐이였다. 전시는 천천히 걸으면서도 두눈만은 무엇을 찾고있었다. 혹시 여기서 동무들을 만날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였다.

전시의 눈길이 문득 어느 한 약국에서 나오는 두사람에게로 쏠리였다. 샤오도우즈가 두눈을 디룩디룩하며 손에 종이꾸레미를 들고 양복에 가죽신을 신은 한 신식학교(청나라말기에 세운 서양식학교)의 학생의 뒤를 바싹 따라나오고있었다.

반가움이 앞선 전시는 얼른 다가가 샤오도우즈를 잡으며 《도우즈야, 왜 여기에 있니?》하고 물었다.

샤오도우즈는 너무 기뻐 마치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처럼 두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면서 급히 물었다.

《머리는 일없니?》

《일이야 무슨 일. 뚫러진 구멍을 벽돌로 막아버렸지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전시의 두눈은 방금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그 신식학생을 주시하고있었다. 샤오도우즈를 보고 왜 저 학생을 따르는가 하고 묻는듯싶었다.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아도 벌써 뜻이

서로 통했다.
샤오도우즈는 눈짓하며 전시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했다.
《그의 왼쪽주머니에 먹을것이 있어.》
《똑똑히 보았니?》
《응.》
전시가 곁눈질로 그 학생의 왼쪽주머니를 보니 정말 불룩하니 나온데다가 아구리까지 약간 벌려있었다. 그는 제꺽 샤오도우즈에게 물었다.
《다른 애들은 다 어데 있니?》
샤오도우즈가 맞은켠에 있는 담장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일여덟명쯤 되는 샤오도우즈와 같은 헐벗은 아이들이 있었다. 어떤 아이는 두팔을 맞잡고 담장에 기대고 서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턱을 받치고 앉아있고 또한 어떤 아이는 무슨 코노래를 부르며 꿇어앉아있었다. 그러나 샤오망즈는 보이지 않았다.
《망즈는 어데 갔니?》 전시가 물었다.
《샤오린형을 찾으러 갔어.》
《샤오린형이라는건 또 누구야?》
전시는 영문을 알수 없어 두눈섭을 세웠다.
《일이 이렇게 된거야.…》 샤오도우즈는 왕샤오린이 어떻게 전시를 구원했고 또한 금붕어눈을 어떻게 죽였고 나아가서 자기들과 의형제를 맺은 사연을 간단하게 말해주었다.
《이젠 묻지 말아. 후에 다 말할게. 빨리 손써야 하지 않니?》
《걱정말아. 이거야 식은죽먹기지 뭐.》
이렇게 말하고난 전시는 담장에 있는 동무들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제꺽 학생의 뒤를 따랐다.
신식학교 학생은 서생의 티가 완연하였다. 여윈 몸이며 수심에 잠겨있는 얼굴표정, 무슨 생각에 골몰하여 두눈을 내리깔고 줄곧 앞으로만 걸어가고있었다.
전시는 짐짓 바삐 가는 사람처럼 걸어가다가 오른쪽어깨로 그 학생의 몸을 약간 스치면서 지나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 학생의 주머니에서 날쌔게 돈을 빼내였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등뒤에서 《돈 꺼낸다!》하고 고함을 치는것이였다. 그러자 그 학생은 무심결에 자기의 주머니를 만져보다가 돈이 없어진것을 알자 별안간 방금 자기를 밀치며 지나가던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 거지아이가 생각났다. 그는 지체없이 두눈을 부릅뜨고 전시를 따라갔다.

이때 전시는 이미 대여섯걸음을 앞서 갔지만 머리에 감은 붕대가 유표하게 나타나 아무리 숨을래야 숨을수 없었다. 비록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 등 동무들이 전시를 에워싸고 빼돌리려고 했지만 끝내 두 어른들한테 붙잡히고야말았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두번만 겪지 않은 전시는 전혀 겁나하지 않았다. 돈을 쥔 손을 높이 쳐들고 동료들을 향해 휙 뿌리니 돈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면서 땅에 나풀나풀 떨어졌다. 이미 준비하고있던 차라 동료들은 마치 굶주렸던 범이 고기덩어리를 덮치듯 와락 달려들어 제각기 돈을 주어가지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갔다.

이렇게 되자 그 학생은 전시를 죽어라고 놓지 않고 《돈을 달라. 돈을 내놔!》하면서 애원했다.

전시는 짐짓 시치미를 떼며 손을 높이 들어보였다.

《자, 보라. 돈이 어데 있어? 내 손에 없어. 저애들한테 가보렴.》

주위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어떤 사람들은 전시에게 욕을 퍼붓는가 하면 그를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때리려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머리를 연거퍼 흔들며 입을 다시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이 소매치기군들에게 돈을 빼앗긴 다음에는 찾을 생각을 아예 그만두라는것이다. 군관제위원회에 잡아넣어도 총살당할 정도는 못되고 오히려 밥을 얻어먹을 곳이 생길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시는 땅바닥에 버티고앉아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듯 하였다. 도리여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빈정댔다.

《왜들 떠드는거요? 돈은 누가 챘다구 그래요? 자, 주머니를 뒤져보라요. 돈이 있는가. 이 나으리보구 못살게 굴지 말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보기나 하라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이 아이가 소문난 소매치기대장인 자칭 《손오공》이라는것을 알았다. 집도 부모도 없고 알몸뚱이밖에 없는 그들에게 총이나 칼을 들이댄다고 한들 어쩌지 못한다는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있었다.

그 학생의 나이는 전시와 비슷했다. 한눈에 보아도 그가 전시와 싸움은커녕 말다툼도 못할 그런 서생이라는것을 알아볼수 있었다. 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안절부절하고있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떨리는 소리로 사정하였다.

《형님, 마음 써서 돈을 돌려달라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아버지가 보시던 책 한마대를 팔아서 10만웬을 받은거요.…》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내여 울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감동되여 전시에게 그 돈을 되돌려주라고 하였다.

전시는 그 학생의 아래우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옷에는 기운 자리가 없고 게다가 가죽신까지 신은 그의 차림새를 보니 그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너 가난하다는 애가 가죽신을 어떻게 신었지?》

《이건 우리 아버지가 신던건데 우리 아… 아버진… 죽었어.》 학생은 가까스로 이렇게 말하고는 또 슬피 울었다.

그 학생의 말을 듣고난 전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시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가죽신이 그 학생의 발에 비해 좀 큰것을 보고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것을 짐작하였다.

이윽고 전시는 두손가락을 입안에 넣고 힘껏 불었다. 《휘익-》 하는 귀청을 째는듯한 소리가 울리였다. 그러자 눈깜박할 사이에 사방에 널려있던 쪼무래기들이 뛰여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 전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는 곧 땅바닥을 가리키며 분부했다.

《돈을 다 여기에 내놓으라! 이애한테 돌려줘야겠다.》

전시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1만웬짜리 돈들이 연거퍼 땅에 떨어졌다. 전시는 허리를 굽혀 주섬주섬 그 돈들을 주어모아 그 학

생에게 주었다.

《우린 청맹과니였어. 사람을 잘못 보구 그렇게 됐어. 자, 어서 받아.》

학생은 전시를 바라보며 믿어지지 않는듯 주춤거리다가 손을 간신히 내밀어 돈을 받았다.

《한번 세여보라. 모자라지 않는지.》

전시는 움직이지 않고 그 학생이 돈을 세여볼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돈을 넘겨받자 곧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서 어줍게 웃으며 《다 있겠지 뭐.》하고는 막 그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안돼!》 전시는 그를 멈춰세웠다. 《자, 그러지 말구 자세히 세여보라구.》

학생은 전시가 스스럼없이 대해주자 다소 미안한감이 들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돈을 꺼내여 한장한장 세기 시작하였다. 그가 돈을 셀 때 전시도 옆에서 한장, 두장 하면서 함께 세였는데 아홉까지 세고는 돈이 더 없었다. 학생은 돈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는 어줍게 웃으며 거듭 《됐다.》고 하였다.

《가만!》 전시가 다시 말했다. 《네가 10만웬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9만웬밖에 안되니?》

그러자 저으기 난처해진 학생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꼬리를 이었다.

《한장 모자라는건 뭘 하니? 됐어.》

《무슨 소릴 하는거야?》 이렇게 말하고난 전시는 곧 다시 두손가락을 입에 넣고 방금전처럼 또 휘파람을 힘있게 불었다. 그는 아직 동무들속에서 돈을 안내놓은 아이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마저 가져다놓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 기다렸어도 돈을 더 내놓는 아이가 없었다. 전시는 이마살을 찡그리고 다시 세번째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도 역시 더 내놓는 아이가 없었다.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있었다. 재미나는 요술을 보기라도 하는듯… 아니 요술보다도 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이 광경을 신비로운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그

것은 의협심 강한 이 소매치기대장이 방랑아들속에서 정말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는지, 또한 동료들이 자기 대장에 대한 충정이 얼마나 높은가를 검토하고있는듯 했다.

시간은 한초한초 흘러갔다.

문득 전시는 그 학생에게 딱 잘라매듯이 물었다.

《네 주머니에 9만웬만 있지 않았니? 잘 생각해보라. 내 생각에는 9만웬만 있었던것 같애.》

학생은 얼굴을 찡그릴뿐 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체면을 상하게 할가봐 저어했던것이다.

그러나 전시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에 넘친 어조로 다시 물었다.

《이봐, 우리 형제들앞에서 똑똑히 말해봐. 정말 9만웬이 아니였니?》

학생은 하는수없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하자는건 1만웬이 없어도 일없다는거야. 이젠 됐어.》

이때 옆에 있던 마음 좋은 사람들이 소매치기대장이 딱해할가봐 저마다 권고하듯 말하였다.

《됐어, 됐어. 우리가 1만웬을 보태주지.》

《자, 나두 1만웬을 내겠소.》

《나두요.》

이렇게 손님들이 저저마다 내놓는 1만웬짜리 돈이 무려 몇장이나 되였다.

전시는 삽시에 낯색을 달리하며 손님들이 내민 돈을 만류했다. 그리고는 옆에서 초조해하는 꼬마형제들앞에 나서며 두손을 맞잡고 절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얘들아, 지금까지 이 형이 동생들에게 해된 일을 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건 집없고 부모없는 우리들이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그 우의를 중하게 여겼기때문이다. 우린 비록 밥을 빌어먹고 소매치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의것을 다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형이 하

늘에 다진 맹세와 우리들이 스스로 정한 계률을 어겼으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난 너희들의 형이 아니다.》

전시는 이렇듯 폭탄같은 선언을 한 다음 이어 엄지손가락을 들어 앞이발로 힘껏 깨물었다. 그러자 즉시 엄지손가락에서 선지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흘러나오는 피방울을 땅에 대고 힘껏 뿌리고나서 몸을 홱 돌리고 막 가려고 하였다.

줄곧 옆에 서서 안절부절하며 전시를 바라보고있던 샤오도우즈는 그가 결의형제의 관계를 끊는다고 단호히 선언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 하였다. 그는 더 주저함이 없이 전시를 와락 잡고 땅에 풀썩 한다리를 꿇어앉았다.

《전시형, 그러지 말어. 만약 내가 돈 1만웬을 가졌다면 마땅히 천벌을 받겠어.》

뒤따라 마음 어진 고우성얼도 전시를 잡고 꿇어앉았다.

《형, 형, 가지 말아. 이 고우성얼도 돈 1만웬을 감췄다면 천벌을 받겠어.》

그밖의 어린 형제들도 다같이 꿇어앉아 자기들이 돈을 감추지 않았다는것을 한결같이 확언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들의 친형이 되여줄것을 거듭 그에게 애원하였다.

뜻밖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그 학생과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들속에서 뒤숭숭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신식학생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너 잘 생각해봐라. 정확히 10만웬을 가지고있었니?》

《…》

이렇게 되자 그 학생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귀전에서는 웅웅 하는 소리만 울릴뿐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전시는 샤오도우즈를 비롯한 꼬마형제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세운 다음 그 학생에게, 아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난 우리 형제들에 대해 나자신처럼 믿고있습니다. 이애들은 그 돈을 절대로 감추지 않았다는것을 장담합니다. 만약 우리 형제

들을 내놓고 어느 다른 놈이 그 돈을 가지고 내놓지 않았다면 그 놈은 꼭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샤오망즈가 페허뒤의 수림속에서 샤오류와 함께 전시를 따라온 왕샤오린을 만났다. 샤오망즈는 샤오도우즈를 비롯한 자기 형제들이 지금 정양거리에 가있기때문에 전시도 혹시 그리로 올수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샤오망즈와 함께 정양거리로 왔는데 마침 방금전에 있었던 그 광경을 보게 되였다.

샤오망즈가 서둘러 전시를 찾으려고 했으나 샤오린이 그를 만류했다. 샤오린은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비롯한 어린 형제들이 전시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것을 보고 저도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얼마나 좋은 아이들인가! 그들이 남의 돈과 물건을 훔치는것은 전적으로 낡은 사회가 빚어낸 죄악의 후과이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본의아니게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을 샤오린은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전시가 그 신식학생이 가난한 집 아이라는것을 알고 결연히 그에게 돈을 돌려주는것을 보고 깊이 감동되였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1만웬짜리 돈을 꺼내 샤오망즈에게 주면서 그 학생에게 주도록 하였다.

샤오망즈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그 돈을 학생에게 쥐여주었다.

《우리 형님들이 준것으로 생각하고 자, 받으라구.》

학생은 영문을 몰라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머뭇머뭇하는데 샤오망즈가 이미 전시를 끌고가고있었다.

2

어린 동생들은 전시와 샤오망즈를 따라 줄레줄레 후이빈각근처에 있는 조용한 골목에 이르렀다. 방금전에 있었던 일이 그들의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아이의 얼룩진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있고 그전처럼 히히닥거리며 까불던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아이는 마깝지 않아 줄곧 투덜거렸다. 분명 그 어떤 작자가 전시형의 호의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우정 돈을 감추었다는것이다.

그들의 뒤를 따라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천천히 걸었다.

샤오도우즈는 전시가 깨물었던 엄지손가락을 쓸어만지며 침울하게 입을 열었다.

《전시형,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난 그가 부자집아이인줄 알구… 그런데 형은 의형제관계를 끊겠다는 말을 왜 하나?》

전시는 흩어진 샤오도우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말을 막았다.

《그만해. 또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며 그는 샤오도우즈의 뒤머리를 살짝 다쳐놓았다. 샤오도우즈가 방긋 웃었고 다른 동무들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즐겁지 못하던 방금전의 그 분위기도 점차 사라져갔다.

이때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그들의 가까이로 다가갔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왕샤오린을 보고 너무 좋아 그에게로 달려갔다.

《샤오린형, 어데 갔댔나? 아까 우리…》

샤오도우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시는 왕샤오린과 샤오류를 보고 한발한발 뒤걸음을 치였다. 그는 이 두사람이 자기를 끈질기게 따라오던 일과 낡은 건물우에서 하던 말 특히 남쪽 페허지에 가보겠다며 그리로 달려가던 일이 불시에 떠올랐다. 그는 속으로 이 두사람이 비적 아니면 밀정이 아닐가 하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샤오망즈의 옆에까지 물러선 전시는 그를 슬며시 잡아당기고는 그들의 눈을 피해 달아빼려고 하였다.

전시의 이상한 거동에 동료들은 의아한 눈길로 전시와 왕샤오린과 샤오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샤오망즈는 뒤걸음치는 전시를 멈춰세우고 웃으며 말했다.

《전시, 왜 샤오린형을 그렇게 쳐다보니? 우린 이 형님과 의

형제를 무었어. 그리구 이 형님이 너를 구원해주었어.》
샤오도우즈도 신이 나서 제꺽 한마디 보탰다.
《샤오린형이 칼을 잘 쓴다. 이 형님이 칼로 금붕어눈놈을 찔러 죽였어.》
전시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나를 구원해주었다구?
…그건 그렇고 그들이 어떻게 페허지에 있는 우리의 거처지를 알고있는가? 그 비밀거처지는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고우성얼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지 않는가.
전시가 잠시 머뭇거리고있을 때 왕샤오린이 웃으며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샤오망즈는 그에게 인사를 하라는듯 전시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그러자 전시는 마지못해 두손을 높이 들어 맞잡고 옛날 례법대로 례의를 표시했다.
《형님, 저를 구원해주어 고맙소이다.》
왕샤오린은 제꺽 전시의 손을 잡아내리우며 기쁨에 넘쳐 말문을 열었다.
《나에게 고맙다구 할것이 아니라 팔로군에게 고맙다고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끝장날번 했어.》
이렇게 말하고는 샤오류를 전시에게 소개하였다.
《자, 소개하지. 이애는 우리의 좋은 동무 샤오류요.》 이어 샤오류에게 전시를 소개했다. 《이애는 우리의 좋은 형제 전시요. 이애는 샤오도우즈라고 하고 이애는 고우성얼이라고 하고 이애는…》 샤오린은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도 한명한명 소개하였다.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우리의 좋은 형제들이다. 앞으로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며 누가 우리를 업신여길 땐 이걸 하나 먹이자구!》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휙 하더니 한자루의 번쩍거리는 단도가 조금도 비뚤어짐이 없이 세발자국앞에 있는 굵은 나무에 곧바로 날아가 박히는것이였다. 전시의 동료들은 모두 환성을 올렸다.
《야! 멋있구나!》

샤오류가 달려가 단도를 뽑은 다음 샤오린의 머리우로 높이 던졌다. 그러자 그 단도가 해빛을 받아 하얀 섬광을 번쩍이며 샤오린의 머리우로 날아왔다. 샤오린은 날아오는 단도를 날래게 잡아서 눈깜박할 사이에 칼집에 꽂아넣었다. 그야말로 요술사보다도 더 날래였다.

이번에는 샤오류도 말라죽은 다른 나무대를 가리키며 《앞으로 누가 우리 형제들을 건드릴 땐 저 나무대처럼 될게다!》하고 손으로 내리쳤는데 그 나무대가 우지끈 하고 끊어져버리는것이였다.

전시의 동료들은 또다시 《야! 손이 센데!》하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다같이 박수를 쳤다. 방랑아들은 높은 무예를 가진 두 형이 자기들과 같이 있게 된것을 더없이 기뻐했다.

《아까 이 두 형님이 너를 따라온것은 너를 보육원에 보내여 치료를 더 받도록 해주려고 그랬어.》 샤오망즈가 전시에게 설명했다.

샤오망즈의 설명을 듣고난 전시는 마치 가슴속으로 한가닥의 더운 바람이 흘러들어 지금까지 서려있던 짙은 의문을 다 날려보내는것 같았다. 그러나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것은 자기들의 거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샤오망즈가 이 비밀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또 하나는 이 두사람의 갑작스러운 출현이였다. 전시는 이때까지 자기의 형제들과 성안에서 2～3년동안 돌아다녔기때문에 밥을 동냥하는 아이들은 거의다 알고있지만 이 두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외지에서 왔겠는데 어떻게 되여 여기에 왔는가 하는것이였다.

샤오망즈는 전시가 말없이 멍청하니 서있는것을 보고 샤오린과 알게 된 전후사연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다만 그도 샤오류에 대해서는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었다. 얼핏 어디에서 본것 같기도 한데 알쏭달쏭하였다.

이때 샤오린이 전시에게 말을 건넸다.

《보육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겠니? 거기에 가면 먹을것, 자는것 다 돈을 받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갈래요.》 전시의 대답은 강경했다. 《거기에 가면 우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샤오도우즈는 전시더러 샤오린이 말한대로 하자고 졸라댔다.

《전시형, 거기에 가지 않을래? 나두 같이 갈래. 우리두 서양식집에서 살아보자꾸나.》

전시는 샤오도우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발로 그의 엉치를 가볍게 찼다.

《입다물어! 다시말하면 너의 혀바닥을 떼내고말겠어.》

샤오도우즈는 더 말하지 않고 전시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전시형이 자기에게 이처럼 성을 내는것을 지금까지 처음 보았다.

왕샤오린은 눈치가 빠른 소년이였다. 그는 전시가 무엇때문에 그러는지는 다는 알수 없으나 자기에 대해 여전히 못미더워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샤오망즈도 샤오류에 대해 다소 못미더워하는 눈치였다. 이에 대해 왕샤오린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초면이기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방랑하는 과정에 가슴아픈 일과 쓰디쓴 맛도 적지 않게 겪었을것이고 게다가 이 동란의 세월에 비적들이 무시로 맴돌아치고있기때문에 각성을 높이고 경계할수 있는것이다. 비록 불량기와 나쁜 습성을 좀 가지고 있다 해도 이런 소년방랑자들을 잘 교양하고 묶어세워 근거지를 공고히 하는데 복무하도록 인내성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할수 있다.

한참 말을 나누던중에 전시가 느닷없이 두손을 맞잡고 한마디 했다.

《두 형님들, 앞으로 다시 만납시다. 왕형이 절 구원해준 그 은혜는 이 전시뿐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다같이 잊지 않겠소. 후에 꼭 보답하겠소.》

이렇게 말하고나서 그는 두손가락을 입에 넣고 휘익 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방랑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삽시에 흩어져갔다.

이때 좀전에 돈을 잃었던 그 신식학생이 헐레벌떡거리며 달려왔다.

《머리에 붕대 감은 친구 어데 갔나?》

왕샤오린은 무슨 일이 또 생겼는가 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그를 왜 찾니?》

그 학생은 손에다 1만웬짜리 돈을 쥐고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내가 그때 떨떨하다나니 주머니에 9만웬을 넣은것을 모르고 10만원을 넣었다고 했구만요. 내가 책을 판 다음 1만웬을 내구 어머니의 약을 산것을 감감 잊고있다가 집에 가서야 불쑥 생각났지요. 어머니가 빨리 날 보고 돈을 돌려주라고 하기에 이렇게 달려왔어요. 헌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왕샤오린은 그가 마음놓도록 타일렀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어. 그들은 다 가버렸어.》

《그렇게야 어떻게…》

학생은 정양거리를 따라 달려갔다.

제 5 장

1

전시가 왕샤오린과 샤오류와 작별인사를 하고 형제들을 모두 흩어지게 한것은 조용한 곳에 가서 속에 있는 말을 좀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골목을 따라 한참 걸어가느라니 오른쪽으로 과수원이 나졌다. 이 과수원은 네둘레에 키 큰 싸리나무를 배게 심어 울바자를 만들었는데 근래에 와서 아이들이 몰래 들어가 능금을 채 먹느라고 울바자에 여러개의 구멍을 뚫어놓았다. 전시는 다른 아이들은 밖에 남게 하고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 그리고 고우성얼

만 울바자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과수원은 부지가 비교적 넓었다. 거기에는 능금과 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이 정연하게 자라고있었다. 과수원안에는 견고한 2층짜리 서양식건물이 있었다.

원래 이 건물은 서양에서 온 한 선교사가 살던 집인데 일본놈들이 망하자 어디론가 가버리고 지금은 한 중국로인이 지키고있었다.

저녁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자 과수원은 침침한 그늘속에 잠겨 사람들에게 자못 처량하고 스산한감을 안겨주었다.

이윽고 4명의 방랑소년들은 허리를 굽히고 키낮은 과일나무밑에 둘러앉았다.

자리에 앉기 바쁘게 전시가 샤오망즈에게 물었다.

《네가 페허지의 우리 거처지를 왕샤오린에게 말했니?》

샤오망즈는 펄쩍 놀라며 《아니.》하고 대답하였다.

《너희들중 누가 말하지 않았니?》

전시는 다시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에게 물었다.

《아니. 누구한테두 말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니.》

전시는 량미간을 찌프렸다. 그러면서 건물꼭대기에서 들은 샤오린과 샤오류가 한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자식은 십중팔구 비적놈들이라고 단정했다.

아이들은 비적이라는 결론이 떨어지자 저도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거처지를 알았을가?》

고우성얼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샤오도우즈도 두눈을 슴뻑거리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는 샤오린형이 아무리 보아야 비적일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적이 어떻게 비적을 죽이겠는가. 또한 그들이 비적이라면 어떻게 자기들을 그리도 친절하게 대해줄수 있고 보살(부처)같은 마음을 가질수 있겠는가.

쥬타오룽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주었는가? 만일 샤오린형이 비적이 아니라면 우리와 함께 있게 되겠는데 거처지를 알고있으면 또 어떻단 말인가? 어차피 아무때건 그에게 말해주어

야 하지 않을가?…

샤오망즈도 역시 고개를 기웃거렸다.

《샤오류라는 사람도 내가 어데서 본것 같애.》

이때 고우성얼이 문득 환성을 올리듯 부르짖었다.

《응! 그 바위앞에서 밀차에 실었던 상자를 강짜로 열었던 그 팔로군같애. 생각 안나니? 노상 새물새물 웃는 그 팔로군말이야.》

《옳아!》 그제야 샤오망즈도 생각나서 탄성을 올렸다. 《옳아, 그 팔로군이 맞아.》

샤오도우즈도 생각났다. 늘 웃고있던 그 팔로군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 샤오린형이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가 없는것이 정말 아쉬웠다.

세쌍의 눈이 전시를 바라보며 그의 주장을 듣고싶어하였다. 이런 《권위》는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된것이다. 형제들은 전시의 판단이 정확하고 일제끼는 솜씨가 빠를뿐아니라 어면 일에서나 리치에 밝아서 모든 대소사를 다 그에게 물어보군 하였다.

전시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만일 왕샤오린과 샤오류가 참말로 팔로군이라면 걱정할것은 없었다. 다만 팔로군이 자기들과 같이 류랑걸식하는 아이들을 사람으로 여기고 형제로 대해주겠는가 하는것이 좀 분명치 않았다. 한편 달리 생각해보면 팔로군에 대해 어느정도 가늠할수 있었다. 그것은 이 도시에 팔로군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가난한 사람을 나쁘게 대해주는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때문이였다. 비적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놈들은 자기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땅속의 지렁이만큼도 여기지 않았고 걸핏하면 차고 밟고 짓뭉개였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 쥬탸오룽만 보아도 그렇다. 그 어느 기업주의 짐을 날라주면 두 밀차에 은돈 한개를 준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무밀차도 넘게 날라주었는데 겨우 은돈 한개밖에 안주지 않았는가? 나머지는 모름지기 그놈이 다 떼먹었을것이다. 그런데 날라준 그 짐이 여느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탄알이 아닌가? 이 짐승같은 놈은 무슨 일이나 사실대로 말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결

핏하면 때리고 입만 벌리면 쌍욕만 하고 자기들을 개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전번에 원두막에서 있은 일도 그렇다. 차오광단을 까고 만두를 걷어갔다고 해서 그놈한테 죽을번 하지 않았는가! 그때 마침 팔로군이 제때에 와서 자기를 구원해주었기망정이지 자기는 저승으로 간지도 오랬을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전시는 팔로군에 대해 참으로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고마운 생각뿐이다. 그러나 비적들에 대해서는 오직 복수할 생각뿐이였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는것이 있었다. 샤오린과 샤오류가 팔로군이라면 왜 자기들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숨기고있는것일가? 또한 쥬톼오릉처럼 자기들을 짐승과 같이 부려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의형제를 맺으려고 했는가? 특히 자기들을 몰래 감시하다가 유독 비적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났는가? 에익! 아무리 생각해야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샤오린형, 우리와 숨박곡질을 할건 뭐람…

여기까지 사색을 펴나가던 전시는 드디여 고개를 들고 별빛같은 두눈을 번쩍거렸다.

그는 단호한 결심을 내린듯 빙긋이 웃으며 고슴도치같은 자기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입에서 《아!》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새여나오면서 두눈을 험상스럽게 찡그렸다. 자기도모르게 머리의 상처를 다쳤던것이다. 이것을 본 샤오망즈가 얼른 다가가 전시의 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야, 상처자리를 다쳐놨구나.》

《제길할, 깜빡 잊었댔어.》

아픔이 좀 가셔지자 전시는 말을 이었다.

《내 보기엔 샤오린과 샤오류가 진짜 이거라면.》 그는 손가락으로 팔자를 긋는 시늉을 하였다. 《우린 그들과 의형제를 맺을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샤오도우즈가 너무 좋아 깡충거렸다.

《아이 좋다. 전시형이 볼줄 안단 말이야!》

그러자 전시가 샤오도우즈를 꽉 잡아당겨놓았다.

《떠들지 말라.》

샤오도우즈는 입을 다물었지만 기쁨에 넘친 눈이 유리알처럼 반짝이였다. 고우성얼도 좋아라 손벽을 치려다가 전시가 샤오도우즈를 눌러놓는것을 보고 그만두었다.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던 샤오망즈는 기쁨에 넘쳐 땅을 한번 세게 내리쳤다.

《여러말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니?》

《한가지 방도는 있어. 우리 그들과 손벽을 한번 쳐보자. 만약 그들이 우리와 숨박곡질하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때는 그건 우리를 업신여기는거야. 그러면 싹 그만두자. 그래서 당분간 모르는척 하구 그들은 그들대로 하라구 하고 우린 우리대로 하면 될게 아니야. 만약 그들이 팔로군이 아니구 비적일 땐 팔로군한테 알려주어 없애치우게 하자. 너희들 어때?》

《그렇게 하자.》 샤오망즈가 대답했다. 《팔로군이라구 해두 똑똑히 물어보자. 뭣때문에 우릴 계속 감시하고 뭣때문에…》

《그야 물론이지. 우리 물음에 단 한마디라두 제대루 대답 못할땐 우린 그들을 믿지 말자.》

샤오망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문득 전시에게 물었다.

《전시야, 그 신식학생에게 돈 1만웬 준것 있지? 그건 누가 준줄 아니?… 샤오린형이 줬어.》

《샤오린형이 줬단 말이야? 음, 샤오린형이 진짜 팔로군이라면 내 그한테 절을 하겠어.》

이렇게 한참 말하고있는데 울바자짬으로 한 아이가 들어와 전시에게 말했다.

《그 신식학생이 전시형을 찾고있어. 그때 급한탓에 돈 1만웬을 내고 어머니의 약을 산걸 깜빡 잊고… 1만웬을 더 받았대.》

《맞아. 내가 약국에서 그가 1만웬을 내구 약을 사는걸 봤어.》

문득 샤오도우즈가 생각나서 끼여들었다.

《이 맹꽁아, 왜 이제야 말하니? 이거 보구 행차뒤 나발이라고 해!》

전시는 샤오도우즈를 꾸짖고나서 방금 들어온 어린 동무에게 말하였다.

《그 학생에게 알려라. 그 1만웬은 우리가 거저 준것이니 빵떡이라도 하나 사먹으라구 해.》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아이가 되물었다.

《안받으면 안된다구 그래라. 빨리 가라.》

《응.》하고 그 아이는 전시를 향해 혀를 한번 쑥 내밀어보이고는 뛰여갔다.

방도는 결정되였다. 네 동료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왕샤오린과 샤오류를 찾아 떠났다. 그들을 만나 《담판》하기 위해서였다.

2

저녁해가 서산마루에서 뉘엿뉘엿 넘어갈무렵 한가닥 해빛이 열려진 구름사이로 투광등마냥 비쳐왔다. 검은구름이 움직이는데 따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하고 다시 밝아지기도 하였다.

전시가 꼬마형제들을 데리고 가버린것은 왕샤오린으로 하여금 종잡을수 없게 하였다. 물론 샤오린은 전시가 자기와 샤오류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것을 이미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면에서 자기들을 못미더워하는지, 자기들이 언행에서 어떤 실수를 하여 전시의 기분을 거슬리게 한것은 아닌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들에게서 말할수 없는 그 어떤것을 발견한것인지? 어쨌든 전시가 급작스레 떠나간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왕샤오린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았다.

중대에서는 준동하는 비적들의 종적을 찾기 위해 정찰분대의 몇명 인원들을 변장시켜 거리로 내보냈다. 그중 왕샤오린이 맨 선참으로 전시네 4명의 가난한 아이들의 짐운반에 주의를 돌리였는데 처음 그도 밀차에 실은것이 총과 탄약이라는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번 일이 발생한 다음 당면하게는 적들의 비밀병기창고를 밝히는데 모든 힘이 집중되였다.

샤오린은 전시네들이 비적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의형제를 무었다. 여기서 마땅히 인정해야 할것은 마음을 터놓지 않고 그들과 사귀는것은 어리석다는것이였다.

이 방랑소년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가 불과 열대여섯살밖에 안되지만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고생속에 살아오는 과정에 이 사회가 그들로 하여금 빨리 철들게 하였고 강한 의협심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심도 비교적 많은 아이들로 만들었던것이다.

이런 대상을 사귀는데서 어떤 알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겠는지? 다시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면서 정찰임무도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는 방도는 도대체 어떤것인지? 진정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샤오류도 역시 왕샤오린과 같이 가면서 줄곧 이 문제에 대해 마음쓰고있었다. 무엇때문에 좋은 일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지?…

샤오류는 더 참지 못하여 왕샤오린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전시네들을 사귈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좋은 방도가 있어?》

《어쨌든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구.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도 쉽게 그들과 벗으로 사귀려고 하지 않을거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겠는지 어서 말해보렴.》

왕샤오린은 흥미가 동하여 독촉하였다.

《왕동무, 생각해보라구. 그들은 우릴 한번도 본적 없는데 어떻게 만나자마자 우리에게 마음을 주겠나.… 그러니 내 생각은 우물쭈물하지 말구 씨원하게 말해주자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우릴 믿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봤어. 그러나 그들이 아직 팔로군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 말해주었다가 혹시 겁을 먹고 곁을 더 안줄가봐 그러는거야. 그렇게 되면 일을 더 망쳐먹을수 있지 않나?》

《아까도 봤지? 전시가 그 신식학생의 집이 가난하다는걸 알자 쓰리했던 돈을 그 즉시 돌려주게 한걸 말이야.

이렇게 의협심이 강한 그들에게 비적을 소멸하고 원쑤를 갚아주겠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겁나할것은 뭐구 우리 일을 망치게 할건 또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리치가 맞지 않아. 반대로 우리가 속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연극을 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비적으로 의심받을수 있어. 그렇다고 우린 그들을 탓할수는 없어.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뭐.》

샤오류의 말을 듣고난 왕샤오린은 어느정도 공감이 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관제위원회의 결론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다그쳤다.

쑹쟝시군관제위원회는 정양거리와 룽샤거리가 교차되는 도로의 서북켠에 자리잡고있었다. 청사는 3층짜리 건물인데 꼭대기에는 붉은기가 나붓기고있다. 둘레는 사람의 키높이쯤 되는 담장이 둘러싸여있고 앞뒤문에는 팔로군들이 보초를 서고있다. 정문좌측에는 《쑹쟝시군관제위원회》라는 흰색바탕에 검은색으로 쓴 간판이 걸려있다. 한눈에 보아도 위엄이 있어보였다.

샤오린과 샤오류는 청사주변에서 잠시 거닐다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본 다음 재빨리 정문옆에 있는 접수실로 들어갔다. 보위처에 전화를 건 그들은 들어오라는 통지를 받고 곧 청사안으로 들어갔다.

보위처장 류쑹타오는 보통키에 량눈섭이 약간 들리고 눈정기가 유난히 빛나는 마흔고개에 들어선 팔로군지휘관이였다. 옌안에 있을 때는 왕샤오린이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이였다. 이 사람이 바로 샤오디얼의 아버지이다. 이 도시에 온 후 사업이 바쁜데다가 적정이 복잡하다나니 집에는 단 한번밖에 가보지 못했고 다만 샤오디얼과 그의 어머니가 몇번 왔다갔었다. 그래서 비적들에게 피해를 당할가봐 그들모녀를 인차 시내로 데려오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이 일은 샤오디얼과 그의 어머니만 알고있을뿐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보위처장》이라는 패쪽이 걸려있는 어느 한 문앞에 이른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방문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방안에서 《들어오시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니 류쑹타오가 그들에게로 마중나왔다. 그들은 동시에 발뒤축을 딱 붙이며 거수경례를 하려고 하였다. 《처장동지…》하고 입을 떼려고 하다가 그만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것을 깨닫고 들었던 손을 내리면서 피씩 웃었다.

《처장동지, 우린 지금 사민으로 됐습니다.》

《자, 꼬마들, 어서.》 류쑹타오는 그들을 붙잡고 방안에 있는 걸상으로 이끌었다. 《자, 앉소. 사민들.》

샤오린과 샤오류는 인차 앉지 않고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두개의 책상과 한개의 서류함, 벽에는 쑹쟝시지도가 걸려있고 북쪽벽에는 두개의 긴 걸상이 놓여있었다.

《자, 앉으라는데. 뭘 보구있나? 내 방에 정찰하러 온게 아니요?》

두 전사는 마주보며 웃고나서 걸상에 가앉았다.

《어떻게 왔소?》

류쑹타오는 두손을 허리에 짚으며 물었다.

샤오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류쑹타오가 앉으라고 거듭 손짓을 하였다.

《앉소, 앉소. 동무들이 왜 왔는지 내가 한번 맞춰볼가? 그 방랑아들을 만나는 문제때문이겠지? 어떻소?》

《옳습니다.》하고 대답한 샤오린은 전시를 따르던 일과 정양거리에서 본 모든 일들 그리고 전시가 자기들을 매우 경계하고있는데 대해서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다.

류쑹타오는 이미 정치지도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샤오린이 방랑아들과 의형제를 무었다는 보고를 들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찬성하였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정확한 신분을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련의 시끄러운 문제가 초래될수 있다는것이다. 한두번은 그냥 스쳐지날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면 반드시 의심을 살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도 있고 나아가서 임무

수행에 불리한 정황이 생길수 있다.
《그래 동무들은 그들과 노상 얼굴을 절반쯤 가리우고 대상할수야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왕샤오린이 대답했다. 《전처럼 그런 방법으론 그들과 접촉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들에게 툭 털어놓고 말해주려고 합니다.》
《옳소!》 류쑹타오는 크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벗을 사귀려면 진실해야 하오. 남의 방조를 받으려고 하면서 비밀이 샐가봐 속을 주지 않으면 방조를 받지 못하지.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마찬가지요.》
《그럼 우리의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겁니까?》
샤오린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소. 난 전적으로 동의하오.》 류쑹타오는 걸상을 끌어당겨 왕샤오린과 샤오류의 앞으로 다가앉았다. 《우선 동무들은 그 방랑아들을 사귄 다음 잘 이끌어주어야 하겠소. 비밀병기창고를 밝히는데 그들을 인입시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소. 동무들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적들의 비밀병기창고위치를 빨리 알아내는것이요. 내가 동무들의 이름을 찍어서 중대에 과업을 준것은 바로 동무들이 나이가 어리고 영민한데다가 일정한 정찰경험을 가지고있어 능히 방랑아들과 쉽게 접촉할수 있기때문이요. 비적들이 그 방랑아들을 어떻게 일을 시켜먹는가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다 봤기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소.》
류쑹타오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왕샤오린과 샤오류를 벽에 걸린 지도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다음 그는 먼저 서쪽교외에 자리잡고있는 혁명렬사유자녀보육원을 가리켰다.
《요즘 이틀어간에 우린 이 부근에서 수상쩍은 현상을 여러건 발견했소. 여기서부터 북쪽켠으로 멀지 않은 왕쟝공원에서 어제저녁에 마차를 몰고가던 한 로인이 살해된것을 발견했는데 마차는 온데간데 없어졌소. 그리구 보육원 서쪽에 있는 수림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웬 사람들이 참새조롱을 들고 왔다갔다하는것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새를 잡는것이 아니라 주위를 예리하

게 살피고있다고 하오. 또한 공원의 변소밑에서 총신과 격발장치 그리구 탄알 등을 버린것을 계속 볼수 있소. 아마 몰래 숨어있거나 도주하는 비적들이 우리의 수사에 걸릴가봐 버린것 같소. 다음 동무들이 이미 발견했지만 4명의 방랑아들이 날라가던 두 밀차의 탄약문제도 있소. 우리가 초보적으로 분석해본데 의하면 여기에 보육원을 내온이래 발생한 사건이 약 20여건이나 되오. 그리구보면 적들이 이 보육원근방에서 무엇을 노리고있는것이 분명하오. 그래서 당분간 적들을 절대로 놀래우지 말고 모르는척 해야겠소. 한편 동무들은 이 근방에 대한 정찰을 더 강화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내놓고는 절대로 손대면 안되겠소.》

류처장의 말을 다 듣고난 샤오린은 즉시 자기 결심을 내비쳤다.

《우린 오늘저녁에 둔덕아래켠 평지붕집근처에 있는 수림속에 숨어서 병기물자를 어데서 끌어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적들은 그런짓을 할 때에는 한두놈이 하지 않을거요. 주위에 반드시 감시하는 놈이 있을수 있소. 그런데 오늘오전에 있은 일로 해서 적들은 당분간 병기물자를 나르는것을 중지할수 있소.》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류처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린 보육원을 딴곳으로 옮기려고 하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 적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지게 할수 있고 또한 적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마련해주게 될수도 있소. 그래서 한개 중대를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쑹쟝시인민방송국에 파견하여 표면상으로는 방송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소문을 내놓고 실지로는 보육원을 보위하자는거요. 혹시 동무들이 정찰과정에 그 어떤 긴급한 정황이 발생하면 나를 통하지 말고 직접 그들과 련계하시오. 이 문제는 내가 이미 보육원 원장 위즈란동무와 방송국경비중대장 런다융동무에게 말해주었소. 당면하게 동무들은 적들이 방랑아들을 리용하려는 이 점을 놓치지 말구 전과를 확대해나가야 하겠소. 비밀병기창고의 내막을 알아낼 때까지… 내 말의 뜻을 알만 하오?》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동무들은 전시를 만나면 보육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 이건 그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에도 유익한거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쑹타오는 정기가 넘치는 꼬마전사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고나서 그들의 어깨를 차례로 두드려주었다. 마치 어린 두어깨가 무거운 짐을 담당해낼수 있겠는가를 가늠해보기라도 하는듯 했다.
《음, 괜찮아. 동무들은 대담하면서도 침착하고 또한 머리를 써야 하오. 그렇지 않소, 꼬마들?》
《옳습니다.》
《권총을 가지고있소?》
류쑹타오는 손으로 그들의 허리를 툭툭 쳐보았다.
샤오린과 샤오류가 동시에 옷섶을 헤치자 새것과 다름이 없는 권총들이 보이였다.
《하, 괜찮은걸.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준거요?》
샤오린과 샤오류는 그렇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들의 얼굴엔 자신심과 긍지감이 함뿍 어려있었다.
《이젠 가보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소.》
샤오린과 샤오류는 차렷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하려다가 또 빙긋 웃었다. 류쑹타오는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은 사민들이지.》하고 깨우쳐주었다. 샤오린과 샤오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곧 방에서 나왔다.
북은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고 꽹과리는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류처장의 방에서 나온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곧바로 전시와 샤오망즈를 찾아 떠났다. 두가닥으로 흐르던 맑고 깨끗한 물이 어느덧 하나로 합쳐져 흐르듯이 그들의 마음도 하나로 합쳐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과일나무잎소리만 들리던 과수원에 어느덧 어둠이 깃들었다. 그러나 전시와 샤오망즈 등 아이들에게는 이 어둠이 유난히 밝고 류달리 상쾌하게만 느껴졌다. 마치 가슴속에 맺혀

있던 온갖 시름이 순간에 날려가 말끔히 가셔진듯 했고 어지럽기 그지없는 깊은 굴속에서 방금 기여나와 밝은 세상에서 새 생활이 시작되는듯 하였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밤바람에 상사화향기가 실려와 이들의 가슴속에 한껏 스며들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마치 아이들의 눈빛인양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전시는 여러 동생들과 함께 두손을 맞잡아들고는 왕샤오린과 샤오류에게 정중히 말했다.

《오늘 두 형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툭 털어놓고 진심을 말해준데 대해 난 정말 기쁘기 그지없어요. 이건 우리를 믿구 한 말이겠는데 앞으로 우리 목에 칼을 대거나 가슴에 총구를 겨눈다 해두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다는것을 굳게 약속해요. 오늘 똑똑히 말하는데 살아도 같이 살구 죽어도 같이 죽겠어요.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수 없듯이 일구이언 안할테니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간다고 해두 후회하지 않을거예요.》

《후회하면 어떻게 한다?》

샤오망즈가 제꺽 한마디 물었다.

《그를 죽여버리겠다.》

동생들이 모두 대답했다.

《좋아.》

전시는 발가락으로 땅에 원을 그려놓았다. 이어 자기가 먼저 그 원안에 대고 침을 뱉은 다음 발로 뻑 문대였다. 뒤따라 다른 아이들도 전시처럼 침을 뱉은 다음 발로 한번 문대였다. 샤오린과 샤오류도 그들처럼 맹세를 다지였다.

전시는 왕샤오린을 향해 돌아섰다.

《샤오린형, 우린 앞으로 샤오린형을 따르겠어.》

왕샤오린이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전시동생을 따르겠어.》

이윽고 샤오망즈가 낮으나 엄숙한 어조로 맹세를 다지였다.

《우린 팔로군을 따라 비적을 소멸하고 원쑤를 갚겠어요.》

《우린 팔로군을 따라 비적을 소멸하고 원쑤를 갚겠다.》

꼬마형제들도 모두 합창하였다.

제 6 장

정세는 청잉창중대장과 쉬성페이정치지도원이 예견했던대로 되여가고있었다.

깊은 밤이였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울창한 수림을 꿰질러 위슈촌마을어구의 둔덕에 당도한 마치는 나무숲을 헤치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깊은 잠에 든 마을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개짖는 소리가 들려올뿐 사위는 괴괴하였다. 야광시계를 들여다보니 2분전 12시였다. 이윽고 마치는 옆에 붙어있던 구나이린에게 낮은 소리로 명령했다.

《전달하라. 위슈촌마을을 쓸어버리라!》

구나이린은 즉시 마치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쓸어버리라!》라는 말은 비적들만이 통하는 말인데 이것은 초토화를 의미하였다. 일단 마을을 습격하면 어른과 아이 할것없이 숨쉬는 사람은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버리라는것이였다. 며칠전에 놈들은 산너머에 있는 두개 마을을 처참하게 쓸어버렸었다.

비적들속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산토끼는 자기의 굴근방의 풀을 먹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네 가까이에 있는 마을까지 쓸면 앞으로 먹고마시는것을 보장하는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우고만다는것이다. 그러나 마치놈은 이런것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놈은 《보급로》는 무슨 말라빠진 《보급로》야. 이 대장이 살아있는 한 어디에 가든 다 내 집이고 여기에 나를 돌보아줄 곳이 없으면 다른데 또 있다고 뇌까리면서 악착스럽게 비적들을 내몰았다. 마치는 위슈촌마을에 팔로군이 주둔하고있는것이 마치 자기 눈까풀속에 가시가 배겨있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겼다. 그들이 언제든지 자기 눈알을 찌를수 있기때문에 그냥 남겨둘수 없다는것이였다.

위슈촌마을에서 차오광단을 만난 쥬타오룽은 그곳에 주둔하고있는 팔로군의 형편에 대해서와 밤 12시에 차오광단의 신호에 따라 팔로군을 습격하게 되여있다는것을 마치에게 죄다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마치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을습격을 단행할것을 결심하였다.

원래 마치라는 놈은 음흉하고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데다가 천성적으로 모험하기를 좋아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놈은 공명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데다가 코대 높은 국민당의 녀특무까지 맞장구를 쳐주기때문에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듯이 놀아대였다. 수천의 인원을 가진 《광복군》총사령도 눈에 두지 않는 마치가 한개 소대밖에 안되는 팔로군이 코앞에 있는것을 어떻게 그냥 두겠는가. 그렇지만 위구를 느낀 구나이린은 마치에게 혹시 팔로군의 계책이 있을수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해보고 행동하라고 거듭 타일렀다.

그러자 마치는 퉤 하고 침을 내뱉으며 《계책은 무슨 놈의 계책, 팔로군의 한개 소대가 아니라 한개 중대라도 무섭지 않다!》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으시댔다.

그러다가 말라꽹이원숭이 구나이린의 충고를 거듭 듣고서야 어느정도 좀 자중하였다. 그는 만약의 경우를 예견하여 팔로군이 뒤에서 공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인원들은 부사령에게 붙여 산을 내려가게 하고 20～30명의 인원은 떨구어 자기의 곁에 있게 하였다. 전투가 개시되면 내려다보다가 이기면 위풍당당히 내려가서 한바퀴 돌고 귀로에 오르는거고 만일 패하면 저리 뺑소니를 치자는것이였다.

밤 12시가 되였다.

차오광단의 집창문에서 손전지불빛이 세번 껌벅이였다. 동안을 두었다가 또다시 세번 껌벅이였다. 이렇게 련속 몇번 반복되였다.

이것을 본 구나이린은 너무 좋아 얼른 마치에게 전지불빛이 비치는 곳을 가리켰다.

《사령님, 저걸 보시오!》

《흥, 그 번대머리가 시간을 어기지 않았구만.》

마치는 싸창을 뽑아들고 부사령에게 손짓하였다.

《내려가라. 절대로 소리내지 말구 곧바루 팔로군병영에 접근하여 통쾌하게 들부시라.》

그러자 부사령이 재빨리 싸창을 빼들고 졸개들을 양새끼처럼 산아래로 몰고내려갔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이 비적들이 팔로군이 파놓은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어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위슈촌마을에 내려간 놈들은 곧 팔로군의 포위망에 걸려들었다. 마지막 한놈까지 다 포위망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캄캄하고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치며 하늘땅을 진감하는 총소리와 고함소리, 지뢰가 폭발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마을은 삽시에 비적들을 소탕하는 일대 전투장으로 변하였다. 총쏘는데서와 싸움하는데서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던 놈들은 철통같은 팔로군의 매복권안에서 된벼락을 맞고 혼비백산하여 변변히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치려고 하였다. 팔로군의 맹사격앞에서 비적놈들이 련이어 쓰러졌다. 뒤이어 공격나팔소리가 울리자 펄펄 뛰는 팔로군전사들이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손들면 살려준다!》하고 고함을 지르며 적진에 뛰여들었다. 반항하는 비적들은 총창으로 쓸어눕히고 투항하는 놈들은 사로잡기도 하였다.

이때 비탈진 언덕에서 총소리가 났다. 마을의 어느 한 곳에서 경계근무를 서고있던 팔로군전사들이 일부 비적들이 수림쪽으로 도망치는것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추격하였다.

청잉창중대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한개 분대인원을 데리고 언덕으로 달려갔다.

마치는 비로소 자기가 팔로군의 계략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닫고 더 생각할새없이 높은 둔덕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뜻밖에 와이포산에 있는 본거지에서도 삼단같은 불길이 솟아오르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제서야 본거지도 이미 팔로군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갈팡질팡하였다.

마치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을 때 졸개들을 내버리고 도

망쳐온 구나이린이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였다.
《사령님, 둔덕을 따라 북쪽으로 더 가다가 수수밭을 통하여 성안으로 들어갑시다. 그까짓 군수품창고가 있는데 걱정할것 있나요. 앞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모을수 있으니까요.》
구나이린의 말을 듣고난 마치는 어느정도 마음이 진정되였다.
《옳거니, 성안으로 들어가자구. 내 공산당과 기어코 결산할테다!》
이렇게 뇌까리며 마치는 곧 구나이린과 함께 일부 졸개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달려갔다.
마을의 북쪽 둔덕에 수수밭이 하나 있었다. 거기에는 위슈촌 사람들이 수많이 피신하여 와있었다. 전투를 예견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적들을 더 효과적으로 족치기 위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의도적으로 조직한것인데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책임지고 돌봐주기로 하였다. 마을에서 콩볶듯 하는 총소리, 고함소리를 듣고 샤오디얼은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몰라했다.
《어머니,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비적들을 몽땅 없애치울거예요.》
샤오디얼의 손을 쥐고 수수밭의 높은 곳에서 총알이 비발치는 마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기뻤다. 불현듯 그의 머리속으로는 이 몇해동안에 온갖 고생과 멸시를 당해온 그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고 동시에 왜놈들이 이미 망한데다가 비적들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앞날을 그려보았다. 이날을 위해 샤오디얼의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그들모녀는 거의 10년동안을 놈들에게서 모진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던것이다. 이제는 됐다. 더는 무서울것이 없고 멸시도 당하지 않게 되였다. 자기네 집 세식구들도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 그날도 멀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도 올가요?》
《그럼, 오구말구!》
이때 앞쪽의 멀지 않은 곳에서 한무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곤두박질하듯 뛰여오는것이 보였다. 이것을 본 샤오디얼은 가슴이 떨려와 어머니의 품에 바싹 붙었다.

《누굴가? 아마 도망쳐나온 비적들같아요.》

샤오디얼의 어머니는 무질서하게 달려오는 그림자들을 보고 대번에 비적들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틀림없다.

그는 샤오디얼을 밀어놓고 이웃들에게 알려주었다.

《비적들이 와요. 잘 숨으세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고난 샤오디얼의 어머니는 생각해보았다. 놈들이 이곳으로 뛰여오는것은 분명 이 수수밭을 차지하기 위해서일것이다. 그렇다면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놈들을 딴데로 유인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샤오디얼에게 당부했다.

《얘야, 넌 이웃들과 같이 있으라. 움직이지 말구. 알겠니?》

《어머니!》

샤오디얼이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수수밭 다른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화살에 놀란 새처럼 간이 콩알만 해진 마치는 졸개들의 엄호하에 어느덧 수수밭으로 거의 접근해왔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수수밭속으로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라! 어딜 도망치려구.》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웨침소리가 위엄있게 들려왔다.

마치는 화닥닥 놀라 돌아서서 서쪽으로 뛰려고 하였다. 이때 뒤에서 《마치와 구나이린을 잡으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땅! 땅! 땅! 하는 총소리가 연방 울리는 동시에 총알들이 날아와 수수대를 스치며 푹푹 박혔다. 몇놈의 비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치는 너무 급해맞아 줄곧 구나이린의 팔소매를 잡고 놓지 않았다.

《동생, 어서 말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정황속에서도 역시 참모장다운 구나이린이 잠시 생각해보았다. 어쩐지 수수밭에서 들려온 웨침소리가 남자가 아니라 녀자의 목소리같은 느낌이 들었다. 더우기 총을 쏘지 않는것으로 보아 팔로군같지 않았다. 팔로군이라면 분명 총을 쏘았을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벌써 다 죽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자 구나이린은 수수밭에 있는 사람들은 팔로군

이 아니라 숨어있는 부녀자들일것이라고 단정했다. 놈은 팔꿈치로 마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귀속말로 속삭였다.

《사령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녀편네들같습니다.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다가…》

《아이참, 우린 수수밭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마치는 하는수없이 억지로 구나이린을 따라 수수밭으로 다가갔다. 그러면서 심복졸개들에게 앞을 잘 살피라고 거듭 일렀다.

샤오디얼의 어머니는 놈들이 다시 수수밭으로 들어오려고 서성거리는것을 보고, 또한 뒤에서 《마치와 구나이린을 잡으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오자 불시에 지난날에 맺힌 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속으로 솟구쳐올랐다. 그는 결연히 마음을 다잡으며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이놈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잡아두어야 한다.

그는 수수대를 헤집고 달려가 도주하려는 마치와 구나이린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리고 두팔을 쩍 벌리고 추상같이 소리쳤다.

《서라!》

마치는 이 소리에 너무 놀라 그만 펄썩 주저앉을번 했다. 이때 구나이린이 그 녀자가 일찌기 항일련군에 참가한 류쑹타오의 안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한발 나서서 샤오디얼의 어머니를 향해 총구를 들고 옆으로 비키라는 시늉을 하였다.

《빨갱이녀편네, 비켜! 비키지 못하겠어? 한방 갈기기 전에.》

구나이린은 총을 쏘면 팔로군이 달려올가봐 저어했다.

《흥, 절대로 못간다.》 샤오디얼 어머니는 증오에 찬 두눈을 부릅뜨고 두팔을 벌린채 그냥 버티고 서있었다. 《절대루 비키지 않겠다. 절대루!》

어머니의 뒤에 얼마간 떨어져있던 샤오디얼은 어머니의 견결한 행동에서 고무를 받고 저도모르게 담이 커져 어머니와 같이 비적두목의 앞에 당돌하게 나섰다.

《야, 이 쌍년, 비키지 못하겠어?》

구나이린은 막무가내로 샤오디얼의 어머니를 옆으로 밀어놓고 길을 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구나이린의 앞가슴을 콱 밀치였다. 그바람에 놈은 뒤로 벌렁 나자빠질번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여러 비적들이 샤오디얼 모녀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밀어버리려고 야단법석하였다. 샤오디얼은 더는 참을수 없어 악에 받쳐 소리쳤다.

《팔로군아저씨, 빨리 오라요. 비적들이 여기 있어요.》

바빠맞은 마치는 싸창을 들어 샤오디얼의 머리를 내리쳤다. 샤오디얼은 어둠속에서도 마치가 손을 들어 내리치는 동작을 보고 옆으로 비키는통에 요행 정통은 맞지 않았다. 한편 자빠질번한 구나이린은 화가 치밀어올라 샤오디얼의 어머니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샤오디얼의 어머니는 달려드는 구나이린을 향해 귀쌈을 한대 안기였다. 구나이린은 눈에서 벙긋 하고 불꽃이 일었으나 소리를 지를수 없었다. 다급해난 마치는 이 빨갱이녀편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필경 팔로군에게 잡힐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샤오디얼 어머니의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샤오디얼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은채 한순간 비틀거리다가 천천히 뒤로 넘어졌다.

이것을 본 샤오디얼은 《어머니!》하고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그러안았다. 구나이린이 총을 들어 샤오디얼을 쏘려고 하는데 등뒤의 멀지 않은 곳에서 팔로군들이 총을 쏘며 달려왔다. 그들이 쏜 총알이 수수밭근방에 날아와 또 2명의 비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이것을 본 마치와 구나이린은 몇명의 졸개들과 함께 황급히 수수밭속으로 숨어버렸다.

수수밭쪽으로 달려온 청중대장은 《빨리 추격하시오. 절대로 놓치지 말구.》하고 전사들에게 명령하였다.

원래 비탈진 언덕에서 적을 소멸하던 청중대장은 갑자기 수수밭근방에서 난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던것이다.

전사들은 수수밭에 들어가서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청중대장은 샤오디얼의 어머니를 안아일으키며 소리쳐불렀다. 샤오디얼은 어머니를 부여잡고 몸부림쳤다.

《어머니, 빨리 눈을 뜨고 날 좀 보라요.…》

그의 통곡소리는 어둠이 깃든 수수밭을 지나 저멀리 와이포산기슭에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얼마 안있어 피신해있던 마을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샤오디얼의 어머니를 부여잡고 울며불며하였다. 한 할머니는 샤오디얼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수 없겠는가 해서 그의 입에 대고 입김을 힘껏 불어넣어주기도 했다.

새 생활을 학수고대하던 순박한 농촌녀인은 서광이 비쳐들무렵 자기의 붉은피를 서슴없이 바쳤다. 그는 눈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마치도 팔로군이 비적들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기라도 하려는듯…

제 7 장

1

잠에서 깨여난 전시는 창문쪽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날이 밝았는지 밖은 훤하였다. 그는 두눈을 깜빡거리며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천정이 보였다. 벽체와 자기가 덮고있는 이불 역시 하얀색이였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내가 큰 목화퉁구리안에 누워있는것이 아닌가?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이런 호화로운 방에 와있다니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그가 슬그머니 자기의 장딴지를 꼬집어보니 아픈감이 났다. 또

한 기침을 한번 깇어보니 틀림없이 소리가 들리였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인데 세상형편이 이렇게 달라졌단 말인가? 참으로 믿을수 없는 일이였다.

전시가 이불속에서 발을 뽑고 바라보니 멀쩡하게 깨끗하였다. 그는 엄지발가락을 아래우로 움직여보았다.

어제저녁 전시는 샤오도우즈와 함께 왕샤오린을 따라 천당과 같은 혁명렬사유자녀보육원에 왔다. 보육원에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할것없이 모두 떨쳐나 반가움과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들을 환영하였다.

보육원 원장 위즈란은 18살나는 처녀인데 류달리 영채가 도는 두 눈이며 오똑한 코날이며 발그스레한 입술이며 말할 때는 마치 금방울을 굴리는것과 같이 쟁쟁한 목소리를 가진 명랑한 팔로군군인이였다. 왕샤오린의 말에 의하면 위즈란원장은 원래 문공단원(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는 연예대원)이였다고 한다. 그러던것이 상부의 조치에 따라 옌안에서 여기 보육원 원장으로 조동되여왔다고 한다.

전시의 눈에는 이 원장이 만만찮은 그런 녀자로 보였다. 이전의 육아원 원장들도 녀자들이였는데 그들의 낯짝은 언제 보아도 사납고 무뚝뚝했다. 마치 아이들을 관리하는 염라대왕과 같아 발을 한번 탕 굴렀다 놓아도 부모없는 고아들은 절반 죽었다 펴군 하였다. 그러나 이 보육원 원장 위즈란은 그렇지 않았다. 이를테면 조금도 무섭지 않을뿐더러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였다. 마치도 친누나, 친언니와 같이…

전시와 샤오도우즈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위즈란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늘 와서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면서 금방울 굴리는것 같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하군 하였다.

《동무들을 환영해요. 이제부터 동무들은 다 우리의 전우예요. 혁명전우란 말이예요. 여기가 바로 동무들의 집이고 학교입니다.》

말은 또한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말을 해주는것만도 마음이 후덥고 감개무량했다. 다른 선생님들도 더 말할것 없고 경비원인 싱아바이까지도 자애로운 할아버지와 같았다. 아이들이 말한데 의하

면 싱아바이가 수염이 난 턱으로 얼굴을 문대여줄 때는 너무 간지러워 누구나 참지 못하고 깔깔거린다고 한다. 어떤 때는 자기들을 물어주기도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 싱아바이는 늘 사냥총을 가지고 밤새껏 아이들을 위해 경비를 서며 개가 짖거나 고양이가 울어도 그것을 쫓아버린다고 하였다.

원장의 말에 의하면 싱아바이는 원래 항일련군의 오랜 통신원이였다고 한다. 그는 날개돋친듯한 다리를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느며 맡겨진 통신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가 수림과 산고개를 얼마나 많이 넘나들었으면 범과 승냥이, 곰과 메돼지들도 그를 알아본다고 하겠는가.

원장과 싱아바이외에 또한 4명의 녀선생들도 있었는데 역시 아이들을 잘 대해주었고 그전 왜정때처럼 걸핏하면 아이들의 귀쌈을 때리거나 손바닥을 치는 그런 선생과는 판판 달랐다.

또한 여기에 청소를 맡아보는 한 로파가 있는데 그는 하루종일 가야 한번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를 푹 숙이고 수걱수걱 일만 했다. 사실 이 녀인은 전시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 혹시 언제인가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앞에서 보았던지?

두손으로 뒤덜미를 받치고 침대에 누워있는 전시는 어제저녁에 여기에 올 때의 일과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이슥토록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홀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샤오도우즈는 여전히 달게 자고있는데 샤오린형의 침대가 비여있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샤오도우즈의 침대가까이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샤오도우즈의 약간 벌려있는 두입술사이로는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새물새물 웃기도 하였다.

이 깜찍한것, 누가 너를 따르지 않는데 숨은 왜 차서 그래? 누가 너를 놀려주지 않는데 무엇이 그리도 좋아 웃어?

전시는 불쑥 그를 놀려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한오리 뽑아 샤오도우즈의 볼에 대고 살며시 찔러주었다. 그러자 샤오도우즈는 파리가 내려앉은줄 알고 빡 하

고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후려쳤다. 이것을 보고 전시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 소리에 눈을 뜨고 전시를 본 샤오도우즈가 발을 구르면서 찡찡거렸다.

《에이, 남이 자는데 못살게 굴면서…》

《여여, 이 도련님아, 어느때게 아직두 자구있어?》

전시가 빈정댔다.

그제서야 샤오도우즈가 머리를 들어 창문쪽에 비낀 해빛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는 손등으로 눈곱을 대강 문대고나서 기쁨에 넘쳐 한마디 했다.

《전시형, 난 꿈을 꿨댔어.》

《그래 꿈에서 누가 너를 쫓아오더니?》

《그건 어떻게 아니?》

《흥!》 전시는 한다리를 다른 다리우에 올려놓으며 익살을 부렸다. 《그래서 나를 손오공이라구 하지 않아. 난 얼굴표정만 봐두 누가 어데서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다 안단 말이야. 너 생각해보렴. 그래 넌 나의 동생인데 누가 너를 쫓아오고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니?》

《전시형, 난 쥬탸오룽에게 타도를 먹이는 꿈을 꿨댔다.》

《뭘? 쥬탸오룽을?》

샤오도우즈는 손세를 써가며 말줄기를 내리엮었다.

《저녁에 내가 정양거리를 거닐고있는데 갑자기 나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 쥬탸오룽이 아니겠어. 그놈이 나의 멱살을 꽉 잡더니 〈이놈, 너 전시하구 뒤에 숨어서 몰래 날 해치우려고 했지? 오늘은 내 총맛을 좀 봐라!〉하고 총을 꺼내 땅 하고 내 배에 대구 한방 쏘지 않겠어. 난 이젠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고있는데 배를 만져보니 아프지두 않구 피도 안 나왔어. 그래서 됐다 하고 생각하고는 한번 곤두박질쳐서 천궁의 구름우로 올라섰지 뭐. 그리구 손채양을 하고 내려다보니 쥬탸오룽이 입을 벌리고 날 올려다보면서 무엇이라고 손짓하지 않겠어. 그래 〈이 쥐새끼같은 쥬탸오룽 이놈, 오늘 이 손오공이 네놈에게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주련다.〉…》

《가만, 네가 손오공이 됐다는거야?》
《말을 막지 말어. 그런데 쥬탸오룽도 공중제비로 내가 올라선 구름우에 올라오지 않겠어. 이놈 어디 죽어봐라 하고 손끝으로 그의 머리꼭대기를 힘껏 튕겨주었어. 그러자 펑 하더니 그놈의 머리에서 검은 피가 콸콸 쏟아져나오더니 인차 두눈이 뒤집히고 아래로 내리꽂히더란 말이야. 바로 이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놈을 어디론가 훌날려보내구말았어. 난 그것을 보구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위엄있게 한마디 했어.
〈손오공이 여기 있다. 하늘아래의 비적들은 내가 다 잡아치울테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하늘을 다 뒤흔들어놓았어.》
《난 이미 그걸 알고있었어.》 전시는 두팔을 끼고 말을 이었다. 《그건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이미 염라대왕님의 지옥의 명부에서 제명되였기때문에 하늘과 운명을 같이하게 되였구 우뢰벼락신과 한집안식구가 돼서 말소리가 특별히 크구 힘도 특별히 세서 나쁜 놈을 쉽게 쳐죽이는거란다.》
두 아이가 한참 꿈소리를 하고있는데 온몸이 이슬에 푹 젖고 침울한 표정을 한 왕샤오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전시와 샤오도우즈는 동시에 일어났다.
《샤오린형, 어데 갔댔나?》
《샤오망즈랑 같이 앞쪽켠의 수림속에 가서 밀차가 없는가를 보구 오는 길이야.》
《있어요?》 전시가 물었다.
샤오린은 고개를 흔들었다.
《돌아오면서 들었는데 어제저녁 위슈촌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대. 대부분의 비적들은 다 소멸되구 비적두목 마치놈과 구나이린만 도망쳤다누나.》
이 소식을 들은 전시와 샤오도우즈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기쁜것은 비적들이 대부분 소멸된것이고 아쉬운것은 마치와 구나이린을 놓친것이였다. 그런데 쥬탸오룽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었다. 그 나쁜 놈의 종자가 죽었으면 얼마나 씨원하랴.
어제밤에 샤오린과 샤오류 그리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은 둔

덕아래켠 평지붕집앞에 있는 수림속에서 병기물자를 실은 밀차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줄곧 살피다가 날이 밝자 하는수없이 모두 철수하였었다. 아마도 적들은 무슨 기미를 채고 행동을 중지한것 같았다.

날이 밝자 샤오린은 샤오류와 샤오망즈더러 돌아가서 자라고 이르고는 군관제위원회의 류쑹타오처장을 만나러 갔다. 거기에서 비로소 어제저녁에 멋있는 매복전을 진행한데 대해서와 마치와 구나이린을 놓친데 대해서 알게 되였다. 동시에 마치와 구나이린이 도망치는것을 막아선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그놈들한테 잘못된데 대해서도 알게 되였다.

왕샤오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힘겹게 걸어왔다. 그것은 불행한 소식에서 받은 비통감과 함께 적들의 병기창고내막을 알아보기 힘들게 된데서 오는 실망감이였다.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그토록 바라며 살아오던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승리가 다가온 이 시각에 비적두목한테 잘못되였으니 왜 통분해하지 않으랴.

그 비적두목은 도망쳤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병기창고에 의거해서 인원들을 보충한 다음 다시 달려들것이 뻔하였다. 그러므로 이 화근을 깨끗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샤오디얼의 어머니와 같이 좋은 날이 오기를 일일천추 고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화를 입게 될것이다.

샤오린은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잘못되였다는 소식을 전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전시가 샤오디얼의 집과 남다른 관계가 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당분간 말해주지 않기로 한것이다.

기상종소리가 울리였다. 그러자 복도에서 아이들의 발자국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샤오린이 다가가서 문고리를 벗겼다. 보니 위즈란원장이 한손에는 퇴색된 누런 군복을, 다른 한손에는 약함을 받쳐들고 웃으며 문앞에 서있는것이였다.

《모두 일어났구만요.》

《일어났습니다.》 샤오린은 제꺽 원장이 들고있는 군복과 약함

을 받아드는 한편 전시와 샤오도우즈를 향해 눈짓을 하였다.

빤쯔만 입고있던 전시와 샤오도우즈는 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했다. 이들의 엄숙하고 당돌한 행동에 위즈란과 샤오린은 방긋이 웃었다.

《왜 이러구 서있어요?》

위즈란은 그들앞에 다가가 웃으며 물었다.

《그건…》 전시는 턱아래에 서있는 샤오도우즈를 한번 슬쩍 보고나서 말끄리를 달았다. 《그전에 학생들이 일본선생들한테 이렇게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난 일본선생이 아니예요.》 위즈란은 피씩 웃었다. 《빨리 앉으세요.》

전시는 옆에 서있는 샤오린을 바라보고 어쩐지 쑥스러운감이 들어 샤오도우즈의 다리를 발가락으로 툭 건드리고는 서로 마주보며 히죽이 웃었다.

《자, 어서 이 옷을 입으세요.》 위즈란은 작은 호수를 한벌 골라 샤오도우즈에게 주고 비교적 큰것을 전시와 샤오린에게 각각 나누어주었다.

샤오린은 옷을 받아쥐고 한참 머뭇거렸다.

《저도 입어야 합니까?》

《입어야 해요.》 위즈란은 다정한 어조로 설명해주었다. 《보육원에 들어오면 이 옷을 입어야 해요. 나갈 때에는 다른 옷을 바꿔입고 나가도 돼요. 이 근방에 적정이 복잡하기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자기의 신분을 로출시키지 말아야 하니까요. 지어 자기 사람들한테도 말이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샤오린은 위즈란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힘있게 대답했다. 이것도 류쑹타오처장이 이미 지시한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시와 샤오도우즈를 보니 그들은 아직 꿈만해하는 기색이였다. 그래서 샤오린은 차후에 그들에게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세사람은 다같이 보육원 원아들이 입는 퇴색된 누런 군

복을 갈아입었다. 비록 원장이 샤오도우즈에게 작은 옷을 골라 주었지만 입어보니 여전히 커보였다. 웃옷자락은 무릎우에 드리우고 바지가랭이는 땅바닥에 닿고도 많이 남았다. 그러자 위즈란은 샤오도우즈의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은 이대로 입어요. 저녁에 내가 고쳐주겠어요.》

《일없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위즈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샤오도우즈의 마음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어려서부터 부모없이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자기를 이렇듯 살뜰히 대해주니 어찌 가슴이 후더워오지 않으랴. 이윽고 그는 형들이 늘 최대의 례의를 표시할 때 하던것처럼 두손을 맞잡고 한무릎을 꿇어앉았다.

《좋은 누님, 정말 고마와요.》

전시는 이것을 보자 얼른 샤오도우즈를 일으켜세웠다.

《팔로군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

《그럼…》 샤오도우즈는 얼굴을 붉히며 묻는듯한 표정으로 전시를 바라보았다.

《원장선생님, 우린…》 전시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려다가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것 같아 제꺽 고쳐 말하였다. 《우리 가난뱅이아이들은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시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샤오도우즈도 당돌하게 전시가 하는대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였다.

그들의 이런 행동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다나니 위즈란은 미처 말릴 사이가 없었다. 그는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웃음은커녕 오히려 가슴이 짜릿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전시, 샤오도우즈, 이러지 마세요. 공산당에서 나를 여기에 보낸것은 동무들과 같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혁명의 진리를 배워주라고 한것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것은 응당한거예요. 다시말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것을 아마 동무들은 지금 잘 알수 없겠지만 앞으로 차차 알게 될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위즈란은 약함을 열었다. 전시를 보고 침대머

리에 앉게 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아주려고 하였다. 이때 전시는 붕대를 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심한 누나처럼 세심하고 깐깐하게 치료해주는 위즈란을 보고 하려던 말을 목구멍으로 삼켜버리고말았다.

이때 방문이 빠금히 열리더니 난데없이 두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들어왔다. 한 아이는 얼굴이 동그란 사내애이고 다른 아이는 닭알처럼 생긴 소녀인데 모두 네댓살쯤 되여보였다. 호기심어린 눈길로 훌렁하게 큰 옷을 입은 샤오도우즈를 바라보던 사내애가 두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넌 누구니?》

《난 나지 뭐.》

샤오도우즈는 제법 허리를 쭉 펴며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히히, 난 나지 하는 말은 무슨 소리니?》 어린 소녀가 방긋 웃으며 한마디 뇌였다.

《버릇없이 구는게 누구예요?》

위즈란은 전시의 머리를 치료해주느라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채 나직이 물었다.

《접니다, 샤오핑구오입니다.》 사내애가 먼저 대답하였다.

《저예요, 샤오마오얼이예요.》 이어 소녀애가 대답하였다.

《그럼 모두 들어와서 알고지내세요.》

위즈란은 여전히 머리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이윽고 살랑살랑 발을 옮기며 들어온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은 머리를 쳐들고 매 사람들을 하나하나 올려다보았다.

맨 먼저 왕샤오린이 입을 꽉 다물고 두볼을 불룩이 내민 샤오핑구오에게 손을 내밀었다.

《난 왕샤오린이라구 한다. 널 알게 되여 반갑다.》

《정말?》 샤오핑구오가 물었다.

《그럼.》

《그럼 나도 기뻐.》

샤오핑구오는 제법 어른들처럼 샤오린과 악수를 하였다.

《난…》하고 샤오린은 말쑥하고 수집음을 타는 샤오마오얼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 소개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마오얼은 제꺽 앞질러서 《왕샤오린, 이자 그렇게 말했지요?》하고 샤오린에게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청아한지 마치 고양이 우는 소리같았다.

《그럼, 왕샤오린이다.》 왕샤오린은 샤오마오얼의 손을 힘있게 잡고 자기 이름을 다시 뇌였다.

《히히, 재미있네.》

샤오마오얼은 무척 기뻐 입을 다물줄 몰랐다.

샤오핑구오는 이번에는 샤오도우즈에게 손을 내밀었다.

《넌 이름이 뭐니?》

《난 대성이라구 한다. 알겠니? 〈서유기〉에서 나오는 손오공의 다른 이름이다. 얘,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알수 있겠니?》

샤오도우즈는 의연히 뒤짐을 쥐고 배를 내민채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람을 깔보지 말아.》

샤오마오얼은 마치 누나처럼 입술을 깨물고 두눈을 깜빡이는 샤오핑구오를 잡아당기며 한마디 대꾸했다.

이때 전시가 위즈란의 팔밑으로 손을 내밀며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을 불렀다.

《여기 와. 그애 말을 듣지 말아. 난 로대성이라구 하는데 전문 대성을 관할한단다. 앞으로 누가 너희들을 놀려주면 날 찾아라. 알겠니?》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은 손벽을 치며 기뻐했다.

《이 로대성이 좋구나.》

위즈란은 원래 전시와 샤오도우즈가 자기의 본명을 말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 이것도 역시 공작상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만일 철없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 한입두입 건너 말하는 과정에 혹시 어떤 시끄러운 일이 생길지 알수 없기때문이다. 그는 전시와 샤오도우즈가 대성이요 로대성이요 하면서 롱말로 엮어댄것을 오히려 잘된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전시의 상처를 다 치료하고난 위즈란은 모자를 들어 머리에 씌워주었다.

전시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원장선생님은 원래 연극도 하구 노래도 하는 문공단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의술을 다 압니까?》

위즈란은 어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팔로군의 문예일군들은 노래나 연극만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비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우리는 전사들앞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복수를 위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는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도록 그들을 고무해주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요.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우린 의료일군이 되여 총알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부상자를 치료해야 했구요. 전투가 끝나면 우린 즉시 마을에 들어가 삐라를 붙이고 주민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하구… 이렇게 해서 인민들로 하여금 적들을 극도로 미워하게 하고 우리 팔로군을 사랑하고 적극 원호해서 모두가 혁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는거예요.…》

전시는 위즈란의 말에서 어떤것을 좀 리해할수 있었다. 례하면 무슨 선전사업을 하는것이라든가 또한 전투에 대해서라든가… 한가지 명백한것은 팔로군은 좋은 사람이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무하는 군대라는것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아직도 한가지의 의문만은 풀리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좋은 사람들인 팔로군이 보육원을 관할하고있는데 왜서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에 있는 화초공들이 사나운 개들을 부추겨 자기들을 물게 하는것일가? 화초공들도 보육원과 한집안이 아닌가? 이 말을 원장에게 할수는 없었다. 왕샤오린에게도 역시 말할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들이 화초공들의 개를 죽였고 또한 보육원의 원아들을 향해 벽돌쪼각을 던진적도 있기때문이였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알면 분명 시끄러운 일이 제기될수 있고 지어 자기와 샤오도우즈를 내쫓을수도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이때 싱아바이가 불쑥 들어왔다. 그는 마치 몇아름되는 큰 나무통처럼 허우대가 컸고 길을 걸을 때는 땅이 쾅쾅 울리는듯 하였다.

《젊은이들, 잘 잤나?》

환한 웃음을 담고 방안에 들어서는 싱아바이의 인자한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류다른 친근감을 주었다. 어제저녁에 전시와 샤오도우즈가 싱아바이를 처음 만났을 때 벌써 그에게서 이런 자애롭고 친근한 인상을 느꼈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또 이렇게 찾아와서 따뜻이 대해주니 전시는 친할아버지를 만난듯이 반가왔다. 그는 마치 할아버지앞에서 응석을 부리듯 《난 어제저녁 잠을 잘못 잤어요. 거저 눈만 감구 코만 골았어요.》하고 익살스럽게 한마디 했다.

샤오도우즈도 담찬 어조로 한마디 께끼였다.

《싱할아버지, 전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댔어요. 그리구 내 머리로 그놈의 비적 쥬탸오룽을 받아 죽여버렸어요.》

《에끼, 엉큼한 녀석같으니라구. 나한테 입방아 찐 값을 단단히 치르게 할테다.》하고 싱아바이는 허리굽혀 샤오도우즈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도우즈는 제꺽 싱아바이의 손을 피하여 《어서 잡아봐요. 잡아봐요.》하고 위즈란의 등뒤에 가서 숨어버렸다.

한편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은 싱아바이에게 다가가 자기를 안아달라고 저저마다 두손을 내밀었다. 싱아바이는 《응, 그래, 그래.》하고 두팔로 각각 한 아이씩 안아 입가에 대고 그들의 얼굴을 비벼주었다. 샤오마오얼은 간지러워서 막 얼굴을 피하면서 깔깔 웃고있는데 샤오핑구오는 싱아바이의 수염을 잡고 그의 이마에 대고 《누구의 이마가 센가 보자요.》하고 연방 들이받았다. 방안에는 삽시에 웃음소리가 차고넘쳤다.

2

꽃잎우의 이슬방울들이 대룩대룩 굴러 아래로 떨어지고있었다. 흡사 숨박곡질하듯 어떤 이슬방울은 꽃잎밑으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것은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한다. 습윤한 대기속에는 꽃향기가 그윽히 서려있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숲속에서 고운 청으로 노래하고있었다.

보육원 문앞에는 한그루의 키 큰 가문비나무가 자라고있는데 그 나무의 곁가지가 마당쪽으로 길게 뻗어나와 마치도 마당에 있는 아이들을 손저어 부르는듯 하였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류달리 상쾌한감을 주는 좋은 아침이였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보육원에서는 아침체조시간이 되였다. 고등반아이(12～15살)들은 방송국경비중대의 한 분대장의 인솔하에 가로수가 있는 도로옆에서 군사훈련을 하고있고 중등반아이(8～11살)들은 선생의 인솔하에 보육원의 앞마당에서 체조를 하고있었다. 그리고 초등반아이(5～7살)들은 역시 선생의 인솔하에 화단옆에서 유희를 하고있었다.

챙챙한 구령소리와 힘찬 발걸음소리, 또한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또 하루 새날을 맞이하는 보육원의 특유한 정서가 펼쳐지고있었다.

샤오린과 전시 그리고 샤오도우즈는 방금전에 여기에 왔기때문에 아직 이 대렬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다만 화단과 낮은 나무숲속에서 왔다갔다하고있었다.

샤오린은 다른 타산이 있었다. 그는 정찰병의 예리한 눈길로 주위의 모든것을 살피고있었다. 그는 모든 건물들과 나무들, 그사이에 난 소로길이며 담장의 한쪽옆에 낸 작은 문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움직이면 이상한 감촉을 받을가봐 아직은 보육원의 뒤와 수림속 그리고 북쪽켠에 있는 왕쟈루부근에는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인차 그곳에 가서 한번 살펴보리라 작정하고있었다.

샤오린은 꽃밭옆에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담장의 동쪽켠에 있는 옆문으로 두사람이 들어오고있는것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류쑹타오처장이 자기의 딸 샤오디얼을 데리고 함께 오고있었다. 그는 급히 달려가 류처장을 맞이하였다. 두눈이 퉁퉁 분 샤오디얼을 보는 그의 마음은 몹시 쓰리고 아팠다.

《원장이 지금 있소?》 류쑹타오가 물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알리러 가겠습니다.》
샤오린은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원장이 있는데로 달려갔다.
이때 전시는 멀리서 샤오디얼을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샤오디얼이 왜 팔로군지휘관을 따라 여기로 오는지 이상하게 여겨졌다. 전시는 군관제위원회의 보위처장이 오래전에 집을 떠나 왜놈과 싸운 샤오디얼의 아버지라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는 계면쩍은 생각이 들어 샤오디얼을 만나지 않고 나무뒤에 그냥 서있었다.
샤오디얼은 여직껏 농촌에서 자라다나니 세상물정에 대해 잘 모르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수집음을 몹시 타군 하였다. 특히 어머니를 잃은 지금의 형편에서 그는 주위를 살펴볼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채 줄곧 아버지의 뒤를 따라오고있었다.
《아버지, 난 여기 와있지 않을래요.》 샤오디얼은 목쉰 소리로 애원하듯 뇌였다.
류쑹타오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디얼아, 여기서 며칠만 있거라. 학교가 복구되면 너를 학교에 보내여 공부하게 하겠다. 응?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그리구 아버지가 자주 찾아오겠다. 집에 있을 때처럼…》
이윽고 샤오린이 위즈란원장을 데리고 급히 달려왔다. 류쑹타오는 딸을 원장에게 인사시키고 그에게 전날밤에 비적두목 마치와 구나이린이 도망치면서 샤오디얼의 어머니를 살해한 일에 대해 침울한 어조로 말해주었다.
이러는 사이에 전시는 나무를 에돌아 천천히 샤오디얼의 뒤에 다가가 《샤오디얼!》하고 찾았다.
그 소리에 샤오디얼은 뒤로 돌아보다가 불현듯 흠칫하였다. 옷을 단정하게 입은 전시를 알아본것이다. 그는 전시를 보자 또다시 눈언저리가 벌겋게 상기되면서 울먹거렸다.
《우리 어머니가… 마치놈한테… 죽었어.》
《뭣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전시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못박힌

듯 그자리에 멍하니 서있었다. 샤오디얼의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았고 또한 방랑생활에서 쓰디쓴 맛을 다 겪어보아 마음과 의지가 류달리 강해진 《손오공》 전시로서는 이렇게 비통하기가 처음이였다. 어느 사이에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아니, 눈물만이 아니라 크게 부릅뜬 그의 두눈에서는 분노에 찬 빛이 번쩍이였다.

이때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선생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원장선생님, 방안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있…》

뜻밖에 이 말을 들은 위즈란은 얼른 그 선생의 말을 막았다.

《떠들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걸 봤어요?》

《아직 못봤어요. 나와 싱아바이만…》

《더 말하지 마세요.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방송국에 가서 식사시켜야겠어요. 샤오디얼, 너두 선생님을 따라가거라.》

위즈란은 결단성있게 지시를 내렸다.

샤오디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류쑹타오가 머리를 끄덕이며 조용히 떠밀었다.

샤오디얼은 마지못해 선생을 따라갔다.

이런 기회를 리용하여 전시는 샤오도우즈를 끌고 낮은 담장을 넘어 남쪽켠에 있는 페허쪽으로 달려갔다.

한편 위즈란과 류쑹타오, 왕샤오린은 급히 계단을 따라 보육원의 출입문으로 들어섰다. 마침 싱아바이가 사냥총을 들고 입구에 서있었다. 그는 출입문에 서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원래 아이들은 아침체조가 끝난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조금 기다리다가 방송국에 아침식사를 하러 가군 하였다. 오늘 아침도 여느날과 같이 싱아바이가 아이들이 아침체조를 하러 나간 사이에 매방을 살펴보면서 열려진 창문들을 닫기도 하였는데 한 방에서 시체토막을 발견했던것이다.

이윽고 위즈란과 류쑹타오, 왕샤오린이 들어온것을 본 싱아바이는 조용히 그 방문을 열었다. 인차 방바닥에서 사람의 한쪽다리가

보였다. 이어 다른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어떤 방에는 팔이 있고 또 어떤 방에는 엉치부분만 있으며 그리고 어느 한 방에는 이발을 드러낸 머리만 있었다.

왕샤오린이 머리앞에 다가가 세세히 보고나서 《퉤!》하고 침을 뱉았다.

《그놈이구만. 알만 합니다. 금붕어눈이라는 놈입니다.》

《금붕어눈이란건 뭐요?》 류처장이 다그쳐 물었다.

《바로 이게 제가 죽인 그 비적놈입니다. 그놈들이 여기에다 내던졌구만요.》

위즈란은 다시 싱아바이에게 물었다.

《2층에도 있어요?》

《있수다. 두손목과 두발목이 있수다.》

류처장과 왕샤오린이 매 방을 살펴보니 신통히 시체토막이 있는 방은 창문이 열려있던 방들이였다.

류쑹타오는 창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창문은 매일 열어놓소?》

《예, 매일 열어놓습니다.》 위즈란이 제꺽 대답했다. 《아침마다 공기갈이를 하느라고.》

이윽고 류쑹타오와 샤오린이 건물뒤에 돌아가보니 창문밑에 있는 숲속에 수많은 발자국이 나있었다. 발끝이 깊이 나있는것을 보아 발뒤축을 높이 쳐들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서너발자국 떨어진 숲속에서도 란잡하게 난 발자국들을 볼수 있었다.

류쑹타오는 왕샤오린에게 아침에 낯선 사람이 온적이 없는가고 물었다. 왕샤오린은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침체조를 할 때 건물뒤를 내놓고는 그가 자세히 살펴보았던것이다.

사건은 불보듯 명백해졌다. 그것은 적들이 아침체조시간에 원아들이 모두 밖에 나가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나무숲을 거쳐 창문밑에 다가와 시체토막을 무게에 따라 1층과 2층에 던져넣은것이였다. 이를테면 1층에는 발뒤축을 높이 쳐들고 무거운 토막을 던져넣었고 2층에는 비교적 가벼운 토막을 멀리에서 집어던진것이다. 그래서 어떤 토막은 침대밑에, 어떤 토막은 문앞에 널려있게 되

였다.
그렇다면 적들은 왜 이런 추악한짓을 감행하였겠는가. 단순히 아이들을 놀래우기 위해서인가? 비록 이들이 모두 혁명렬사유자녀들과 부모없는 고아들이지만 아직은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인데 놈들이 설마 아이들을 노리고 이런짓을 저질렀겠는가. 그렇다면 무엇때문일가?
류쑹타오는 아마도 놈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나아가서 보육원을 내쫓아 그 어떤 목적을 이루어 보자는것이 아닐가 하고 추측했다. 최근 이 근방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들과 련관시켜보면 십분 그럴것 같았다. 다시말하여 와이포산의 소굴이 이미 함락되였기때문에 놈들이 그 어떤 다른 음모를 꾸미기 위한 《교란작전》을 시도하고있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류쑹타오와 왕샤오린이 다시 방안에 들어왔을 때 샤오린은 자기 견해를 비쳐보았다.
《처장동지, 파리가 구린내나는 장소를 좀체로 떠나지 않는것처럼 놈들이 이 부근에서 맴도는것을 보아 여기에 놈들이 노리는 그 어떤 목적이 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적말이요?》
류처장은 흥미를 느꼈는지 다소 엄숙했던 얼굴에 화기를 띄웠다.
《혹시 병기창고가 아닐가요?》
《동무생각을 말해보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째서 병기창고라고 추측하오?》
《우선 쥬탸오룽이 전시를 비롯한 방랑소년들을 시켜 병기물자를 나르게 한것은 우리에게 발견될가봐 그렇게 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구 전시네가 매일 평지붕집앞에 있는 수림속에서 병기물자를 와이포산쪽으로 날라갔습니다. 만일 병기창고가 시내의 북쪽이나 남쪽교외에 있다면 그 번화하고 복잡한 로정을 거쳐 누가 평지붕집근처에 날라오겠습니까. 더우기 날이 밝기 전에 마치 요술을 부리듯 어김없이 이 수림속에 밀차를 갖다놓는걸 봐서 병기창고가 이 근방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또한 확신

있게 말할수 있는것은 서쪽교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번에 걸쳐 상세하게 정찰해보았습니다. 거기선 그 어떤 단서도 잡지 못했을뿐아니라 수림속에서 밀차를 미는 그 어떤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병기창고가 이 근방에 있는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왕샤오린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은 류쑹타오는 그의 론리정연한 분석에 대해 찬동을 표시했다. 물론 류처장도 이미전에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에 대해 어느정도 의문을 가지고있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해방전부터 보육원과 그 주변의 화초들과 환경위생을 관리하는 로동자들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리력과 정치적동향 등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료해하지 못하고있었다. 누가 비적들과 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제기된것이 없었다.

《샤오린동무, 동무의 분석이 아주 론리적이요. 이렇게 합시다. 적들의 병기창고가 이 근방에 있다고 가정하고… 먼저…》

류쑹타오는 자기의 의향을 왕샤오린에게 조용히 알려주었다. 왕샤오린은 입을 다문채 고개를 끄덕이면서 류처장의 말을 듣기만 했다.

제 8 장

1

그날밤 어둠을 타서 간신히 팔로군의 추격에서 벗어난 비적두목 마치와 구나이린은 몇명의 비적들을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성안으로 들어오자 밤중으로 집에 배겨있는 국민당특무이며 세번째 비적두목인 인펑을 불러내여 모두 얼쿠이다려관의 205호실로 모이게 하였다.

얼쿠이다려관은 쑹쟝시의 서북쪽에 있는 옛 거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거리의 건축물들은 청나라시기와 그 이전 시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거리는 비교적 좁았는데 그물처럼 뻗어있는 골목들은 더 좁았다. 그래서 자동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일단 들어갔던 차는 오직 다른데로 빠져나와야만 한다. 여기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건축물과 같이 의연히 옛 풍속대로 살아오고있었다. 아이, 어른 할것없이 모두다 통이 큰 바지와 두루마기와 같은 옷을 입기 좋아했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일년내내 다리에 각반같은것을 두르고있었다. 이뿐이 아니라 새해나 명절날이 오면 처녀든 색시든 지어 늙은 로친에 이르기까지 의례히 머리우에 꽃송이를 끼우군 하였다. 돈있는 사람들은 비싼 비단천으로 만든 꽃을 끼웠고 돈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든가 아니면 생화를 꺾어 얹기도 했다. 이렇게 해야 좋은 날이 온다고 하였다. 그러니 일본식과 로씨야식건물이 비교적 많고 양풍이 심한 정양거리와 비교해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사는감을 주었다.

얼쿠이다려관은 재래식과 현대식이 판이한 분기점에 위치하고있었다. 려관건물은 2층짜리인데 현관문은 서쪽방향으로 나있다. 곤색으로 된 담장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받아서인지 여기저기에 얼룩진 곳이 많고 조금만 다쳐도 벽돌부스레기가 부실부실 떨어지고 있었다.

려관의 출입문가에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손님을 맞고 보내며 시중을 드는 접대부가 서있는데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서있었다. 그것은 이 려관이 영업이 잘되고 경기가 좋다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출입문은 미닫이식으로 된 거무틱틱한 유리문인데 번들번들하게 닦아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칠뿐아니라 안에서도 길거리의 행인들을 내다볼수 있었다.

려관의 주인은 자오리앤인이라는 사람인데 40살쯤 된다고 하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있으며 일체 정치에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그 어

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든 관계없이 자기는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다는것이다.

지금은 새벽 2시, 담배연기가 자욱히 서려있는 려관의 205호실에는 마치 밤안개속에서 얼른거리는듯 5명의 각이한 사람이 모여있었다. 천정에 걸려있는 전등에는 겉면은 검은색, 안은 붉은색으로 된 전등갓이 씌워져있어 한가닥의 불빛만이 마루바닥을 내리비치고있었다. 방문 량쪽에는 싸창을 든 두 비적이 긴장한 자세로 서있었다.

왼쪽에는 쥬탸오룽이 서있는데 그가 팔로군에게 맞아죽지 않은것은 운수가 좋았기때문이다. 그날 오후 마치가 그를 시켜 성안에 있는 군수품창고를 관리하는 마바(마치의 동생)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다오게 하였다. 편지의 내용은 군수물자를 운반하는것을 당분간 중지하고 앞으로 정세를 보아서 다시 토론하자는것이였다. 쥬탸오룽은 마치의 이 심부름을 해준덕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방금전에 구나이린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마치의 칼에 찔리워 황천객이 될번 하였다. 그것은 그가 차오광단으로부터 가짜정보를 전달받은탓에 과반수의 졸개들을 잃었기때문이다.

오른쪽에는 마바가 앉아있는데 그는 마치의 련락을 받고 쥬탸오룽을 따라 방금 들어온 참이다.

군수품창고를 포함한 모든 비밀내용은 몇사람만이 알고있었다. 례하면 마치와 구나이린, 인평과 마바를 내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었다.

북쪽의 창문앞에 줄담배를 연거퍼 피우며 하얀 목도리를 두른 한 녀인이 까딱하지 않고 서있는데 그가 바로 국민당의 특무이며 파견원인 인평이였다.

침대에 얼빠진 사람처럼 반듯이 누워있는 마치는 입을 헤 벌리고 눈만 디룩디룩 굴리며 씩씩거리고있었다. 마치 림종에 이른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듯 하였다.

발가락이 드러난 양말을 신은 구나이린은 방안에서 줄창 왔다갔다하고있었다. 마루바닥이 소리가 날가봐 일부러 신발을 벗어놓은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마치가 벌떡 일어나앉으면서 두눈을 부릅뜨고 입을 열었다.

《래일아침 당장 북쪽에 있는 매부리산에 가서 다시 인원들을 보충해야겠어. 총이 있는데 대오를 확대못할 리유가 뭐요!》

《하지만 군수품창고를 언제까지나 지켜내겠는지.》

인평은 여전히 창문을 마주서서 침울한 어조로 한마디 대꾸했다.

이 말이 어찌나 무섭게 들리였는지 마치 시퍼런 비수가 마치와 구나이린의 가슴을 찔러놓은듯싶었다.

이윽고 마치는 인평쪽으로 고개를 홱 돌렸다.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리요?》

줄곧 방안에서 거닐고있던 구나이린은 마치와 인평을 등진채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두눈을 감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다시 분석해보았다.

팔로군이 매복하고 기다린것을 보아 차오광단은 이미 팔로군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그럼 그 두대의 밀차도 팔로군이 일부러 던진 미끼일수도 있다. 비록 차오광단은 군수품창고의 위치는 잘 몰라도 그에게서 단서를 잡을수 있지 않겠는가. 군수물자는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고 또한 먼데서 밀차로 날라온것도 아닌 이상 팔로군은 반드시 평지붕집근방에서 밀차를 끌고갔으리라고 추측할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군수품창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것이다.

인평이 방금전에 말한것을 보아도 그도 자기처럼 그렇게 분석한것 같았다.

구나이린은 은근히 인평에게 탄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 4명의 거지아이들은 팔로군한테 끌려가지 않았어요?》

인평은 동안을 두었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이 물음은 두말할것없이 쥬탸오룽이 대답해야 하였다. 어쩔수없이 쥬탸오룽이 속이 콩알만 해서 마치앞에 다가와 더듬거렸다.

《그건 혹시 안잡혀갈수도… 또한 잡혀갈수도…》

《이 등신같은 놈아! 그것두 말이라구 해? 뭐 안잡혀갈수도 있

구 잡혀갈수도 있다구? 도대체 어느쪽이야? 어쨌든 잡혀갔든 안잡혀갔든 넌 총살이다. 거사를 위해 내가 품들여 꾸려놓았던 졸병들은 너때문에 다 죽었다!》

성이 독갈이 난 마치는 당장 쥬탸오룽을 잡아먹을듯한 기상이였다. 그 위슈촌마을습격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쥬탸오룽에 대한 노기가 다시 살아났던것이다.

쥬탸오룽은 비록 방랑아들앞에서는 제법 틀을 차리고 으시댔지만 마치와 구나이린앞에서는 쥐새끼처럼 설설 기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마치가 성을 내는것을 보고 질겁해서 무릎을 풀썩 꿇었다.

《사령님, 제가 말한건 그 4명의 거지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기때문에 설사 팔로군한테 붙잡혀갔다고 해도 걱정할건 없다는 그겁니다.》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인평은 여전히 몸을 돌리지 않은채 말줄기를 내쏘았다. 《거지아이들이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앞에 있는 수림속에서 밀차를 밀고가군 하지 않았나요?》

《그게 뭐 두려울게 있소이까?》

이 말을 듣자 구나이린은 더 참지 못하고 쥬탸오룽의 멱살을 틀어잡고 홱 옆으로 밀쳐버렸다.

《두려울게 없다는건 뭐야? 팔로군이 거지아이들을 데리구 널 잡으러 오는데두 두려울게 없단 말이야?》

《잡혀두 군수품창고가 어데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않소이까.》

《이놈, 어디다 대고 아직도 주둥아리질이야. 아예 죽여버리구말아야지. 시끄러운 존재는 애당초 하나라도 없애치우는게 시원해.》

마치는 급히 다리옆에 꽂고있던 단도를 뽑아들었다.

《사령님, 사령님, 한번만… 제발 한번만 용서…하십시오. 날 죽이면 누가 사령님을 위해 심부름도 하구 시중도 들겠소이까.》

쥬탸오룽은 사색이 되여 두손을 싹싹 빌며 머리를 연방 조아렸다.

그래도 쥬탸오룽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나이린이였다. 그는 푸락푸락하는 마치를 만류하며 자중할것을 권고하였다. 만약 쥬탸오룽을 죽이면 가뜩이나 30～40명밖에 남지 않은 졸병들의 사기를 더 떨굴수 있고 또한 그를 죽인다 해서 당면한 위기를 해소할수도 없는것이다. 이윽고 쥬탸오룽을 잡아일으킨 구나이린이 준절한 어조로 오금을 박았다.

《래일 어둡기 전까지 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거지아이들의 입을 틀어막아놓으라. 알겠어?》

《알겠소이다.》

쥬탸오룽은 곧 구나이린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군수품창고의 비밀이 새여나가기 전에 방랑아들을 없애치우라는것이다.

《이젠 늦을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머리를 뗀 인평은 더 론의할 필요가 없다는듯 명령조로 말을 이었다.

《래일부터 박차를 가하여 보육원을 빨리 내쫓도록 하는 한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밖으로 군수품을 계속 내보내야 해요. 전번처럼 본거지가 몽땅 함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두 여러곳에 분산시켜놓아야 해요. 동시에 〈광복군〉에 사람을 보내여 빨리 군수품을 가져가도록 련계를 취해야겠어요. 이틀 지나서 우리 다시 모이자요. 다시는 팔로군한테 야금야금 먹히우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모두 망하고말겠어요.》

마치는 《광복군》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다소 못마땅하게 여기고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조롱에 든 새신세가 되고마는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큰 군수품창고를 가지고있어 제노라고 우쭐대면서 《광복군》에 속하는 한개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총사령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에게 붙자니 자기를 좋게 볼리 만무할것이다. 그도 지금 당장 인원을 모집한다는것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팔로군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또한 비적토벌을 그칠새없이 벌리고있기때문에 졸병들을 모집하는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되였다. 달콤한 말로 꼬여서 끌어들인다 해도

얼마 못가서 총을 집어던지고 달아날것은 뻔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마치는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져 그전처럼 큰소리를 칠념도 못했다. 자칫 잘못하여 이 국민당의 특파원어른을 노엽혔다가는 자기에게도 좋은 결과가 차례지지 않을것이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마치는 침대옆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침묵만 지키고있었고 구나이린은 한곳에 못박힌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평을 잘못 건드리다가는 어느모로 봐도 백해무익하다는것을 그도 이미 알고있기때문이였다. 그는 마음을 어느정도 누잦히고 인평의 주장에 대해 찬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성안에 그냥 엎디여있다가는 아무때건 팔로군에게 목을 잡히울것은 뻔한 일이였다. 게다가 자기네 인원은 겨우 30명정도밖에 안되지만 그에 대비도 안되게 《광복군》총지휘부 인원은 몇천명인것이다.

인평은 마치와 구나이린이 아무말없이 줄곧 잠잠해있는것을 보고 저으기 화가 치밀어올랐다.

《이렇게 하자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제 갈데루 가라고 해요. 몇명 되지 않는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그래 나머지 그 인원들도 다 전멸시키자는거예요?》

인평의 목소리가 격해지였다. 그러자 가만히 있다가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마치가 인평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태도를 돌변하여 헤벌쭉거리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팔을 벌려 그의 가는 허리를 닁큼 끌어안았다. 마치는 이미 인평과 음탕한 관계가 있었던지라 오늘 또다시 그 마음이 되살아났던것이다.

《나의 사랑, 뭐 그다지 성을 내면서까지. 자고로 병법에도 씌여있는것처럼 싸움에서는 승패가 있을수 있는 법이요. 아무렴 산사람 입에 거미줄 쓸겠소? 자, 이제부터 당신이 하라는대로 다 하겠소. 이 마치가 일구이언하면 당신앞에서 죽고말겠소.》

결국 계획은 인평의 주장대로 락착되였다. 구나이린과 쥬탸오룽그리고 마바는 자기에게 분담된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곧 그 방에서 나가 각지로 떠나갔다.

인평의 주장대로 하면 무엇보다도 보육원을 빨리 내보내는것

이 중요했다. 그럼 무엇때문에 보육원을 한사코 내보내야 하는가? 그것은 보육원의 건물밑에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비밀군수품창고가 있기때문이였다. 원래 일본놈들이 중국땅을 장기적으로 점령하고 인민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이곳에 진쟈와 《충령탑》을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비밀리에 지하에 대형군수품창고를 굴설하고 군수물자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이 지하군수품창고에는 각종 총기류는 물론 포탄과 탄약, 휘발유, 밀가루, 통졸임, 피복 등이 들어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군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다 있었다. 일본놈들은 이 군수품창고를 다 건설한 다음 비밀이 새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공사에 동원되였던 중국사람들을 모두 생매장하였다. 그러다가 왜놈들이 투항할 때 쑹쟝시에 주둔하고있던 일본군 대좌 나리다가 이 비밀군수품창고를 당시 쑹쟝시경찰서장을 하던 마치에게 넘겨주면서 이 창고안에 있는 포탄과 총탄을 모두 팔로군과 유격대, 공산당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쏴달라고 뇌까렸다. 만약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 절대로 공산당에게 거저 넘겨주어서는 안되며 기폭기를 작용시켜 창고를 폭파해버리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쑹쟝시를 절반이상 하늘로 날려보낸다고 하였다.

이 비밀군수품창고에는 네개의 입구가 있는데 하나는 왕쟝루옆에 있는 씨름터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충령탑》옆에 있다. 그리고 진쟈가 있던 자리 즉 현재 보육원건물밑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안에 있다.

마치는 뜻밖의 이 거대한 재부를 넘겨받은 후 사람들에게 발견될가봐 늘 간이 콩알만 해있었다. 만일 누가 알고 자기와 계산하자고 할 때는 그와 절반씩 나눠가질것까지 다 타산하고있었다. 비밀군수품창고에 대한 내용을 몇몇 심복들에게 알려주게 된 목적은 일부 군수물자(총과 탄알)들을 밖으로 운반해야 하기때문이였다. 마치는 군수품창고를 넘겨받고 2～3일사이에 자신이 직접 친동생인 마바와 심복인 구나이린 등 네댓명을 데리고 씨름터와 《충령탑》에 있는 입구의 전동장치를 쓰지 못하게 완전히 페쇄해버렸다. (팔로군이 이 도시를 공격할 때 《충령탑》은 포격에 맞

아 완전히 파괴되였다.) 진쟈에 있는 개폐장치는 깊이 은페되여있어 비교적 안전했다. 다만 남은것은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안에 있는 입구인데 여기는 다 자기 사람들이 지키고있고 담벽에는 보이지 않게 기관총들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지하입구의 하나를 보육원이 차지하고있기때문에 인평과 마치로서는 더욱 안절부절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폭로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육원을 내쫓겠는가 하고 방도를 줄창 모색해오다가 마침내 아이들에게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것은 위협과 공갈을 하는 방법인데 아이들로 하여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게 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여 그 건물에 더 있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그 방법이라는것이 금붕어눈의 시체를 각떠서 보육원안에 던져넣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체조를 끝내고 방안으로 들어오다가 아예 놀라 까무라치게 하자는것이다.

어느덧 해가 하늘중천에 떠올랐다. 마치가 든 205호실은 음달진쪽에 창문이 있는데다가 두터운 창가림을 쳤기때문에 대낮에도 밤과 같이 어둑컴컴했다. 창가림짬으로 해빛이 비쳐드는 짧은 시간을 내놓고는 종일 가야 낮인지 밤인지 전혀 분간할수 없었다.

한잠 자고난 마치가 옆자리를 보니 인평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지개를 몇번 켜고나서 기침을 연거퍼 깇기 시작하였다. 아편에 중독된 그가 아편생각이 날 때마다 깇는 기침이였다. 그는 목구멍에 걸린 가래침을 내뱉고는 거칠게 소리쳤다.

《여봐라, 누가 없어?》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문짬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은 심부름군의 머리가 보였다.

《사령님, 찾았습니까?》

《담배를 가져와.》

《예.》

대답을 한 그 심부름군이 인차 아편도구를 담은 소반을 들고 들어왔다. 이윽고 등잔에 불을 켜놓고는 아편알을 담은 큰 담배대통을 마치에게 넘겨주었다. 아편대통을 몇번 빽빽 들이빨고난 마

치는 마침내 정신이 드는듯싶었다. 이때 얼굴에 희색을 띠우고 구나이린이 들어왔다.

《일이 어떻게 됐어?》

마치는 구나이린을 흘겨보며 다짜고짜 물었다.

《제대로 됐습니다. 금붕어눈의 시체를 모두 토막을 쳐서 뒤창문으로 던져넣었지요. 아마 보육원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아우성을 칠겁니다.》

《다른 말은 들은것이 없소?》

《듣자니 아침에 군관제위원회의 보위처장이 처녀애를 한명 데리구 보육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구 어제저녁에 세 남자애들을 받아들였다구 하는데 뭐 한명은 대성이라고 하구 한명은 로대성이라고 하구 한명은 무슨 소… 샤오린이라구…》

《됐어, 됐어. 그까짓 소면 어떻구 대면 어떻구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마치는 시끄럽다는듯 손을 홱홱 내저었다.

《아닙니다, 사령님.》 구나이린은 허리를 굽힌채 두눈을 부릅뜨고 건네였다. 《보위처장이 뭘 하러 꼭두새벽에 보육원에 왔을가요? 그리구 시체토막을 던진 내막을 그가 알아내면 어떻게 할가요? 특히 난 팔로군이 그 4명의 거지아이들을 끌어다 보육원에 넣을가봐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야단입니다.》

《별걱정 다 하누만. 그 아이새끼들이 무슨 큰일을 칠것 같아서 그러나? 자넨 그냥 팔로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팔로군만 잘 틀어쥐면 그까짓 아이새끼들이 4명이 아니라 40명이면 어떻구 400명이면 또 어때? 어차피 우리 총탄에 죽을 놈들인데.》

구나이린은 이전에 동북항일련군과 싸워본적이 있어서 공산당은 결코 문문한 존재가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공산당은 무슨 일을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꼭 해내고야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있었다. 군관제위원회의 보위처에서 4명의 거지들을 손에 쥐면 그 군수품창고의 위치가 쉽게 폭로될수 있는것이다. 단꺼번에 알아낼수는 없어도 추리하고 판단하면 수사범위를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으로 좁힐수 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비유하면 동뚝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아무리

막아도 막을수 없는것처럼 되고마는것이다.

구나이린은 《잰내비》라는 별명을 가질만도 하였다. 그놈은 한가지 문제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도출해내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있었다. 이에 대해 마치도 인정하고 탄복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때는 너무 소심하고 재기때문에 부아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마치는 그가 큰일을 치를 재목이 못된다고 핀잔을 주군 했다. 그러나 구나이린은 마치의 성미를 알고있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내놓고는 자기의 의향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슥하여 구나이린은 저녁에 취할 행동과 조금씩 군수물자를 운반할데 대한 자기의 계획을 마치에게 죄다 말해주었다.

아편을 실컷 빨고난 마치는 소반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자네가 인평이하고 토론해서 좋도록 하게. 난 믿네.》

2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비적들에게 살해되였다는 말을 듣고 전시는 비통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보육원을 뛰쳐나와 샤오도우즈와 함께 성 남쪽에 있는 페허지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넓고 적막한 페허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절반나마 껍질이 벗겨진 한그루의 늙은 소나무가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외로이 서있었다. 불어오는 아침바람에 거의 말라죽게 된 나무가지에서 솔잎들이 늙은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듯 이따금 떨어지고있었다.

소나무잎이 산만하게 널려있는 벽돌과 기와부스레기들속에 한송이의 따완화(꽃의 일종)가 피여있었다. 그 따완화의 둘레에 아직 피여나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빼곡이 달려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한무리의 동생들을 거느린 누나가 그들을 향해 《빨리 눈을 뜨고 보거라. 세상이 얼마나 밝고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가를.》

하고 부르는것 같았다. 그 따완화를 본 샤오도우즈는 허리를 굽히고 흰 꽃송이에 코를 갖다대고 향기를 맡아보았다.

벽돌무지에 앉아있는 전시는 한숨만 깊이 쉬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큰 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있었다.

샤오도우즈는 전시가 지금 몹시 괴로와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전에 전시에게서 류아주머니가 자기를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었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 전시형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줄것인가? 그저 너무 괴로와하지 말라고, 류아주머니를 영원히 잊지 말고 그를 위해 꼭 복수하자고 말을 해주어야 하겠는지… 그런데 그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였다. 하다면 그 말을 내놓고 또 무슨 말을 해줄수 있겠는가.

샤오도우즈는 전시의 괴로운 마음을 가셔줄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수가 없었다. 그는 따완화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전시형, 형은 이 따완화를 좋아하나?》

괴로움에 잠겨있는 전시는 이 물음에 대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샤오도우즈는 몸을 돌리고 전시를 바라보며 짐짓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 따완화를 제일 좋아했어. 이 꽃은 생활력이 강하기때문에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구 했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큰비가 내려도 이튿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이 피여난다구 했는데 이 꽃을 보느라면 마치 사람을 놀려주는것 같기도 하구 또 너무 근심말라고 타일러주는것 같기도 해. 그리구 이 따완화가 살충작용을 하고 타박상을 치료하는데도 좋다고 했어. 그러니 이 꽃은 정말 보배꽃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 따완화를 더 많이 심겠다구 했댔어.》

여기까지 말하고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샤오도우즈의 얼굴에는 우울한 빛이 비끼였다.

《앞으로 다시는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볼수 없겠지?》

이어 샤오도우즈는 허리를 낮추고 얼굴을 따완화꽃잎에 갖다

댔다.

《고운 따완화야, 내 말을 듣고있니? 나한테 말해주렴.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이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싶어한다구 전해주렴.…》

이렇게 울먹거리며 말하는 샤오도우즈의 두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은 따완화의 꽃잎과 줄기에 방울방울 떨어져내렸다.

이때 전시도 목메여 울기 시작했다. 샤오도우즈가 얼른 머리를 들어 전시를 바라보았다.

샤오도우즈는 전시를 만나 같이 지내오면서 그가 이렇듯 괴로와하고 슬피 우는것을 처음 보았다. 아마도 전시형이 방금전에 자기가 한 말을 들으며 자신의 눈물겹던 지난날이 생각나 이처럼 비통해하는것 같았다.

《전시형, 전시형, 이러지 말어. 울지 말라는데…》

샤오도우즈는 전시앞에 다가와 그를 달래였다. 그리고 두손으로 전시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형, 우리 울지 말자. 이제 마치와 구나이린을 죽이구 쥬탸오룽을 죽인 다음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깨진 벽돌과 기와쪼각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큰 벽돌로 멋있는 아동궁전을 지은 다음 네둘레에 공원을 꾸리고 화단에 따완화를 심어놓자. 그때 난 대문앞에 서서 모든 가난뱅이형제들, 아니 동무들을 모두 불러들이겠어. 난 그들에게 〈동무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우리의 가난뱅이아이들의 궁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난뱅이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이곳을 와서 보십시오. 하지만 따완화는 꺾지 마십시오. 그 꽃은 가장 좋은 꽃입니다.〉라고 말하겠어.…》

전시는 눈물을 거두었다.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던 그의 얼굴에 어느덧 웃음이 어리였다.

《네가 방금 말한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될가?》

《난 된다구 봐.》

《그럼 됐다. 네가 된다면 나도 된다고 본다.》

《난 형이 울지 않으면 좋겠어.》

샤오도우즈가 다시 손바닥으로 전시의 얼굴에서 눈물자욱을 닦아주려고 하자 전시는 제꺽 그의 손을 밀어놓으며 《됐어. 이 손오공이 언제 울었다고 그래? 또 말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고는 피씩 웃었다. 이어 전시는 두팔로 샤오도우즈의 목을 꽉 끌어안고 정찬 어조로 타일렀다.

《샤오도우즈야, 오늘부터 우리 울지 말자. 앞으로 만일 누가 한방울이라도 눈물을 흘린다면 그는 약골이구 못난이야. 알겠지?》

《알겠어.》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우리 100살까지 살아보자.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만약 죽으면?》

《나발불지 말아. 우린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린 이미 염라대왕의 생사명부에서 제명되지 않았니. 하늘이 준 명인데 왜 죽는다고 그래?》

《전시형, 지금 샤오망즈형과 고우성얼이랑 어디 있을가?》 샤오도우즈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들은 샤오린형과 함께 있을거야.》

《그들을 찾으러 가지 않을래?》

《그러자.》

전시는 샤오도우즈의 어깨를 잡고 샤오도우즈는 전시의 허리를 잡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찾으려 정양거리로 떠났다. 얼마 못가서 전시가 문득 배고픈감을 느꼈다. 전시는 그제야 자기가 아직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는것이 생각났다. 그는 먼저 먹을것을 좀 구해먹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도우즈가 전시를 올려다보면서 《보육원에서 괜히 뛰쳐나왔어. 아침밥을 다 먹게 된걸.》하고 아쉬운듯이 말하자 전시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웃주머니에 손을 갖다대는것이였다.

《우리에게 이 은돈이 있잖니. 이거면 며칠동안 먹을수 있어.》

《그건 쓰면 안되지 않니.》 샤오도우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먹어도 샤오망즈형과 고우성얼이랑 만나

함께 먹자.》

《옳아. 그렇게 하자.》

전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도우즈야, 우리 이젠 보육원에 다시 가지 말자.》

《왜?》

《난 샤오디얼을 보면 그애 어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파 견딜수가 없어.》

《알았어. 형 말한대로 할래.》

두 아이는 어느덧 폐허지에서 약간 떨어져있는 자그마한 호수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호수가의 동쪽에서 폐허지쪽으로 달려오는 네사람이 어렴풋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 사람들은 마침 람루한 옷을 입은 왕샤오린과 샤오류 그리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이였다.

《전시, 넌 왜 보육원에서 뛰쳐나왔니?》

왕샤오린은 가슴에 무슨 큰 꾸레미를 하나 안고 전시앞으로 달려왔다.

《사실 이 다리가 말을 좀 듣지 않아서…》하고 전시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얼버무렸다.

이때 샤오도우즈가 얼른 왕샤오린에게 눈짓을 하였다. 더는 묻지 말라는 뜻이였다. 물론 왕샤오린은 이미 전시가 보육원에서 뛰쳐나오게 된 그 마음을 모르는바가 아니였지만 거저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을뿐이다.

《자, 모두 호수가에서 밥이나 먹읍세.》

《밥? 아이 좋아라. 마침이로구나.》

순간 샤오도우즈의 두눈이 번쩍 빛났다.

《전시형도 배고파했단다.》

《샤오린형이 우리를 위해 자루쟈(고기를 넣고 기름에 튀긴 료리)를 사왔어.》

옆에서 샤오망즈가 한마디 보탰다.

《고기를 많이 넣은거야.》

이번엔 고우성얼이 신이 나서 한마디 덧붙였다.

이윽하여 여섯소년은 화기에 넘쳐 호수가의 융단같은 풀판에 빙 둘러앉았다. 왕샤오린은 가지고온 꾸레미를 한복판에 풀어놓으며 한마디 하였다.

《빨리 먹자. 먹은 다음 할일이 있어.》

전시는 서둘러 자루쟈를 하나 집어들고 막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할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춤 두눈이 커졌다.

《무슨 일?》

《다 먹은 다음에 말해주겠어.》

자루쟈를 한입 문 왕샤오린은 전시에게 말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는 시늉을 하였다.

《안돼.》 전시는 자루쟈를 내려놓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난 안먹을테야.》

《자, 이렇게 성급하다구야.》

하는수없이 샤오린은 전시의 귀에 입을 대고 한참 소곤거렸다. 전시의 둥그렇게 떴던 두눈이 차츰 실눈으로 변하였고 입은 헤벌쭉해졌다. 그러다가 한손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환성을 올렸다.

《내가 바로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 마치와 구나이린도 잡을수 있을가?》

《차츰 잡아야지.》

《좋아, 샤오린형.》

전시는 자기 어깨로 샤오린의 어깨를 툭툭 밀치면서 신바람이 나서 너스레를 떨었다.

《만약 이제부터 우리 형제들과 숨박곡질을 하면 자루쟈를 매일 사온대도 우린 안먹겠어. 그리고 형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겠어.》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구 부르나?》

입이 터지도록 자루쟈를 집어넣고 먹고있던 샤오도우즈가 한입 삼키고나서 가까스로 한마디 했다.

《뭐라구 하는가 하면 꼬꼬댁이라고 부르지 뭐.》

전시가 신이 나서 대답하였다.

그러자 폭소가 터지는 바람에 샤오도우즈는 허리를 까부린채 깔깔거리고 고우성얼은 씹었던 음식이 밖으로 튀여나올가봐 손으

로 막았다.
늘쌍 새물새물 웃던 샤오류는 량쪽으로 두팔을 벌리고 닭이 홰치는 시늉을 하였다.
《정말 그럴듯 하구나. 암닭이 알을 낳은 다음 꼬꼬댁꼬꼬댁 하듯이 말이야.》
이번에는 샤오린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놀려주는 전시의 옆구리를 잡고 꼬집어주었다.
《뭘 날 보구 꼬꼬댁이? 다시 그렇게 부르겠어? 말해봐. 나한테 잘못했다구 빌어.》
《샤오린형, 잘못했어. 하지만…》
간지럼을 몹시 타는 전시는 너무 급해 샤오린의 팔을 잡고 밀어버리느라고 허우적거렸다. 그러다가 무심결에 샤오린의 허리에 손을 대던 전시는 무슨 뜬뜬한것을 감촉하였다. 칼집같지는 않았다. 그는 다짜고짜로 샤오린의 옷섶을 헤치고 무작정 그 뜬뜬한것을 꺼냈다. 뜻밖에 권총이였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세 방랑아들은 모두 두눈이 퀭해졌다. 이찰나 샤오린은 전시에게서 권총을 급히 빼앗아 주위를 한번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이 없다는것을 보고서야 그는 권총을 허리춤에 꽂아넣었다.
전시는 샤오린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사정하듯 졸라댔다.
《샤오린형, 정말이지 나한테도 이런 총을 하나 구해줘. 앞으로 비적놈들을 만나면 직성이 풀리게 좀 쏴보려고 그래.》
《그래그래, 앞으로 보자. 그런데 총쏘는 법을 배워야 해.》
샤오린은 정색해서 말했다.
《그럼. 무조건 배울래.》
전시와 샤오망즈 그리고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도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좋아.》 샤오린은 아래턱으로 앞에 있는 페허지대를 가리켰다. 《저녁에 지하궁전에 들어가서 배워줄게.》
전시는 흥분된 마음을 가까스로 눅잦히며 자루쟈를 먹어대기 시작했다.

제 9 장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육원 량쪽켠에는 자그마한 면적의 수림이 있는데 매일 여기에 새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군 하였다. 얼핏 보면 새잡이를 하는 사람들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것이 확연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대부분 네모난 살창으로 된 새장을 가지고와서 장대로 나무꼭대기에 걸어놓고는 도적놈모양으로 사방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은 나무밑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쌍스러운 노래를 부르다가 잠을 자기도 하였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새잡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새가 있다 해도 다 달아나고말것이다.

새를 잡는 방법은 기본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몰이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새입내를 피우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방법이다. 몰이방법은 먼곳에서 이 수림으로 들이모는것이고 새입내를 피운다는것은 입으로 새소리를 내서 새가 새장가까이에 접근하도록 하는것이며 기다리는 방법이라는것은 새장속에 누런 조이삭을 넣어 새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것이다.

그런데 이 새잡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초보적인 방법도 모르고 새잡는 흉내만 피우고있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또한 무엇을 먹고있는지 누구도 몰랐다.

하여튼 그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새를 잡으려 이 수림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수림은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라고 하면서 죄다 쫓아버리군 했었다.

그러던 오늘아침에 난데없이 한무리의 가난한 아이들이 새장 네댓개를 들고 이 수림속에 나타났다. 그들이 장대로 새장을 나무우에 올리걸려고 하는데 담배대를 물고 코가 삐뚤서하게 생긴 한 사나이가 다가와 손을 홰홰 저으며 소리쳤다.

《야! 썩 물러가지 못해? 눈이 멀었어? 여긴 우리가 차지하고있는 땅이라는걸 몰라?》

《뭘? 여기가 당신들이 차지한 땅이라구?》

허술한 옷을 입은 한 사내아이가 가슴을 제치고 어깨를 기우뚱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토지소유증을 봅시다.》

《개똥같이 무슨 놈의 말라빠진 토지소유증이야. 이 어른의 얼굴이 바로 토지소유증이야. 어서 사라지지 못해? 새장을 발로 밟아버리기 전에.》

그러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 그 사내아이가 손에 쥐고있던 새장을 코삐뚤이의 발앞에 갖다놓았다.

《자, 한번 밟아보시구려. 죽고싶으면 밟아보란 말이요.》

사내아이의 위세에 코삐뚤이는 순간 멈칫하였다.

《이놈이 담도 크다. 이 어른이 누군지 모르면 내 한번 솜씨를 보여주지.》

그가 발을 높이 들었다가 새장을 내리밟으려고 하는 순간 불의에 드센 주먹이 휙 하고 그의 가슴으로 날아왔다. 그바람에 코삐뚤이는 어쩔사이없이 뒤로 벌렁 나가자빠졌다. 이렇게 되자 옆에 있던 《새잡이군》 서너명이 욱 하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왜 그래? 한번 싸워보자니?》

두팔을 걷어올리며 달려드는 그 기세는 마치도 이 6명의 아이들을 당장 납작하게 만들 잡도리같았다.

이 가난뱅이 사내아이들은 바로 샤오린과 샤오류, 전시와 샤오망즈,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였다. 방금 코삐뚤이를 넘어뜨린것은 샤오류였다. 이때 샤오린은 옆에서 예리한 눈초리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깐깐히 살펴보면서 머리속에 기억해두었다.

《누가 먼저 싸우려고 했소. 당신들이요? 아니면 우리요? 무엇때문에 우릴 보구 여기서 새를 잡지 못하게 하는거요?》

샤오망즈가 전시와 샤오류의 앞에 한발 다가서며 따지고들었다.

《너네들은 여기서 새를 잡지 말라는거야. 어찌할셈이냐?》

곰보가 빈정댔다.

《야, 그따위 소리 그만해!》
땅에서 푸시시 일어나 담배꽁초를 옆으로 내밷은 코삐뚤이가 바지를 추어올리고 녹두알같은 두눈으로 샤오류를 쏘아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샤오류는 까딱하지 않고 그냥 새물새물 웃기만 하였다.
이렇게 되자 코삐뚤이는 상대방이 보통녀석이 아니라는것을 직감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접어들지 못했다.
그자의 거동을 본 전시는 일부러 약을 올리느라고 또 한마디 께끼였다.
《해볼테면 해봅시다. 내 머리는 붕대를 감았어도 10명이 더 와도 겁날것이 없수다. 오늘 이 나으리가 여기서 심심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자는 내앞에서 죽어야 한다.》
《이자식, 네 대갈통이 어떤 대갈통인지 내 한번 시험해볼테다.》
코삐뚤이가 이렇게 말하고는 전시의 머리를 향해 높이 들었던 주먹을 내리쳤다. 순간 전시는 날래게 옆으로 피하고 제꺽 두손으로 코삐뚤이의 량쪽 허리를 잡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그러자 그놈은 다시 풀썩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았다. 이때 코삐뚤이의 몸에서 뜻밖에 두자루의 싸창이 삐여져나오면서 땅에 떨어지는것이였다. 이것을 본 곰보가 얼른 손을 내밀어 그 싸창을 집어들려고 하자 어느새 한자루의 번쩍거리는 비수가 휙 날아가 그의 손등에 박혔다. 곰보가 《아야!》하고 비명을 지르자 다른 패들도 덴겁을 하여 몸이 굳어지고말았다.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요?》
샤오린은 곰보의 손등에서 칼을 뽑은 다음 칼재주를 부리다가 넌지시 물었다.
《새잡는 사람이 어떻게 총까지 가지고있소? 혹시 마치의 부하들이 아니요? 그렇다고 진작 말할걸 그랬구만. 우린 다 한편이요. 다만 소속이 다를뿐이지. 그러니 얼굴을 모를수밖에…》
샤오린의 말에 《새잡이군》들이 어리벙벙해하고있을 때 갑자기 한개 분대가량 되는 팔로군이 부근의 수림속에서 달려나왔다. 이것을 본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문득 《빨리 뛰라! 팔로군

이 왔다.》하고 소리치자 전시와 샤오린네들은 화닥닥 놀라며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쪽에서 말없이 줄곧 지켜보기만 하던 어리숙하게 보이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옆으로 빠져 달아나 곧추 북쪽켠에 있는 왕쟝루방향으로 뛰여갔다. 이것을 본 샤오린은 그자를 따라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바싹 그의 뒤를 따랐다. 인차 샤오류와 전시 등 동무들도 샤오린의 뒤를 따라 함께 달리였다.

《그놈들을 잡으라!》

뒤에서는 팔로군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울리였다.

《서라, 뛰면 쏜다!》

샤오린과 그의 동무들은 못들은척 하고 그 어리숙한 사람을 따라 계속 달렸다.

한편 코삐뚤이와 곰보 등 《새사냥군》들은 어리둥절해있다가 정신을 다잡고 뛰려고 하는데 어느새 팔로군들이 달려와 그들의 가슴팍에 총창을 들이대였다.

이 연극은 류쑹타오가 연출한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적들의 서슬이 등등한 기세를 꺾어버리고 보육원의 서쪽근방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화근을 제거하자는데 있었고 둘째로 이른아침에 보육원에 시체토막을 던져넣은 그 동기와 병기창고의 위치를 탐지하자는데 있었다.

아직은 충분한 단서가 없고 또 근거없이 서둘러 사람들을 체포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수림속에서 새잡이를 하는 그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싸움을 걸어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속내를 알아내자는것이였다. 그리고 《우린 다 한편이요. 다만 소속이 다를뿐이지.》라고 한것은 앞으로 필요하기때문이였다.

어리숙한 사람을 따라 달려가던 샤오린과 그의 동무들은 왕쟝루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왕쟝루는 4층짜리 건물인데 이미 험상하게 파괴되였다. 지금 이 건물안은 텅 비여있고 또한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건물아래켠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산들이 여러개 있고 그우에는 온통 깨진 벽돌과 기와, 콩크리트쪼각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인

공산옆에는 일본놈들이 리용하던 씨름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사람의 키만한 소나무들이 빼곡이 자라고있고 그 숲둘레에는 마름쇠를 빙 둘러쳐놓았다. 또한 그안에는 휴계실같은 자그마한 평지붕집이 한채 있고 그앞에는 세멘트콩크리트로 구축한 《방공호》가 있었다.

지난날에는 이 씨름터의 대문이 꽉 닫겨있었는데 지금은 열려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얼마전에 여기서 한사람이 죽었는데 괴물같은 큰 독사한테 잡혀먹히웠다고 한다. 이 독사의 굵기는 한아름이나 되고 길이는 열발이나 되는데 사람을 보기만 하면 한입에 먹어치운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히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금지구역》으로 되여버렸다.

왕좌루에 이른 왕샤오린과 그 동무들은 이제는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것처럼 놀았다.

전시는 같이 뛰여온 그 어리숙한 사람을 보고 재촉하였다.

《아저씨, 팔로군이 쫓아오는데 어디 숨을데가 없어요?》

《에, 저기로 가자구.》

이윽고 그 어리숙한 사람은 샤오린네들을 데리고 인공산을 에돌아 씨름터앞에 이르렀다.

《여기엔 독사가 있다구 하던데?》

《개나발이웨다. 사람들을 여기에 못오게 하느라구 우정 꾸며낸거라우. 에, 아이들은 들어오지 말아.》

어리숙한 사람은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가리키며 자르듯이 말했다.

《우리가 못들어가면 영낙없이 팔로군한테 잡히겠는데 어디루 가라요?》

샤오도우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울먹하였다.

《잡혀가겠으면 가라고 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시끄러워.》

이렇게 되자 왕샤오린은 하는수없이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에게 눈짓을 하였다. 그들을 보고 밖에 숨어서 기다리라는 뜻이였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우정 소리를 내여 우는척 하면서 거기

에서 되돌아나왔다.

뒤이어 그 어리숙한 사람은 왕샤오린과 샤오류, 전시와 샤오망즈를 데리고 이 구석 저 구석을 빠져서 씨름터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휴계실같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창 방공호안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이윽고 그 사람이 벽의 어느 한 곳에 대고 두번째 손가락으로 꾹 누르니 순간 《웅-》하는 소리가 나면서 땅바닥에 난데없이 굴입구가 나타났다. 굴입구밑으로는 쇠사다리가 드리워있는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자, 빨리!》하고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마지막 아이까지 다 내려오자 또다시 《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굴입구가 닫겨버렸다.

굴안에는 불이 환했는데 마치 그 무슨 응접실같기도 하였다. 타원형으로 된 벽에는 자그마한 밝은 전등들이 끼워있었다. 특히 벽정면의 상단에는 켜지 않은 네개의 알락달락한 신호등이 붙어있는것이 특별히 눈에 띄였다. 바닥에는 붉은색주단이 쭉 깔려있고 벽쪽에는 쏘파, 그앞에는 앞차대 그리고 가운데에는 책상과 걸상들이 놓여있었다. 책상과 앞차대우에는 일본상표가 붙은 술병과 통졸임통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샤오린과 그 동무들은 예리한 눈길로 이 방안의 모든것을 세밀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이런 황홀한 곳에 처음와보는 사람처럼 줄곧 희한한 표정을 지었다.

《여긴 뭘 하는덴가요? 무시무시하구만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나요?》

전시는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허허.》 그 사람은 싱겁게 웃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좋지요. 팔로군은 아직 여기에 온적이 없수다. 아마 좀 있다가 나가면 아무 일도 없을거우다.》

《그렇습니까? 여긴 정말 좋구만요.》 이렇게 말하고난 샤오린은 허물없이 웃옷을 헤친채 쏘파에 털썩 누웠다. 그러자 그의 허리춤에서 브라우닝권총과 단도가 드러나보였다. 그는 마주앉아

있는 그 어리숙한 사람을 바라보며 통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형님, 이름은 어떻게 부르시우?》
《나요? 성은 리산이고 이름은 셋째웨다.》
《집에는 처와 아이들도 있겠는데 왜 이런데 와있어요?》
《적은이, 웃지 마시우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어머니는 재가하고 난 28살인데 아직 처가 없수다. 왜 이런짓을 하고있는가구? 흥, 말두 마시우. 주인집아들 금붕어눈이 말을 안들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하는수없이 끌려왔지요. 하다못해 밥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두 이런짓이야 하지 말았어야 했지요. 적은이, 난 말할줄 몰라서 이렇게 막 말하는데 나무람 마시우.》
《나무람하기야. 우리 형제들두 강요에 못이겨 이런짓을 하고있지요. 방금전에 금붕어눈에 대해 말했지요?》
피끗 아침에 보육원에 시체토막을 던진 일이 떠올랐다. 샤오린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셋째에게 금붕어눈에 대해 물었다.
《에, 에, 우리 주인집나리인데 별명이 금붕어눈이라고 하지요. 그의 눈이 금붕어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요.》 셋째가 서둘러 설명했다.
《듣자니 어제저녁에 팔로군한테 맞아죽었다고 하던데요.》 옆에 있던 샤오류가 제꺽 한마디 비쳤다.
셋째는 이 말을 듣고 자못 놀라와했다.
《예? 정말 죽었나요? 차라리 잘됐수다.》
《형님은 모르고있었소?》 샤오린이 떠보듯 물었다.
《처음 듣는데…》
《진짜 몰라요?》
《거짓말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우다.》
《오늘오전에…》
샤오린은 셋째를 보고 금붕어눈의 시체토막을 누가 보육원에 집어넣었는가고 물으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가 모른다고 하는데 자꾸 물으면 대방의 의심을 살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오전에 뭘 했는가요?》하고 물으며 화제를 돌리고말았다.
《…》

《형님은 여기에 와있은지 오래됐어요?》
셋째는 말하기 전에 《에에》하는 습관이 있었다.
《에에, 아니지요. 이틀전에 구나리(구나이린)가 우리를 여기에 보냈수다. 뭘 지킨다든지…》
《병기창고겠지요?》 샤오린은 제꺽 앞질러 말하였다.
《에, 아마 십중팔구는 그런것 같기두 하고. 헌데 난 그따위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밤엔 여기서 자고 낮에는 수림속에 들어가서 새잡이나 하지요. 사실은 거기서 잠만 자다가 오지요.》
《다른 일은 한게 없어요?》
《없수다.》
《어제저녁에 팔로군이 와이포산에 있는 마치의 본거지를 모두 소탕해버린것을 알고있어요?》
《에, 뭐요? 와이포산의 본거지가 다 팔로군한테 소멸됐대요? 그게 정말이요?》
《정말인것 같애요. 믿어지지 않으면 알아보지요 뭐.》
셋째는 갑자기 발을 한번 구르고는 손벽까지 크게 쳤다. 《에, 에, 됐구나! 좋구나. 주인집나리도 본거지도 다 소멸됐으면 난 집으로 갈수 있게 됐구나.》
왕샤오린이 셋째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전시는 지하실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어디에서 보았는지 이 지하실이 별로 눈에 익은감이 들었다. 그는 샤오망즈를 조용히 건드리고는 그만이 들을수 있게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방안이 우리의 〈지하궁전〉과 비슷하지 않니?》
사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샤오망즈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지어 샤오망즈는 다른 입구로 해서 자기들의 비밀《지하궁전》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고 착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비밀지하실은 이런 요란한 자동문이 없었다. 다만 벽돌장들을 들어내고 세멘트벽에 걸어놓은 쇠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다음 좀 걸어가야 자기들이 자군 하던 《지하궁전》이 있었다. 그안은 몹시 어두웠고 조명이라는것은 무너진 천정짬으로 비쳐드는 빛이 고작이였고 저녁에는 등잔불을 켜야 하였다.

샤오망즈는 눈짓으로 전시에게 정면벽에 끼여있는 네개의 신호등을 가리켰다. 그 신호등이 자기들의 지하실에 있는것과 갈기때문이였다.

전시는 호기심이 동하여 다짜고짜 셋째의 앞에 다가가 신호등을 가리켰다.

《저건 무슨 장난감들이예요? 왜놈들의 눈알같이 생긴것 말이예요.》

《우리도 모르네.》 셋째는 도리머리를 했다.

왕샤오린은 이제 더 물어보아야 나올것이 없다는것을 짐작하고 곧 화제를 돌려 본론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비밀병기창고의 내막을 빨리 알아내야 하는것이다. 그는 셋째를 초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그가 강요에 의해 비적집단에 끌려들어왔고 또한 오직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는 그런 고지식하고 순박한 농사군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셋째형님, 우린 뭘 하는 사람같아보입니까?》

《에, 에, 아까 뭘 한편이라구 하지 않았소?》

셋째는 매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기는 했지만 이 말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는듯 범상하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팔로군입니다.》 샤오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에?!》 뜻밖의 말에 셋째는 흠칫하였다. 그는 믿어지지 않는듯 의혹이 실린 눈길로 매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비록 그들의 얼굴에는 애티가 있어보이지만 표정은 모두 엄숙하였다. 이어 셋째의 눈길이 샤오린의 허리춤에 찌르고있는 권총과 윤기나는 베클라이트칼집에 가닿자 저으기 긴장되여 몸을 움츠리였다. 그러나 그는 더 달리 행동하지는 않았다. 다시말해서 그는 아무 말이든 그대로 믿는 농촌의 순박하고 어진 농사군이였다.

샤오린은 웃음을 지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셋째형님, 겁내지 마세요. 우린 형님을 해치지 않아요. 만약 해치려고 했으면 이미 해치웠지요. 우리 팔로군은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군대입니다. 이 아이들도 다 형님처럼 가난한 집 자식들이예요. 그래서 국민당과 마치와 같은 원쑤놈들을 쳐부시기 위

해 손을 잡고 싸우구있어요. 그러니 형님도 우리와 한편이예요.》

《에, 그렇군요. 그럼 날 집에 가게 해주오.》

그제서야 긴장했던 마음이 어느정도 풀린 셋째의 얼굴에는 화기가 돌았다.

《형님, 지금은 안됩니다. 만약 집에 가도 마치와 구나이린이 죽기 전에는 또 잡아올겁니다. 그리구 금붕어눈이 죽은데 대해 그 주인집에서 형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줘야겠어요. 마치와 구나이린을 잡은 다음 형님을 집에 꼭 보내겠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구 공산당에서는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표창도 한답니다. 형님, 알겠지요?》

《에,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셋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 샤오린은 셋째앞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여기 병기창고가 어데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병기창고를 찾고있습니다.》

《에, 무슨 창고? 병기창고? 그건 뭘 하는덴가?》

셋째는 금시초문이라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바로 총과 탄알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샤오린은 그가 알도록 말해주었다.

《잘 모르겠는데. 난 처음 듣수다.》

셋째는 여전히 갑자르면서 대답을 못했다.

샤오린은 그가 병기창고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래서 그는 셋째에게 이에 대해 말해주었다.

《형님, 이제부터 돌아가서 병기창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알게 되면 우리한테 빨리 알려주십시오. 우린 보육원근방에 늘 있으니까 아무때건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에, 알겠수다. 그런데 난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은 다 팔로군한테 잡혀갔으니 말이요.》

샤오린은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셋째의 말이 옳았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잡혀갔기때문에 셋째로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는것

이였다. 마치가 이것을 알면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것이다. 반드시 사람을 보내여 그를 찾으려 할것이다.

《이제 우리가 간 다음에도 형님은 계속 여기 남아서 기다리세요. 꼭 다른 사람이 와서 형님을 찾을거예요. 그때 형님은 누구에게도 우리가 여기에 왔다갔다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돼요. 그렇게 되면 그놈들이 형님을 가만 놔두지 않을거예요. 알겠지요?》

《에, 알겠어, 알겠어.》

샤오린이 자기 신분에 대해 사실대로 셋째에게 말해준것은 그가 쟁취할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 병기창고의 위치를 알아내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숨길줄 모르고 마음이 무던한 그가 자기도모르게 누구에게 말했다가 비적들한테 살해당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만약 놈들의 강요에 의해 셋째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팔로군이 도처에서 비적들을 숙청하고있기때문에 자기들과 맞다든것이 별로 큰 비밀로 될수는 없을것이다.

《형님, 우린 가겠어요. 우린 형님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셋째는 연거퍼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방금전에 샤오린이 말해준데 대해 아직 정확히 다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공산당이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군대요 하는 말들은 죄다 처음 듣는 말이였다. 그러나 팔로군에 대해 나쁘게 볼것은 없었다. 자기는 워낙 팔로군과 원쑤진 일도 없고 비록 마치의 소굴이 팔로군에게 몽땅 녹아났다고 해도 그 일은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더우기 방금전에 앞으로 자기를 집에 꼭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그들과 엇서야 하겠는가?

셋째는 얼른 입구에 다가가 스위치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샤오린과 그의 동무들을 내보냈다.

샤오린은 나갈 때 셋째가 문을 여는 방법을 눈여겨보고 머리속에 단단히 새겨두었다.

한편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비록 이것이 하나의 연극이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줄곧 안절부절하였다.

이제 곧 뒤따라 팔로군이 오겠는데 만일 팔로군이 이 연극을 모

르면 자기들을 비적새끼라고 붙들어갈수 있지 않겠는가? 샤오린형은 이런것을 생각하고있을가? 아니, 분명 생각 못하고있어. 생각하고있다면 왜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버릴수 있단 말인가?

아니나다를가 팔로군이 따라와서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향해 소리쳤다.

《서라! 요 비적새끼들, 뛰면 쏘겠다.》

맨앞에서 달려온 키가 큰 한 팔로군전사가 인차 고우성얼을 따라잡았다. 고우성얼은 머리를 들어 그 팔로군전사를 올려다보며 《똑바로 보라요, 오해하지 말고. 우린 한편이야요.》하고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팔로군전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성큼성큼 달려가 샤오도우즈를 잡았다. 《어디로 뛰여?》하고 소리치는 팔로군전사의 얼굴표정은 무척 엄엄했다.

샤오도우즈는 키다리전사의 랭랭한 얼굴을 한번 흘겨보았다. 이렇게 흘겨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자기편을 가려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팔로군이람.》라고 하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 키다리전사가 고우성얼을 옴짝달싹 못하게 꽉 틀어쥐고있는것을 보고 벌컥 밸이 나서 오돌차게 한마디 쏴주었다.

《그애 팔을 놓으라요. 왜 아이를 못살게 굴어요? 그앤 앓다가 방금 낫단 말이예요.》

그러자 그 키다리전사가 허리를 굽혀 신발을 매는척 하면서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들을수 있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들, 무서워하지 말아. 우린 한편이야. 있다가 내가 너희들을 업고가서 사탕물을 먹일게. 그러나 지금은 모르는체 해야 한다. 알겠니? 연극하는것처럼 소리쳐라.》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키다리의 팔을 잡아채며 목청을 돋구어 소리를 질렀다.

《놓으라요, 놓으라요. 우릴 잡아서 뭘 해요. 우릴 잡아서 뭘 해요.》

《네놈들은 다 비적새끼들이다. 비적들을 도와주기때문이다.》

키다리전사가 이렇게 큰소리로 말하며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끌고 보육원이 있는쪽으로 걸어갔다.

제 10 장

1

샤오린과 그의 동료들을 내보내고 허둥지둥 지하실로 내려온 셋째는 쏘파에 벌렁 드러누웠다. 방금전에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느라니 마치 칠칠야밤속을 헤매이다가 난데없이 한가닥의 불빛을 만난듯한 심정이였다. 그는 험악한 세월에 한뉘 바보취급을 받으며 갖은 구박과 멸시속에 살아온 농사군의 자식이였다. 어려서 빚값에 끌려간 그는 숨쉬는 도구가 되여 금붕어눈네 집에 가서 가혹한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를 맞았고 여차하면 죽어야 하였다. 자기 집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고 아버지도 시달림에 못이겨 일찌기 세상을 떠났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과 등지고 바보처럼 사는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고통스럽지도 않다고 여겨왔다. 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나타난 이 신비스러운 어린 팔로군들이 갑자기 자기의 삶의 울타리속에 뛰여들어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것이 아닌가.

원래 그는 팔로군에 대해 조금도 아는것이 없었다. 또한 알고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것을 알아도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왔다. 그는 또한 비적노릇을 하는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총칼을 휘두르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로략질하는 그런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때문이다. 그가 비적이 된것은 금붕어눈이 자기의 졸개로 써먹으려고 강압적으로 끌고왔기때문이였다. 그는 하는수없이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그럭저럭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한데 주인집나리(금붕어눈)가 팔로군에게 맞아죽었다고 하니 자기의 어깨우에 짓눌려있던 무거운 짐이 어느정도 덜어진것

같았다. 다만 아직 우려되는것은 집주인이 자기가 잘 돌봐주지 않아 그를 죽이게 했다고 죄를 따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방금전에 한 샤오린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그처럼 마음속으로 소원하던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보이였다. 그것은 바로 팔로군이 인차 마치와 구나이린 그리고 주인과 같은 못된 놈들을 다 없애치우게 되면 더는 자기를 괴롭힐 놈들이 다 없어지기때문이였다.

팔로군이 마치와 구나이린 그리고 주인놈과 맞서싸우는데 무엇때문에 자기가 마치를 도와 팔로군을 해치려고 하겠는가. 허 참, 이 정신 봐. 아직도 바보노릇을 하고있으니 어디 될 말인가.

셋째는 불현듯 자기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팔로군을 몰래 도와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아까 샤오린이 무슨 병기창고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찾아야 한다.

셋째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지하실을 빙빙 돌면서 구석구석을 세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놈의 병기창고가 어디에 있을가? 또한 그것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방법으로 찾을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지하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사실 지금까지 그는 병기창고라는 말을 처음 들을뿐아니라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기때문에 더욱 막막하게 생각되였다. 그런데 팔로군이 이에 대해 왜 그토록 신경을 쓰는것인지…

셋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대기고있는데 갑자기 정면벽에 있는 신호등이 환히 켜졌다. 뒤미처 《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흠칫했으나 인차 마음을 다잡고 쏘파에 가앉아 아무 일도 없은듯 두눈을 감고있었다.

얼마 안있어 지하실의 문이 찰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쥬타오룽이 문앞에 서있는것이였다.

그는 쥬타오룽이 매우 간교하고 음흉한데다가 일단 자기한테 잘

못 보이면 마치에게 고발하여 반주검이 되게 만든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아까 누가 왔댔어?》
쥬탸오룽이 다짜고짜로 이렇게 물었다.
《에, 에, 누가 오다니요? 나 혼자뿐이웨다.》
쥬탸오룽은 셋째앞으로 코가 닿을 정도로 바싹 다가가 마치 그의 깊은 속내를 꿰뚫어보기라도 하려는듯 녹두알같은 두눈알로 뚫어지게 쏴보았다.
《이자식, 나하고 숨박곡질하려구? 방금 팔로군과 같이 들어왔지?》
《에, 들어왔다면 어데 있겠소이까?》
셋째는 한쪽손으로 방안을 삥 둘러 가리키며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두근거렸다.
이놈이 어떻게 팔로군이 들어왔던것을 알고있을가? 그 4명의 이름모를 사내아이들은 팔로군군복을 안입지 않았는가. 이것은 분명 쥬탸오룽이 자기를 떠보는것이 틀림없었다.
쥬탸오룽은 방금전에 마바와 함께 인평의 지시에 따라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에서 병기물자를 계속 내보내기 위한 방책을 상론하고있었다. 그런데 보육원에 있는 화초공이 달려와서 수림속에서 새잡이를 하던 형제들이 팔로군에게 잡혀갔는데 한명만 북쪽의 왕쟈루방향으로 달아났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쥬탸오룽은 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화초공이 말하던 그 수림속으로 가보았다.
싸창에 장탄까지 하고 모자채양을 푹 내리누르고 조심스레 수림속에 당도했을 때는 자기 졸개들은 이미 보이지 않고 새장들만 그냥 걸려있었다. 이것을 본 쥬탸오룽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엎친데덮치기라고 가뜩이나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팔로군에게 계속 잡혀가니 나중에 다 잡혀가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쥬탸오룽은 자연히 자기의 앞길이 더욱 막연하게만 여겨졌다. 그는 어깨를 푹 떨군채 무거운 다리를 끌고 왕쟈루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씨름터안의 지하실이 혹시 팔로군에게 발견되지 않았는가 해서 한번 가보고싶었던것이다. 사실

여기는 졸병 몇명보다 더 중요한 곳이다. 비록 군수품창고와 통하는 굴간입구는 이미 페쇄해버렸지만 혹시 팔로군이 이 지하실을 발견하면 그속에서 그 어떤 단서를 잡을수 있기때문이였다.

왕쟈루근방에 이르니 그 주변에는 총을 비껴든 팔로군들이 곳곳에 서있어 분위기가 자못 어마어마하였다. 그런데 팔로군이 저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그 무슨 어린 비적새끼들도 잡혀갔다고 한다.

쥬탸오룽은 그 말을 듣고 무슨 비적새끼가 다 나왔을가, 도대체 무슨 일일가 하고 생각을 굴리였다. 그러다가 그는 여기에 더 오래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인차 공원쪽으로 에돌아 조용히 옮겨갔다.

한참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보니 그때는 팔로군들이 모두 철수하고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도적고양이처럼 씨름터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지하실에 들어왔던것이다.

쥬탸오룽이 어리숙하고 바보에 가까운 셋째를 만나 한참 떠보았지만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았다. 하기는 만일 팔로군이 들어왔다면 바보같은 셋째를 그냥 놔두지 않았을거고 이 지하실에서도 나가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따져물었다.

《이자식아, 넌 팔로군을 문밖에까지 끌어와서 혼자만 들어왔단 말이야?》

《에, 아니우다. 내가 씨름터에 뛰여왔을 때는 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수다.》

쥬탸오룽은 지하실에 그 어떤 이상한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셋째의 말을 과연 믿을수 있겠는가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한참만에야 그는 이상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였다.

《날 따라와.》

《에, 알겠소이다.》

셋째는 짐짓 더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속마음은 창문을 열어제낀것처럼 환히 밝아있었다.

2

시군관제위원회의 보위처장 류쑹타오는 코삐뚤이와 곰보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얼마전에 몇명의 비적들이 와이포산에서 파견되여 보육원근방에 있는 팔로군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마바와 쥬탸오룽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이 마바와 쥬탸오룽의 거처지에 대해서는 모르고있었으나 그들의 짐작에 의하면 분명 이 근방에 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나는 시간은 전혀 알수 없고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불의에 없어지는 등 마치 유령처럼 행동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병기창고(팔로군은 병기창고라고 하고 적들은 군수품창고라고 한다. 그것은 현재 팔로군이 아직 병기외에 다량의 군수품이 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기때문이다.)와 비적들이 성안에서 활동하는 거점들, 감시초소들, 지어 보육원에 시체토막을 던져넣은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적들이 병기창고를 고수하기 위한 방비대책을 상당한 정도로 엄밀하게 세워놓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얼마 안있어 왕샤오린이 돌아왔다. 그는 류처장에게 수림속에서 우연히 셋째를 따라갔다가 씨름터에 있는 비밀지하실을 알게 된 정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였다.

왕샤오린의 정찰보고를 통하여 코삐뚤이와 곰보 등이 제공한 진술자료가 모두 사실이라는것을 다시금 알게 되였다.

지금까지 장악하고있는 모든 단서들을 분석판단해보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로부터 보육원까지 그리고 성 남쪽에 있는 페허지 지하실과의 거리는 약 4～5리정도이다. 그러면 씨름터의 방공호가 이 두곳사이에 아무런 련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이겠는가? 그리고 지하실벽에 끼워있는 알락달락한 신호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지하실에 있

는 일본제통졸임과 술병은 어디에서 생겼고 지상에 널려있는 콩크리트쪼각과 자갈들, 벽돌들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것인가? 더우기 적들이 씨름터와 《충령탑》의 옛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돌리고 보육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서 시체토막까지 집어넣어 위협공갈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적들의 요충지가 바로 이 보육원근방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는가? 얼마전에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을 포함하여 그 주변을 모두 수색해보았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곳은 대량적인 병기물자를 보관할수 있는 장소가 못되였다. 유일하게 가능한것은 지하밖에 없었다.

씨름터의 지하실과 폐허지의 지하실이 비슷한것으로 보아 호상 통하게 되여있지 않는지. 혹시 정세가 급변할 때 비밀보장을 위해 몇개의 통로를 폐쇄해버릴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니 그 지하실에 십중팔구 병기창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씨름터의 지하실에서 발견한 일본제통졸임과 같은 물품은 다 이 병기창고에서 나온것이라고 볼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팔로군의 포위진이 계속 좁혀지면서 막다른 지경에 이른 적들이 최후수단으로 병기창고를 폭파시킬수도 있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육원은 물론 근방의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을뿐아니라 나아가서 이 도시의 절반이상이 무사하지 못할수 있다.

류쑹타오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정황들과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에 대하여 군관제위원회 주임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결국 세밀한 분석과 진지한 토론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우선 당분간 적들을 다치지 말고 놈들이 서둘러 음모를 감행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는것이며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리용하여 최단시일내에 병기창고의 위치를 알아내여 한꺼번에 해치우는것이다. 그리고 개도 급하면 담장을 뛰여넘는다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적들이 보육원을 불의에 습격할수 있기때문에 방송국경비중대에서 한개 분대인원을 더 보내여 저녁에 은밀히 들어갔다가 이튿날 아침에도 은밀히 나오도록 하게 하였다.

3

샤오디얼은 방송국경비중대 식당앞에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류달리 푸른 하늘에는 두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한무리의 물오리떼가 날아가고있었다. 어느덧 그의 마음은 물오리떼를 따라 자기가 나서자란 위슈촌마을앞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로 가고있었다. 그 호수에는 일년내내 멈추지 않고 콸콸 솟구쳐오르는 큰 샘이 있었다. 그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넘쳐흘러 드넓은 호수가 생겨났던것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어머니와 함께 늘 이 호수가에서 물오리알을 줏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어떤 때에는 그물로 물오리도 잡았는데 입에 풀칠도 제대로 할수 없었던 그 세월에는 그것이 큰 보탬으로 되였다. 어머니는 물오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통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있는 샤오디얼의 두 눈확이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나의 둘도 없는 어머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는 어찌하여 이 딸을 버리고 혼자 갔나요. 어제 어머니가 나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려 성에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가 없어 이 샤오디얼은 생소한 보육원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없이는 정말 못살것 같애요. 그래서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우린 언제나 갈라질수 없다고, 한생을 같이 있자고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어머니가 혼자 갔나요?…

이렇게 생각하던 샤오디얼은 분연히 두손으로 옷섶을 꼭 틀어잡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아니다, 어머니는 간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이 딸을 버리고 간것이 아니라 비적두목 마치와 구나이린이 앗아갔다.

샤오디얼의 가슴은 마치와 구나이린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내가 어머니의 딸이라면 반드시 마치와 구나이린을 잡아 복수해야 한다. 그 악귀같은 놈들을 잡아치우

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것이다.…

방송국마당에서 방금 아침밥을 먹고난 아이들이 여느때처럼 모여서 보육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있었다. 보육원은 아직 자체의 식당을 가지고있지 못했다. 일손도 없거니와 주방시설도 없기때문에 당분간 보육원과 멀지 않은 방송국경비중대에서 식사하고있었다. 혹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에는 경비중대의 전사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군 하였다. 오가는 시간과 밥먹는 시간을 합쳐도 30분이면 충분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밥을 다 먹고 기다린지 퍼그나 오래 되였는데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왜 안가는가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 왜 안갑니까? 공부할 시간이 다 됐는데.》

《원장선생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은 이렇게 말하며 타일렀다.

바로 그 시각에 원장선생과 싱아바이 등이 방안에 던져넣었던 시체토막을 치우기 위해 뛰여다니는것을 아이들은 전혀 알수 없었다. 그들은 방안에 어지러운 곳이 있을세라 닦고 또 닦았다. 어린 아이들의 천진하고 깨끗한 마음에 자그마한 더러운 흔적이라도 남겨둘수 없었던것이다.

샤오디얼은 아침밥을 한술도 들지 않았다. 선생님들과 팔로군아저씨들이 재삼 권고했어도 그는 듣지 않았다. 가슴속에는 오직 복수심과 증오심이 끓고있었고 오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이 차넘치고있었다.

이때 샤오마오얼과 샤오핑구오가 서로 손을 잡고 샤오디얼앞에 다가와 머루알같은 두눈으로 그의 얼굴을 빠금히 올려다보았다. 아마도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샤오디얼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그들은 선뜻 입을 열지 못하였다. 한참만에야 샤오핑구오가 용기를 내여 옷섶을 굳게 잡은 샤오디얼의 손을 만져주며 입을 열었다.

《누나, 울려고 하나?》

샤오마오얼은 샤오핑구오를 보고 물어보지 말라는듯 그의 팔

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그러나 샤오핑구오는 줄곧 두눈을 반짝거리며 샤오디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한동안 지나서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누나, 누나, 한번 날 보렴. 난 샤오핑구오라고 해. 이 이름은 싱할아버지가 지어준거야.》

《난 샤오마오얼이라구 해. 내 이름두 싱할아버지가 지어준거야.》이번에 샤오마오얼이 입을 열었다.

《싱할아버지의 수염이 비자루처럼 굳단다.》

《싱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내가 그의 수염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는 아프지 않다고 해.》

샤오디얼은 그제서야 허리를 굽히며 귀여운 두 어린애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기 옷섶을 잡고있던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여 말할수가 없었다.

《누나, 나를 안아줄래?》

샤오핑구오가 물었다.

샤오디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어 샤오핑구오를 안아올렸다. 그러자 샤오핑구오는 고사리같은 두손으로 샤오디얼의 눈물자국을 살금살금 닦아주었다.

샤오디얼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샤오핑구오에게 물었다.

《너 어머니가 있니?》

샤오핑구오는 도리머리를 했다.

《우리 어머니는 나쁜 놈들한테 죽었어.》

샤오디얼은 샤오마오얼에게도 물었다.

샤오마오얼도 도리머리를 했다.

《우리 어머니도 놈들에게 죽었어.》

삽시에 샤오디얼의 가슴은 마치 차디찬 얼음덩어리에 의해 꽉 막혀버린듯 하였다. 그는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을 바라보다가 자기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얼굴을 그들의 볼에 대고 비벼주고 또 비벼주었다.

위즈란원장이 언제 와있었는지 샤오디얼의 등뒤에서 방금전에 그

들이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있었다. 원장은 자기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깊이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가슴은 마치 끓는 물처럼 설레이였다.

이윽고 그는 샤오디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나서 손에 쥐고있던 종이꾸레미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샤오디얼이 그 꾸레미를 받아쥐며 뒤를 돌아보니 위즈란원장이였다. 그는 얼른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원장선생님, 이건 무엇입니까?》

《증기빵이다. 네가 아침식사를 안했다고 하더구나.》

《난 배고프지 않아요.》

《샤오디얼.》 위즈란은 샤오디얼의 어깨우에 손을 얹고 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타일렀다. 《우리 보육원의 원아들은 다 불쌍한 아이들이야. 아버지가 없지 않으면 어머니가 없구.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없는 애들도 있단다. 이런 아이들이기에 자기 부모들을 몹시 그리워하지.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먹으면 안되지. 밥을 안먹으면 병에 걸릴수 있고 병을 만나면 누가 좋아하겠니? 나쁜 놈들이 좋아하고 마치와 구나이린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아?》

샤오디얼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니?》

《먹겠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해요.》

위즈란의 얼굴에는 희색이 돌았다.

《나두 많이 먹을래.》 샤오마오얼도 승벽내기로 말을 이었다.

《옳아요!》 위즈란은 시원스럽게 말했다. 《배불리 먹고 빨리 커야 해요. 그래야 이다음에 커서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몇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처마밑에서 나와 《구구구》소리를 내며 하늘높이 날아올라갔다.

원아들이 가슴을 쭉 펴고 두팔을 힘있게 내저으며 방송국 마당에서 걸어나오고있었다. 부드러운 아침해살이 거리를 비치고 습

윤한 공기속에 꽃향기가 풍기였다.

걸음을 멈춰선 행인들, 열려진 집집의 창문들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이 씩씩하게 걸어가는 원아들의 대오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우렁찬 노래소리가 먼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간다.

나팔소리 울린다
뚜뚜뚜
북소리 울린다
둥둥둥
칼로는 앞잡이를
총으로는 왜놈들을
어리다고 탓하지 말라네
두려운건 항거하지 않는거라네
칼과 총 모두 잡고 전장으로 달려가세
…

키가 크고 행진법도 모르고 노래도 부를줄 모르는 샤오디얼은 대오의 뒤에서 부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였다. 수심에 쌓였던 그의 가슴속에 한가닥 해빛이 스며들며 그는 가궁한 아이들이 사는 보육원에 대해 차츰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대오의 뒤를 따라갈 때 길량쪽의 행인들이 자기만 보는것 같아 다소 부끄러운감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비슷한 높은반의 남녀학생들도 함께 걸어가고있는것을 보고서야 어느정도 마음을 진정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였다.

어느덧 대리석담장옆에 나있는 작은 문에 이르렀을 때였다. 무심결에 길량옆에 서있는 사람들을 얼핏 곁눈으로 보던 그는 원숭이상을 가진 한사람에게 눈길이 미치자 저도모르게 흠칫했다. 그 사람이 별로 낯익어보였던것이다. 순간 머리를 숙이고 생각을 더듬던 그는 다시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 머리를 들었다.

빼빼 마른 체구에 중절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긴 가둑누에실목도리로 얼굴을 절반나마 가리운 그 사람은 두눈을 디룩

거리면서 있었다. 자세히 보느라니 그의 음흉한 두눈이 두개의 검은 총구로 변하면서 한 총구는 비적두목 마치가, 다른 총구는 말라깽이 구나이린이 들고 자기 어머니의 가슴을 겨누고있다. 이어 어머니를 겨누던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되였다. 어머니가 두팔을 벌리고 천천히 뒤로 쓰러진다. 자기를 겨누었던 총구에서 탄알이 발사되기 전에 팔로군이 달려왔다.…

샤오디얼은 번쩍 정신이 들면서 명상에서 깨여났다. 삽시에 그는 가슴속에 응어리져있던 분노의 불길을 내뿜으며 그 사람에게로 덮쳐들었다.

《이놈! 구나이린, 잘 만났다!》

그 말라깽이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은 다름아닌 구나이린이였다. 이놈은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에 가서 군수물자를 내보내는 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가던중 뜻밖에 이곳에서 류쑹타오의 딸을 만났던것이다. 사실 이놈은 샤오디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둠속에서 도주할 때 만났으니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수도 없었거니와 손쓸 경황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던 이애가 이제는 보육원의 원아가 되여 대오를 따라 걸어갈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는가!

구나이린은 뜻밖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데 대해 깜짝 놀랐다. 놈은 당황한 속에서도 두손으로 샤오디얼을 무작정 밀어제끼고 몸을 빼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아아, 너 사람을 잘못 봤다. 사람을 잘못 봤다니까!》

《잘못 봤다구? 네놈의 껍데기를 벗겨도 알아볼수 있다. 이놈!》

샤오디얼은 구나이린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놈의 목도리를 꽉 잡아당기며 악을 썼다. 그러자 목도리에 목을 조인 놈은 황소눈처럼 두눈알을 부릅뜨고 낑낑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나 약삭바른 구나이린은 당황했던 마음을 눅잦히고 한쪽으로는 목도리를 풀면서 한쪽으로는 샤오디얼을 달래며 어떻게 하나 그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샤오디얼이 이 원쑤를 어떻게 놓아줄수 있겠는가? 그는 구나이린을 꽉 붙잡고 꼬집고 때리면서 악을 썼다.

《나쁜 놈, 짐승같은 놈. 네놈을 죽여버릴테다!》

이때 담장 옆문에 거의 이르렀던 원아들의 대오가 고아대는 소리를 듣고 모두 멈춰서서 이쪽으로 바라보다가 일제히 달려왔다.

위즈란은 먼저 달려와서 샤오디얼에게 왜 그러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샤오디얼의 눈에는 오직 원쑤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냥 욕하고 때리기만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것을 본 구나이린은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나왔다.

그는 얼리는 투로 샤오디얼을 보고 《얘야, 너 돌지 않았니? 왜 사람을 잘못 보구 그러니?》하고 낮추 붙다가 샤오디얼이 놔주는 순간에 내빼려고 꾀했던것이다. 그럴수록 샤오디얼은 더 바싹 틀어잡고 구나이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구나이린은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면서 허우적거리다가 황망중에 샤오디얼의 귀쌈을 박아주었다. 샤오디얼은 더욱 악에 받쳐 이번에는 오른쪽손으로는 놈의 팔소매끝을 잡고 왼쪽손으로는 놈의 팔을 꼬집고 힘껏 잡아당겼다.

《앗!》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구나이린의 한쪽 팔소매와 자그마한 살점이 동시에 떨어져나갔다. 구나이린은 성이 독같이 치밀어올랐지만 감히 손을 쓸수가 없었다. 다만 빨리 피하기 위해 갈팡질팡하였다.

위즈란과 다른 선생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몇명의 화초공들이 달려와 샤오디얼을 무작정 잡아떼는것이였다.

《아아, 왜들 그래. 말루 해라, 말루 해!》

《비켜라!》 샤오디얼은 새된 소리를 질렀다. 《이놈은 우리 어머니를 죽인 구나이린이예요!》

《뭣이?》

그제서야 사람들은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위즈란은 얼른 권총을 꺼내여 구나이린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화초공들이 구나이린을 에워싸고 어느새 사람들속을 헤치고 빠져나갔다. 이 틈을 타서 몸을 뺀 구나이린은 남쪽을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 그놈은 몇걸음 뛰다가 얼마 안가서 서쪽골목으

로 몸을 숨겨버렸다. 이 골목은 서쪽에 있는 수림과 둔덕아래켠 평지붕집방향으로 가는 골목길이였다.

한편 위즈란은 권총을 하늘에 대고 공포를 몇방 쏘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비키는 틈을 타서 구나이린을 따라 추격해갔다. 그뒤로는 샤오디얼과 기타 선생들과 높은반 학생들이 뒤따라갔다.

사실 위즈란과 구나이린사이의 거리는 열보정도였다. 그러니 구나이린이 아무리 뛰여야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날수는 없을것이였다. 그런데 위즈란이 골목어구에 이르렀을 때 그놈이 어디엔가 숨어버렸다. 시간상으로 보면 불과 몇초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샤오디얼은 너무 분하고 원통하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야단했다.

《내가 때릴 때 뭘 했어요? 왜 붙잡지 않구 가만 놔뒀는가요!》

선생들과 학생들은 서로 마주볼뿐 누구도 입을 열수 없었다.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샤오디얼이 《이놈이 비적두목 구나이린이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놈은 벌써 그들의 손에서 죽탕이 되였을것이 아닌가! 그런데 샤오디얼은 무턱대고 구나이린을 때리기만 하고 또한 구나이린은 그대로 《왜 애매한 사람을 보고 이러느냐?》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영문을 알수 없었던것이다. 간악한 비적두목을 눈을 펀히 뜨고 놓쳤으니 분통하기 그지없었다!

위즈란은 구나이린이 어디에 숨을수 있겠는가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왼쪽에는 수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평지붕집이 있다. 비록 곡식이 자란 밭도 있지만 몇초사이에 그곳에 숨어버릴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놈이 어디에 숨었겠는가? 여기서 가능성이 가장 많은것은 평지붕집이다. 평지붕집은 보육원에서 관할하기때문에 거기에 가서 수색해보아도 무방할것이다. 그러나 위즈란은 이곳 화초공들의 동향에서 의심스러운데가 있으므로 그들을 놀래우지 말데 대한 류처장의 지시가 있고 해서 그만두었다. 설사 그를 찾아낼수 있다고 해도 잠시 놓아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적들의 병기창고를 밝혀내는데 더 유리한것이다.

위즈란은 적들을 기만하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수색하는척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그 소식이 벌써 보육원을 지키고있던 싱아바이의 귀에 들어갔다. 그가 얼른 경비중대에 이 소식을 알려주자 그 즉시 한개 소대가량 되는 인원들이 위즈란이 있는데로 달려갔다.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의 세마리의 큰 개가 팔로군전사들을 향해 짖어댔다.

위즈란은 달려온 경비중대전사들에게 큰소리로 한마디 했다.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때 한 전사가 평지붕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저안에 배겨있지 않을가요?》

그러자 위즈란은 도리머리를 했다.

《아니예요. 구나이린은 보육원이 관할하는 이 집에 들어갈수 없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부드럽게만 말하던 위즈란이 오늘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샤오디얼은 비적두목 구나이린을 놓치고 위즈란원장과 팔로군이 그놈을 잡기 위해 깐깐히 수색하지도 않는데 대해 너무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홱 돌리더니 거리로 막 뛰여갔다. 시군관제위원회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구나이린이 이 근방에 있는데 빨리 와서 수색하여 잡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제 11 장

1

샤오린과 샤오류가 임무수행정형을 보고하기 위해 군관제위원회의 류쑹타오를 만나러 간 사이에 전시와 샤오망즈는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찾으려고 거리에 나섰다. 비록 씨름터에서 그들과 헤여진지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그들은 마치도 오래동안 갈라져있은것처럼 허전하고 궁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고 정양거리에 널려있는 어린 형제들도 보고싶었다. 정말이지 이 2년동안의 고난에 찬 생활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갈라질수 없게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로 굳게 이어놓았던것이다.

그들이 정양거리를 거쳐 번화한 후이빈각의 음식점앞에 이르렀을 때 문득 전시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히죽이 웃었다. 샤오망즈가 피뜩 그를 흘겨보았다.

《왜 웃니?》

《망즈야.》 전시는 샤오망즈의 옷자락을 한번 잡아당기고 벽에 기대여 까치다리를 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노상 같이 있을수 있을가?》

《왜 못있겠니?》

《여든살까지두?》

《여든살까지야 어떻게 생각하겠니. 며칠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야, 넌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하니. 우린 여든살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해. 오늘 내가 말한대로 하자. 알겠지?》

샤오망즈는 전시가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있는 동무들과 헤여지기 무척 서운해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사실 그도 말은 하지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다. 하여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전시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잠시 아무말없이 못박힌듯 서있던 전시가 불쑥 웃으며 샤오망즈에게 물었다.

《네 보기엔 샤오린네 그 팔로군이 어때?》

샤오망즈가 흔연히 대답했다.

《좋지 뭐!》

《공산당은?》

《뭐? 공산당과 팔로군은 한편이 아니니?》

《글쎄 십중팔구는 그런것 같애. 헌데 네 생각은 어때? 좋은가 나쁜가 말이야.》

《무슨 소리야? 한집안인데 좋구 나쁘구가 있어? 그야 다 좋겠지 뭐.》

《응, 나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린 한생을 공산당과 팔로군을 따라가자. 영원히 갈라지지 말자.》

《옳아, 영원히 갈라지지 말자!》

《망즈야, 난 하고싶은 말이 또 있어.…》

《뭔데?》

《우린 이제부터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호주머니를 터는짓을 하지 말자. 그리구 샤오린형처럼 살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구 위해주구.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샤오망즈는 기쁨에 넘쳐 전시를 바라보았다. 그를 바라보는 샤오망즈의 눈빛은 류달리 밝았다.

문득 전시가 두손가락을 입에 넣고 허리를 약간 꺾더니 《휘익-》하고 휘파람소리를 냈다. 그는 온 정양거리가 다 들을수 있도록 연거퍼 몇번 불었다.

다음 한쪽신발을 벗어 엉치밑에 깔고앉았다.

샤오망즈는 곁에 서서 마치 누가 맨 먼저 달려오는가를 살펴보려는듯 사방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 널려있던 꼬마형제들이 마치 병사들이 집

합나팔소리를 듣고 달려오듯 급히 달려왔다. 동쪽이건 서쪽이건 그리고 대도로이건 골목이건 할것없이 사방에서 달려온 꼬마형제들은 전시와 샤오망즈를 보자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라했다. 마치 오래동안 헤여졌다가 다시 만나는 작은 원숭이들처럼 《전시형!》, 《망즈형!》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깡충깡충 뛰면서 무등 좋아하였다.

《우린 형님들이 우릴 버린줄 알았어!》

《우린 형님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줄 알았지.》

전시는 버럭 대노한듯 손을 높이 쳐들었다가 땅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만약 우리가 너희들을 버렸으면 왜 찾았겠니? 절대루 그럴수 없어. 얘들아, 난 오늘 좋은 소식을 말해주려고 한다. 우리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집이 있다.》

이 말을 들은 꼬마형제들은 의아쩍은 표정으로 전시를 바라보았다. 전시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잘 모를수 있어. 나와 샤오망즈도 요즘에야 알게 되였어.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해주고 보살펴주는가? 그건 공산당과 팔로군이고 보육원이란다.》

꼬마형제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응, 그래. 만약 내가 앞으로 변하거나 너희들과 가난한 백성들을 몰라준다고 하면 날 가차없이 쫓아버려라.》

전시는 이런 모진 말을 하고는 또다시 그전처럼 손가락을 물어뜯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꼬마형제들이 와락 달려들어 그를 말리였다.

《전시형, 왜 또 그런 말을 하나? 누가 형님보구 달라졌다고 했나. 그렇게 말한건 누구게?… 우린 형님을 오래간만에 만나 너무 반가와서 한마디 한건데 그것때문에 또 서약할 필요가 뭐 있나?》

전시는 옆에 있는 한 어린 동생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며 한마디 했다.

《동생들, 날 보구 서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그만두겠어.》
꼬마형제들은 삽시에 즐겁게 웃었다.
이때 샤오망즈가 무릎으로 전시의 엉치를 툭 다치고나서 허리를 굽히고 나직이 말했다.
《모두다 왔는데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보이지 않누나.》
말소리는 낮았으나 가까이에 있던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삽시에 웃음을 거두었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형님들을 따라가지 않았나? 왜 보이지 않을가?》
《어디 갔을가?》
《?…》
그러나 전시는 방금전에 있었던 일을 꼬마형제들에게 다 말해줄수가 없었다. 그것은 꼬마형제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샤오린이 이미전에 말한것이 있기때문이다. 특히 지금 한창 진행하고있는 비밀병기창고를 찾는 사업에 대해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의아한 기색을 짓고 전시를 바라보고있는데 그는 내색하지 않고 익살스럽게 두손가락을 들어 꼬마형제들에게 보였다.
《난 이걸 가지고 요술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즉시 달려올거다. 어때?》
《좋아, 그럼 빨리 그들을 오게 해봐!》
꼬마형제들은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사실 전시는 이렇게 말은 했어도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들이 휘파람소리를 듣고 달려올수 있겠는지 자신이 없었다. 어쨌든간에 전시는 곧 두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소리가 더 멀리 울려가도록 하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다음 몸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있게 돌리며 《휘익－》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휘파람소리는 마치 긴급호출신호인듯 아츠럽게 울리였다. 꼬마형제들은 저마끔 두눈을 바로 뜨고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어디에서 달려오는가를 살펴보았다.
초조한 시각이였다.

이 시각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경비중대에서 방금 나오고 있었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팔로군에게 《체포》된 다음 경비중대에 와서 그곳 중대의 전사들과 함께 시간가는줄 모르고 재미나게 놀았다. 그들에게 런다융중대장이 사탕물을 먹으라고 각각 한사발씩 나누어주었다. 처음에 고우성얼은 좀 어줍은감이 있어 사탕물을 받고도 선뜻 마시지 못했는데 샤오도우즈는 받자마자 곧 꿀꺽꿀꺽하고 단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다 마신 다음 입을 삑 문대면서 사발을 또다시 내미는것이였다. 이것을 본 중대장은 매우 기뻐하였다.

《좋아, 오늘은 너희들이 실컷 마셔봐.》

그러자 고우성얼도 용기를 내여 사탕물을 마시였다. 그들은 연거퍼 세사발씩이나 마시였다. 이윽고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가려고 할 때 중대장이 그들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따뜻이 바래주었다.

《여기는 너희들의 집이나 같다. 앞으로 오고싶을 때는 아무때건 오너라.》

거리에 나온 다음 고우성얼은 어깨로 샤오도우즈를 툭 밀치면서 말했다.

《얘, 넌 정말 담이 큰데.》

그러자 샤오도우즈는 옷섶을 활 헤치며 자랑이나 하듯 대답하였다.

《뭘 겁날것 있니. 우린 다 한편인데. 자, 보라. 이 옷도 팔로군이 준거란다.》

고우성얼의 가슴속에도 따뜻한 감정이 휩싸였다. 그도 팔로군이 확실히 자기와 한편이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양거리에 있는 어린 동무들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기네들처럼 사탕물도 자루쟈도 먹지 못하고있다. 그들도 자기네처럼 밥을 얻어먹는 거지니까 팔로군들과 한편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도 사탕물을 마실수 있지 않을가?

고우성얼은 자기 생각을 샤오도우즈에게 비쳐보았다.

《도우즈야, 래일 우리 형제들을 다 데리고가서 사탕물을 마실수 있을가?》

《응, 있잖구. 래일 꼭 그들을 데리고가자.》

샤오도우즈는 밝은 두눈을 굴리며 신이 나서 대답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다 먹을 사탕가루가 있을가?》

그러자 고우성얼은 입을 다시며 후회하는듯한 어조로 뇌였다.
《우리가 세사발씩 마시지 않았다면 조금 남는건데.》

《너 진작 말할것이지.》

샤오도우즈는 고우성얼의 뒤덜미를 잡고 가볍게 한번 흔들었다.

이렇게 재미나게 말하면서 그들이 정양거리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있는데 갑자기 귀익은 휘파람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그들은 무춤 멈춰섰다가 이어 서로 손잡고 휘파람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이건 전시형이 찾는 휘파람소리야.》

《나도 들었어.》

고우성얼은 엉덩이로 흘러내린 반바지를 추겨올리면서 샤오도우즈를 바싹 따랐다. 이윽고 먼발치에서 전시와 샤오망즈가 서있는것을 본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전시형! 망즈형!》하고 부르며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흥! 저것 보지. 막 달려오는걸.》

전시는 대뜸 멀리에서 달려오는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알아보고 마주 걸어나가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샤오도우즈는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다가 전시의 손에 이끌려 한바퀴 뱅그르 돌았다. 샤오망즈는 달려가 고우성얼의 허리를 잡고 공중에 높이 쳐들었다.

《성얼아, 너희들이 왔구나!》

전시는 정찬 눈길로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을 바라보면서 다그쳐 물었다.

《빨리 말해. 우리와 갈라진 다음 너넨 어디에 가있었니?》

샤오도우즈는 좌우를 훑어보고는 낮은 어조로 대답했다.

《우린 방송국에서 오는 길이야. 거기서 사탕물을 많이 마셨단다.》

그러자 고우성얼이 한발 다가서며 한마디 보탰다.

《래일 우리모두 사탕물을 마시러 가자. 거기 사람들은 우리

를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몰라. 한집안사람이라나. 오고싶으면 아무때건 오라고 했어.》

줄곧 귀를 강구고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있던 꼬마형제들은 무척 신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

전시는 이들이 한 말을 도깨비(비적을 비유)들이 들을가봐 얼른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에게 눈짓을 하여 그들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꼬마형제들을 보고 이런 말을 누구에게나 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10여명의 꼬마형제들은 비록 옷들은 람루하고 게다가 볼품없는 얼굴모습들이였지만 마음만은 모두 한결같이 선량하고 의로왔다. 그래서 전시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으며 그의 말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기지 않는다.

이윽하여 옷안주머니에서 은돈을 꺼내여 공중높이 던진 전시는 재빨리 몸을 한바퀴 돌린 다음 날쌔게 오른손을 왼쪽다리밑으로 뽑으며 떨어지는 은돈을 침착하게 잡았다. 교예사처럼 그 은돈을 잡은 전시는 이어 손바닥을 쭉 펴고 그 무게를 가늠해보듯 둬번 들었다 놓고나서 꼬마형제들을 향해 한마디 건네였다.

《얘들아, 오늘저녁에 우리 같이 한끼 잘 먹어보자!》

《어느 음식점으로 가자니?》

한 꼬마가 재롱스럽게 물었다.

《너희들이 말해보라.》 전시가 도리여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어떤 아이는 전병집으로 가자거니 어떤 아이는 짜장면집에 가자거니 또 어떤 아이는 제법 배짱있게 교즈집에 가자고 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전시와 샤오망즈는 웃는 얼굴로 서로 눈짓을 해가며 꼬마형제들의 제의에 줄곧 도리머리를 했다.

이 광경을 보고 눈치 빠른 샤오도우즈가 용기를 내여 한손을 홰저었다.

《이보라구, 모두 쑹쟝시에서 제일 큰 음식점이라구 뽐내는 후이빈각에 가자. 거기 가서 두눈이 뒤통수에 붙은 앞잡이같은 놈들

에게 우리를 대접하라구 하자!》

꼬마형제들은 샤오도우즈가 한 말을 듣고 모두 어처구니가 없는 듯 와 하고 웃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랬다고 가보지 못할 그런 곳에 가자고 하니 그들이 웃을만도 했던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후이빈각은 밥 한끼 먹는데 음식값이 매우 비쌀뿐아니라 웬만한 부자들도 드나들수 없는 위엄있고 어마어마한 곳으로 여겨왔다. 일제시기에는 소장이나 대, 중, 소좌급의 장교들이나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었고 일반 중, 소위급의 장교들은 잘 접대하지도 않았다. 중국사람들인 경우에는 성정부나 경찰서의 고관들과 지주, 자본가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지방토호들, 소문난 앞잡이들이나 드나들었지 그밖의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니와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평민들은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들여놓지 않았다.

언제인가 시골에서 사는 한 농사군이 짜장면 한그릇을 사먹으려고 무작정 들어왔다가 이 명성높은 후이빈각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뚱뚱보주인의 발길에 채워 문밖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일본놈들이 망한 다음 비록 정세가 좀 달라졌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버릇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후이빈각을 가리켜 불한당이 드나드는 루각, 앞잡이들이 거처하는 루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샤오도우즈가 진짜인지 롱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런 루각에 가자고 하니 자연히 꼬마형제들의 웃음거리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듯 웃음거리로 된 샤오도우즈의 《제의》에 뜻밖에 전시가 동의를 표시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얘들아, 샤오도우즈의 말이 옳아. 우린 다른데 가지 말구 후이빈각에 가자. 그 뚱뚱보더러 직접 와서 이 나으리를 잘 접대해보라고 하자!》

《만일 우릴 내쫓으면 어쩌니?》

고우성열이 빠금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뭘? 그러면…》하고 전시가 아직 말허리를 잇지 못했는데 갑

자기 샤오린이 총총히 뛰여왔다. 그리고는 전시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한참 속삭이자 전시는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다.

《그 잡종개를 없애치우겠단 말이지. 샤오린형, 좋구나!》

그러자 샤오린은 제꺽 전시의 입을 틀어막으며 떠들지 말라고 하였다.

전시는 샤오린의 손을 잡아내리우며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다 가겠어.》

샤오린은 꼬마형제들을 빙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2

전시와 샤오린은 앞에서 잰걸음으로 걸어가고 뒤에서는 한무리의 꼬마형제들이 히히닥거리며 따라가고있었다.

그들을 보면 별의별 모양이 다 있다. 이를테면 맨발로 걸어가는 아이며 끌신을 신고 가는 아이, 자그마한 마대쪼박을 걸친 아이며 가슴과 배를 드러내놓고 걸어가는 아이…

하지만 그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이전처럼 우울하고 애수에 비낀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긍지와 희열이 다분히 어려있었다.

전시와 샤오도우즈,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내놓고 다른 아이들은 류다른 눈길로 샤오린과 샤오류를 바라보았다. 물론 두번째로 그들을 만나기는 했어도 아직은 좀 서먹서먹해하였다. 그리고 이 두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또한 무슨 일때문에 가는지는 더욱 모르고있었다. 다만 전시와 샤오망즈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들은 주저없이 따라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방랑아들의 형제적의리심이 얼마나 굳게 다져져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였다.

전시는 평지붕집의 개를 잡으러 가는데 대해 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다. 그러지 않아도 그전부터 보육원과 평지붕집과의 관계에 대

해 똑똑히 알지 못해 아리숭하게 여겨왔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은 평지봉집과 보육원이 한집안도 아니며 또한 그곳의 화초공들이 자기편도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지 않으면 샤오린이 무엇때문에 몰래 그들을 데리고가서 세마리의 잡종개들을 잡아죽이려고 하겠는가?

그는 샤오린과 아니, 나아가서 보육원과의 관계가 더한층 가까와지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그가 기뻐한것은 비단 그 개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보다 샤오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팔로군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데서부터 오는 기쁨이였다.

《샤오린형!》 전시는 샤오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으며 《우린 가서 개를 강짜로 때려죽이려고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하고 손세를 써가며 물었다.

《강짜로!》 샤오린의 단호한 대답이다.

《그럼… 개의 주인들이 가만 있겠어?》

《가만 있든 안있든 죽여야 해. 이건 군관제위원회의 법령이야. 시안의 개들은 다 죽여야 해.》

《몽땅 다?》 전시의 눈이 터질듯이 커졌다. 《그건 왜?》

샤오린은 전시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성안에 있는 비적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우리가 비적들을 잡으러 가면 개가 물려고 할뿐아니라 개짖는 소리를 듣고 비적들이 미리 숨어버리거든.》

전시는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또 물었다.

《그렇다면 평지봉집에도 비적이 있다는건가?》

《개가 있는 집들은 거의다 비적들이 있어. 그래서 평지봉집도…》 샤오린은 말끝을 얼버무릴뿐 전시에게 의미심장한 눈짓만 했다.

전시는 샤오린의 목을 꽉 그러안으며 환희에 넘쳐 부르짖었다.

《샤오린형, 어쩌면 내 마음을 그리도 잘 알아주나?》

샤오린은 고개를 돌려 전시의 얼굴에서 그 어떤것을 발견한듯 찬찬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희들도 평지붕집에 대해 좀 다르게 본다 그거구나?》

전시는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려고 하다가 갑자기 샤오린의 목을 그러안았던 팔을 슬며시 내려놓으며 걸음을 멈췄다. 길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서있는 샤오디얼을 보았던것이다.

전시는 샤오디얼의 어머니가 비적놈들에게 학살되였다는 말을 듣고 무척 가슴아파했다. 그래서 샤오디얼을 만나는것을 될수록 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길가에서 만나게 되니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났다. 그는 젖어든 목소리로 불렀다.

《샤오디얼.》

샤오디얼을 알고있는 샤오린과 샤오류 그리고 샤오도우즈도 그에게로 다가갔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본적이 없기때문에 모두 옆에 서서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샤오린은 이미 샤오디얼의 마음속 괴로움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방금전에 군관제위원회의 류처장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샤오디얼이 비적의 두번째 두목 구나이린을 우연히 만났던 일에 대해 이미 들었었다.

추측한데 의하면 이놈은 십중팔구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에 들어간것이 분명하였다. 그때 위즈란원장이 적들을 놀래우지 않고 병기창고의 위치를 찾은 다음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색을 더 하지 못하게 하였었다.

이것을 알리가 없는 샤오디얼은 성이 나서 어디론가 가버린것이다. 아마도 군관제위원회에 있는 류처장을 찾아간것 같았다. 그래서 원장과 싱아바이가 각각 전화를 걸어 이상의 정형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길가에서 샤오디얼을 만난것이다.

샤오디얼은 억울한 표정을 짓고 전시와 샤오린, 샤오류를 바라보면서 아직 성이 채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까 난 보육원담장밖에서 구나이린을 만났댔어.》

《정말이야? 잡지 못했니?》

전시는 두눈을 부릅뜨고 다그쳐 물었다.

《말두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두 그놈을 달아나게 했단다. 내 보기엔 그놈이 분명 평지붕집으로 들어간것 같은데 원장

이 수색하지 못하게 했어.》
《수색 못하게 하다니? 수색할 방도가 없어서?》
전시는 이렇게 말하며 팔을 들어 꼬마형제들을 불러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린이 《가만!》하고 얼른 그의 팔을 잡아내렸다. 그리고는 샤오디얼과 함께 길옆으로 한걸음 나서서 전시에게 조용히 말해주었다.
《그러지 말어. 이건 샤오디얼의 아버지인 류처장동지의 지시야.》
《그럼 류처장동지가 샤오디얼의 아버지란 말이야?》
의혹과 놀라움이 섞인 어조로 되묻는 전시의 머리속에는 문득 아침에 류처장이 샤오디얼을 데리고 보육원에 왔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한발을 탕 하고 구르며 아쉬운듯 샤오디얼을 꾸짖었다.
《디얼아, 넌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네가 뻥소니치는 바람에 언제 말해줄새가 있었니?》
곁에서 샤오린이 한마디 보탰다. 그리고 샤오디얼에게 사유를 설명해주었다.
《구나이린이 평지붕집에 들어간것을 알면서도 왜 낚시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낚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곳곳에 숨어서 감시하고있다가 그놈들이 나타나면 넝쿨채로 잡자는것이야. 비적두목 마치까지 잡고 나아가서 다른 놈들도 몽땅 잡아치우자는것이야. 어때?》
샤오디얼과 전시는 줄곧 샤오린의 말을 듣기만 하였다. 처음에는 다소 시무룩해하던 샤오디얼이 차츰 화색이 어리기 시작했다.
《샤오디얼, 이젠 알겠지?》
샤오린은 샤오디얼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샤오디얼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상기된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렸다.
《넌?》 샤오린은 다시 전시에게 물었다.
《나? 난 거저 비적들을 잡아 복수할 생각뿐이야. 다른 말은 할것이 없어.》

전시는 이렇게 말하고는 샤오디얼쪽으로 돌아서서 그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타일렀다.

《디얼아, 우리는 일이 있어 그러는데 넌 먼저 보육원에 가있으라.》

《난 안갈래. 보육원엔 아는 사람도 없고 가있을 생각도 없어. 난 너네를 따라갈래.》

(안돼.… 처녀애가 우리하고 어떻게 다닌다고 그래. 불편스럽게…)

전시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샤오디얼이 나삐 생각할것 같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못해 한마디 더 듬거렸다.

《디얼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건… 우리가… 응, 아니. 너 보육원에 먼저 가있어.》

샤오디얼은 새침한 눈길로 전시를 바라보다가 《됐어. 뭘 그렇게 갑자를것 있니? 나와 같이 안가겠으면 그만해!》하고 한마디 내밸고는 팩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는것이였다.

《디얼, 서라! 서란데…》

전시가 거듭 불렀으나 샤오디얼은 못들은체 하고 그냥 걸어갔다.

전시는 갓 어머니를 잃고 무척 괴로와할 샤오디얼을 그냥 내버려둘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샤오디얼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디얼아, 디얼, 서라는데!》

전시는 샤오디얼을 거의 따라잡고 그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그 순간 샤오디얼은 뒤에서 달려오는 전시를 감촉하고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농촌집에서 자라나 튼튼한 체력을 가진 처녀여서 뛰는데서는 사내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전시는 부득불 젖먹은 힘까지 써서 샤오디얼을 따라 달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사람은 앞에서 달리고 또 한사람은 뒤에서 따라가는것이 마치도 무슨 내기를 하는것 같았다. 이렇게 한바탕 달렸으나 샤오디얼이 어찌나 빨리 뛰는지 전시는 5～6보사이를 두고도 종시 따라잡지 못했다. 전시는 하는수없이 두손

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디얼아, 좀 서라. 내 할 말이 있어 그래.》

샤오디얼은 은근히 속으로 웃음이 나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못이기는척 하고 걸음을 멈췄다. 헐떡거리며 그의 앞에 다가선 전시가 책망조로 말했다.

《할 말이 있어 그런다는데 뛰긴 왜 뛰는거야.》

《내가 뛰고싶으면 뛰는거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샤오디얼은 여전히 웃음이 나는것을 참고 퉁명스레 한마디 대꾸하였다.

《그래그래, 디얼, 성내지 말어. 우리야 다 남자들이구 너 하나 처녀앤데 우리 함께 있으면 남들이… 너 좀 생각해봐. 그렇지 않니?》

《됐어. 그만하구 가봐.》 샤오디얼이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전시가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내 사정하는데 제발 뛰지 말렴. 내가 뭘 잘못한것이 있으면 말하려무나.》

전시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는 평지붕집의 개를 잡고 비적들의 행동을 감시하려고 가는데 너두 기쁘지 않니?… 디얼아, 이 말을 누구한테두 하면 안돼.》

《내가 말하고싶으면 하는거지 뭐.》

샤오디얼은 우정 시뜻해서 대꾸하였다.

《뭘? 이건 정말 말하면 안돼.》

전시는 샤오린이 다가오는것을 감촉하고 급히 낮은 어조로 타일렀다.

《디얼아, 너 보육원에 가서 있어. 누구도 너를 어쩌지 못해. 나두 인차 거기에 가겠어. 그렇게 하지?》

《응, 알았어. 난 갈래.》

샤오디얼은 어느덧 누그러진 어조로 한마디 대답했다.

《디얼아,》 전시는 문득 코마루가 시큰해나서 젖은 목소리로 뇌였다. 《너 들으라. 내가 너의 어머니의 원쑤를 갚지 못하면 사람

이 아니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 동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샤오디얼은 전시의 눈시울이 번쩍이는것을 보고 그가 울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으로 그를 불러 위로의 말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가봐 그만 더 말하지 못하고 묵묵히 걸어갔다.

3

샤오디얼이 구나이린을 우연히 만났던 그 일로 해서 크지 않은 보육원은 삽시에 복잡해졌다. 그것은 샤오디얼이 보육원을 뛰쳐나간것을 보고도 미처 그를 따라가 데려오지 못한것때문이였다. 물론 그가 군관제위원회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을것이라고 짐작했기때문에 더 따라가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싱아바이는 류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샤오디얼을 보육원에 돌려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싱아바이는 샤오디얼을 마중하기 위해 군관제위원회쪽으로 떠났다.

싱아바이는 예순고개에 들어선 사람이지만 체구가 튼튼하고 걸음걸이도 여전히 활달하였다.

그는 원쑤들을 극도로 미워하는 반면에 자기 사람들은 무척 사랑하였다. 지금 싱아바이는 모든 마음을 다 바쳐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있었다. 그는 보육원의 애어린 묘목들이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으로 자라날것을 절절히 바라면서 혁명가의 가문을 더럽히는 못난이가 단 한명이라도 나오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았다.

싱아바이는 이미 착취사회에서 온갖 고초를 다 체험했고 또한 무산계급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손에 총을 잡고 피어린 항일투쟁에도 참가했었다. 그는 눈보라치는 깊은 산속에서 가죽을 끓여 먹으면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투사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는 몸에 여덟발이나 되는 총탄을 맞

고 쓰러지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라고 높이 웨치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한 대원에 대해서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또한 그는 항일련군 1군장이였던 양징위동지가 5일동안 단신으로 수천명의 적과 싸운데 대해서와 그가 희생된 후 왜놈들이 그가 무엇을 먹고 이렇듯 오래동안 견지했는가를 알기 위해 배를 해부한 결과 위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풀뿌리와 나무껍질, 솜뭉치를 발견하고 그 간악한 침략자들까지도 아연실색한데 대해서 잊지 못하고있었다. 싱아바이는 바로 이런 혁명전우들을 잊지 못하고있었기에 그 후대들을 그토록 사랑하는것이고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살아있는 우리 동지들이 후대를 키우는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혁명선렬들이 피와 목숨으로 쟁취한 오늘과 더 중요하게는 아름다운 미래를 잃게 될것이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리상사회건설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샤오디얼을 찾아 떠난 싱아바이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마주오는 그를 만나게 되였다. 그는 샤오디얼에게 다가가 덥석 그의 어깨를 잡고 뜨겁게 물었다.

《얘야, 넌 왜 이제야 오느냐?》

싱아바이를 만난 샤오디얼은 그가 자기들을 무척 사랑해준다고 말하던 샤오마오얼과 샤오핑구오가 생각나서 저도모르게 이 로대원이 류달리 인자한 할아버지로 느껴졌다. 그러나 싱아바이의 물음에 인차 대답하지 않고 줄곧 뒤만 돌아다보았다.

싱아바이는 샤오디얼의 눈길을 따라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샤오린과 전시를 보게 되였다.

전시는 웃음을 담고 물었다.

《싱아바이, 우릴 찾나요?》

《이 녀석들, 들말처럼 안가는데가 없구나. 하기야 너희들은 찾지 않아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난 샤오디얼을 찾으러 왔다.》

싱아바이는 샤오디얼과 전시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주며 정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녀석들, 괜찮아. 앞으로 큰일을 할수 있어. 큰일을 말이야.》

《우린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지들인데 뭘 그다지나 칭찬하

십니까?》
전시는 멋적은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였다.
《아니다. 누가 뭐라구 하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귀중히 여겨주면 돼. 지금은 너희들이 나라의 나어린 주인이거든.》
《나어린 주인? 히히…》
사내아이들은 방긋이 웃었다. 난생처음 듣는 말이였던것이다.
《웃긴, 정말이다. 너희들을 놀려주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앞으로 꼭 알게 될게다.》
사내아이들은 싱아바이의 엄숙한 표정과 무게있는 말마디에서 그 참뜻을 느끼는듯 했으나 아직은 그 뜻을 다는 리해하지 못했다.
이윽고 싱아바이가 샤오린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개 잡으러 갑니다. 평지붕집의 잡종개들말입니다.》
《그래? 자칫하면 늦을수 있겠다. 개 잡으러 동원된 사람들이 이미 거리에 떨쳐나선것 같더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빨리 가자.》
전시는 이렇게 말하고는 샤오린의 손을 잡고 달려갔다. 다른 꼬마형제들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싱아바이는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짓고 달려가는 샤오린과 전시네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인차 샤오디얼을 데리고 보육원으로 돌아갔다.
샤오린과 전시는 평지붕집으로부터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다가갔을 때 세마리의 잡종개들이 기다란 혀를 내민채 집앞의 나무에 매달려있는것을 보았다. 이것은 개잡이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미 왔다가 갔다는것을 의미했다.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은 손벽을 치며 좋아라 하였다.
《싸지, 싸. 이젠 염라대왕이나 가서 물래지.》
전시와 샤오망즈는 자기들이 직접 개들을 죽이지 못한것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몽땅 죽었으니 다소 직성이 풀리였다.
샤오린은 동무들을 이끌고 동쪽켠에 있는 낡은 건물에 이르렀다. 이 건물은 며칠전에 전시가 따라오는 샤오린을 따돌리려고 숨었던

그 낡은 건물이였다. 십자거리의 동북쪽모퉁이에 자리잡고있는 이 건물은 높은데서 내려다보면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이 환히 보였는데 앞마당과 뒤마당은 물론 드나드는 사람들도 자세히 볼수 있었다.

샤오린은 숨어있는 사람이 없는가 해서 먼저 건물의 안팎을 한번 살펴보고나서 건물우로 올라갔다. 그는 여기서 평지붕집을 살피고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뒤따르기로 결심하였다.

지금까지 내내 외지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제멋대로 살아온 철없는 꼬마형제들이 이번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똑바로 알도록 전시와 샤오망즈가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다시말하여 도중에 따라가다가 그만두던가 아니면 구경하는데 눈이 팔려 대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임무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감시는 시작되였다.

건물의 다락에 함께 오른 샤오린과 샤오류, 전시와 샤오망즈는 작은 창문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눈 한번 까딱하지 않고 평지붕집을 주시하면서 비적놈들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나절이나 기다려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에 뜨이는것은 나무에 매달려 흔들거리고있는 세마리의 잡종개뿐이였다.

전시는 이 세마리의 잡종개가 마치와 구나이린 그리고 녀특무로 바뀌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놈들을 나무에서 내리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놈들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게 하고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게 하고싶었다.

전시가 개들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샤오린이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

《보이니?》

《뭘?》

샤오린은 전시에게 아래턱으로 평지붕집 뒤마당을 가리켰다.

어랍쇼. 마침내 한놈이 전정가위를 들고 담벽에 바투 붙어 뒤담장 옆문쪽으로 다가가고있었다. 그는 잔솔과 화단들사이로 한바퀴 돌면서 화단을 정리하러 나온듯이 나무가지와 잎들을 둬번 자르기

도 하고 꽃들을 바로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그놈은 보육원 서쪽켠에 있는 숲속으로 걸어나갔다.

샤오망즈는 그것을 보고 다급히 물었다.

《따를가?》

샤오린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알겠어!》

샤오망즈는 어린 동생 2명을 데리고 건물밑으로 조용히 내려갔다.

얼마 안있어 그 화초공이 보육원담장을 따라오다가 이번에는 정문을 통하여 다시 평지붕집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몇분 지나서 또 한명의 화초공이 뒤마당 옆문으로 나와 먼저 나온 화초공과 거의 비슷하게 보육원을 에돌아 다시 평지붕집으로 들어갔다. 또 몇분 지나 세번째 화초공이…

전시가 의아한 어조로 샤오린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한바퀴 돌아오군 할가? 마치 그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샤오린도 영문을 알수 없어 덤덤해있다가 곧 등뒤에 있는 한 꼬마더러 빨리 샤오망즈가 있는데 가서 미행하지 말고 담장과 좀 떨어진 곳에 숨어있다가 화초공들이 밖으로 나갈 때 따르라고 알려주게 하였다. 인차 그 꼬마가 뛰여내려갔다.

샤오린은 적들이 사전에 매복과 감시가 없는지, 또한 평지붕집에 대해 주의를 돌리지 않는지 확인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였다.

이윽하여 세번째 화초공이 먼저번 녀석들처럼 꼭같은 로정을 거쳐 평지붕집으로 들어가자 전시는 마침내 그들의 진의도를 간파하고 샤오린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도주할 기회를 노리는것 같애.》

샤오린은 동감이라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계속 평지붕집의 뒤마당을 주시하였다.

창문가에 기대여 밖을 내다보며 전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있는듯 했다.

《정말 재미있는데. 좀 긴장해서 그렇지 광대놀음보다 더 재

미있는걸.… 응?…》

그는 갑자기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두눈을 크게 떴다. 평지붕집의 뒤마당으로 한사람이 두리번거리며 걸어나왔는데 그가 다름아닌 쥬타오룽이였던것이다. 전시는 자세히 살피려고 머리를 바싹 내밀었지만 창문의 가름대때문에 더 내밀수가 없었다. 그놈의 가름대를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리고싶었으나 어찌할수 없었다.

나쁜 놈, 네놈이 여기에 배겨있었구나! 전시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쥬타오룽에 대해서는 샤오린도 생소하지 않았다. 며칠동안 정찰하는 과정에 이놈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것을 몇번 본적이 있었기때문이다.

전시는 샤오린의 곁에 바투 다가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이 누군줄 알아? 저놈이 바로 우리의 원쑤 쥬타오룽이야.》

샤오린은 그저 머리만 끄덕일뿐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찰병이라면 중대한 단서를 발견했을 때일수록 더욱 랭정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있을수 있는 정황도 예견하고있어야 했다. 샤오린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정찰사업을 몇해동안 하는 과정에 특히 부대의 오랜 정찰병들에게서 이런 기초적인것을 이미 배웠었다. 이때 샤오린의 기쁨은 결코 전시의 기쁨보다 못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류처장으로부터 받은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는 이 평지붕집이 중요한 대상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샤오린은 위즈란원장이 매우 다급한 속에서도 과단성있게 평지붕집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깊이 느꼈다.

이윽하여 쥬타오룽의 뒤에 빼빼 마른 한사람이 따라나왔는데 그는 추석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거의다 가리울 정도로 밀짚모자를 코등까지 푹 내리썼다.

샤오린은 이 사람이 비적의 두번째 두목 구나이린이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류처장이 이미전에 빼빼 마른 원숭이상통인 구나이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그에게 보여준적이 있었던것이다. 구나이린의 뒤로 몇발자국을 사이에 두고 또 한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바로 샤오린과 샤오류 그리고 전시가 잘 알고있는 셋째였다.

이 세 비적들은 모두 보육원에서 내준 화초공들의 작업복을 입

었고 손에는 전정가위를 들고있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화초공으로 볼것이다. 그들은 앞뒤로 3～5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어가고있었는데 그것은 가운데있는 구나이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것 같았다.

《내가 저놈을 따르겠어.》

전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돼. 나와 샤오류가 가야 해. 너와 다른 아이들은 미행할수 없어. 그건 쥬탸오룽이 너희들을 알고있기때문이야. 우리가 간 다음 샤오망즈랑 오게 되면 여기서 계속 감시하라고 해. 그래서 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또한 손에 뭘 들었든 애들을 보내여 따르게 해야 해. 그다음 그들이 어느곳으로 갔는가를 똑바로 기억하고있으면 돼. 날이 어두워지면 후이빈각이 있는 음식점앞에서 모두 만나자. 알겠니?》

《알겠어!》

전시가 흔연히 대답했다.

이윽고 샤오린과 샤오류는 급하게 건물아래로 달려내려갔다.

제 12 장

1

샤오린이 짐작한대로 밀짚모자를 푹 내리쓰고 가운데서 걸어가는 놈이 바로 비적의 두번째 두목인 구나이린이였다.

길바닥에서 우연히 샤오디얼을 만나 살점까지 뜯기운 구나이린은 너무 혼쫄이 나서 바지가랭이에 오줌까지 쌌다. 다행히 화초공들이 제때에 나타나 빼돌려준덕에 간신히 풀려나와 평지붕집을 거쳐 군수품창고에 들어가있었다.

3시간쯤 지나서야 그는 어지간히 정신을 차리고 한숨을 돌리였다.

원래 이 비적모사놈은 군수품창고에서 하루정도 있다가 밖의 정세가 조용해진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녀특무 인평에게 알려져 그가 노발대발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는 구나이린의 경솔한 행동으로 해서 평지붕집에 있는 화초공들이 모두 폭로될 위험이 조성되고 나아가서 거사를 망쳐먹게 할수 있다고 쌍욕을 퍼부었다.

인평은 구나이린더러 빨리 평지붕집에서 나오라고 분부하였다. 이렇게 하는것이 비록 위험하지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첫째로 팔로군이 아직 주위를 덜 돌리고있으므로 그들이 대책을 세우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것이였다. 만일 이 기회를 놓쳤다가 팔로군이 평지붕집에 대한 감시를 조직하고 매복진을 치면 그속에서 더는 나올수 없다는것이였다.

둘째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빨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자는것이였다. 원래 계획한대로 군수물자를 계속 밖으로 빼내야 하겠는지 아니면 팔로군이 군수품창고를 드러내기 전에 폭파해치워야 하겠는지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여우도 찜쪄먹을 구나이린으로서 인평이의 의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바는 아니였다. 하지만 때가 이미 늦어 더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때문에 그냥 늦장을 부렸다. 팔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전에 감시대책을 세웠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만약 자기가 나가면 마치 신발바닥에 회가루를 바른것처럼 어디에 가도 발자국자리가 나게 될것이고 그러면 팔로군의 올가미가 언제 자기의 목을 조일지 모를뿐더러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걸려들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속생각을 감히 말할수 없었다. 마치와 같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인평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릴수 있었다.

사실 인평이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것은 아니였다. 그는 계략이 있는 구나이린과 같은 사람을 쉽게 저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구나이린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팔로군이 감시하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의심되는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를 변장시켜가지고 쥬탸오룽과 셋째의 호위속에 나오게 하였던것이다.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간이 콩알만 해서 걸어가던 구나이린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것 같아 감히 눈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냅다 뛸수도 없어서 이마와 등골에 땀을 질벅히 흘리며 걸어가고있었다.

한편 왕샤오린과 샤오류는 이미 정찰과정에 배운것처럼 침착하면서도 태연자약한 자세로 세 비적들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그들은 이따금 갈갬질도 하고 또한 점포에 들려 상품을 구경하는체도 하면서 놈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구나이린과 쥬탸오룽도 이 두 사내아이가 설마 팔로군정찰병이라고는 생각지 못할것이다.

샤오린은 구나이린을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샤오디얼이 옆에 있었더라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저놈을 그냥 두지 않을것이다. 샤오디얼은 적 한놈을 없애치우는것은 쉽지만 모든 반동계급과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는것이 쉽지 않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정황에 처해있지 않는가!

샤오린과 구나이린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발자국밖에 되지 않았다. 당장 단도를 뽑아던지면 구나이린뿐아니라 쥬탸오룽까지 단번에 요정낼수 있었다. 그렇지만 샤오린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혁명전사라고 하면 일시적인 흥분과 승리에 도취되여 모험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되며 길을 가다가 수모를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 위세를 부리는 놈을 죽여버리는 그런 의협심이 강한 사내대장부처럼 행동해서도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팔로군전사이다. 이런것을 샤오디얼은 물론 전시와 샤오망즈도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투쟁속에서 자기와 샤오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배워주어야 한다.

정양거리에 이르러 행인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샤오린의 미행은 더욱 불리해졌다. 쥬탸오룽은 사람들속을 헤집고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구나이린은 머리를 푹 숙인채 두눈을 디룩거리며 그를 따라갔다. 그뒤로는 좀 떨어져서 셋째가 어기적거리며 걸어갔다.

샤오린은 샤오류의 귀에 대고 귀속말로 일렀다.

《여, 저놈들을 놓치지 않게 잘 살피라.》

《맨뒤에 선 셋째만 놓치지 않으면 돼.…》

샤오류의 말은 샤오린으로 하여금 더욱 각성하게 하였다. 그것은 구나이린이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리용하여 무슨 수를 써서 셋째를 떼버리고 자기만 훌쩍 빠져 달아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그러면 개만 주의하고 승냥이는 소홀히 하는 격으로 된다. 그러니 그놈을 바투 따라가야 했다.

샤오린은 정신을 가다듬고 붐비는 사람들속을 뚫고나가기 시작했다.

추적대상을 시야에 두고 얼마간 속도를 높여 사람들을 헤치며 나가던 그는 어느 한 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목표가 사라졌던것이다. 가슴이 섬찍했다. 샤오린은 그자리에 서서 사방을 휘둘러보았으나 밀짚모자를 쓴 놈도 화초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차! 놓쳤구나!

샤오린은 손바닥에 땀이 배여나오는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으로 엉치를 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

내 왜 미처 놈들이 이런 수를 쓰리라는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가. 피로 얼룩진 이놈들을 눈을 펀히 뜨고 놓쳤으니 내가 무슨 팔로군 정찰병이란 말인가.

그의 머리속에서는 웅웅 소리만 날뿐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때 누가 그의 귀에 대고 《꼬마, 급할수록 침착해야 해.》하고 말해주는듯 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이 혹시 모자와 로동복을 벗어들고 어디에 서있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너울을 벗어던지고 몸을 살짝 뺀것이 아닌지 하고 가늠해보았다. 그는 앞으로

뛰여나가 한사람한사람 눈여겨 살펴보려고 결심했다.

그가 막 뛰여가려고 하는데 뜻밖에 셋째와 마주쳤다. 샤오린을 본 셋째도 저으기 놀란듯이 두눈을 크게 뜨고 《에, 에.》하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샤오린은 제꺽 손가락을 입에 갖다대면서 눈짓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다음 셋째의 옆으로 지나가는데 눈치를 못챈 셋째가 샤오린쪽으로 몸을 돌렸다.

샤오린은 하는수없이 그의 가까이에 가서 얼른 한마디 타일렀다.

《말하지 마시오. 그냥 앞으로 나가시오!》

그제서야 셋째가 샤오린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셋째의 동작이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했고 자주 눈을 옆으로 흘겨보았다. 셋째가 일정한 거리를 나간 다음 샤오린은 샤오류에게 조용히 말해주었다.

《여,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이 없어졌어.》

《뭘?!》 샤오류는 불에 덴 사람처럼 후닥닥 놀랐다. 그리고는 셋째를 가리키며 《물어봤어?》하고 다그쳐 물었다.

《안물어봤어. 만일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이 어디 숨어서 보고있다면 그가 폭로될게 아닌가. 넌 계속 그를 따르라. 난 앞에 가서 다시 찾아보겠어.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난 샤오린은 길옆으로 나는듯이 달려갔다.

방금전에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은 《뱀이 허물을 벗고 달아나다》라는 술책을 썼다. 그들은 사람들이 흥성거리는 후이빈각앞에 이르러 약속이나 한듯 둘 다 겉에 입은 화초공의 로동복을 훌렁 벗었다. 그리고 쥬탸오룽이 자기 몸으로 막아주는 기회에 구나이린은 밀짚모자를 얼른 벗어 쥬탸오룽에게 준 다음 후이빈각안으로 날래게 들어갔다. 이어 사람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릴겸 꼬리가 달리지 않았는가를 한참 살펴보고나서 복도를 지나 뒤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후이빈각으로 들어왔다.

이때 셋째는 자기 임무를 다했기때문에 되돌아가면 되였다. 원래 평지붕집에서 떠나기 앞서 쥬탸오룽이 셋째를 보고 정양거리에

가서는 자기절로 돌아가라고 이미 지시를 주었던것이다.
이 계략은 구나이린이 사전에 고안해낸것이다. 그는 팔로군이 십중팔구 자기를 감시할것이라고 타산하고 셋째를 맨뒤에 세워 방패로 삼았다. 혹시 팔로군의 감시에 걸린다 해도 군수품창고에 대해 잘 모르는 바보같은 셋째를 던져버리자는것이였다. 이런 술책으로 마침내 《허물을 벗은 뱀》은 미행을 따돌리고 꼬리를 사린것이다.
후이빈각의 주인 가오뚱뚱보는 구나이린이 허리를 구부리고 허둥지둥 달려들어오는것을 보자 그가 꼬리를 밟혀 도망쳐오고있다는것을 제꺽 눈치채고 접대부들에게 눈짓하여 안에 있는 특별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들만이 통하는 말로 접대부들에게 문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다급히 창문가로 다가간 구나이린은 창문구석에 몸을 가리우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리무던하고 고지식한 셋째가 되돌아서 덤덤히 걸어가고있는데 그뒤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흘러가고있었다. 미행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제서야 창문에서 물러난 구나이린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벽에다 두손바닥을 붙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느님맙시사. 절 살려주옵소서.》
얼마 안있어 가오뚱뚱보와 쥬탸오룽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태연한 기색에서 모든것이 무사하다는것을 읽을수 있었다.
구나이린은 손을 홱 들며 소리쳤다.
《야! 술을 가져와. 기분전환을 좀 해야겠다!》
쥬탸오룽을 향해 가오뚱뚱보가 눈을 흘깃하며 응대했다.
《아무렴 여부가 있소이까. 얘들아, 술 가져오너라.》
《알겠소이다.》
문밖에서 누가 대답했다.
한편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의 그림자도 찾지 못한데 화가 난 샤오린은 무작정 셋째를 후이빈각과 떨어져있는 한 과수밭에 데리고 가서 따져물었다. 그러자 셋째는 《에, 에》하며 갑자르다가 한참만에야 쥬탸오룽이 자기를 보고 정양거리의 후이빈각까지 따라가서는 되돌아가라고 지시한것밖에 다른것은 하나도 모른다고

하였다.
샤오린과 샤오류는 억이 막혀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손에 다 쥐였던 구나이린을 놓쳐버려 병기창고를 밝혀내지 못하게 되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다 나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샤오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머리가 돌지 않은탓이야.》
셋째는 샤오린과 샤오류가 주고받는 말에서 자기때문에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을 놓친줄로 생각하였다.
《에, 내가 잘못한것 같구만. 미처 구나이린이 가는 곳을 몰랐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제때에 알려주겠소.》
샤오린은 말없이 허구픈 웃음만 지었다.
셋째를 보낸 다음 샤오린과 샤오류는 천근마냥 무거운 두다리를 끌고 류처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군관제위원회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류처장앞에 서서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서있었다.
《아따, 구나이린을 놓쳐버린게지?》
류처장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십분 짐작되여 부드럽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샤오린은 벌어진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허허, 이보라구.》
류처장은 두 꼬마전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에서나 실패하면 후회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오. 그러면 비록 오늘은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을 놓쳤지만 래일은 꼭 걸려들게요. 내 보기엔 동무들이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소.》
샤오린과 샤오류는 뜻밖의 이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예? 무슨 성과말입니까?》
《전시와 샤오망즈네들은 큰일을 했소. 하긴 동무들은 알수가 없지.》

《무슨 큰일입니까?》

샤오린이 다급히 물었다. 이것은 그가 가장 걱정하며 알고싶어하던 문제였다.

《동무들이 구나이린을 미행하고있을 때 그 화초공들이 부산을 피우며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소. 어떤 사람은 메고 또 어떤 사람은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밀차를 밀고… 얼핏 볼 때는 마치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실지로는 병기물자를 날라갔단 말이요. 전시는 애들을 시켜 그들을 몰래 따라가보도록 했소. 그애들은 그 물자들을 갖다놓은 장소를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돌아왔소. 다만 샤오도우즈와 함께 간 애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시와 샤오망즈가 그들을 찾으러 갔소.》

《아주 잘했는걸.》 샤오린과 샤오류는 너무 좋아 서로 손벽을 마주쳤다. 《그럼 우리도 곧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가만.》 류처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머리를 이었다. 《원래 쥬타오룽이 전시와 샤오망즈네들을 리용하여 지금까지 병기물자들을 운반해왔는데 이제는 비밀이 새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없애치우려고 획책할수 있소. 때문에 동무들은 그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시시각각 주의를 돌려 그 어떤 일도 생기지 않게 해야겠소. 물론 우리도 사람들을 더 파견하여 남몰래 보호하도록 하겠소. 그리고 날이 차지기 시작했는데 그애들에게 덧옷을 보내주되 사람들의 눈에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옷을 보내주어야겠소. 밥먹는 문제는 동무들이 책임지고 활동조건에 따라 밖에서 사먹을수도 있고 또한 방송국경비중대에 가서 먹도록 하오. 저녁에는 경비중대에서 자도록 중대장에게 과업을 주었소. 군관제위원회의 주임동지는 이번 임무를 수행한 다음 그들에게 모두 공부를 시키라고 지시했소. 이런 아이들을 잘 키우면 앞으로 새 나라를 보위하고 건설하는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날거요.》

류처장의 다심하고 사려깊은 말은 전시처럼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 겪은 샤오린과 샤오류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당의 손길아래서, 혁명동지들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살며 싸운다는 높은 긍지와 행복감을 다시금 뿌듯이 느끼였다. 그래서 가슴속

깊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당이여! 그대는 진정 우리 가난뱅이아이들의 친어버이입니다.

2

샤오도우즈는 한 어린 동무와 함께 밀차를 밀고가는 화초공을 따라 서쪽으로 가고있었다.

성을 벗어나자 인가가 점점 보이지 않았다. 길량쪽에는 온통 비탈밭이고 나무들과 가시덤불이 드문드문 보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미행할 때에는 숨을수 있는 곳을 택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숨을 곳도 별로 없는 번번한 들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다.

밀차를 밀고가던 화초공이 좀 무서운감이 들었는지 이따금 뒤를 돌아보군 하였다. 아마 그는 뒤에 오는 아이들을 이미 보았을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라는데로부터 주의를 돌리지 않는것 같았다.

한참 따라가던 샤오도우즈는 이런 방법으로 가다가는 화초공이 이상하게 여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흔히 농촌아이들이 노는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마치 길바닥에서 무슨 유희같은것을 놀다가 내기에서 진 아이가 냅다 뛰면 이긴 아이가 《너 서지 못하겠니?》하고 따라가는척 하기도 하고 또한 길바닥의 돌을 주어 돌팔매놀이도 하였다. 그리고 이따금 누구도 알아들을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종달새소리를 입내피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장난질하면서 한동안 따라가던 그들이 어느 한 절간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화초공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 화초공이 무슨 낌새를 채고 자기들을 살피는것이 아닌가 해서 샤오도우즈는 얼른 풀숲에 몸을 피했다. 한참 기다려보았으나 아무러한 동정이 없자 샤오도우즈는 하는수없이 절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관위절간》이라고 하는 이 절간은 30년전에 건설되였다고 한다. 절간은 이미 낡고 볼품이 없었다. 높이 쌓은 벽돌담장은 누

가 뚫렸는지 큰 구멍이 하나 휑 하니 나있었는데 흡사 지나가는 행인들을 넋없이 바라보고있는듯싶었다. 정문의 오른쪽담장은 안으로 기울어지고 왼쪽담장은 밖으로 기울어지였는데 마치 이렇게 되여야 평행이 유지되는듯 했다. 담장안에 있는 몇그루의 나무에서는 이따금 바람결에 잎사귀들이 한들한들 땅바닥에 떨어졌다. 물고기등처럼 생긴 청색기와지붕우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담장앞으로 다가간 샤오도우즈는 안을 살펴보기 위해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러자 습한 곰팡내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다. 벽돌을 깐 뜰안에는 여러가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그 잡초속에서도 이름모를 꽃이 다문다문 피여있었다.

이 광경을 본 어린 동무는 샤오도우즈의 옷섶을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도우즈야, 무시무시하구나. 가자마.》

《얘, 무서워하지 말어.》

샤오도우즈는 조용히 타이르며 그의 손목을 잡고 뜰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조심히 옮기면서 좌우를 살피며 절간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득 머리우에서 《야웅》하는 소리가 났다. 흠칫 놀라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니 처마우에서 한마리의 들고양이가 마치 《너희들은 누구냐?》하는듯한 시선으로 샤오도우즈네들을 쏘아보다가 인차 가버렸다.

이어 샤오도우즈네들은 절간안으로 들어갔다. 기단우의 조각상은 누가 넘어뜨렸는지 땅우에 넘어져있고 옆에 선 칼을 찬 무사도 머리가 떨어져있었다. 그리고 땅바닥에는 온통 흙덩이와 벽돌쪼각, 기와부스레기와 판자쪼각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샤오도우즈가 여기저기 유심히 살피는데 문득 어린 동무가 그의 옷자락을 살그머니 잡아당기면서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얘, 저걸 봐. 밀차가 있다.》

그가 손으로 가리키는 창문밖을 내다보니 과연 담장밑에 세워놓은 한대의 밀차가 있었다. 음달진 곳인데다가 나무가지들에 가리워서 한쪽 면만 어렴풋이 보였다.

샤오도우즈는 창문에 다가가서 밀차를 다시 살펴보았다. 우에 실

었던 물자는 이미 없고 화초공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 물자를 벌써 치웠는가? 아니다, 더 정확히 보아야 한다. 전시형과 샤오망즈형이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바투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난데없이 웅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 도적놈들아! 오늘 또 뭘 채러 왔어?》

샤오도우즈와 어린 동무는 화닥닥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웬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등뒤에 서서 자기들을 노려보는것이였다. 자그마한 키에 류달리 큰 머리, 얼굴 한쪽에 붉은 자주색의 느슨한 살가죽이 마치 수닭볏을 통채로 붙여놓은듯 했고 반대쪽 볼은 분을 발라놓은듯 하얗게 보인다. 그리고 그의 퉁방울같은 눈에선 흉악한 빛이 새나왔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샤오도우즈네 앞으로 한치한치 다가왔다.

어린 동무는 너무 무서워 《어마나!》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르고는 샤오도우즈의 등뒤에 붙어서서 와들와들 떨었다.

샤오도우즈는 두팔로 어린 동무를 감싸고 뒤걸음치면서 용기를 내여 담차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예요? 뭘 보구 우릴 도적놈이라구 해요?》

《난 여기 절간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기 물건들은 다 너와 같은 아이새끼들이 와서 몽땅 채갔다.》

순간 샤오도우즈는 불현듯 이 관위절간에 아주 못생긴 절간지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났다. 모르는 사람이 이 절간지기를 처음 보면 까무라칠런지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들 했다. 말소리는 여느 사람과 같고 또한 마음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이 절간지기는 녀자들이 향불을 피우러 올 때는 그들이 놀랄가봐 조만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할수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나오는데 그것도 오래 머물지 않고 인차 자리를 피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나니 샤오도우즈는 자연히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두근거리던 가슴도 진정되였다. 그는 태연한 자세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절간지기앞으로 다가가 유순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저씨, 우린 여기에 산토끼가 들어와서 찾는중이예요. 우린 찾아보다가 없으면 인차 가겠어요. 아저씨, 마음놓으시라요.》

《응, 그래? 그럼 찾아보구 빨리 가거라. 난 또 뭘 채러 온줄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고 절간지기는 조용히 나가버렸다.

샤오도우즈는 부들부들 떠는 어린 동무를 끌고 절간주위를 한번 돌고나서 풀숲뒤에 가서 숨었다. 무슨 인기척이 났는데 혹시 화초공이 어디에서 나오는것이 아닌가 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아니나다를가 얼마 안있어 절간지기가 거처하고있는 딴채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있었는데 그가 바로 샤오도우즈가 미행하던 그 화초공이였다. 화초공은 밖에 나와 도적고양이모양으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는 이어 밀차를 밀고 절간에서 곧바로 대도로를 따라 성쪽으로 달려갔다.

샤오도우즈는 화초공이 간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밀차에 실었던 물자를 모두 절간안에 갖다두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제 13 장

흐렸던 하늘이 점차 맑게 개이기 시작하였다. 붉은 저녁노을빛이 비낀 속에 한무리의 소들이 진펄에서 나와 엉기적엉기적하며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있었다. 허리춤에 채찍을 찌르고 왼손에는 강에서 잡은 잉어와 갈밭에서 주은 들오리알을 담은 광주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길게 자란 뜸쑥을 든 소몰이아이는 맨뒤의 온순한 암소등에 앉아 《왕아가씨가 서방을 그리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가고있었다.

이따금씩 끊어졌다가 또 이어졌다 하며 울며 하소연하는듯한 그

노래가락이 황혼이 깃든 전야에 구슬프게 메아리쳐갔다.…
관위절간에서 나온 어린 동무는 아직도 절간에서 당한 그 무서운 광경이 떠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에, 그 사람이 어찌나 무섭던지 난 바지에다 오줌을 싸는줄 알았다. 정말 도깨비같아.》
그러자 샤오도우즈는 제법 어른스럽게 대꾸하였다.
《흥, 겁날것 없어. 도깨비면 도깨비, 귀신이면 귀신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샤오도우즈가 이렇게 큰소리를 치자 어린 동무는 입을 삐쭉 내밀며 《꽝포를 놓지 말어.》하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방금전에 샤오도우즈가 무섭게 생긴 그 절간지기와 담차게 말하는것을 보고 어린 동무는 어지간히 탄복했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꺽 말머리를 돌렸다.
《응, 그래. 넌 정말 담이 보통이 아니야.》
샤오도우즈는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을 난생처음 듣는다. 사실 여직까지 전시와 함께 있을 때 자기와 같은 존재는 눈에 별로 뜨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 동무와 같이 추적임무를 수행하게 되여 마치 《북데기속의 낟알》이 된 격이였다. 아닌게 아니라 처음 샤오도우즈도 담장구멍으로 뜰안에 들어갈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그렇다고 정찰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수야 없지 않은가. 하지만 막상 험상궂게 생긴 그 절간지기를 만나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때 자기보다 큰 사람이 있었으면 모름지기 자기도 이 어린 동무처럼 그의 등뒤에 가서 숨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었다. 자기보다 작은 어린 아이의 등뒤에 가서 숨을수야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샤오도우즈라는 아이는 도대체 뭘로 되겠는가. 그래서 샤오도우즈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고 어른처럼 용기를 내였던것이다. 그렇게 대담하게 생각하고 당돌하게 맞서보니 결국 일이 뜻대로 된것이 아닌가!
샤오도우즈는 두팔을 힘있게 저으며 틀지게 말했다.
《얘, 넌 내가 하는대로 하겠니?》

《음, 그렇게 할래.》
《그럼 날 따라배워. 앞으로 우리 둘이 또 나오자. 이젠 빨리 가야 해. 전시형이 우릴 기다리고있을거야. 뛰자!》
샤오도우즈는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동무와 함께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있어 성어구에 이른 샤오도우즈는 마침 사방 휘둘러보는 전시를 멀리에서 보게 되였다. 샤오도우즈는 불쑥 전시를 놀려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고 전시를 멀리 에돌아서 살금살금 다가갔다. 거의 전시의 등뒤에 다가간 샤오도우즈는 갑자기 큰소리로 웨쳤다.
《전시형!》
전시는 깜짝 놀라 돌아보더니 두손으로 샤오도우즈의 머리를 닁큼 잡고 마치 두 수닭이 머리를 맞대고 울듯이 소리쳤다.
《샤오도우즈야!》
《전시형!》
이렇게 부르며 찾는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한껏 넘쳐있었다.
이윽하여 전시는 한손으로 샤오도우즈를, 다른 한손으로 어린 동무를 잡고 성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배고프지? 모두 음식점에 가자고 너희들을 기다리고있어.》
샤오도우즈는 고개를 들어 전시를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정말?》
《정말 아니구.》 이렇게 정색해서 대답한 전시는 인차 말머리를 돌리였다. 《그래 너넨 화초공을 미행할 때 위험하지 않았니?》
《이번에 무서운 사람을 만났댔어.》
꼬마가 머루알같은 두눈을 또릿또릿 굴리며 화초공을 따라갔을 때 있은 일을 처음부터 한바탕 엮어댔다. 꼬마의 말속에는 샤오도우즈에 대한 자랑이 짙게 비껴있었다.
전시는 발뒤축을 들어 샤오도우즈의 엉치를 살짝 다치고나서 한마디 칭찬하였다.

《우리 도우즈가 괜찮아. 앞으로 훌륭한 정찰병이 될수 있어. 내 이제 샤오린형한테 잘 말해주마.》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어가던 그들은 어느덧 정양거리에 있는 한 악기상점앞에 이르렀다.

문득 샤오도우즈가 악기상점을 줄곧 바라보면서 마치 자석에 끌리듯 좀체로 발걸음을 뗄줄 몰랐다. 샤오도우즈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 어떤 사람은 호금을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월금을, 또 어떤 사람은 경쾌하고도 듣기도 좋은 패쑈(여러개의 피리를 음률에 따라 배렬한 옛 악기의 한가지)를 부는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하였다. 특히 이런 악기들중에서 샤오도우즈가 패쑈를 가장 좋아한다는것을 전시도 이미 알고있었다.

샤오도우즈는 지난날에도 이 악기상점앞을 지나갈 때면 늘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들여다보군 하였었다. 하지만 한갖 가난한 아이, 그것도 류랑걸식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산단 말인가?

지금 샤오도우즈는 두눈을 깜빡하지 않고 줄곧 패쑈를 부는 사람을 바라보고있었다. 이 패쑈로는 각종 경쾌하고 비통한 노래를 다 연주할수 있다.

마침내 샤오도우즈는 용기를 내여 검은테안경을 낀 악기상점 주인에게 물었다.

《이 패쑈가 얼마나요?》

상점주인은 눈을 한번 흘겨볼뿐 대답하지 않았다.

《좀 봐두 되나요?》

샤오도우즈는 손을 내밀어 패쑈를 쥐려고 하였다. 그러자 상점주인이 그 패쑈를 닁큼 집어들어 안쪽매대에 갖다놓았다. 결국 샤오도우즈는 무안만 당했다.

이것을 본 전시는 솟구치는 분기를 참을수가 없어 샤오도우즈의 손을 잡아챘다.

《도우즈야, 가자! 그따위것 봐선 뭘 해. 래일 이 상점에 불이 콱 붙지 않는가 보라.》

전시는 상점에서 나왔으나 어쩐지 샤오도우즈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도우즈야, 이제 형이 돈이 생기면 맨 먼저 패쑈를 사줄게. 응?》
샤오도우즈는 도리머리를 했다.
《사지 말자. 무슨 돈이 있어 그걸 사겠니. 난 거저 한번 만지고싶어서…》
전시는 샤오도우즈의 손을 더 꽉 틀어잡으며 서글픈 가슴을 애써 눅잦히였다. 그렇지 않아도 상점주인이 패쑈를 빼다싶이 옮겨놓을 때 주머니에서 그 은돈을 꺼낼가 말가 하였다.
《이 개눈아! 똑똑히 보라. 우리가 못살것 같아서 그래?》하고 큰소리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할수없이 참아야 했다. 그것은 저녁에 꼬마형제들과 함께 음식점에 가기로 약속했기때문이였다.
후이빈각의 음식점앞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있는 샤오망즈와 고우성얼 그리고 꼬마형제들은 전시가 샤오도우즈와 함께 한 꼬마를 데리고오는것을 보고 모두 달려가 반겨맞았다.
전시는 샤오린과 샤오류가 보이지 않자 샤오망즈에게 그들이 어디 갔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샤오망즈는 방금 고우성얼을 만났댔는데 그들이 샤오도우즈를 찾으러 간다고 했다는것이였다.
원래 전시는 샤오린과 샤오류와 헤여지기 전에 저녁에 후이빈각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더우기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에 대한 추적결과에 대해 몹시 알고싶었던 전시로서는 아직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 몹시 초조해지였다. 하지만 빨리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조르는 꼬마들도 있고 해서 전시는 먼저 들어가서 음식을 사놓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자, 형제들. 우리 들어가서 기다리자.》
전시는 손을 홱 저으며 먼저 후이빈각의 계단을 밟고 올라섰다.
《가자, 가자!》
《들어가자!》
얼굴에 때가 다닥다닥한 아이들이 꿰진 옷자락을 헤치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불빛이 환한 후이빈각의 유리문을 열고 오구구 밀

려들어갔다.

후이빈각 주인 가오뚱뚱보를 보고 사람들은 비게덩어리라고 부르군 하였다. 앞이마와 뒤골은 좁고 가운데만 큰 그의 머리는 마치 완구에서 나오는 인형의 머리와 흡사했다. 그의 배는 큰 가마를 붙여놓은것처럼 불룩이 나와 걸을 때는 늘 뚱기적뚱기적했다. 앙바톰한 목우에 올려놓은듯한 올호박같은 번대머리, 팔자형눈섭밑에 칼로 째놓은듯한 쪼프린 두눈에서 눈알이 디룩거렸다.

오늘따라 가오뚱뚱보가 매대앞에서 장부책을 뒤적거리며 무엇을 계산하고있는데 갑자기 한무리의 류랑걸식하는 아이들이 거침없이 후이빈각안으로 밀려들어오는것을 보았다. 그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가 해서 멍청하니 바라보다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 두팔을 벌리고 아이들을 막았다.

《아, 아, 여기로 거렁뱅이아이들이 뭘 하러 들어오는거야?》

그러다가 다시 목청을 돋구어 미친개 날뛰듯이 짖어댔다.

《야! 썩 나가지 못해! 눈이 멀었어? 여긴 후이빈각이야. 그래 여기가 아무나 막 다니는 장마당인줄 알아?》

두눈을 쪼프리며 거만스럽게 으시대는 가오뚱뚱보를 흘겨보던 전시는 이윽고 발을 탁 들면서 끌신을 공중으로 올려던졌다가 떨어지는것을 잡고는 가오뚱뚱보의 눈앞에 대고 뒤번 흔들고 퉁명스레 한마디 했다.

《목소리 낮추라요. 누가 뭐 귀머거린줄 알아요?》

《야!… 너?》

가오뚱뚱보는 난생처음 방랑아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 여긴 뭘 하는데요? 밥먹는데가 아니요? 밥먹는데라면 우린 잘못 오지 않았소!》

이렇게 말하고난 전시는 끌신을 땅바닥에 떨구어 그것을 다시 신고는 등뒤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손을 한번 저었다. 그리고 먼저 성큼성큼 걸어서 제일 큰 둥그런 식탁앞에 가앉자 다른 형제들도 우르르 모여와 걸상들에 제각기 가앉았다. 어떤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롱질로 쿡쿡 찌르며 들까불기

도 하였다.

전시는 두손으로 식탁을 짚고 큰소리로 웨쳤다.

《누가 없소? 음식을 가져오지 못할가!》

가오뚱뚱보는 약이 올라 얼굴빛이 가지색으로 변했고 크게 뜬 두 눈알은 흰자위만 번뜩거렸다. 온몸은 감전된 사람처럼 푸들푸들 떨었고 두볼은 볼꼴사납게 실룩실룩하였다. 진정 분통이 터질 노릇이였다. 한달전만 해도 거지아이들이 이렇게 놀아대는것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공산당의 팔로군이 가난한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기때문이다. 그러니 이 주변 80리에 소문났던 후이빈각도 이제 더는 뽐내지 못하게 되였고 게다가 여기가 마치의 련락지점이여서 잘못하다가는 시끄러운 일이 생겨 큰 화를 입을수도 있었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만 꾹 참을수밖에 없었다.

《자, 음식을 사먹으려면 돈을 먼저 내놔야지. 그렇지 않나?》 꽥꽥거리던 가오뚱뚱보가 돌변하여 저으기 겸손한 태도로 나왔다.

그러자 샤오도우즈가 비웃듯이 한마디 내뱉았다.

《흥! 일본놈들이 왔을 때도 돈을 먼저 내라구 했소?》

《그건 너네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거다. 그래 거저 먹고 가버리려고 하지?》

가오뚱뚱보가 얼굴이 벌개가지구 물었다.

《뭘? 거저 먹는다구?》 꼬마형제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우린 못믿구 일본사람들만을 믿는다 그거지요? 당신은 왜놈앞잡이가 아니야?》

《군소리말고 빨리 가져와!》

《우린 당당한 나으리다.… 나으리대접을 하라!》

그러자 또다시 화가 난 가오뚱뚱보는 우락부락하면서 뽈처럼 불룩한 배가 금시 터질듯 했다. 그는 빈대눈을 뒤번 굴리더니 갑자기 부르짖었다.

《왜들 그래?! 진짜로 묻는데 이렇게 할래기야?》

이때 전시가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은돈을 꺼내 가오뚱뚱보에게 보여주었다.

《자요. 봤지요? 짜장면을 먹겠는데 먹은 다음에 회계합시다.》

뜻밖에 전시가 내보이는 은돈을 보자 가오뚱뚱보는 놀라움과 의혹이 앞섰다. 이 거지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은돈을 얻었을가 하는것이다. 혹시 남의 주머니를 털어낸것이 아닌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뿐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을 잘못했다가 가뜩이나 무엇을 믿고 기세등등한 이 거지아이들이 또 소란을 피울가봐 걱정되였던것이다.

이때 한 접대부가 달려와 그에게 누가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가오뚱뚱보가 음식을 주겠다 안주겠다는 소리없이 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밥 한끼 먹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가 하며 짜증이 난 전시가 다시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떻게 된 일이요? 음식을 주겠소 안주겠소?》

《아니, 아니. 이제 주겠어.》

가오뚱뚱보가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이 바로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이 들어있는 방이였는데 그들은 술을 너무 많이 퍼먹은 뒤라 차를 마시면서 술을 깨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가오뚱뚱보가 전시와 말다툼하는것을 듣고 살그머니 문짬으로 내다보니 일이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얼른 접대부를 시켜 가오뚱뚱보를 불러오게 한것이였다.

헐떡거리며 문발을 제치고 들어선 가오뚱뚱보에게 쥬탸오룽이 그의 귀에 대고 몇마디 쑤군거렸다. 술에 취해 가까스로 눈을 뜬 구나이린이 가오뚱뚱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였다. 쥬탸오룽이 하라는대로 하라, 이건 내 의사이다라고 말하는것 같았다.

쥬탸오룽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어느정도 담이 커진 가오뚱뚱보는 다시 전시에게로 돌아왔다. 이어 그는 전시에게서 은돈을 받아쥐고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무게를 가늠해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튕겨보기도 하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네놈들이 담도 크다. 감히 가짜은돈을 가지고와서 란동을 부려?》

가오뚱뚱보의 역습에 전시는 그만 얼떨떨해졌다. 안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가오뚱뚱보가 갑자기 이런 수를 쓸줄은 전혀 생각하

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가오뚱뚱보에게서 은돈을 와락 빼앗아들고 따지고들었다.

《생트집을 걸지 말구 똑똑히 말하라요. 도대체 음식을 팔겠소 안팔겠소?》

《글쎄, 누가 안팔겠대? 너네 은돈이 가짜이기때문에 우선 정부에 가서 확인해봐야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가오뚱뚱보의 음성도 이전보다 더 높이 들리였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평소에 말을 잘하지 않던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이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비쳤다.

《누가 가짜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번거예요.》

《그래 누구의 일을 해줘서 번거야? 허튼수작이지? 어서 말해봐.》

가오뚱뚱보의 이 말에 그만 전시와 샤오망즈가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것은 누구의 일을 해줬다는 대답을 미처 찾지 못한데 있고 다른 하나는 쥬탸오룽의 비적들한테서 그 은돈을 받았다는 말을 차마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가오뚱뚱보의 수에 대해 알리 없는 전시는 《쥬탸오룽의 일을 해서 받은것이다. 시정부에 갈라면 갑시다!》하고 말하려고 하다가 문득 맞은켠에 앉아있는 샤오도우즈가 눈짓하는것을 보았다. 이어 가오뚱뚱보가 샤오망즈와 입씨름을 할 때 샤오도우즈가 전시의 옆으로 다가와 귀속말을 하였다.

《아까 가오뚱뚱보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안에 쥬탸오룽이 있는것을 봤어.》

샤오도우즈의 청천벽력같은 말에 전시는 깜짝 놀라 입을 허 벌리였다.

《야, 너 똑똑히 봤니?》

《똑똑히 봤어. 문을 열 때 내가 식탁우에 엎드려서 봤어.》

《음, 그랬댔구나!》

그제서야 모든것을 깨달은 전시는 불현듯 가슴속에서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솟구쳐올랐다. 한편 전시는 가오뚱뚱보가 뻣뻣하게 나오는것도 바로 그가 믿는데가 있어서 그런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전시의 머리속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쥬타오룽이 혼자만 여기에 있겠는가? 구나이린도 여기에 함께 있는것이 아닐가? 그런데 샤오린형과 샤오류형이 이들을 미행했는데 어떻게 되여 이놈들이 여기에 와있게 되였는가?

더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전시가 제꺽 샤오도우즈의 팔을 건드리며 조용히 귀띔했다.

《빨리 군관제위원회에 가서 알려라. 빨리!》

샤오도우즈는 인차 그 뜻을 알아차리고 《응, 알았어!》하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때 구석에서 몰래 전시네들을 감시하고있던 한 접대부가 샤오도우즈가 밖으로 나가는것을 보자 슬그머니 뒤따라나갔다.

전시는 다시 돌아서서 가오뚱뚱보앞으로 다가갔다.

《주인님, 정부를 찾아가자고 했지요? 갑시다. 안가는 사람은 개자식이요.》

옆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사람들이 전시를 말리였다.

《친구, 됐어, 됐어. 뭘 별걸 다 가지구 그러나. 정부는 무슨 정부. 좀 있다가 주인님도 성을 삭일텐데 너희들이 참아라.》

《아니요. 꼭 정부를 찾아가야겠어요. 그전에는 왜놈의 등에 업혀 제노라고 행세했지만 아직두 그 버릇대로 하고있단 말이예요.》

전시가 결단코 정부를 찾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는것을 보자 꼬마형제들도 와와 하면서 정부를 찾아가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전시를 위협해서 내쫓으려고 했던것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어놓았으니 가오뚱뚱보는 서리맞은 무우잎처럼 후줄근해지고말았다.

이것을 지켜보던 접대부들과 손님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와 싸움을 말리는척 하면서 전시와 꼬마형제들을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전시는 팔소매를 걷어올리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나가지 말라! 여기서 기다리자. 좀 있으면 팔로군이 온다!》

이때 전시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밖에서 《팔로군이요! 빨리 와서 비적놈들을 잡으라요!》하는 샤오도우즈의 고함소리가 들려

왔다. 뒤이어 땅 하는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였다. 고함소리에 이어 총소리까지 울리자 정양거리에서 오가던 사람들이 삽시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전시와 샤오망즈 등 꼬마형제들도 놀라서 모두 후이빈각안에서 밖으로 뛰여나왔다.

어떤 사람이 맞은켠쪽에 있는 골목에서 두리번거리는것으로 보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하였다.

전시네들은 무작정 그쪽으로 뛰여갔다. 가보니 여러개의 전지불빛이 비치는 땅바닥에 샤오도우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것이 보였다. 오른손에 총을 든 샤오린이 무릎을 꿇고 샤오도우즈를 안아일으키며 소리쳤다.

《도우즈야! 도우즈야!》

눈을 간신히 뜬 샤오도우즈가 샤오린을 알아보고 잦아드는듯한 목소리로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샤오린형, 빨리… 쥬탸오룽이 후이빈각에… 빨리…》

《도우즈야!》

샤오도우즈에게로 다가간 전시는 그의 오른쪽가슴에서 피가 흐르는것을 보고 그를 부둥켜안으며 소리쳤다.

《누가 쐈어? 어느놈이 너를 쐈어? 응, 어느놈이?》

《비적놈이…》

눈을 간신히 뜬 샤오도우즈가 무엇이라고 더 말하려고 하다가 문득 두팔을 맥없이 떨구더니 의식을 잃었다.

《도우즈야!… 도우즈야!…》

꼬마형제들은 모두 샤오도우즈를 에워싸고 그를 부르며 목놓아 울었다.

빨리 구급처치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샤오린은 제꺽 한 팔로군전사에게 병원에 데려가도록 부탁하고나서 이어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에게 함께 따라가라고 하였다.

이때 샤오류가 죽은 개를 끌고오듯이 하얀 옷을 입은 한 접대부를 끌고왔다. 샤오린이 다가가보니 접대부는 이미 죽었다.

《벌써 뒈졌어. 네가 쏜 총알이 그놈의 잔등을 뚫렀어.》

샤오류가 말하였다.

좀전에 후이빈각에 쥬타오룽이 있다는것을 알리려고 음식점에서 나온 샤오도우즈가 군관제위원회로 달려가고있는데 뒤따라나온 접대부가 그를 멈춰세웠다. 그리고는 비밀을 하나 알려줄것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와 구나이린이 있는 위치를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샤오도우즈는 그가 좋은 사람인줄로 알고 그놈들이 어디에 있는가고 묻자 그 접대부는 맞은켠 골목을 가리키며 거기에 가서 자세히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천진한 샤오도우즈는 그 접대부를 따라갔다. 골목에 이른 접대부는 갑자기 칼을 꺼내며 《내 이걸로 너에게 말해주지!》하고 샤오도우즈의 가슴을 내리찔렀다. 샤오도우즈는 그 접대부가 칼을 꺼낼 때에야 비로소 그가 비적이라는것을 깨닫고 그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보려고 있는 힘껏 발버둥을 치는 동시에 목청을 돋구어 소리쳤다.

《팔로군이요! 빨리 와서 비적놈들을 잡으라요!》

그러나 힘이 약하다나니 어쩔수없이 그 접대부의 칼에 오른쪽가슴을 찔리웠다. 이때 후이빈각으로 오던 샤오린과 샤오류는 접대부가 샤오도우즈를 데리고 골목쪽으로 가는것을 피끗 보게 되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샤오린과 샤오류는 그 골목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샤오도우즈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샤오린과 샤오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쪽으로 냅다 달려가보니 접대부가 칼을 들고 웬 아이를 재차 찌르려고 하였다. 그찰나 샤오린은 《꼼짝 말라! 칼을 던져!》하고 추상같이 소리쳤다.

샤오린의 웨침소리에 당황한 접대부는 얼른 샤오도우즈를 놓고 내빼기 시작하였다. 하는수없이 샤오린은 브라우닝권총을 꺼내 한방 갈긴것이 그만 그놈을 죽여버린것이다.

총에 맞아죽은 접대부가 샤오도우즈를 칼로 찔렀다는것을 알게 된 전시와 샤오망즈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결국 이 후이빈각이 비적들의 소굴이라는것을 깨닫게 된 전시는 꼬마형제들에게 웨쳤다.

《형제들, 후이빈각은 비적들의 소굴이다! 들이치자. 모두 앞으로!》

《후이빈각을 까부시자!》

꼬마형제들은 마치 기름에 불을 단것처럼 적개심에 불타올랐다. 이어 그들은 돌과 벽돌쪼각이며 삽과 곡괭이, 몽둥이까지 들고 후이빈각으로 밀려갔다. 샤오린은 그들을 제지시키려고 거듭 소리쳤으나 끝내 멈춰세우지 못했다.

전시는 몽둥이를 들고 맨 앞장에서 후이빈각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쥬햐오룽이 있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방안은 텅 비여있었다.

《쥬햐오룽이 도망쳤구나. 얘들아, 빨리 몽땅 뒤져라!》

전시가 소리치자 꼬마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특별석과 뒤골방, 매대와 탈의실, 지어 주방칸까지 방이란 방을 모조리 찾아보았으나 쥬햐오룽은 보이지 않았다.

그놈을 놓친것이 분하여 그들은 유리창을 까고 사발을 깨고 걸상을 들부셔놓았다. 이때 어디에 배겨있던 가오뚱뚱보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두손을 마구 휘저으며 앙칼진 소리로 짖어댔다.

《야! 고약한 놈들아. 이건 뭐야? 응, 이건 뭐야? 불한당같은 놈들!》

그는 한편 접대부들에게 거지들을 빨리 내쫓으라고 호통쳤다. 이것을 보고 눈에 불이 인 전시는 《개같은 놈. 네놈이 비적이였구나!》하고 소리치며 몽둥이를 들어 가오뚱뚱보의 번들번들한 이마빼기를 힘껏 내리쳤다. 가오뚱뚱보는 대번에 두눈의 흰자위가 희끗 뒤번져지면서 통나무가 넘어가듯이 쾅 하고 뒤로 나자빠졌다.

이것을 본 접대부들이 《야! 거지들이 주인님을 때려죽인다!》하고 소리치며 전시에게로 달려들었다. 전시는 슬쩍 몸을 피하고는 인차 몽둥이로 접대부들을 비롯한 후이빈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조겨대기 시작했다. 이때 한놈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나와 전시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 순간 그놈의 손목에 번쩍하고 그 무엇이 날아와 박혔다. 동시에 《앗!》하는 소리와 함께 식칼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전시는 샤오린형이 단도를 던진것이라고 제꺽 알았다.

《꼼짝 말라!》

벼락같은 고함소리가 앞뒤에서 들려오며 총을 든 팔로군전사들이 출입문과 창문으로 뛰여들어왔다.

류처장이 자빠져있는 후이빈각 주인 가오뚱뚱보에게로 다가가 발로 차보았다.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그다음 옆에 서있는 전시와 샤오망즈를 비롯한 꼬마형제들을 휘둘러보고나서 그는 팔로군전사들에게 명령하였다.

《주인을 비롯해서 후이빈각의 종업원들을 모두 데려가시오!》

제 14 장

1

후이빈각의 《못》을 뽑아버리기로 한것은 류쑹타오처장이 사태발전에 따라 취한 조치였다. 그것은 접대부의 죽음과 격노한 방랑아들이 후이빈각을 들부신 사건으로 하여 비적들의 이 비밀련락지점은 이미 로출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나이린과 쥬탸오룽은 잡지 못하였다. 놈들은 방랑아들이 후이빈각에 들어온 기회에 전시네 네 아이들을 처리해버리려고 하였으나 뜻밖에도 샤오도우즈의 눈에 띄우는 바람에 그리고 밖에서 《비적놈들을 잡으라!》는 고함소리와 총소리가 나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거기서 도망치고말았던것이다.

샤오도우즈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후 전시와 다른 꼬마형제들은 모두 비애에 잠겨있었다. 전시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져버리였고 재미있는 말도 더는 하지 않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수심이 비껴있었다.

류쑹타오는 위즈란원장과 함께 아이들에게 해설선전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왜 혁명을 해야 하

며 공산당은 무엇이고 혁명선렬들이 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는가 그리고 《형제들간의 의협심》과 프로레타리아계급의식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설득력있게 말해주었다.

그리고나서 류쑹타오와 위즈란은 아이들을 방송국경비중대에 보내여 식사를 시킨 후 모두 자게 하였다.

그러나 전시는 저녁밥을 전혀 먹지 않고 식당앞에 있는 돌걸상에 앉아 줄곧 하늘의 별무리만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두눈굽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있었는데 조금만 다쳐도 주르르 흘러내릴것만 같았다. 위즈란과 꼬마형제들이 전시를 여러번 설복했으나 그는 종시 말을 듣지 않았다. 전시의 눈앞에는 오직 샤오도우즈의 애티나고 천진한 모습만 보였고 그의 귀로는 샤오도우즈의 청아하고 정다운 목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지금 마음속으로 《도우즈야! 도우즈야!》하고 그를 부르고있었다. 그럴 때면 샤오도우즈가 《전시형! 전시형!》하고 자기를 찾는듯이 느껴졌다.

위즈란과 류쑹타오, 샤오린과 샤오류가 번갈아 전시를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는수없이 그들은 경비중대장 런다융만 남아서 전시와 함께 있게 하였다.

샤오린은 위즈란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였다.

하늘의 별들까지 검은구름에 가리워 주위는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다. 방송국과 보육원사이는 비록 300m거리밖에 안되지만 날이 어두운데다가 인적이 드물어 여간 무시무시하지 않았다.

보육원으로 가는 길가의 가로등은 누군가 전등을 끼워넣는족족 깨버리기때문에 불이 켜진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보육원의 정문우에 한개의 전등이 등대처럼 켜져있을뿐이다. 솔솔 불어오는 밤바람과 함께 보슬비가 내리고있었다.

위즈란은 친누나처럼 자기보다 약간 키 큰 샤오린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참,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오니?》

그는 이미전에 샤오린의 아버지가 중앙경위련대에서 책임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와요.》 샤오린의 목소리는 비록 낮으나 다소 흥분으로 젖어있었다. 《들은데 의하면 마오주석과 당중앙이 옌안에서 전국의 여러곳에서 진행되는 전투를 지휘하고있대요. 전국의 전장들에서는 매일 마오주석과 당중앙에 승리의 소식을 보고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절 보구 잘 싸워 반혁명세력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부시라고 하셨어요.》

옌안, 얼마나 정다운 곳인가?! 옌안이라는 말이 나올 때면 위즈란의 가슴속에서는 저도모르게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치면서 팽이와 물레며 보탑산과 옌안강, 좁쌀밥이며 굴안의 등잔불이며 사안베이(섬북)의 민요며 정풍운동 등이 눈앞에 어려오군 했다. 참으로 그때 거기에 있은 나날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행복과 고난을 다 겪어본 뜻깊은 나날이였다. 옌안을 생각할 때면 저도모르게 그의 가슴은 긍지로 부풀었고 온몸에는 새힘이 솟구쳤다.

(나는 옌안사람이다.)

옌안사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위즈란은 불쑥 샤오린의 손을 흔들며 기쁨에 넘쳐 뇌였다.

《샤오린도 옌안사람이지. 옌안의 사나이…》

샤오린은 고개를 돌리며 위즈란을 바라보았다. 비록 어둠속이여서 그의 얼굴표정을 똑똑히 볼수는 없었으나 무등 흥분된 그의 심정만은 력력히 읽을수 있었다.

샤오린은 느닷없이 위즈란에게 물었다.

《원장선생님, 나도 앞으로 원장선생님처럼 배우 아니면 작가가 될수 있을가요?》

《그럼, 될수 있구말구.》 위즈란은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공부를 꾸준히 하면 돼. 그러자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그리고 생활체험도 많이 하고 특히 로동자, 농민들에게서 배우면서 부단히 실천하면 자기의 리상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어.》

《헌데 난 학문기초가 너무 약해서 안될것 같애요.》

《아니야. 유명한 작가 고리끼도 공부를 못하지 않았니. 그는 소학교도 제대로 못다녔지만 세계적인 대문호로 됐거든. 혁명의 스승 레닌도 그를 찬양했단다.》

《그렇다면 나도 꽤 될수 있을가요?》

《물론, 될수 있잖구. 신심이 중요해.》

어느덧 그들은 보육원울타리에 난 옆문으로 들어섰다. 서늘한 바람소리와 설레이는 나무잎소리 그리고 점점이 떨어지는 비방울소리가 한데 섞여 더욱 스산하고 무시무시한감을 주었다. 특히 여기가 그전에 인적이 드물었던 일본놈들의 진쟈였고 비적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평지붕집이 가까운데다가 폭발장치가 설치된 병기창고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연히 경계심을 높이게 되였다.

갑자기 화단 남쪽에 있는 수풀속에서 난데없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샤오린은 저도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눈길로 위즈란을 마주보았다. 위즈란도 이상해하며 걸음을 멈추고 샤오린을 바라보았다. 이 깊은 밤중에 무슨 아이의 울음소리일가?

이어 두번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한명이 아니라 두명, 세명, 그이상의 울음소리가 함께 섞여 점차 높아지는데 마치 몇발자국 안되는 곳에서 울리는것 같았다.

위즈란은 처음 무슨 일인지 알수 없어 다소 겁이 났으나 요즈음 비적들이 어떻게 하나 이 보육원을 내쫓기 위해 몹시 발악한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놈들이 또 무슨 술책을 꾸미고있는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슬그머니 권총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정찰경험이 있는 샤오린이 령리하게 위즈란을 슬며시 다치고는 확신성있게 말했다.

《쟝동지, 들었습니까? 이건 승냥이의 울음소리입니다. 한마리가 아니라 여러마리나 되는것 같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브라우닝권총을 꺼내여 숲속을 향해 뒤방 갈기였다. 귀청을 째는듯한 총소리가 울리자 울음소리가 딱 멎는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가 한참 들리였다.

《하하하, 승냥이들이 모두 도망치는구나!》

보육원의 출입문앞에서 들려오는 싱아바이의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위즈란도 통쾌감을 느끼며 샤오린과 함께 보육원으로 들어섰다. 싱아바이는 그들이 들어서자 곧 문을 걸었다.

복도에 들어선 샤오린은 뜻밖에 창문마다에 2명의 팔로군전사들이 총을 들고 서있고 창턱에는 수류탄들이 주런이 놓여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어떻게 되여 팔로군전사들이 여기에 와서 경비근무를 서게 되였는지 샤오린은 영문을 알수 없어 의혹이 실린 시선으로 위즈란을 바라보았다. 위즈란은 그의 시선에는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의문부터 물었다.

《하나 묻자요. 샤오린동문 이자 왜 날 보구 쟝동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구 싱아바이처럼 왜 승냥이라고 했어요?》

샤오린은 방금전의 긴장한 분위기를 잊은듯 두눈을 쪼프리며 익살스럽게 대답하였다.

《원장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비적들을 속이느라고 그렇게 했지요!》

《능청스러운걸.》 위즈란은 샤오린을 흘겨보았다.

《이전에 싱아바이한테서 들었어요. 승냥이가 울 때는 스산할뿐아니라 아이우는 소리와 비슷해서 밤에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아이우는 소리가 나면 그건 곧 승냥이가 우는 소리라고 했어요.》

샤오린은 이렇게 말하면서 싱아바이를 힐긋힐긋 쳐다보군 했다.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한건데 샤오린은 잊지 않았군그래.》

싱아바이는 샤오린을 향해 미소를 짓고나서 다시 정색하여 위즈란에게 얼굴을 돌렸다.

《원장선생, 보아하니 비적놈들이 보육원에 대해 무던히도 못되게 구는군요. 요전에는 시체토막을 던져넣더니 오늘밤엔 또 승냥이울음소리를 내면서 비렬하게 놀아대누만.》

위즈란은 싱아바이의 말뜻을 알고도 남았다. 그것은 비적들이 기어코 보육원을 내쫓으려고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고있는것이다.

적들의 거동을 보면 놈들이 보육원에 팔로군전사들이 몰래 들어와있는것을 아직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보육원에 한개 분대인원을 은밀히 파견하여 경비를 서게 한것은 류쑹타오처장이 취한 조치였다. 방송국경비중대가 아침과 저녁

에 보육원의 앞마당에 와서 체조를 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저녁에는 분대인원들을 감쪽같이 보육원에 떨궈두고 아침에는 은밀히 빠져나오게 하였던것이다.

이때 웃층에서 문득 《원장선생님!》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빤쯔와 런닝그만 입은 한무리의 낮은반 아이들이 계단을 따라 우르르 쓸어내려왔다. 직일선생이 뒤따라 내려오면서 말렸으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원장선생님, 밖에서 무엇이 울고있습니다.》

《도깨비가 아니면 승냥이울음소리같애요.》

《막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위즈란과 싱아바이 그리고 샤오린은 당황하였다. 애들은 방금전에 밖에서 들려온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소동을 피우며 달려내려온것이다. 위즈란은 방금 이불속에서 나와 추워서 와들와들 떠는 아이들을 급히 품에 안고 달래기 시작하였다.

샤오핑구오는 싱아바이의 목을 꽉 그러안고 두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를 쳤다.

《난 무서워. 난 무서워!》

싱아바이는 샤오핑구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얼리였다.

《무서워말아. 귀여운 애야, 무서워말라는데. 그래 뭘 들었니?》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총소리도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깨났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겨끔내기로 한마디씩 했다.

《나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샤오마오얼을 안고있던 위즈란이 한마디 하였다.

《밖에서 울던 두마리의 승냥이를 싱할아버지가 쏴죽였어요. 들어보세요. 이젠 아무 소리도 안들리지요?》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니 과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한 아이가 복도에서 팔로군전사들을 보고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어마나! 팔로군아저씨들이 언제 왔나?》
《정말 팔로군아저씨들이 어떻게 여기 와있니?》
이 말에 다른 아이들의 눈길이 모두 창문쪽으로 옮겨갔다.
위즈란은 비밀이 새여나갈가봐 얼른 아이들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팔로군아저씨들은 지나가던 길에 좀 휴식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좀 있다가 곧 갑니다. 그러니 누가 물어봐도 말하면 안됩니다. 알겠지요?》
《왜 말하면 안됩니까?》
평시에 말하기 제일 싫어했던 몸이 약한 처녀애가 물었다.
그 물음에 대답하자면 시간이 걸리고 난처하기도 하였다. 만약 비적들때문이라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비적이란 무엇이고 왜 잡지 않는가고 물을것이다. 그럼 몰래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몰래 잡는다는것은 또 무슨 뜻인가고 물을것이다. 말해주어야 끝이 없고 오히려 비밀이나 더 새여나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업도 그르치게 할수 있었다. 위즈란은 그 처녀애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싱아바이와 샤오린만 바라보았다.
그 몸이 약한 처녀애가 다시 입을 열었다.
《원장선생님, 우리 보육원에 도깨비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누가 그래요?》
위즈란은 이 물음에 그 어떤 뜻이 담겨져있다고 느꼈다.
《마당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음— 이모, 이모같습니다.》
《이모? 어떤 이모?》
《잘 생각 안납니다. 그리구 오늘아침에 우리 보육원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의 머리가?》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두눈이 휑 해서 서로 마주보며 웅성웅성했다.
《아까 그게 도깨비가 우는 소리가 아니야?》
《우린 도깨비가 무서워.》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나? 사람도 잡아먹나?》

《도깨비는 얼굴이 하얗구 혀가 길구 빨간 코에 파란 눈… 날이 어두우면 유리창문에 붙어서 어느 아이를 잡아먹을것인가 하고 들여다본대.》

《허튼수작 그만해라!》 싱아바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그애의 말을 중지시켰다. 《그건 나쁜 놈들이 너희들을 놀래우느라고 꾸며낸거야. 내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아직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이 없다. 만약 도깨비가 있으면 왜 안오겠니? 그리구 총 한방에 왜 달아나겠니? 이건 다 비적놈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야. 앞으로 누가 또 이런 말을 할 때는 원장선생님한테 알려라. 알겠니?》

《알겠어요.》

처녀애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즈란의 마음은 무거웠다. 위즈란은 아이들이 추워하기때문에 서둘러 방안에 들여보내여 자게 하였다.

아이들이 방안으로 다 들어가자 위즈란은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미전에 생각해본것이지만 낮은반의 아이들만이라도 먼저 딴곳으로 옮기면 어떨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교육에도 다 좋을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류쑹타오처장의 결론을 받아야 한다.

위즈란은 또한 어린 처녀애의 말을 통하여 비적들의 검은 마수가 보육원밖에서뿐아니라 내부에까지도 뻗치고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2

전시는 두손으로 뒤머리를 받치고 누워 줄곧 창밖을 내다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문이 희붐히 밝아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났다. 옆에서 자고있던 샤오류는 전시가 일찌기 일어나는 바람에 깨여나 잠에 취한 어조로 물었다.

《전시, 왜 벌써 일어나니?》

전시는 얼결에 변소에 간다고 대답하고나서 밖으로 나갔다.

사위는 쥐죽은듯이 고요했다. 자욱히 서려있는 눅눅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주위의 물체들이 륜곽을 어렴풋이 드러내놓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의 단조로운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었다. 정문과 담장결에는 팔로군의 보초소와 류동초소가 있었다.

마당의 정문으로 태연하게 나온 전시는 왼쪽으로 돌아 곧바로 성남쪽에 있는 페허지로 걸어갔다. 길에는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없었고 주위는 여전히 조용했다. 호수가에서 솔솔 불어오는 상쾌하고 눅눅한 바람이 전시의 머리카락과 퇴색된 군복자락을 가볍게 흩날려주었다.

《지하궁전》가까이에 이른 전시는 걸음을 멈추고 입구에 덮어놓은 벽체쪼각이 그자리에 그냥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달라진것이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든것이 그대로였다. 마음이 놓였는지 전시는 앞으로 걸어서 어제아침에 샤오도우즈와 같이 앉았던 그자리에 이르렀다.

불현듯 그의 두눈이 밝아졌다. 따완화들이 모두 활짝 피여난것이다. 여직껏 전시는 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었다. 그러던것이 샤오도우즈가 말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이 꽃에 대해 류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였다. 그 꽃을 보니 마치 샤오도우즈를 보는것 같았고 고생스럽던 지난 일이 되새겨지기도 하였다.

전시는 샤오도우즈처럼 허리를 굽히고 매 꽃송이들을 차례차례 매만져보기도 하고 또한 코에 대고 향기를 맡아보기도 했다. 그윽한 꽃향기가 한껏 풍기였다. 전시는 이 꽃을 샤오도우즈에게 보여주고싶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꽃잎을 잡는 순간 언뜩 샤오도우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전시형, 다치지 말어. 얼마나 애처롭니?》

그렇다, 다치면 안되지. 그럼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던 전시는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았다. 마침 멀지 않은 곳

에 빈깡통이 하나 있는것을 보았다.

전시는 얼른 그 깡통을 가지고 와서 벽돌부스레기를 헤치고 두 손으로 따완화를 뿌리채로 떠서는 깡통속에 조심히 옮겨심었다. 그리고 축축한 흙을 파서 꽃뿌리우에 덮어주었다.

됐구나. 이렇게 하면 샤오도우즈에게 가져다줄수 있게 됐어. 더구나 따완화에 여러개의 꽃망울이 달려있으니 물만 주면 오래동안 꽃이 피여날거야.

전시는 기쁨에 넘쳐 따완화를 안고 병원쪽으로 걸어갔다.

얼마쯤 걸어가던 그는 불현듯 샤오도우즈가 패쑈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패쑈에 대해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쓰려났다. 만약 어제저녁에 꼬마형제들을 데리고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고 그 은돈으로 샤오도우즈에게 패쑈를 사주었더라면 그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전시는 이번에 샤오도우즈에게 꼭 패쑈를 사다주리라 결심하였다.

전시는 곧바로 정양거리에 있는 악기상점으로 향했다. 악기상점에 이르니 아직 문은 닫겨있었다. 그제서야 너무 일찌기 왔다는것을 깨달은 전시는 할수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한참 기다렸어도 문이 열리지 않자 전시는 참지 못하고 상점문짝을 두드렸다. 얼마후에 문짝에 난 자그마한 구멍이 열리더니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검은테안경을 낀것을 보니 악기상점의 주인같았다.

《야! 이건 뭐야? 신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단이야.》

《패쑈를 사려고 왔수다.》

전시의 대답에 상점주인은 그의 아래우를 한번 훑어보았다. 어디서 보았는지 낯이 좀 익어보이는 모양이였다. 그러다가 인차 자기 생각을 털어버리며 다른 태도로 나왔다.

《그게 정말이야? 헌데 왜 아침 일찌기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우선 돈이 있나 보자.》

전시는 거슬리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주머니에서 은돈을 꺼내보였다.

상점주인은 그 은돈을 보자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 가난뱅이아이가 어떻게 이런 은돈을 가지고있을가? 혹시 어디에서 훔친것을 빨리 써버리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주인은 다시 전시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그가 바로 이 거리 방랑아들의 두목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니 이 은돈은 분명 훔친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아침 일찌기 와서 패쑈를 사겠다고 하겠는가? 시간을 끌면 돈임자가 찾아올수 있지 않겠는가?

전시는 상점주인이 선뜻 패쑈를 팔아주려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것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쏘았다.

《도대체 패쑈를 팔겠어 안팔겠어?》

《음, 이보라구. 한가지 물어보자구.》 상점주인이 다소 머뭇거리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물었다. 《너 이 은돈은… 음, 훔친거지? 응?》

《뭐요?!》

전시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져놓기라도 한듯 온몸을 떨었다. 순간 어제저녁에 후이빈각 주인 가오뚱뚱보가 하던 말과 어제저녁에 샤오도우즈가 패쑈를 보려고 하자 그것을 훌 뺏아가던 악기상점 주인의 박정한 몰골이 일시에 떠올랐다. 우리같은 가난뱅이아이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관념이 어쩌면 이리도 꼭 같을가? 이놈도 다 같은 배속이고 같은 족속이구나.

전시는 끓어오르는 분기를 억제할수 없어 이놈의 상점도 후이빈각처럼 들부셔버릴 생각이 불쑥 치솟았다. 그러다가 어제 류처장과 위즈란원장이 원쑤와 싸우려면 개인복수식으로나 감정나는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 말이 떠올라 가까스로 마음을 누잦혔다.

《야, 이 자라새끼야. 그래 패쑈를 팔겠어 안팔겠어? 안팔겠다면 아예 이 악기상점을 후이빈각보다 더 처참하게 들부시구말겠다!》

후이빈각이라는 말이 나오자 악기상점 주인은 흠칫하고 놀랐다. 어제저녁에 정양거리의 장사치들을 통하여 《로대성》이라는 사내아이가 거지아이들을 데리고 후이빈각을 들부셨다는 말을 들었

던것이다. 그런데 머리우에 붕대를 감은 그 사내아이가 또 여기에 와서 자기 상점을 들부시겠다고 하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였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 임자는 뉘신지?》

《난 로대성이라구 한다. 천신왕이 바로 나다. 어서 패쑈를 가져오지 못해? 두말하면 재미없어.》

《예, 예. 알겠수다. 조금만, 조금만… 인차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상점주인은 제꺽 출입문을 열어제끼고 전시를 안으로 청하였다. 그리고 재빨리 매대에 가서 제일 좋은것을 골라 두손으로 받쳐 전시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띄우고 굽신거렸다.

《나리, 용서해주시우. 소인이 눈뜬 소경이여서 아까 모르구 노엽혔으니 죽을 죄를 졌소이다. 거저 앞으로도 우리 상점만 무사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응, 알겠다.》

전시는 상점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패쑈를 쥐자마자 주인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휭 하니 상점에서 나왔다.

한손으로는 따완화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패쑈를 든 전시는 어느정도 마음이 가벼워지였다. 그것은 샤오도우즈가 좋아하는것을 다 가지고가기때문이였다.

전시는 종종걸음으로 정양거리의 남쪽끝에 자리잡고있는 팔로군병원에 이르렀다. 그가 정문보초병에게 자기가 온 용무에 대해 말하고있는데 어데서 봤는지 샤오망즈가 두팔을 벌리고 정문밖으로 뛰여나왔다. 그다음 전시를 부둥켜잡고 부르짖었다.

《전시, 우리 도우즈… 우리 도우즈가…》

《샤오도우즈가 어떻게 됐어? 응? 빨리 말해!》

전시는 부지중 가슴이 철렁하는것을 느끼며 다그쳐 물었다.

《그애가… 방금… 눈을 감았어!》

샤오망즈는 전시의 가슴을 치며 목놓아울기 시작했다.

전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못박힌듯 멍하니 서있었다. 점차 그의 팔이 맥을 잃고 내리처지더니 안고있던 따완화와 패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때 군관제위원회의 주임을 비롯해서 류쑹타오와 위즈란 그리고 싱아바이, 왕샤오린, 샤오류 등이 달려나왔다.

어제저녁 샤오도우즈는 줄곧 혼수상태에 빠져 좀처럼 깨여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고열이 나는 속에서 계속 헛소리를 치군 했다.

《전시형, 전시형… 빨리 비적을 잡으라. 빨리… 우린 지금껏 처음으로 음식점에 가보누나. 정말 희한해.… 전시형은 그 따완화를 좋아하나? 어머니가 말하는데 이 꽃이 제일 좋대. 제일…》

침대옆에 앉아 샤오도우즈가 헛소리치는것을 바라보는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하였다. 고우성얼은 샤오도우즈가 모대기는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까지 나왔다.

샤오망즈는 다짜고짜로 의사선생앞에 무릎을 풀썩 꿇고 애원했다.

《마음 좋은 선생님, 부탁합니다. 제발 불쌍한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예? 꼭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을 살려준다면 선생님이 요구하는것을 뭐나 다 하겠습니다.…》

이런 정상을 보고 의사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샤오망즈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에게 위안의 말도 제대로 못한채 눈물만 흘리였다.

사실 샤오도우즈를 구원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 의료수단들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워낙 상처가 너무 심하다나니 종시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것이다.

날이 샐무렵에야 샤오도우즈가 잠간 의식을 차렸는데 의아한 눈길로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갑자기 소리쳐불렀다.

《전시형!》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이 동시에 샤오도우즈앞으로 다가갔다.

《도우즈야! 너… 정신차렸구나. 좀 어떻니? 전시형은 좀 있다가 온다.》

샤오도우즈가 손을 들려고 하자 샤오망즈가 제꺽 그의 손을 잡

고 움직이지 말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어 샤오도우즈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망즈형, 우린 지금 어디 와있나?》

샤오망즈가 나직이 대답했다.

《여긴 병원이야.》

《내가 어떻게 됐나?》

고우성얼이 얼른 대답했다.

《넌 부상당했어.》

《비적놈들을 잡았나?》

샤오망즈가 말해주었다.

《응. 너를 칼로 찌른 놈은 샤오린형한테 맞아죽었어. 그리구 후이빈각은 비적놈들의 소굴이였어. 그래서 모두 잡아갔단다.》

《정말?…》

샤오도우즈의 얼굴에는 다소 기쁨의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러던 샤오도우즈가 문득 머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안깐힘을 쓰다가 《아－》하는 소리를 내고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의사들이 급히 모여왔다. 방금전까지 방안에 서려있던 기쁨의 분위기가 삽시에 사라져버렸다.

한동안 지나서 샤오도우즈가 또다시 헛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전시형… 손을 놓지 말어.… 우린 살아도 같이 살구 죽어도 같이 죽고…》

여기까지 말하던 샤오도우즈가 머리를 둬번 흔들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들이 다시 구급대책을 취했으나 더는 소용이 없었다.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이 와락 샤오도우즈의 팔을 잡고 미친듯이 소리쳐불렀다.

《도우즈야! 도우즈야! 가지 말아! 네가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니?!》

샤오도우즈의 심장은 끝내 고동을 멈췄다. 조국에 바야흐로 려명이 다가오고있던 시각에 그는 자기의 애어린 생명을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위해 바쳤다.

제 15 장

1

성 남쪽교외에 있는 페허지는 더욱 거칠고 쓸쓸해보였다. 한마리의 이름모를 새가 껍질이 벗겨진 나무꼭대기에서 처량하게 울고있었다. 련이어 불어오는 가을바람으로 하여 샤오도우즈가 그처럼 꺾기 아까와하던 한떨기의 따완화가 끝없이 흔들리며 마치도 슬피 우는듯 하였다. 하늘에는 여느때없이 검은구름이 손에 잡힐 정도로 낮게 드리워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전야에 중국 북부에 자리잡고있는 쑹쟝시의 남쪽교외 페허지에서는 혁명투쟁에 오래 참가한 로혁명가들과 전시를 비롯한 꼬마형제들이 모여 샤오도우즈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팔로군전사들과 함께 전시를 비롯한 꼬마형제들이 손수 파놓은 무덤앞에 쑹쟝시군관제위원회에서 정성껏 짜서 보낸 붉은 관이 놓여있었다.

류쑹타오와 싱아바이, 위즈란과 함께 런다융중대장, 왕샤오린과 샤오류를 비롯한 팔로군전사들 그리고 전시와 샤오망즈, 고우성얼등 꼬마형제들이 정중하게 서있었다.

전시는 샤오도우즈가 누워있는 관을 부여잡고 목메여 말하였다.

《사랑하는 동생 도우즈야, 이 형이 지금 너하구 말하고있다. 너 듣고있니? 너 나보구 이렇게 말했지. 앞으로 마치와 구나이린, 쥬탸오룽을 다 죽인 다음 우리 형제들이 여기 와서 벽돌과 기와부스레기를 말끔히 밀어내고 벽돌로 멋있고 웅장한 아동궁전을 건설하자고 말이야. 그리구 그 주위에 아동공원을 꾸리고 화단에는 따완화를 심어놓자고 했지. 넌 정문앞에 서서 모든 가난한 형제들을 향

해 손저어부르며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었지. 〈동무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우리의 가난뱅이아이들의 궁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난뱅이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이곳을 와서 보십시오. 하지만 따완화는 꺾지 마십시오. 그 꽃은 가장 좋은 꽃입니다.〉 … 전시형은 너의 말을 잊지 않을것이다. 아니, 너의 형제들이 모두 기억할것이다!…》

샤오망즈, 고우성얼 등 모든 꼬마형제들이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시는 울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원쑤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고있었다. 샤오도우즈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원쑤놈들과는 오직 무자비하게 싸워야 하며 싸워서 이기자면 자기네 결의형제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오직 공산당과 팔로군과 같은 조직에 의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했다. 다른 꼬마형제들도 샤오도우즈의 죽음앞에서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였다.

비록 추모하는 애어린 렬사는 성도 이름도 없는 방랑아이지만 그의 위훈은 수많은 혁명선렬과 더불어 영원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며 그들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억세게 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2

아침에 위즈란은 싱아바이와 함께 샤오도우즈의 장례식에 참가하러 가면서 그동안 보육원에 떨어져있는 교원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모든 교구비품들을 꺼내여 싸놓게 하고 이 건물에서 떠나갈수 있게 준비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샤오디얼은 늦잠자는 습관이 없었다. 그는 기상종이 울리자 맨먼저 방안에서 나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얼굴을 대강 씻고는 지하실창고에서 비자루를 가져다가 바닥을 쓸려고 하였다. 그

가 낮은반 아이들의 방문앞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찾는 소리를 들었다.
《누나!》
샤오디얼이 걸음을 멈추고 방안을 들여다보니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 등 아이들이 문가에 서있었다. 모두 눈확이 푹 꺼지고 잠을 못잔듯한 인상이였다.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이니? 너희들은 잠을 못잔 모양이구나.》
샤오핑구오는 그렇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왜 못잤니?》
《누난 못들었나? 어제밤에 승냥이가 우는 소리를?》
《승냥이가 아니라 도깨비 우는 소리야.》
샤오마오얼이 한마디 덧붙였다.
《허튼소리. 무슨 승냥이니 도깨비이니 그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총까지 다 쐈는데 뭐. 누난 어제밤에 탕탕 하는 총소리를 못들었나? 정말?》
아이들은 샤오디얼이 아무것도 모르는것을 보고 마치 중대한 소식이나 알려주듯 저마끔 앞을 다투어 말하였다.
샤오디얼은 평지붕집의 화초공들이 비적두목 구나이린을 빼돌리는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때문에 승냥이가 울었다거니 도깨비가 울었다거니 하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자연히 그 화초공들과 련관시켜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의 손을 잡고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따위 말을 듣지 말어. 승냥이요 도깨비요 하는것은 다 나쁜 놈들이 가장하고 너희들을 놀래우자는거야. 나보렴, 어디 무서워하니?》
《누난 뭘 보구 나쁜 놈들이 한짓이라고 하나?》
《그건 이 누나가 어제 밖에서 나쁜 놈을 봤기때문이야.》
그제서야 아이들은 어느정도 알아차린듯 두눈을 깜빡거렸다. 그들은 어제 방송국경비중대에서 오다가 샤오디얼이 한 말라꽹이놈과 싸우는것을 보았던것이다. 그리고 그 말라꽹이놈이 바로

팔로군이 잡으려다 놓친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들었기때문이였다.
이윽고 샤오디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난 내려가서 비자루를 가져다 바닥을 쓸어야겠다.》고 말하고는 종종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샤오디얼은 곧바로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에 내려와 문을 열려고 하였다. 그런데 문을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안으로 걸어놓은것 같았다.
그러면 창고안에 사람이 있다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문짝을 두드려보았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안에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왜 문을 열지 않을가? 좀 있으면 누가 나오겠지 하고 그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참 기다리고있는데 드디여 문이 열리면서 그안에서 침울한 얼굴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로파가 나왔다. 손과 팔소매에는 하얀 가루가 가득히 묻어있었다. 샤오디얼을 본 그는 처음에 약간 당황해하더니 인차 귀찮아하는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바빠. 그런데 문을 왜 두드리면서 그래?》
《비자루를 쓰려구.》
로파는 약간 눈을 껌뻑거리고는 샤오디얼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비자루를 누가 가져오라구 해?》
《내가요.》
《네가?》
《예, 내가 쓰려고요.》
로파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눈알을 뒤번 굴리고나서 손을 홱 저었다.
《돌아가. 있다가 내가 쓸겠으니까.》
샤오디얼은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 로파가 무엇때문에 자기에 대해 그토록 귀찮아하는지 또한 무엇이 그로 하여금 노여움을 사게 했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이런 의혹을 안고 돌아서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로파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체네, 하나 물어보자. 비적 구나이린을 잡았다가 놓친 애가 바로 너냐?》

《건 왜 물어보나요?》

《아니, 거저. 장하구나 체네, 정말 장해!》

로파는 칭찬해주는듯한 어조로 말하며 계단우와 복도쪽을 한번 살펴보고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창고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체네. 들어가서 비자루를 가져가라구. 쓴 다음에 나한테 가져와야 해.》

《예, 알겠어요.》

샤오디얼은 아무 생각없이 창고에 들어갔다. 그가 비자루를 쥐려고 하는데 문득 뒤에서 쿵 하고 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무심중 뒤를 돌아보니 그 로파가 돌연 흉물스러운 표정으로 하얀 벽쪽에 손을 가져다대고는 매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왜 이래요? 거긴 누구예요?》

샤오디얼은 문득 이 로파가 좋은 마음을 가진 녀자가 아니라는것을 감촉하고 노기띤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꽉 막힌 독안에서처럼 이상하게 울렸다.

로파는 샤오디얼의 목소리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을뿐아니라 삽시에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종전까지 늙은 로파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지금은 간교한 녀자로 보였다.

《체네, 내 너에게 똑똑히 말해주지. 내가 바루 너희들이 잡겠다는 그 국민당의 녀특무 인평이다. 어때? 빨리 소리쳐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지? 흥!》

샤오디얼은 이미전에 마치의 비적무리속에 비적집단을 조종하는 국민당의 녀특무가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지만 설마 보육원에서 청소하는 이 로파일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순간 샤오디얼의 가슴속에는 증오심과 복수심이 울컥 치밀어올라 팔을 들어 이 요괴년을 잡으려고 덮쳐들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발밑이 쩍 벌어지면서 몸이 통채로 알수 없는 그 어떤 미궁속에 굴러떨어졌다. 인평년이 벽에 있

는 자동문의 스위치를 눌렀던것이다. 사람을 죽이는데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녀특무는 사나운 낯짝을 한번 실룩거리고는 굴밑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다시 스위치를 눌러 문을 닫아버렸다. 뒤이어 한손으로는 비자루를, 다른 한손으로는 쓰레박을 든 늙은 로파가 되여 여느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복도를 쓸기 시작하였다.

3

위즈란과 싱아바이는 보육원이 걱정되여 샤오도우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맨 먼저 돌아왔다. 와보니 아이들이 한창 과외운동을 하고있었다.

위즈란과 싱아바이는 서로 귀속말로 한마디 건네고는 각기 물뿌리개를 들고 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을 주는척 하면서 꽃밭에 난 《승냥이》와 《도깨비》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살펴보니 땅우에 난것은 승냥이발자국이 아니라 생생한 사람의 발자국이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있었다. 또한 싱아바이는 피흔적이 없는가를 특별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혹시 샤오린이 쏜 두방의 총알에 맞은 놈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였다.

나무잎들이 바람에 날려 무득하게 쌓여있는 화단옆의 숲속에서는 아침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솨솨 하는 소리가 나군 하였다.

물을 한참 주고난 위즈란과 싱아바이는 보육원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뒤이어 위즈란은 싱아바이에게 보육원의 직원들중에서 어느 녀자가 아이들에게 도깨비에 대한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싱아바이는 이미전부터 생각해오던것을 말하였다.

《난 말이요, 그 음흉하게 보이는 청소부로파가 아닐가 하고 생각하고있소.》

《비슷한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댔습니다.》
위즈란도 동감을 표시하였다.
위즈란은 손에 닿는대로 나무가지 한대를 쥐고 그것을 토막토막 꺾으면서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그는 화초공들이 모두 비적들이라는것이 판명된 조건에서 혹시 보육원에도 나쁜 놈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부로 일하는 그 로파가 몹시 의심스러웠다.
물론 지금까지 얼굴을 가리우고 말없이 수걱수걱 일만 하는 인평이라는 이 로파에 대해 류쑹타오와 위즈란자신도 경각성을 가지고 대해왔고 평상시에 주고받고 하는 말도 될수록이면 이 청소부앞에서 삼가했었다. 특히 전시와 샤오도우즈가 보육원에 들어온데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세웠고 지어 이름도 아이들의 롱말처럼 《대성》이요 《로대성》이요 하고 부르게 한것이였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비적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였다. 이것은 보육원의 내부에도 비적이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위즈란은 그 제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되새겨보았다. 그때 전시의 머리를 처치할 때 그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자기 사람들이였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다만 청소부인 그 로파만이 창문밑에서 맴돌고있었다. 그렇다면 더 힘들게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괴상한 녀인이 《대성》이요 《로대성》이요 하는 말을 비적들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또 누가 전했겠는가?
《싱아바이.》 위즈란은 손에 쥐였던 나무가지들을 버리고나서 확신성있게 말했다. 《우리의 내부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그 청소부로파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어요.》
싱아바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법석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높은반의 한 원아가 물었다.
《샤오디얼이 왜 안오니?》
《방에 들어가 찾아보자.》
반장이 응대했다.
《찾아봤는데 없어.》

《응?! 그럼 샤오디얼이 달아난것 아니야?》

원아들의 말이 분분했다.

《그렇지 않으면 승냥이가 무서워서…》

《그런 말 말어.》 샤오핑구오가 몇명의 낮은반 아이들과 옥신각신하며 떠들었다. 《아까 기상할 때 샤오디얼누나가 승냥이랑 도깨비랑 다 무섭지 않다고 우리보구 말했댔는데 뭐.》

아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은 위즈란과 싱아바이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긴장해짐을 느꼈다. 혹시 그 어떤 불길한 일이 또 생긴것이 아닌가 하고 은연중에 마음을 조이였다.

아이들이 뒤숭숭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즈란은 자기의 격동된 마음을 애써 눅잦히며 천천히 샤오핑구오앞으로 다가갔다.

《아침에 샤오디얼누나가 동무들을 만나 뭐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바닥을 쓸겠다면서 밑에 내려가서 비자루를 가져오겠다구 했습니다.》

샤오핑구오의 말을 들은 위즈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선생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앞마당에 나가 업간체조를 하라고 한 다음 싱아바이와 함께 맨 아래층에 내려갔다.

이때 청소부로파가 아무말없이 복도를 쓸고있었는데 어지럽지 않은데도 쓸고있을뿐아니라 쓸던 곳을 또 쓸고 지어 자기 발등에까지 비자루질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그 로파의 눈길은 땅바닥을 보는것이 아니라 위즈란과 싱아바이의 움직임에 대해 은근히 주시하고있었다.

위즈란은 생각하였다.

혹시 이 로파가 승냥이흉내를 내거나 도깨비장난을 한것이 아닐가?

그를 떠보기 위해 문득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기침을 한번 깇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예상외로 그 기침소리에 로파가 흠칫 놀라는것이였다. 여느때없이 머리를 재빨리 들어올린 그는 위즈란을 쳐다봤는데 그의 얼굴표정은 태연해보였다.

위즈란의 머리속에 또 짚이는것이 있었다. 어제아침 구나이린이

보육원의 담장밖에서 샤오디얼한테 붙잡혀 당황망조하고있을 때 화초공들이 와서 말리는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빼돌린것도 바로 이로파가 꾸민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청소부로파는 겉으로 애써 태연한체 하였다.

《원장선생,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인평이 담담한 말투로 물었다.

《지금 뭘 해요?》

위즈란은 좀 덜퉁스럽게 물었다.

《예, 복도를 쓸구있지요.》

인평은 비록 원장의 말투가 귀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짐짓 개의치 않는척 했다.

《그런데 왜 발등을 쓸고있어요?》

인평은 그제서야 비자루를 신발에 대고 툭툭 털었다.

《아참, 난 샤오디얼이 보이지 않는다는 애들의 말을 듣고 속이 안타까와 제대로 쓸수가 있어야지요.》

속담에 귀머거리가 제 소리만 한다고 인평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 생각을 말한것이다.

위즈란은 뜻밖에 그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올줄 생각못했었다. 그는 이왕 샤오디얼에 대한 말이 나온김에 그에게 물었다.

《그래 샤오디얼이 어디 간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야… 혹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가요? 나이가 어리고 게다가 생소한 곳에 와있자니 부모생각도 할수 있지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리치에 맞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실지로는 주의를 밖으로 쏠리게 하자는것이다.

어제오후 싱아바이가 샤오디얼을 데리고왔을 때 그애는 마음이 안정되여있었고 몰래 달아날 그런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특히 방금전에 한 샤오핑구오의 말을 들어보아도 샤오디얼이 밑에 내려가서 비자루를 얻어온다는 말을 한것외에 다른 말을 한것이 없었다. 비자루를 쓰려고 하면 관리원방 아니면 맨 아래층에 있는 청소도구창고에 가서 가져다 쓰게 되여있었다. 위

즈란은 의심을 가득 안은채 계단을 따라 웃층으로 올라갔다.

이때 계단에서 내려오던 싱아바이가 제꺽 위즈란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원장선생, 빨리 찾아봐야겠소. 관리원도 샤오디얼을 보지 못했다고 하오. 높은반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본 사람이 없다우. 내 보기엔 그 청소부로파의 거동이 어쩐지 께름직하오. 십중팔구 샤오디얼에게 무슨 사달이 난것 같소.》

위즈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싱아바이의 손을 잡으며 낮은 어조로 부탁하였다.

《아바이, 먼저 이안에서 다시한번 찾아봐요. 내 얼른 류처장동지한테 전화를 걸겠어요!》

제 16 장

1

샤오디얼이 혼수상태에서 깨여나보니 사위는 먹물같이 캄캄하였다.

여기가 어디일가? 그는 거듭 생각해보았으나 좀처럼 알수 없었다. 다만 그는 창고에서 인평년과 싸우려다가 떨어진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창고밑에 이런 굴이 있고 또 그 청소부로파는 국민당의 특무라는것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았다. 어제 구나이린을 놓친 일에 대해 인평년과 련결해보면 이 보육원이 혹시 비적들의 소굴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였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보니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생각되였다. 한것은 아버지와 같이 온 위즈란원장과 샤오린오빠도 비적이겠는가? 그리고 마음 좋고 무던한 싱아바이, 불쌍한 전시도…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다만 녀

특무 인평이가 좋은 사람으로 가장하고 보육원에 배겨있는것이다.
샤오디얼은 조급해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원장에게 알려주어 청소부로파를 빨리 잡도록 할것인가? 시간을 끌다가 보육원의 아이들을 다 이 굴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여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빙빙 도는듯한감과 함께 온몸에 찌르는듯한 아픔이 뻗쳐와 다시 푹 꺼꾸러졌다.
한참만에야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제서야 자기 몸이 심히 상했다는것을 알았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고 어떤 곳은 칼로, 어떤 곳은 바늘로 찌르는듯이 아팠다. 게다가 팔다리는 죄다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누워서 이렇게 죽고마는것인가? 아니다, 절대로 죽을수 없다. 어머니의 원쑤를 아직 갚지 못했고 비적두목도 아직 잡지 못했으며 보육원의 동생들은 창고밑에 이런 무서운 굴이 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면 너무도 값없이 죽는것이 아닌가!
그는 천천히 팔을 들고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러자 그 즉시 경련이 일어나듯 아팠고 얼굴에는 피가 질벅했다. 좀 있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만져보니 거기에도 피가 묻어있었다. 그는 무서워지기 시작하였다. 머리와 다리가 다 상해서 움직일수 없게 되였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땅바닥에 엎드리여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한마리의 쥐가 찍 하고 샤오디얼의 몸우로 뛰여넘자 련이어 여러마리의 쥐가 찍찍거리며 뛰여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머니를 찾으며 울고울던 샤오디얼의 눈앞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가 머리를 천천히 드는데 별안간 번쩍하면서 눈앞에 산뜻하고 화려한 꽃밭이 안겨왔다.
그 꽃밭 한가운데로 그처럼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걸어나오고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검은색 무명옷을 입고 환히 웃고있었다. 샤오디얼은 너무 기뻐 두팔을 벌리고 막 달려가며 소리

쳐불렀다.

《어머니, 왔구만요! 어서 와서 이 샤오디얼을 구원해주세요!》

어머니는 달려와 샤오디얼을 꼭 껴안고 눈같이 하얀 솜으로 그의 얼굴과 온몸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붕대로 상처를 싸매주었다. 마치 팔로군언니가 전시오빠의 상처를 처치하듯 한쪽으로 상처를 싸매주면서 한쪽으로 그를 달랬다.

《나의 사랑하는 샤오디얼아, 무서워말어라. 우리에게 수많은 팔로군이 있고 마을사람들이 있는데 몇몇 안되는 비적들을 무서워할게 뭐 있니? 기다려라. 나의 착한 애야. 반드시 사람들이 와서 너를 구원해줄거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싶어했는지 아세요?》

《디얼아, 울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나 살아야 한다. 저것 보렴. 아버지가 너를 찾으러 온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꽃숲속으로 사라졌다.

《어머니! 어머니!》하고 소리쳐부르며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캄캄한 장막이 샤오디얼의 앞을 막아섰다. 눈물은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였고 머리와 다리를 만져보니 모두 그대로였다. 상처자리도 싸매지 않은 그대로였다. 그제서야 그는 꿈을 꾸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비록 꿈에서였지만 어머니가 한 말이 옳았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구원하러 올 때까지 꼭 살아야 한다.

그는 입을 사려물고 웃몸을 일으킨 다음 모진 아픔을 참고 한치한치 앞으로 기여갔다. 손더듬으로 기여가는 샤오디얼에게 어떤 때는 방수천같은것이 만져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무상자가 만져지기도 하였다. 여기는 어떤 곳이기에 방수천과 나무상자와 같은것이 있을가?

불현듯 그의 머리속에 언제인가 전시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보육원근방에 비적들의 병기창고가 있다고 하였었다. 그때 전시가 밀차로 병기물자를 나를 때 나무상자로 포장했다고 했지?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전시가 말하던 그 병기창고가 아닐가?

샤오디얼은 저도모르게 흥분되였다. 만약 비적들이 그처럼 믿고

있는 병기창고를 알아낼수만 있다면 한번 더 굴러떨어진다고 해도 그는 탓하지 않을것이다. 그래서 그는 병기창고가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상자안에 무엇을 넣었는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방수천밑으로 손을 들이밀어 손더듬을 해보는데 인차 상자 하나가 잡히였다. 그런데 상자뚜껑이 든든하게 닫겨있고 손을 넣을수 있는 짬도 찾을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잠시 골똘하게 생각하던 샤오디얼은 방수천밑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했다. 끈덕지게 찾느라면 무슨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샤오디얼은 이렇게 손더듬질을 하며 몇십개의 상자를 살펴보았으나 모두 뚜껑이 든든하게 채워져있었다. 샤오디얼은 어지간히 맥이 진하고 온몸이 땀으로 축축히 젖었다.

샤오디얼은 숨을 좀 돌리기 위해 상자에 기대앉으려고 하는데 무심결에 손에 널판자가 만져지였다.

이게 뭐야?! 이 판자가 어느 한 상자에서 떨어진것이 아닐가?

그는 더 지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손더듬으로 해체된 상자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 맨 우에 있는 상자 하나에 뚜껑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손을 그 상자안에 들이밀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차곡차곡 놓여있는 싸창이 만져졌다. 그는 이어 싸창의 손잡이이며 격발기 그리고 총신까지 만져보고나서 한숨을 내쉬였다.

이런 총들은 팔로군들이 가지고있는것을 보았고 위슈촌마을에서 청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가지고있는것을 보았다. 분명 그런 총들이였다.

그는 흥분으로 하여 자기 상처의 아픔도 다 잊고 방수포를 들추며 또다시 찾기 시작하였다. 두손으로 모든 물건을 다 만져보며 앞으로 나갔다. 아마도 병기창고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만져보아야 직성이 풀릴것 같았다.

드디여 그는 거기서 통졸임과 술병도 만져보았고 수류탄과 탄알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수많은 상자들을 더듬어가던 샤오디얼은 끝내 더는 몸을 지탱할수가 없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2

인평년이 샤오디얼을 없애치우려고 한것은 두가지 목적에서였다. 하나는 자기가 창고안에서 문을 인차 열어주지 못하고 오래 지체한데다가 손에 묻은 회가루(손에 회가루가 묻은것은 벽에 설치한 자동문스위치가 로출되지 않게 회가루를 발라놨기때문이다.)를 깨끗이 닦지 못하여 샤오디얼의 의심을 살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였다. 다른 하나는 샤오디얼이 구나이린을 알기때문에 아예 후환을 없애버리자는것이였다. 샤오디얼이 사라지면 인차 소동이 일어나리라는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는 샤오디얼이 비자루를 얻으러 온것은 십중팔구 자기스스로 청소를 하려고 했던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제기되여도 모른다고 딱 잘라매면 그만이였다. 그런데 인평이 예견하지 못한것은 샤오디얼이 비자루를 얻으러 가겠다고 어린 아이에게 말했다는것이였다.

한편 인평이 몹시 걱정한것은 샤오디얼을 굴안에 집어넣은 다음 복도에서 청소할 때 불안한 자기의 거동을 위즈란이 눈치채게 한것이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인평은 일이 좋지 않게 번져지리라는것을 예상했다.

빨리 결심을 내려야 했다. 더 우물거리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삼십륙계 줄행랑이 제일이라고 빨리 여기서 피하는것이다.

여기를 어차피 떠야 한다는것은 이미 예견하고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뜨게 될줄은 몰랐다.

한초라도 빨리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인평은 오히려 샤오디얼을 지하굴속에 밀어넣은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보육원에서 떠나기로 결심한 인평은 발밑에 있는 군수품창고가 드러나지 않겠는지 걱정되였다.

샤오디얼이 밖에 나가지 않고 보육원안에서 사라진것으로 판단되면 분명히 팔로군들은 창고에 와서 찾을것이고 또한 그 애가 비자루를 가지러 왔다가 없어졌으니 창고를 첫째가는 주목대상으로 여길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여기서 인평이 가장 우려한것은 벽에 설치한 자동문의 스위치가 발견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발견되면 모든것이 끝장이다.

인평이 여직껏 청소부노릇을 하면서 이 창고를 지키고있은것은 바로 굴입구가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팔로군은 그 스위치를 결코 쉽게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회가루칠을 해놨기때문에 스위치의 위치를 찾기 힘들뿐아니라 설사 찾는다고 해도 벽돌을 꺼내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찾느라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것이다. 그 시간이면 자기가 명령해서 군수품창고를 폭파해버릴수 있을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난 인평은 비자루와 쓰레박을 들고 마치 나무잎을 쓸러 가는것처럼 하면서 보육원출입문을 나섰다. 이어 담장옆문까지 온 인평은 마당안에서 체조를 하고있는 아이들을 일별하고나서 얼른 문밖 왼쪽길을 따라 만저우국때에 건설한 재생천방직공장으로 걸어갔다. 지금 그 공장은 페허나 다름없었다. 그 공장안으로 들어간 인평은 비자루와 쓰레박을 집어던지고 겉에 입었던 검은 옷을 벗어던졌다. 그러자 안에 입었던 깃을 세운 검누런색의 라사직코트와 청동색모직바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쪽진 머리를 풀어헤치자 검은색반곱슬머리가 어깨우에까지 내리드리웠다. 눈깜빡할 사이에 인평년은 돈냥이나 있는 귀부인으로 변하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보자기를 꺼내 벗었던 검은 옷을 싸서 팔에 안고 몸을 흔들거리면서 태연하게 정양거리를 거쳐 북쪽에 있는 옛성거리로 걸어갔다.

얼마쯤 걸어가던 인평은 어느 한 잡화매대앞에 이르자 천천히 몸을 돌리며 줄곧 내리깔고있던 두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보았다. 누구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모든것이 무사하다고 생각한 인평은 멀리 있는 흰구름아래의 보육원지붕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입속말로 종

알거렸다.
《위즈란, 쪼끄마한 이 팔로군년아, 나하구 맞서보겠다구? 흥! 어림도 없다. 이번엔 내가 너를 저승에 어떻게 보내는가를 한번 봐.》
이때 뒤쪽 골목에서 흥얼흥얼하며 연극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내 성문 루각에서 경치를 구경하는데
문득 성밖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네
사람을 파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와서 아뢰는 소리
대사마(위나라때의 대장군)가 군사를 보내왔다고 하네

인평이 고개를 들어 얼핏 보니 허줄한 옷을 입은 한 거지아이가 앞가슴을 헤치고 헌 끌신을 끌며 걸어오고있었다. 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까풀을 내리깐채 그냥 북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이 거지아이가 터벅터벅 따라와서 인평의 앞길을 막고 두 손을 내밀었다.
《마님, 좀 도와주세요. 세끼나 굶었어요.》
인평이 흠칫 놀라 눈을 바로 뜨고보니 《성을 비우는 계책》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그 거지였다. 그는 대번에 귀찮다는듯 손을 홱 내저었다.
《비켜! 께끈하다. 네가 여덟끼나 굶었단들 나하구 무슨 상관이야.》
《흥!》 거지아이는 순간 팩 하더니 배를 쑥 내밀고 목소리를 길게 뽑으면서 핀잔했다.
《마님은 속통이 못됐구만그래. 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구 사람을 왜 모욕하면서 바르지 못하게 구는거요? 덜돼먹은 년같으니라구.》
그는 이 말을 뱉고는 돌아서서 가려고 하였다.
거지아이의 말이 귀에 거슬렸던지 인평은 몸을 돌리고 삽시에 가

지색으로 변한 얼굴로 그 거지를 쏘아보았다.

《이자식…》

그러자 거지아이도 앞가슴을 더 쭉 내밀고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래 날 쏴보면 어떻게 할테요? 날 청해다가 나으리로 섬길 생각이요?》

인평은 쌍스럽고 도도한 그 거지아이의 말투에서 불현듯 어제저녁에 대성이요 로대성이요 하는 거지아이들이 후이빈각을 들부신 일이 떠올랐다. 순간 가슴이 덜컥 하면서 혹시 자기와 마주선 이 거지아이도 팔로군과 한편이든가 아니면 후이빈각을 들부신 그 거지아이들중에 한 아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서 자기를 잡아세우고 말을 걸어 팔로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자는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한 년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싸늘해지면서 진저리를 쳤다. 더 지체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면서 교태를 부리였다.

《얘, 이거 안됐다. 뭘 가탈을 부릴게 있니. 자, 이 돈을 가지구 군빵이나 사먹으렴.》

인평이 얼른 주머니를 뒤져 잔돈을 꺼내주려고 하는데 그 거지아이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있었다. 이렇게 되자 더욱 불안을 느낀 인평년은 재빨리 인력거를 불러세워 타고 황급히 자기의 거처지로 달아났다. 그곳은 마치가 얼마전에 알선해둔 림시거처지였다.

그의 거처지는 옛성거리의 거미줄처럼 가로세로 나있는 골목들중에서 한쪽이 막힌 막바지에 자리잡고있었다.

인평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빗장을 질러놓았다.

한편 멀리에서 인평년을 따라오던 거지아이가 골목에 이르러서는 담장옆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이 외딴집의 문가까이에 다가갔다. 이윽고 그 집의 문패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흥 하고 입을 한번 삐쭉 내밀어보이고는 인차 가버렸다. 거리에서는 또다시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내 성문 루각에서 경치를 구경하는데
문득 성밖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네
사람을 파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와서 아뢰는 소리
대사마가 군사를 보내왔다고 하네
…

제 17 장

1

위즈란으로부터 샤오디얼이 보육원안에서 실종되였다는 전화를 받은 류쑹타오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즉시 방송국경비중대에 달려와 런다융중대장을 찾았다.

《샤오린과 샤오류는 어디 있소?》

《샤오린은 약속한대로 망루에 셋째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샤오류는 전사와 함께 계속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을 감시하고있습니다.》

류쑹타오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듯 손을 홱 저었다.

《동문 빨리 전사 2명을 데리고 나와 함께 보육원에 가기요!》

《알았습니다!》

런다융은 류처장의 얼굴기색을 보고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긴것이라고 직감하고 즉시 2명의 전사를 불러가지고 류처장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였다.

《처장동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류처장의 뒤를 따르던 런다융이 낮은 어조로 물었다.

《우리 샤오디얼이 보육원안에서 없어졌다오.》

《예?! 보육원안에서 말입니까?》
런다융은 보육원안에서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어 물었다. 혹시 자기가 그의 말을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해서였다.
《그렇다고 하오. 보육원안에서… 이상하지 않소?》
류쑹타오도 걸으면서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이때 보육원의 아이들을 가득히 태운 3대의 화물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갔다. 아이들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거저 좋아라 법석 떠들며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어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류처장과 이미 토의한대로 낮은반의 아이들을 다른데로 이동해가고있는것이였다.
지금 류쑹타오의 마음은 종잡을수없이 복잡하였다.
날이 밝자 귀여운 샤오도우즈가 숨을 거두었고 또한 전시와 샤오망즈, 고우성얼 등 꼬마형제들은 아픈 마음을 안고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있는데 외딸인 샤오디얼이 보육원에 가자마자 행처를 알수 없게 되였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수 있겠는가? 그는 이미 그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예감하였다.
류쑹타오와 런다융이 빠른 걸음으로 보육원에 이르렀을 때 위즈란과 싱아바이는 맨 아래층의 창고문을 열어놓고 비자루며 쓰레박이며 걸레 등을 모조리 밖에 꺼내고 한창 무엇을 찾고있었다. 너무도 조급하게 덤벼치다나니 두사람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원장동무!》
류쑹타오가 창고문옆에 다가서며 곧 위즈란을 찾았다.
위즈란은 급히 뒤를 돌아보고 류처장이 와있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창고밖으로 나와 통절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청소부로파가 도망쳤습니다. 다 나때문에…》
《청소부로파가?!》
원장의 말을 들은 류쑹타오의 마음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 그것은 샤오디얼이 비단 자기의 딸이여서가 아니라 적들이 이처럼 날치는데 그를 제지할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자책감때문

이였다.

그는 샤오디얼이 정확히 보육원안에서 실종되였다면 그것은 보육원안에 지하로 통하는 그 어떤 입구가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머리속에서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한걸음 떨어진 둔덕아래의 평지붕집에 적들의 지하병기창고입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일본놈들이 지상과 지하가 련결된 비밀창고를 설계하면서 그 중심위치에 있는 진쟈(지금의 보육원자리)를 제외했겠는가 하는것이다. 다른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놈들이 이 2～3일동안에 보육원을 내쫓기 위해 별의별 비렬한짓을 다 감행한것을 보아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였다.

청소부로파가 달아난것도 이 보육원안에 분명 무엇이 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적들이 외부에 화초공으로 가장한 비적들을 배치해놨을뿐아니라 보육원안에도 청소부로 가장시킨 비적을 박아넣었다는것은 이미전부터 아주 면밀한 조직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상의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씨름터밑에 있는 비밀지하실과 진쟈자리인 보육원 그리고 둔덕아래켠 평지붕집과 남쪽교외에 있는 《충령탑》밑에 있는 비밀지하실(전시와 샤오망즈 등이 밤에 들어가던 페허지의 굴속)은 서로 련결되여있을것이라고 그는 판단하였다. 다만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고있는것이다.

이때 창고안에서 단서를 찾고있던 싱아바이가 갑자기 부르짖었다.

《여보게, 여기 좀 와서 보게. 이게 굴입구가 아니겠나?》

류쑹타오와 위즈란, 런다융이 싱아바이가 있는데로 다가갔다. 싱아바이가 전지불빛으로 바닥에 깐 화강석판에 난 짬사이를 비치였다. 짬은 네모난 정방형이였다. 그것을 본 류쑹타오의 마음은 삽시에 밝아졌다. 원래 집안의 복도나 건물의 바닥에 깐 화강석판사이에 짬이 생기는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길것은 없다. 특히 이 창고의 바닥에 비자루와 쓰레박, 걸레를 비롯한 청소도구들이 쌓여있다보니 누구도 그 짬사이에 대해 별다르게 보는 사람이 없

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네모난 짬사이를 범상하게 볼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굴입구를 찾았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우연히 한가닥 희망의 빛이 생겼던것인데 그것이 얼마 못가서 다시 뽈에서 바람이 새는것처럼 인차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싱아바이가 더 참지 못하고 와락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내가 곡괭이로 파볼테요. 뭐니뭐니해도 사람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류쑹타오가 제꺽 싱아바이의 손을 잡고 머리를 흔들었다.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들을 놀래울수 있고 또 우리자신을 로출시키게 됩니다.》

《그럼 샤오디얼은 어떻게…》

싱아바이는 말을 맺지 못했다.

이때 샤오린이 헐레벌떡 달려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청소부로파가 어데 갔어요?》

《왜 그러니?》

위즈란은 샤오린의 물음에 그 어떤 예감이 들어 급히 반문했다.

《글쎄 그가 어데 갔어요?》

샤오린이 대답은 하지 않고 다그쳐 물었다.

《도망쳤다.》

위즈란은 맥빠진 말로 한마디 대꾸하였다.

《예? 도망쳤다구요? 언제 도망쳤게요?》

《좀전에…》

《아이쿠! 한발 늦었구나!》 샤오린은 발로 땅바닥을 탕 하고 구르고나서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년이 바루 세번째 두목 인펑이예요!》

《응? 그년이?》

위즈란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류쑹타오도 샤오린의 말에 놀랐다.

《그게 사실이요?》

《방금 셋째가 말해주었습니다!》
《음, 그래 셋째가 다른 말을 해준게 없소?》
《보육원밑에 지하도와 통하는 입구가 있는데 군수품창고에 직통 련결되여있답니다. 그 군수품창고에는 병기들뿐아니라 군복과 식량, 통졸임과 휘발유 등 다 있답니다. 그리구 폭발장치가 되여있는데 필요할 때 폭파시키고 다른데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소?》
《그는 그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을 다시 분석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병기창고가 아니라 각종 군수품이 다 들어있는 대규모군수품창고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서로 련결된 입구에 대한 표상이 석연히 안겨왔다. 샤오디얼도 모름지기 인평년에 의해 창고밑에 있는 지하에 갇혔을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입구의 문을 어떻게 열며 그 스위치가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다.
류쑹타오는 모든것을 분석해보며 군수품창고의 입구와 통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그는 샤오린을 보고 빨리 전시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과업을 받은 샤오린이 보육원출입문을 나서는데 마침 전시와 고우성얼이 함께 오고있었다.
몇시간동안에 전시는 몹시 축간듯 하였다. 눈두덩은 벌겋게 부어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늘 익살기와 미소가 어려있군 하던 그의 얼굴에서 이제는 그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오직 증오심과 복수심만이 가득차있었다.
사람들은 전시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다. 사랑하던 샤오도우즈를 잃고 커다란 슬픔을 안고있는 전시에게 이제 또다시 샤오디얼의 실종에 대해서까지 알려주면 그가 과연 그 괴로움을 견디여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걱정스러웠다.
류쑹타오가 전시를 만나자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장동지, 고우성얼의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전시는 고우성얼을 류쑹타오와 위즈란의 앞으로 내밀었다. 전시

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난 고우성열은 두손으로 바지를 한번 추겨올리고나서 용기를 내여 말꼭지를 뗐다.

《청소부로파가 나쁜 년이예요.》

위즈란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어조로 물었다.

《네가 어떻게 알았니?》

《그건 내눈으로 직접 봤어요. 틀림없어요.》

《그래그래, 난 고우성열을 믿어. 한데 그 로파는 벌써 도망쳤어.》

아침에 샤오도우즈를 묻은 다음 전시는 꼬마형제들과 함께 샤오도우즈의 묘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를 다졌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쥬탸오룽을 비롯한 마치와 구나이린 그리고 인평년 등을 죽이고 꼭 천백배 원쑤를 갚겠다고 모두 다짐하였다. 이윽고 그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전투초소로 가기에 앞서 전시는 샤오도우즈를 위해 샀던 패쏘를 고우성열에게 주었다. 패쏘를 받아안은 고우성열은 전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였다. 두 소년은 비록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도 남았다.

원래 조직한대로 오늘아침 고우성열은 낮은 담장밖에서 평지붕집을 감시하고있다가 화초공이 오면 그를 미행하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비자루와 쓰레박을 들고 담장옆문으로 나온 청소부로파가 두눈을 두리번거리며 재생천방직공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는것이였다. 고우성열은 그의 거동이 이상해서 뒤를 조용히 밟았다. 한데 얼마 안있어 원래 입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순식간에 낮모를 부자집의 귀부인으로 변하여 방직공장에서 나오는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고우성열은 그년이 화초공과 같은 패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고우성열은 혼자서 처음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하자니 마음이 좀 긴장되였다. 그러나 샤오도우즈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모르게 힘과 용기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는 대담하게 전시와 샤오도우즈처럼 노래도 부르고 입재주도 부리며 은밀히 그 녀자를 따라갔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비록 미흡한 점은 있으나 어쨌

든 그 로파가 들어간 집주소를 알아왔으니 일은 그만하면 잘된 셈이였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위즈란은 고우성얼을 와락 끌어안았다.

《장해요, 정말 장해!》

다른 사람들도 고우성얼의 잔등을 두드려주면서 용타고 칭찬하였다. 고우성얼은 난생처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보면서 저으기 점직해하였다.

류쑹타오는 제꺽 전화기를 들어 해당한 일군에게 즉시 인평의 거처지에 대한 감시를 조직할데 대해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나서 전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침통한 어조로 물었다.

《전시, 샤오디얼이 없어진 일을 알고있니?》

《예?!》 전시는 천만뜻밖의 말에 그만 깜짝 놀랐다.

《언제요?》

《우리가 샤오도우즈의 장례식을 할 때 청소부로파, 다시말하여 인평년이 그를 지하에 던져넣었어!》

류쑹타오의 말을 듣고난 전시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혼자소리로 《청소부로파, 세번째 비적두목 인평이 지하로?》하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어성을 높여 물었다.

《그럼 왜 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적들을 놀래울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네가 길안내를 좀 해주었으면 한다.》

류쑹타오는 자기의 속타산을 전시에게 말해주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전시는 서둘러 떠나려고 하였다.

《좋아!》

류쑹타오는 샤오린에게 눈짓을 하고는 세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 몇발자국을 걸어가던 전시가 무춤 멈춰서며 류쑹타오에게 한가지 제기했다.

《아저씨… 나한테도 권총 한자루 주세요!》

《그건 뭘 하려구?》

《비적놈을 잡자구요!》

《그래 쏠줄 아니?》
《알아요. 샤오린형이 배워주었어요.》
샤오린도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류쑹타오는 잠시 생각하다가 흔연히 대답하였다.
《좋다. 이번 임무가 끝난 다음 한자루 주지.》

2

10시쯤 되자 람루한 옷을 입은 한무리의 방랑아들이 줄레줄레 성남쪽교외에 있는 페허지로 가고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흥얼거리며 걸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무엇이라고 히히닥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원을 짓고 걸어가면서 땅바닥에 대고 주사위(도박용기구)를 던지면서 돈따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 여기는 류랑걸식하는 아이들이 내내 와서 놀다가 헤여지군 하던 곳이여서 별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

돈따기를 하는 아이들속에는 샤오린과 샤오류, 전시와 함께 거지로 가장한 몇명의 팔로군전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지다가도 와와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밀려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서 전시가 큰 벽체덩어리를 들어냈다. 그러자 한사람이나 드나들수 있는 자그마한 구멍이 나타났다. 맨 먼저 전시가 두다리를 굴입구로 들이민 다음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뒤따라 다른 동무들이 한사람한사람씩 내려갔는데 도합 10여명이 되였다. 맨 마지막으로 마대속에 넣은 삽과 곡괭이 등을 내려보낸 다음 샤오린은 벽체덩어리를 들어 다시 굴입구를 덮어놓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또다시 왁작거리며 놀다가 조용히 헤쳐갔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은 마치 뚜껑을 덮은 큰 가마와 같았다. 오래동안 해빛을 받지 못하여 습한 곰팡내가 풍기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지하실은 씨름터밑에 있는 비밀지하실

과 거의 비슷하였다. 한벽에는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과 같이 네개의 울긋불긋한 신호등이 주런이 설치되여있었다. 벽면은 울퉁불퉁했지만 하얗게 회칠을 해놓았다. 자세히 보니 이 지하실은 마지막에 건설한것 같았다. 바닥에는 온통 벽돌쪼각과 자갈들이 널려있고 구석에 모래도 쌓여있었다. 네벽면에도 둬메터쯤 되는 긴걸상이 놓여있는데 바로 그전에 전시와 샤오망즈, 샤오도우즈와 고우성얼 4명이 저녁때마다 여기에 내려와서 그 걸상을 침대삼아 자군 했었다.

전시는 한시바삐 샤오디얼을 구원할 생각에 먼저 곡괭이를 잡고 울퉁불퉁한 벽에 대고 힘껏 내리찍었다. 그러자 땅 하고 용수철처럼 튀여나면서 벽에는 한점의 뾰족한 곡괭이자리만 생겼다.

이때 샤오류가 《가만!》하고는 벽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니 몽땅 돌로 축조한것이였다. 그는 옆에 있는 동무들을 보고 먼저 돌짬새기의 세멘트몰탈을 뗴라고 하였다. 그런 방법으로 구멍을 넓힌 다음 곡괭이끝으로 지레대질을 하면서 돌을 움직여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곡괭이끝으로 축조한 돌짬을 찍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어깨로 곡괭이자루를 올리밀면서 곡괭이끝으로 돌을 움직여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구멍을 뚫듯이 깊이 파헤치기도 하였다.

땀을 철철 흘리면서 맵짜게 곡괭이질을 하던 전시가 마침내 돌을 하나 움직여놓았다. 그다음 돌짬에 붙어있는 세멘트몰탈을 더 뗴낸 다음 재빨리 손으로 그 돌을 뽑아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그 돌만 뽑아내면 샤오디얼이 당장 보일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샤오디얼은 자기의 고향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였고 엄격하면서도 살뜰하게 돌봐주던 누나이기도 했다. 전시는 비록 성안에서 몇해동안 방랑생활을 하고있지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자기를 키워준 샤오디얼 어머니의 은덕에 대해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라붙어 곡괭이질을 하다가 곡괭이날이 돌짬깊이까지 미치지 못하자 이어 손으로 구멍을 파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있어 손톱이 짜개지고 손끝은 긁히워 선지피가 나와 돌

우에 점점이 떨어졌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기를 쓰고 파나갔다. 샤오류와 다른 팔로군군인들이 그만두라고 거듭 말리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지금 전시에게 간직되여있는 뜨거운 사랑과 불타는 적개심이 마치 두손에 집중되여있는듯싶었다.

샤오류에게는 다른 우려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이 담벽을 뚫렀다 해도 보육원의 지하실과 통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남쪽교외의 페허지와 보육원사이거리는 직선으로 500m정도나 되는데 거기와 련결된 통로가 이것밖에 없겠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샤오류의 마음은 종잡을수없이 착잡하였다. 하지만 명령은 집행해야 하였고 어쨌든 구멍을 관통한 다음에야 그 결과를 알수 있기때문에 한시바삐 담벽을 관통시키는 길밖에 없었다.

전시는 마침내 안쪽에 있는 돌을 움직여놓았다. 자세히 보니 겉에만 세멘트몰탈로 짬새를 메웠고 안에는 흙으로 축조한것이였다. 그러니 첫번째 돌보다 어지간히 쉽게 흔들렸다. 전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비끼였다. 그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뻑문대고는 잽싸게 두손을 놀렸다. 샤오류도 전시를 거들어주었다.

한편 다른 동무들도 곡괭이로 돌짬의 세멘트몰탈을 떼내고 계속 파헤쳐보았으나 돌이 움직이지 않아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샤오류는 동무들을 보고 범위를 좀 넓혀 움직이는 돌을 찾아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초보적인 성과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분발심은 한층 높아지였다. 모두 말없이 있는 힘을 다해 파기만 하였다.

제 18 장

왕샤오린은 전시와 샤오류를 비롯한 다른 동무들을 굴속으로 내려보낸 다음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히히닥거리며 즐겁게 노는척 하다가 페허지를 떠나갔다. 일부 사람들은 페허지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경계근무를 서고있는데 그들은 다 싸창을 휴대한 팔로군전사들이였다.

전시에게 충실한 꼬마형제들은 왕쟝루에 돌아가서 계속 비적들을 감시하고 미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다음 샤오린과 샤오망즈, 고우성얼은 류처장의 명령대로 인펑을 감시하기 위해 그년이 거처하고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샤오린네는 뛰여가다싶이 하여 인펑의 숙소 맞은켠 골목에 이르러 좀 으슥한 곳으로 꺾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권연과 해바라기씨를 사시오.》하는 싸구려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샤오린은 그에 개의치 않고 그냥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권연과 해바라기씨를 사시오.》하는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 웨치는 소리는 더 높이 들리였는데 마치 자기를 보고 들으라는것 같았다.

뒤에서 따르던 고우성얼이 그 웨침소리에서 어떤 기미를 느꼈던지 샤오린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기였다.

《샤오린형, 저 권연을 파는 사람이 샤오린형을 찾는것 같애요.》

샤오린은 그제서야 걸음을 멈추고 맞은켠에 있는 담장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중국식 검은색다부산자에 천신을 신고 목에는 권연과 해바라기씨를 그득히 담은 목함을 걸고 서있는 사람이 자기쪽을 향해 의미있는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더 자세히 보니 자기중대에서 함께 싸우는 구대원인 조우동지와 비슷했다.

그 조우동지로 말하면 중대의 오랜 정찰병이고 함께 여러번 정찰을 다녔을뿐아니라 정찰경험을 자기에게 배워준 선생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조우동지가 여기에 나타나 권연과 해바라기씨를 팔고있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혹시 중대가 성안에 이동해온것이 아닌가? 옳다.

샤오린의 마음은 금시 기쁨으로 넘실거렸다. 역시 천진한 아이들의 심리 그대로였다. 그는 《조우동지!》하고 달려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시임무를 수행하고있다는것을 자각하였다.

샤오린은 흥분된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한손으로는 샤오망즈를, 다른 한손으로는 고우성얼을 잡고 흔히 망나니들이 하

는 말투로 《에라, 좀 늦어가더라도 권연 한갑 사가지구 갈가?》하고는 성큼성큼 담배장사군에게 다가갔다. 가자마자 담배 한갑을 집어들고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어조로 말을 건네였다.

《조우동지,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조우동무는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눈으로 가리키며 좀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다. 샤오린은 그제서야 기쁜 나머지 소개를 못했다는것을 느끼였다.

《자, 해바라기씨를 두봉지 주시오.》

샤오린은 해바라기씨 두봉지를 받아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에게 한봉지씩 나누어주고나서 말을 이었다.

《먹어라. 우린 한집안사람이예요.》

《한집안사람》이라는 말은 조우동무로 하여금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에 대한 불신을 가셔주었다.

조우동무는 무표정한 시선으로 맞은켠의 골목을 보면서 그에게 말했다.

《마치와 그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하기 위해 중대가 모두 성안으로 들어왔어. 이보라구 샤오린, 우린 자네를 도와주려고 왔어. 아, 그렇지.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늘 샤오린과 샤오류에 대해 마음을 못놓고있어. 시간 봐서 한번 중대에 찾아가보라구. 그런데 여기에 왜 왔나? 저 개년을 보러 왔나?》

샤오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가 온 다음에도 아직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네. 여기서 기다리는것보다 한번 들어가봐야 좋겠는데 이런 행장으로는 접근하기도 불편하구…》

《조우동지, 그럼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인차 다시 만납시다.》

《응, 알겠어. 그럼 빨리 이자리를 뜨라구, 꼬마들.》

샤오린은 조우동무에게 머리를 한번 끄덕이고나서 이어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에게 눈짓했다. 그러면서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갔다.

얼마쯤 가다가 샤오망즈가 샤오린에게 귀속말로 물었다.

《샤오린형과 같이 있나?》
《응, 같이 있어. 우리 선배야.》
《그가 우리보구 접근해보라구 했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방법이 있어.》
《그런데 난 들어갈수 없어. 그가 날 알아볼거야.》
고우성얼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샤오린은 고우성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한마디 하였다.
《걱정말아. 고우성얼도 이젠 많이 발전했단 말이야.》
그 말에 샤오망즈도 고우성얼의 목을 꼭 끌어안고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동생이 정말 발전했어. 앞으로 꼭 샤오린형과 샤오류형처럼 정찰병이 될수 있어. 만약…》
여기까지 말하다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샤오망즈는 고우성얼의 얼굴을 들고 서로 빠금히 쳐다보았다.
《만약 뭐라구…》
샤오망즈는 눈확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한참만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됐다, 그만해.…》
샤오망즈의 말뜻을 알아차린 고우성얼은 그를 대신해서 말꼬리를 이었다.
《만약 샤오도우즈도 살아있으면 꼭 훌륭한 정찰병이 될수 있었다 그거지?》
샤오망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우성얼을 더 바싹 끌어안으며 갈린 음성으로 타일렀다.
《성얼아, 언제나 우리의 불쌍한 형제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알겠지?》
샤오망즈의 두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고우성얼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고우성얼은 샤오망즈를 올려다보며 견결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응, 알겠어. 꼭 잊지 않을래!》
어느덧 인평이 거처하고있는 집앞에 이르자 고우성얼이 턱으

로 문짝에 그림이 있는 집을 가리켰다. 샤오린과 샤오망즈는 예리한 눈초리로 뜰안으로부터 유리쪼각이 그득히 꽂혀있는 담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때 옆집대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에 샤오린은 재빨리 돌아서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열려진 문으로 중학생티가 나는 한 남자아이가 나오다가 샤오망즈와 고우성얼과 눈길이 마주쳤다. 한동안 서로 멍하니 마주보다가 그 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너희들은…》하고는 말끄리를 흐리였다.

그는 원래 《너희들은 밥을 얻어먹는 방랑아들이구나.》하고 말하려다가 어쩐지 례의에 어긋나는것 같아서 제꺽 삼켜버렸다.

고우성얼이 그 학생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히히, 넌 우리 전시형보구 돈 1만웬을 가졌다구 떼쓰던 신식학생이구나. 옳지?》

그 학생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진정에 넘쳐 말했다.

《난 우정 그런게 아니야. 내가 그만 잊어먹고… 후에 내가 돈을 가져다주니까 굳이 안받더구나. 그래 할수없이 그냥 왔어.》

샤오린은 그 학생이 어디에서 본것 같아서 한참 기억을 더듬는데 고우성얼의 말을 듣자 인차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말허리에 끼여들었다.

《됐어, 됐어. 누구도 떼먹은 사람이 없어. 그래 어머니의 병세가 좀 어떻니?》

그때 전시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이 학생은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난것도 반가운데 전번에 자기가 피뜩 어머니가 앓는다는 말을 했던것까지 기억하고 병세까지 물으니 더욱 감동되였다.

《정말 고마와! 우리 어머니의 병은 많이 나았어. 자, 집에 좀 들어와 앉았다가 가라구.》

샤오린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인평에 대해 알아보는것도 좋을것 같아 제꺽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다.

《고맙다. 그럼 좀 들어갔다가 갈가. 우린 앞으로 친구로 사귀자.》

세 아이는 학생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세칸으로

된 벽돌집이였다. 가운데칸은 전실이고 옆에는 유리창으로 칸막이를 하였다. 동쪽방은 창턱에 세개의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있는데 첫째 화분은 월계꽃이고 둘째 화분은 등골나물이고 셋째 화분은 싸리였다. 마치 이 집의 세식구를 상징한듯싶었다. 방안의 벽쪽에 놓여있는 네개의 큰 책장에는 금박으로 글을 새긴 외국책들과 근대중국의 특제본책들과 함께 옛날 책들도 꽂혀있었다. 그리고 창문쪽에는 자주색나는 녹나무로 만든 책상이 놓여있고 등나무로 만든 걸상이 하나 있었다. 책상우에도 여러권의 책들과 종이, 먹과 붓 등이 질서정연하게 놓여있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이 방은 서재였다.

또한 서쪽방은 일반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들이 놓여있고 자그마한 상우에는 약탕관과 약병들, 약봉지들과 물고뿌 등이 놓여있었다.

구들에는 한 중년부인이 누워있었다. 그는 샤오린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 학생이 얼른 어머니앞으로 다가가 소개하였다.

《어머니, 이들이 전번에 우리한테 돈 1만원을 준 그애들이예요.》

《응, 그래? 어서 들어와 앉으라구.》

학생의 어머니가 걸상을 가리키며 권하였다. 샤오린은 스스럼없이 걸상에 가앉았으나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은 문앞에 그냥 서있었다. 그들은 서쪽뜰안에 거처하고있는 인평을 감시해야 하였다.

《아주머니, 그런데 무슨 병을 앓고있습니까?》

샤오린이가 공손히 물었다.

《무슨 독감이라구 하던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좀 나았네. 아직 열이 채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네. 허참, 사람이 가난할수록 병이 더 생기누나.》

가난하다는 말을 듣고 샤오망즈는 동쪽방에 있는 책장을 흠칫 바라보며 입을 한번 삐죽이였다. 그것은 《가난하다구? 누가 곧이 들을 사람이 있겠다구.》라고 말하는것 같았다.

학생의 어머니는 한숨만 내쉴뿐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샤오린

네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들의 거동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는데 이 거지들은 속되지 않고 말마디가 례절있는데다가 또한 외지말씨를 쓰는데 대해 다소 이상한감을 느꼈었다.

《젊은이는 이 고장 사람같지 않구만. 어떻게 여기에 왔나?》

《밥을 빌어먹으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나 원. 쯔쯔…》

샤오린은 서재가 있는 방을 한번 둘러보고나서 넌지시 한마디 물었다.

《보아하니 댁의 집에서 누가 공부를 하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묻는 샤오린의 말에 학생의 어머니가 또다시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마치 한숨을 내쉬는것이 이 부인의 습관인것 같았다.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소. 결국 공부를 한탓에 이애 아버지는 목숨만 잃었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알게 되였지만 이 집은 판가성을 가진 집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판주위이고 어머니는 전리화, 학생의 이름은 판신위였다. 판주위는 원래 영국에서 수력학을 전공하여 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1931년 지식으로 나라를 구원할 큰뜻을 품고 조국인 중국동북에 돌아왔다. 그런데 재능을 펼쳐보기도 전에 일제놈들이 선양의 북대영을 불의에 폭격했고 중국관내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듬해 동북땅은 모두 일본놈들에게 강점되여 그도 동북인민들과 함께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가 되였다.

일본놈들은 그가 수력학박사라는것을 알고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로 하여 놈들은 판주위를 엄격한 감시밑에 두고 그를 관내로 가지 못하게 했고 일도 못하게 했다. 그가 유일하게 활동할수 있는 공간은 자기 집안의 자그마한 서재뿐이였다. 책은 그의 생존의 기쁨이였고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진정한 길동무였다. 집안의 생활은 글을 가르쳐주고있는 전리화가 벌어온 돈으로 유지해나갔다.

1944년 바로 일제가 투항을 선포하기 전해에 놈들은 또다시 판

주위를 찾았다. 샤오펑만발전소에서 제기된 어떤 기술적문제를 그가 와서 해결해달라는것이였다. 그때에도 그가 견결히 거절하자 왜놈들은 악에 받쳐 그를 강제로 끌고갔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전리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오. 그리고 몸을 잘 돌보오. 이제 신위가 큰 다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놈들한테 죽었는가를 똑똑히 알려주오.》

후에 들은 말에 의하면 판주위는 샤오펑만발전소로 압송되는 도중에 차에서 뛰여내려 사품치는 쑹화강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얼마 안있어 전리화도 경찰서장 마치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이 되여서야 놓여나왔다. 그 기간 아들 판신위는 가산을 팔아 근근히 살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판신위는 자기 아버지의 손때묻은 책들은 단 한권도 팔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분부일뿐아니라 자기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그 책들마다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손도장이 력력히 찍혀있어 더우기 팔수 없었다. 그런데 전리화가 감옥에서 나온 후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가지지 못한데다가 남편의 생명까지 앗아간 원한 서린 그 책들을 아예 팔아버리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판신위는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책들을 한두권씩 팔아 그시그시 살아왔다.

샤오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판주위의 재능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는 전리화에게 진심으로 권고하였다.

《아주머니, 그 책들은 이젠 팔지 마십시오. 신위더러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이젠 우리 가난뱅이 세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샤오린의 말을 듣고 전리화는 저도모르게 몸을 일으키며 두눈을 가다듬고 그를 바라보았다. 자기앞에 있는 이 거지청년에게서 뜻밖에 이런 유식한 말을 들을줄은 생각못했던것이다. 이 사내애가 과연 거지란 말인가?…

《그럼 책을 안팔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샤오린의 말을 듣고 다소 귀맛이 도는듯 했지만 그보다 지금 당

장 살아가는데 더 관심을 돌려야 하는 판신위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가?》

《일을 한다?》

전리화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샤오린에게 물으려고 하였다. 이때 샤오린은 자기가 말을 너무 서둘러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그때 일본놈들이 판아저씨가 수력학박사라는것을 어떻게 알았는가요? 혹시 누가 밀고한것이 아닐가요?》

전리화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우리옆에 사는 두 이웃이 다 나쁜 사람들이요.》

《이웃이라니요?》

《응. 저 오른쪽은 얼쿠이다려관의 경리 자오리앤인이 살구 왼쪽집은 이 거리에서 유명한 그 깡패대장 쥬탸오룽이 산다우.》

《응? 쥬탸오룽?》

옆에서 잠자코있던 샤오망즈가 흠칫 놀라며 저도모르게 입에서 《쥬탸오룽》이라는 말이 새여나왔다. 그 가짜《무술교관》인 원쑤놈이 여기서 살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쥬탸오룽을 아오?》

《응－》 샤오망즈가 샤오린을 힐끔 쳐다보며 대답하려고 하다가 이내 고쳐 대답했다. 《아니요.》

샤오린은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았다. 오른쪽집은 인평년이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오리앤인이라는 사람이 사는가? 아니면 고우성얼이 저 집을 잘못 기억한것이 아닌가? 아니면 인평년이 뒤에 추적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일부러 남의 집에 들어간것이 아닐가?

《아주머니, 오른쪽집에는 녀자가 살지 않나요?》

전리화는 속으로 은근히 놀랐다. 이 거지아이들은 어떻게 이 집에 녀자가 살고있는것을 알고있을가?

《옳네. 이전에 얼쿠이다려관 경리 자오리앤인이 살고있었지. 그러다가 얼마전에 자오리앤인은 어디론가 이사가고 웬 독신녀자

가 이 집에 왔네. 헌데 며칠 가도 한번 보이지 않더군. 우린 그 녀자의 이름도 잘 모르네.》

《지금 집에 있지 않을가요?》

샤오린은 전리화의 가정환경에 대해 어느정도 안 이상 이렇게 물었다.

《글쎄. 우린 아직 그 녀자와 대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그가 이틀전에 아들을 통하여 전시를 비롯한 꼬마형제들의 의리심에 대해 듣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많은 말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샤오린네가 옆집의 그 녀자에 대해 어떻게 알고있는지? 전리화는 샤오린과 같이 사리에 밝은 사내아이들이 설마 그 독신녀자를 해치려고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였다. 고우성얼이 갑자기 뛰여들어오면서 샤오린에게 눈짓하였다.

《샤오린형, 나왔어!》

전리화와 말을 나누던 샤오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한발을 내짚으려고 하다가 피뜩 고개를 돌려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는 전리화에게 한마디 여쭈었다.

《아주머니, 앞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일자리는… 좀 기다리십시오. 아마 이제 아주머니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샤오망즈도 샤오린이 무척 공손하면서도 례절있게 전리화를 대해주는것을 보고 한마디 덧붙였다.

《아주머니,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사실 아까 우린 댁네가 잘 사는 집인줄 알고 버릇없이 대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나서 두사람은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다.

샤오린네를 바래워주고 돌아온 판신위를 덥석 잡은 전리화는 급히 물었다.

《얘, 신위야, 저애들은 도대체 누구냐? 한갖 거지아이들같지 않구나.》

《방랑아들이 맞아요.》 판신위는 딱 자르듯이 대꾸했다. 《먼저번에 그들이 다같이 있었는데요 뭐.》

판신위의 집에서 나온 샤오린과 샤오망즈 그리고 고우성얼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담장에 바싹 붙어 걸어가다가 이어 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앞을 바라보니 긴 머리칼을 헤치고 남색모직겹저고리를 입고 하얀 목도리를 두른 녀자가 머리를 수그리고 걸어가고있었다. 고우성얼이 샤오린의 옷자락을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턱짓을 하였다.

《저년이 다른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죽을 벗겨놔두 난 알아볼수 있어요!》

샤오린도 이미 인평을 알아보았다.

《쉬! 조용히 따라가기만 해.》

샤오망즈는 걸어가면서도 자주 두리번거리며 뒤를 돌아다보군 하였다. 아까 골목입구에서 만났던 조우동지를 찾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 따라가다가야 또 한 사람이 인평년의 뒤를 따르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자세히 보니 조우동지였다. 다만 권연과 해바라기씨를 담은 상자가 보이지 않을뿐이였다.

샤오린도 앞에서 걸어가는 조우동지를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무등 기뻐했다. 이전 로정찰병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다. 설사 인평년이 제아무리 신기한 변신술을 가진 백골요괴(중국력사소설 《서유기》에서 나오는 백골요정)라고 해도 혁명전사의 예리한 눈초리에서는 결코 벗어날수 없다.

줄곧 고개를 수그리고 걸어가던 인평년은 어느 한 상점에 들어갔다. 그는 거기에서 거울에 비쳐보기도 하고 또한 옷매무시를 바로잡기도 하다가 다시 거리로 나와 걸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매대앞에 이르러서는 상품을 들여다보는척 하면서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이윽고 골목에서 빠져나온 그는 곧 큰길에 들어섰다.

고우성얼은 이것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해 방글거렸다.

《망즈형, 저년이 재미있게 노는데. 꼭두각시놀음을 하는것 같구나.》

인평은 옛성거리와 현대거리의 사이에 있는 어느 한 큰 건물앞에서 힐끗 뒤를 돌아보다가 건물을 에돌아 뒤문으로 들어갔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여기가 바로 얼쿠이다려관이였다.
그사이에 샤오린은 조우동지에게 다가가서 전리화네 집에서 알게 된 내용을 죄다 말하였다. 얼쿠이다려관의 경리인 자오리앤인이라는 사람이 얼마전에 자기가 살던 집을 인펑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그놈도 역시 십중팔구는 비적일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였다.
조우동무는 샤오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귀띔했다.
《샤오린동무, 빨리 가서 류처장동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오. 내가 저애들과 같이 여기서 기다릴테니 보고하고 빨리 돌아오라구!》

제 19 장

1

페허지의 지하실에서 구멍파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있었다.
구멍은 한사람이 드나들수 있을 정도로 넓혀놨지만 벽이 너무 두터워 아직 관통되지 않았다. 마치 산에서 내리구멍을 파는것처럼 돌을 하나 뽑으면 또 다른 돌이 나지면서 정녕 끝이 없을상싶었다.
전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빠질빠질 타고있었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른데다가 구멍을 파는데만 열중하다나니 그들의 몸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였다. 팔과 다리, 손과 발이 성한데가 없이 찢기고 긁히워 피가 질벅하니 흘렀고 땀을 너무 흘린데다가 흙먼지까지 뒤집어써서 누가 누군지 얼굴을 가려볼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오직 사람을 빨리 구원해야겠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불탔기에 그들은 누구도 손맥을 놓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전시의 손톱 하나가 이미 긁히워 닳아 없어졌다. 그러나 그는 피 흐르는 손가락을 대충 싸매고는 기를 쓰고 파고 또 팠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샤오디얼을 구원할 생각, 아니, 비적들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뿐이였다.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한집안사람이라고 한 샤오린형의 말이 참말로 옳았다. 이런 인식은 이미 그의 가슴속깊이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때 이 방랑아는 낡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머니를 터는것과 같은 행위도 하였고 또한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과 건달기가 농후했어도 그의 본바탕만은 변치 않는 보석과 같았다. 그 보석은 잘 다듬기만 하면 반드시 눈부신 광택을 내는 법이다.

샤오류도 전시와 마찬가지로 구멍을 빨리 관통시킬 생각으로 불타고있었다. 아울러 그는 이 훌륭한 형제를 보호할 임무도 맡고있었다. 그것은 이 굴속에서 어떤 뜻밖의 위험이 닥쳐올지 누구도 모르기때문이였다. 범상치 않은 나날속에서 전시와 접촉하는 과정에 샤오류는 진정으로 그를 좋아하게 되였다.

샤오류는 진실하고 선량한 전시의 마음과 함께 사랑과 증오가 뚜렷한 그의 성품을 좋아했으며 원쑤를 갚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남다른 의리심과 높은 정의감을 좋아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이번 임무를 수행한 다음 상급에 제기하여 전시와 샤오망즈네들을 중대에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한 중대에서 정찰병으로 함께 싸울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영원히 그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샤오류는 늘 얼굴에 미소를 담고있는 꼬마정찰병이다. 그는 산둥성에서 태여났다. 1944년 봄 국민당완고파와 일본침략군놈들이 라오난산지구에 대한 《대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샤오류는 부모들과 일가친척들의 복수를 위해 생전에 부모들이 말해준대로 북쪽으로 팔로군을 찾아 떠났다. 길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팔로군을 찾아가리라 마음먹고 길을 걷던 그는 어느 한 인적드문 산길에서 우연히

웬 소년과 함께 가는 중년남자를 만났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고 묻자 샤오류는 숨김없이 옌안의 팔로군을 찾아간다고 대답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그 소년이 히죽 웃으며 한마디 께끼였다.

《넌 그걸 어떻게 내놓고 말하니? 그러다가 놈들에게 붙잡혀가면 어쩔려구. 무섭지 않니?》

그러자 샤오류는 《무섭긴. 목이 떨어져야 사발만한 허물자리나 남을것밖에 있니?》하고 대답하자 그 중년사나이가 또 물었다.

《그래, 팔로군을 왜 찾아가니?》

이 물음에 샤오류의 얼굴에서는 삽시에 침울한 빛이 스쳐지나갔다.

《왜 찾아가느냐구요? 온 마을사람들이 모두 왜놈들한테 죽었어요. 그러니 내가 팔로군을 찾아가지 않으면 놈들의 앞잡이노릇을 해야 하겠나요?》

그러자 그 사나이가 샤오류를 와락 끌어안았다.

《좋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후에 알게 되였지만 그 사람은 팔로군의 어느 한 부대 지휘관이였는데 옌안에서 진행하는 《제7차 당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였다. 그와 함께 가던 소년이 바로 지금의 왕샤오린이였다.

그때부터 샤오류는 왕샤오린과 한 분대에서 정찰병으로 싸우게 되였다. 샤오류는 얼굴에 늘 웃음을 담고있지만 실은 가슴속깊이에 불뭉치같은 사랑과 활화산같은 적개심을 품고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대해주었고 간악한 원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군 하였다.

다같이 불우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전시와 샤오류는 서로 간직하고있는 포부와 지향이 한결같았다. 이런것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전투에서 그들은 비록 말은 적게 해도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 빨리 구멍을 뚫러 샤오디얼을 구원하고 비적들을 소탕해버리자는데로 향해있었다.

갑자기 한가닥의 서늘한 바람이 알릴듯말듯하게 구멍에서 불어오는것을 느끼자 전시는 손등을 구멍안쪽으로 갖다대보고나서 환성을 올렸다.

《샤오류형, 손 한번 대보라요!》

샤오류가 손등으로 한번 대보니 과연 돌짬으로 서늘한 바람이 새여나오는것이 느껴졌다. 손전지로 자세히 비쳐보니 길쭉한 돌 하나가 세워져있는데 그 돌만 뽑으면 굴간과 관통될것 같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지레대를 받아서 돌짬에 끼워놓고 건드려보니 여간 무겁지 않았다.

《자, 동지들, 같이 힘쓰자요!》

전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레대를 잡고 옆으로 제쳐보았다. 무거웠지만 약간 움직이는것 같았다.

《자, 하나, 둘…》

샤오류의 구령에 따라 모두 힘껏 제끼자 길쭉한 돌이 맞은켠쪽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머리우에서 와르릉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찰나 무슨 기미를 느꼈던지 《비끼라!》 하고 소리치며 샤오류가 옆에 있는 전시와 다른 동무들을 무작정 뒤로 밀어던졌다. 뒤이어 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벽우에 있던 큰돌들이 일시에 무너져내렸다. 그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다행히 무사했는데 샤오류의 한쪽어깨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옷이 찢어지고 이어 시뻘건 피가 배여나왔다. 돌이 빗맞은것이 천만다행이였다.

이어 다른 동무들이 전지불로 벽우를 올리비쳐보니 그 길쭉한 돌은 다른 돌들을 받쳐놓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세워놓은것 같았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일본놈들은 이 벽체를 쌓을 때 이 길쭉한 돌들을 여러개 고여놓고 그우에 큰돌들을 올려놓은 다음 겉으로는 세멘트몰탈로 약간 땜때기를 하는척 하고 안으로는 흙으로 메꿔놓았다. 만약 누가 와서 이 벽체를 까거나 해체하려고 할 때 이 길쭉한 돌을 제껴버리는 경우 우에 있는 돌들이 순간에 무너져내리게 하여 해체하던 사람들을 돌에 치워 죽이게 하자는것이였다.

샤오류의 고향인 라오난산지구가 돌들이 많은 고장이여서 그는 어려서부터 돌로 집을 짓고 담장을 쌓는 일을 해보아서 누구보다도 돌에 대한 촉감이 예민하였다. 다행히 샤오류가 제때에 포착했기때문에 모두가 무사하였다. 이제는 더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돌이 무너져내리는 소리를 혹시 맞은켠쪽에 있는 비적들이 들었다

면 대응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샤오류는 왼손으로 손전지를 잡고 오른손에는 권총을 뽑아들고 낮은 어조로 귀띔했다.

《자, 빨리 안으로!》

샤오류가 맨 먼저 구멍을 넘어서자 전시와 다른 동무들이 뒤따라 넘어섰다. 전지불로 비쳐보니 이쪽켠의 지하실보다 폭이 더 넓은 지하도가 나타났는데 땅바닥은 평탄했고 일본제 빈 통졸임통들과 빈 술병들, 나무단판으로 만든 밥곽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그리고 서늘한 공기속에 윤활유냄새와 곰팡내가 다분히 풍겨왔다. 걸음을 잘못 옮기면 빈 깡통들이 발에 채워 왈가당절가당 하였다.

기차굴과 같은 긴 복도가 나졌다. 샤오류가 앞에 서고 뒤로는 전시와 그밖의 전우들이 따라섰다. 샤오류는 걸어가면서 전우들에게 다시한번 귀띔해주었다.

《만약 비적들을 만났을 때는 제꺽 전지불을 끄고 량쪽켠으로 갈라졌다가 다음 순간적으로 전지불을 비치고 놈들을 정확히 묘준해서 갈기시오.》

전시는 총이 없으니 공병삽을 하나 잡아쥐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비적놈들, 맞다들기만 해라. 이 삽으로 네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낼테다!)하고 별렀다. 그는 샤오류와 함께 맨앞에서 지하도의 서늘한 공기를 헤가르며 달려나갔다.

얼마나 달렸는지.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 갱도가 점차 넓어지면서 이어 극장관람석만한 굴간이 나타났다. 아니, 극장보다도 더 큰것 같았다. 전시는 물론 샤오류와 다른 전우들도 이런 굴간을 처음 보았다. 이 넓은 굴간에는 천정을 받치기 위해 한아름되는 콩크리트기둥이 여러개 세워져있었다. 땅바닥은 높낮이가 심했는데 어떤 곳은 마치 모래주머니를 무져놓은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네모난 벽체를 쌓아놓은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우에는 모두 방수포를 씌워놓았는데 그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었다. 샤오류가 다짜고짜로 그 방수포를 제끼고 손전지로 비쳐보았다. 안에는 길고 짧은 여러가지 형태로 된 나무상자들이 보였다. 전시가 무릎을 탁 치며 부르짖었다.

《우리가 쥬탸오룽에게 운반해준 물자가 바로 이런 나무상자였어요. 샤오류형도 그전에 와이포산근방의 바위돌앞에서 밀차에 실은 나무상자를 봤지요?》

《응, 맞아!》 샤오류도 흥분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제길할, 마침내 찾았구나.》

《뭘 찾았단 말이요?》

옆에서 한 전사가 물었다. 그 전사는 자기들이 지금 샤오디얼을 찾고있는줄로만 알고있었다.

《여기가 바로 병기창고요, 병기창고.》

《병기창고?》

《그렇네. 비적들은 바로 이 병기창고를 믿고 날친거요. 이 우에는 모름지기 보육원 아니면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일수 있어.》

샤오류와 전우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벌써 전시는 나무상자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샤오디얼을 찾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전지불밑에 철사다리가 천정에서 내리드리워있는것이 보였다. 순간 전시는 가슴이 조여드는듯한감을 느끼며 그 철사다리에 다가가 전지불로 자세히 비쳐보았다. 사다리우에는 네모나게 생긴 문같은것이 보였는데 더 말하지 않아도 이 지하실과 통하는 입구같았다. 혹시 보육원의 창고밑에 있는 지하실입구가 아니겠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샤오디얼이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의문이 머리속에 갈마들자 전시는 종잡을수가 없어 마음이 조급해지였다. 눈에서 불꽃이 튀여나는듯 하였다.

비적들이 샤오디얼을 다른데로 끌고가지 않았을가? 혹시… 또…

그는 서늘해지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여 손전지를 든 팔을 맥없이 아래로 떨어뜨렸다. 고개를 숙이고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전지불에 비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흠칫하였다.

《아, 피!》

땅바닥에 많은 피자국이 보였다. 이윽고 그는 피자국을 따라 걸어나갔다. 어느 방수포에 이르니 피자국이 문득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전지불빛으로 비쳐보다가 방수포밑에서 또

다시 피자국을 보았다.

그는 이번에 아예 방수포의 한쪽끝을 제끼면서 피자국을 따라나갔는데 나무상자우에 여기저기 피자국이 묻어있는것을 보았다. 가슴이 빠질빠질 타오르는것 같았다.

이때 샤오류와 기타 동무들이 다가와 피자국을 따라가는 전시를 도와 방수포를 하나하나 제껴주었다. 상자우에 올라서서 전지불로 내리비치며 피자국을 따라가던 전시가 두 방수포가 이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온통 피투성이 된 웬 사람이 두손으로 나무상자를 짚고 후닥닥 일어서는것이였다.

《나쁜 놈들, 올테면 오라!》

피투성이 그 사람이 량쪽손가락을 쩍 벌리고 마치 열자루의 비수를 든듯 전시에게로 덮쳐들었다. 전시는 말소리를 듣고 벌써 샤오디얼이라는것을 알고 두팔을 벌려 바람처럼 달려가 그를 와락 그러안았다.

《디얼아! 살아있었구나! 나야, 전시다!》

샤오디얼은 불을 내뿜는듯한 두눈을 부릅뜨고 두손으로 상대방의 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득 전시의 목소리를 듣자 두손을 맥없이 떨구며 머리를 전시의 가슴에 파묻고 마지막 힘을 모아 간신히 입을 열었다.

《빨리… 팔… 팔로군한테 알려…》

《디얼아, 디얼아, 정신차려! 정신을…》

전시는 조급한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샤오류와 다른 동무들도 달려와서 샤오디얼을 부축하였다. 그들은 더 생각할 사이없이 샤오디얼을 밖으로 후송하려고 서둘렀다. 방금 들어왔던 그 입구로 전시가 샤오디얼을 업고 달려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뜻밖에 철사다리우에 있는 네모난 입구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두쪽의 화강석판으로 된 문이 량쪽으로 쩍 갈라지면서 열려지였다. 그러자 칠칠이 어둡던 지하실입구가 삽시에 환하게 트이면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어렴풋이 안겨왔다. 이윽고 위즈란과 싱아바이 그리고 류쑹타오와 런다융 등 몇명의 팔

로군전사들이 총을 들고 철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류쑹타오는 샤오류와 전시를 폐허지에 보낸 다음 위즈란과 싱아바이, 런다융과 2명의 팔로군전사와 함께 청소도구를 넣었던 창고의 벽체를 비롯한 그 주변을 깐깐하게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 인평년이 회칠한 자리를 찾아내였고 그곳을 파보니 스위치가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적들이 그처럼 믿고있던 비밀군수품창고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였다.

…

2

인평이 불안한 마음을 조이며 얼쿠이다려관의 2층에 있는 205호실에 들어서니 마치와 구나이린이 탁상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수군덕거리고있었다. 쥬탸오룽은 문앞에 지켜서있었다. 인평년이 갑자기 나타나자 가슴이 섬찍해진 마치와 구나이린이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는가 해서 후닥닥 일어나 의혹에 찬 눈길로 그년을 응시했다.

들어오자마자 허연 목도리를 풀어 옆으로 집어던진 인평은 마치가 따라준 차잔을 받아들고 둬모금 들이마시였다. 잠시후 두근거리던 가슴을 어느정도 진정시킨 그는 짐짓 태연하게 보육원에서 도망쳐나온 일을 죄다 말하였다. 그다음 두눈을 쪼프리고 흉악한 기색을 드러내놓으며 씨벌이였다.

《이봐요, 일이 이렇게 된바엔 군수품창고를 폭발시키는걸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물론 인평이 말하지 않아도 마치와 구나이린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있었다. 한것은 그들이 시체토막을 집어넣는짓도 해보고 또한 승냥이 우는 소리를 내는 놀음도 해보았으나 보육원은 쫓겨가지도 않았을뿐아니라 도리여 자기 졸개들만 잡혀가게 되였으니 이제는 자기들도 팔로군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였다는것을 인

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게다가 인평이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구나이린을 아는 그 처녀애를 지하굴속에 빠뜨려놓았으니 팔로군이 그 처녀애를 찾기 위해서도 지하굴을 찾지 않겠는가. 남을 너무 얕보지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지금 벌써 군수품창고에 들어가서 그 처녀애를 구원해갔을지도 모른다.

마치는 형세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느끼고 인평에게 고개를 돌리였다.

《아니,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이제야 와서 말하는거요?》

《흥, 지금 온것두 빨리 온셈이지요.》

인평은 오히려 자기쪽에서 언짢게 한마디 내뱉았다.

《내가 보육원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한 거지아이가 흥얼거리면서 끈질기게 따라오지 않겠어요. 혹시 팔로군이 파견한 밀정이 아닌가 해서 우려했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문짬으로 줄곧 밖을 내다보면서 동정을 살피다가 오는 길이예요. 그러니 내라구 왜 조급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젠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선 우리 사람들에게 통지해서 날이 어둡기 전에 모두 관위절간에 모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다음 군수품창고를 폭파시켜 쑹쟝시를 날려보낸 다음 모두 〈광복군〉을 찾아갑시다.》

인평의 말을 듣고 더는 참기 어려워 자리에서 일어선 마치는 인평년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이보우, 편지를 전달하러 간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만일…》

마치는 《만일》이라는 말까지 하고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인평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였다. 만일 《광복군》이 이전에 서로 버그러졌던 관계를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도 현재 곤난한 처지에 빠져있다면 부득불 다른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필 한나무에 목매달아 죽을 필요야 없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것은 인평년이 금

시 세모진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인평의 입이 드디여 터졌다. 그가 내뱉는 말은 마치 총알을 내쏘는듯 했다.
《그만하지 못하겠어요? 그저 만일, 만일, 모가지가 다 떨어지게 된판에 아직두 그따위 타령이예요? 그전에 남의 꾀임수에 넘어가 밑진 싸움만 할 땐 공명심에 사로잡혀 물덤벙불덤벙 뛰여들더니 이제와서 밑천을 다 부려먹고는 도리여 꼬리를 사리자는거예요? 만일, 만일 하면서…》
성이 나서 욕을 퍼붓는 인평년의 두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마 마치의 귀쌈이라도 한대 조겨야 직성이 풀릴것만 같았다.
마치는 자기 약점때문에 더 대꾸도 못하고 잠자코있었다.
여우같은 구나이린이 눈치를 살피다가 량쪽에 다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넌지시 말문을 열었다.
《사령님의 뜻은 편지를 가지고간 사람이 올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리지 말구 다른 출로를 생각해보자는 뜻일겁니다. 그것은 혹시 〈광복군〉쪽에서 그 어떤 변고라도 생긴 경우를 념두에 둔것이 아닐가요?》
《그렇소. 내 뜻은 바로 그거란 말이요.》 마치는 뻔뻔스러운 낯을 이죽거리며 인평에게 말했다. 《그런데 특파원님이 뭘 그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날 잡아먹을듯이 그러오?》
《허튼수작 그만해. 언제 롱질할새가 있어요?》
인평은 좀 수그러진 어성으로 핀잔했지만 얼굴표정은 여전히 시퍼렜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어느정도 풀리자 구나이린은 다시 떠보는듯한 어조로 말했다.
《내 보기엔 여기서 뜨기 전에 그 군수품창고 말입니다.… 좀더 심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요?》
《아니, 뭘 또 고려할것이 있어요?》
인평의 얼굴이 또 쌀쌀해졌다.
구나이린은 여전히 시물시물하며 인평의 곁으로 더 다가갔다.
《내가 말하자는건 마바를 보고 기폭기의 시간을 맞춰놓으라

고 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그 기폭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든가 아니면 팔로군에게 해제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평은 이 말에 좀 일리가 있는것 같아 다그쳐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빙빙 에돌지 말고 직판 말하라요.》

《그럼 말하지요. 우선 마바를 보고 기폭기의 시간을 9시로 조절해놓되 동시에 한사람을 보내여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을 지키다가 만약 기폭기가 작용 안되면 스위치를 눌러 폭파시키자는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믿음직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구나이린의 설명을 듣고난 인평은 약간 머리를 끄덕였다.

《음, 그 말도 비슷한것 같애요. 한데 충성으로 나라에 보답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거예요. 그 일이야 목숨을 내대야 한다는걸 아는 이상…》

《쥬탸오룽이 있지 않소. 그가 가게 합시다.》

마치가 문밖에서 파수를 서고있는 쥬탸오룽을 턱으로 가리켰다.

쥬탸오룽은 인평이 온 다음부터 잠기가 전혀 없어졌다. 여직껏 문밖에 서서 파수를 서고있지만 문짬에 바투 서서 귀를 도사리고 세 두목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빠짐없이 엿듣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가 자기더러 지하실에 가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니 가슴이 섬찍하며 금시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평시에는 마치에게 설설 기군 하던 쥬탸오룽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상 그가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여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에는 한번 들이대고 볼판이라고 생각한 쥬탸오룽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사령님, 난 지금까지 사령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소이다. 며칠전에 있은 일은 내 본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팔로군의 변화무쌍한 계책과 그놈의 차오팡단이 정보를 잘못 제공한탓이지요. 한데 오늘은 날보구 가서 죽으라구 하니 정말 억울하웨다.… 내가 지금까지 사령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온것을 생각해서라두 은총을 베풀어…》

쥬탸오룽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걸했다.

《동생, 일어나게. 바로 자네가 나한테 충실했기때문에 이 중요

한 임무를 자네에게 맡기는거야. 만약 다른 사람을 보냈다가 제살궁냥만 하고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아닌가. 만약 자네가 죽으면 집안식구들은 내가 다 맡아 돌봐주겠네. 더 잘 입히구, 더 잘 먹이구, 자네가 살아있을 때보다 몇배 더 잘 살게 해줄테니 걱정말게.》

조폭하기 그지없는 마치였지만 이 시각만은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쥬탸오룽을 대해주었다.

《사령님, 제발 자비심을 베풀어주십시오. 난 사령님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제대신 다른 사람을…》

이 광경을 한참 지켜보던 구나이린도 쥬탸오룽을 버리기는 좀 아쉬운감이 들었다. 쥬탸오룽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시키는 일을 잘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필요한 때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것인가? 만약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경우 내용을 죄다 말해주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는 웃으며 기꺼이 대답하고도 뒤에 가서는 뺑소니를 칠수 있다. 하긴 전투장에 나갈 림박에 도주한 졸개들을 수없이 보아온 구나이린이였다. 그러니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쥬탸오룽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럼 누굴 보냈으면 좋겠나?》

쥬탸오룽이 한참 두눈알을 굴리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셋째를 보냈으면 좋을것 같소이다.》

《셋째?》

구나이린은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셋째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 좀해서 말이 없고 시키는 일을 군말없이 수걱수걱 해온 셋째가 확실히 알맞춤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지금 여기 있나?》

《있소이다.》

쥬탸오룽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생겨서 마치 등에 지고있던 큰 돌을 땅에 내려놓은듯한 심정이였다.

《내가 가서 데려오겠소이다.》

《응, 빨리 가서 데려오라.》

쥬탸오룽은 얼른 문을 열고 나갔다.
쥬탸오룽이 나가자 구나이린은 마치와 인평에게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점을 말해주었다.
그의 말을 들은 마치와 인평은 모두 구나이린의 모사다운 수완에 탄복을 표시했다.
얼마 안있어 쥬탸오룽이 셋째를 데리고 들어왔다. 방안에 들어온 셋째는 굽신거리지도 않고 또한 왜 불렀는가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다. 거저 두팔을 내리드리운채 덤덤히 서있었다.
그래도 구나이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앞에 서있는 셋째를 끌어다 걸상에 앉히였다. 그리고 그가 다른 눈치를 채지 않게 행동과 말투에서 여느때와 다름이 없이 임무를 주었다.
《셋째, 오늘은 이런 임무를 하나 수행해야겠다. 좀 있다가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에 가서 기다리다가 9시쯤 해서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 놓으면 돼. 이건 사발시계인데…》
구나이린은 탁상우에 있는 사발시계를 들어 셋째에게 주었다.
《어느 스위치를 누르는가에 대해선 있다가 쥬탸오룽이 가서 다 말해준다. 거기에 들어가있는 동안 심심할수 있으니 술 한병과 통졸임 둬통을 가지고 들어가거라. 쥬탸오룽, 갈 때 술과 통졸임을 가지고가는걸 잊지 않도록 하라.》
구나이린은 마지막 말을 할 때 쥬탸오룽에게로 얼굴을 돌리였다. 그러자 쥬탸오룽이 《알겠소이다.》하고 쾌히 대답하였다.
뒤이어 구나이린이 셋째를 향해 차분히 물었다.
《알만 한가?》
셋째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윽고 구나이린이 쥬탸오룽에게 눈짓하자 그는 얼른 기미를 차리고 셋째를 데리고 나갔다.
이때 《광복군》에 편지를 전달하러 갔던 졸개가 엎어질듯 하며 방안으로 뛰여들어왔다. 앞자락을 헤치고 땀방울이 온 얼굴에 맺혀있는 그 졸개는 헐레벌떡거리며 침대우에 풀썩 주저앉았다.
마치와 구나이린 그리고 인평은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그를 에워싸고 갔던 일이 어떻게 되였는가고 다급히 물었다. 그 졸개는 말라

터진 입술을 감빨고나서 한참만에야 석쉼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광복군〉이… 모두 팔로군한테 녹아났어요. 죽구 투항하구…》
《총사령은 어떻게 됐어?》
인평이 다그쳐 물었다.
《듣자니 달아났다고 해요.》
《너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 구나이린이 따져물었다.
《산골에 사는 농사군들한테서 들었어요.》
《이놈, 넌 결국 허튼소리를 듣고 그냥 돌아왔구나. 산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광복군〉이 다 녹았다구 그래. 응? 이놈, 죽여버리구말테다.》
마치는 두눈알을 부라리며 윽윽하였다.
그러나 그 졸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치를 힐끔 쳐다보고는 약간 노기띤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뭐 산에 안올라갔다구요? 안올라갔으면 전투 뒤끝에 〈광복군〉들이 버리고간 총과 탄알, 장구류들을 거둬들이느라고 팔로군들이 산에 쫙 깔려있는것을 봤겠어요? 이 전투가 어제저녁 늦게 끝났대요. 아직두 사방에 연기가 나고 화약내가 코를 찌르고 그리구 죽은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구… 보기만 해두 끔찍해서…》
그 졸개는 마지막에 연방 머리를 떨며 진저리를 쳤다.
말을 다 듣고난 세 두목들은 마치 뒤통수를 한방망이 되게 얻어맞은것처럼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았다.
한동안 잠자코있던 인평년이 얼굴을 가리운 긴 머리칼을 손으로 제치고는 쌍눈섭을 꼿꼿이 세우며 부르짖었다.
《흥! 그럼 우린 북쪽에 있는 매부리산에 가서 다시 사람들을 긁어모아 대오를 확대하자요. 우리에겐 이젠 이길밖에 없을것 같애요.》
《옳소. 나 역시 그 생각이요. 제가 먹을 밥을 제가 짓는다구.》
자리에서 화닥닥 일어선 마치가 두팔을 뒤로 휙 뿌리쳤다.

3

샤오디얼은 구원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군수품창고에서 류쑹타오가 전투를 긴장하게 지휘하고있었다.

인평년이 도주한 정형을 분석해보면 적들에게서 시급히 그 어떤 반응 특히 군수품창고의 존재여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적들은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군수품창고를 폭파하고 산으로 들어갈수 있다. 물론 산에 들어가는 경우 몇명의 비적, 나아가서 한개 중대나 대대인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오늘 다 소멸하지 못하면 후날에라도 아무때건 완전히 소멸할수 있다. 문제는 이 군수품창고이다. 만약 군수품창고를 폭파하려는 적들의 음모를 제때에 파탄시키지 못하면 인민들에게 상상할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줄수 있다. 그런데 아직 적들이 군수품창고를 언제 또는 어떻게 폭파하겠는가에 대한 정보를 쥐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알수 없는것은 인평이 도주한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여직껏 그 어떤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것이다. 분명 여기에는 그 어떤 까닭이 있는것 같았다. 지금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시각이였다.

이런 정세에 대처하여 류쑹타오는 아래와 같은 전투작전을 조직하고 군관제위원회의 주임에게 제기하였다.

첫째로, 방송국경비중대에서 두개 소대를 뽑아 한개 소대는 평지붕집주변의 수림과 동쪽에 있는 낡은 건물에 매복하고있다가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평지붕집의 적들을 소멸하는것이고 다른 한개 소대는 경험많은 공병인 창동무와 같이 군수품창고에 들어가 매복하고있다가 적들이 들어오면 일거에 소멸하고 평지붕집으로 통하는 지하도를 장악하는것이다.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적들의 비밀폭파장치가 십중팔구 지하실입구 아니면 지하도에 있을수 있다.

둘째로, 통로를 순조롭게 열기 위해서 기민하고 실정을 잘 아는 정찰병 샤오류를 척후병으로 하는것이였다.

이상과 같이 전투조직을 방금 끝낸 찰나에 위즈란이 샤오린을 데리고 보육원의 창고밑에 있는 지하실입구로 총총히 내려왔다. 샤오린은 인평을 추적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군관제위원회에 갔다가 류쑹타오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온것이다.

샤오린이 인평을 미행한 보고를 듣고 류쑹타오는 적들이 아직 행동을 개시하지 않는것은 감시가 두려워 집에 숨어있기때문이라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였다. 그는 인평이 얼쿠이다려관에 간것을 보아 거기에 다른 두목들도 있을수 있을뿐아니라 그곳이 또 하나의 놈들의 중요한 모임지점일수도 있다고 짐작했다.

적들은 평지붕집주변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 다른 방법을 택하여 군수품창고를 폭파할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가장 큰것은 씨름터밑에 있는 비밀지하실이였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여 정황을 정확히 정찰한 다음 제때에 그 우환거리를 제거해버려야 했다.

《샤오린동무!》 잠시 사색에 잠겨있던 류쑹타오가 샤오린을 찾았다. 《동문 빨리 북쪽에 있는 씨름터에 가시오. 적들이 거기에서 손을 쓸수 있소.》

《알았습니다.》

샤오린은 곧 달려갔다.

임무를 수행한 후 줄곧 지상에 올라가지 않고 지하실에 있던 전시가 류쑹타오에게 다가갔다.

《처장동지, 임무를 수행한 다음 저에게 총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지. 내가 잊었댔군.》

류쑹타오는 곧 자기 몸에서 혁띠를 풀어 권총집까지 전시에게 넘겨주었다.

《자, 받으라구. 늘 몸에다 차고있어야 해. 그리구 나쁜 놈한테 뗴우지 않게 잘 간수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내놓고는 쏘지 말라구. 알겠지?》

《알겠습니다.》

전시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말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류쑹

타오로부터 권총을 넘겨받은 다음 곧 허리에 차고는 샤오류가 있는쪽으로 달려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류쑹타오가 급히 그를 멈춰세웠다.

《전시, 넌 땅우에 올라가거라.》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안돼. 좀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겠는데 넌 아직 전투경험이 없기때문에 위험해.》

전시는 아무말없이 그냥 서있었다.

《빨리 올라가거라. 어서!》 류쑹타오가 또 재촉하였다.

전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전시, 왜 말을 안들어? 앞으로 전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처장동지!》 이렇게 말머리를 뗀 전시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였고 목소리도 젖어있었다. 《난 여기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적들을 소멸하는 전투에 내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우리 샤오도우즈가 비적놈들한테 죽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 복수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무작정 평지붕집의 통로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였다.

류쑹타오는 어쩔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전시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하지만 반드시 샤오류의 지휘에 복종해야 해.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돼. 알겠니?》

전시는 삽시에 밝아진 얼굴로 류쑹타오와 위즈란을 바라보았다. 이어 힘차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샤오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전시의 손을 잡고 자기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류쑹타오에게 힘있게 보고하였다.

《처장동지, 마음놓으십시오. 우린 꼭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겠습니다.》

제 20 장

1

보육원지하실에서 나온 샤오린은 곧바로 북쪽에 있는 씨름터로 갔다.

이른아침부터 날씨가 개였다흐렸다하면서 사람들에게 류달리 울적한감을 주었다. 하늘에 얇게 떠돌던 회색구름이 서서히 움직이고있었다. 날씨가 흐리터분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서 늘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런지 왕쟝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몇쌍의 담이 큰 남녀청년들이 숲속에서 산보를 하고있고 나머지는 걸음길을 따라가는 행인들뿐이였다. 이 공원은 아직 입장료를 받지 않고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거의 찾아볼수 없고 마치 하늘의 구름색갈처럼 밝지 못하였다.

샤오린은 잠간 발걸음을 돌려 왕쟝루우에 올라가보았다. 한무리의 기러기떼가 왕쟝루의 상공으로 날아 지나갔다. 한쌍의 남녀청년이 왕쟝루란간을 잡고 먼곳을 바라보면서 이따금 무엇을 손짓하고있었다.

샤오린은 주위경치를 구경하는것처럼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걸음을 옮기다가 씨름터밑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쥬타오룽과 함께 뒤에 선 셋째가 씨름터옆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는것을 얼핏 보았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들을 유람하러 온 사람으로 여길것이다.

그러나 샤오린의 눈은 그들을 다르게 보고있었다. 그는 쥬타오룽이 방공호안으로 사라진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류쑹타오처장의 판단에 대해 탄복하였다. 비적들이 과연 여기에서 무슨 꿍꿍이를 하려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슬며시 만지며 당장 가서 쥬탸오룽의 목덜미를 잡을 생각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인차 마음을 눅잦히였다. 만일 다른 비적들이 이것을 보고 마치에게 보고하면 결국 풀대를 다쳐 뱀을 놀래운 격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쥬탸오룽이 여기에 온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것이 아닐가?

거듭 생각을 굴리다가 결국 그는 따라들어가서 한번 속시원하게 보리라 마음먹었다. 지하에서 서로 맞다든다고 해도 밖에 있는 비적들이 보지 못하기때문에 무방할것이다.

그는 마치 공원을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뒤짐을 지고 여기도 한번 보고 저기도 한번 들려보면서 천천히 가산옆으로 에돌았다. 씨름터문앞에 이르러 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쥬탸오룽이 그안에서 나오는것이였다. 쥬탸오룽이 그렇게 빨리 나오리라고 생각못한 샤오린은 자칫하면 그와 정면으로 부딪칠번 하였다. 샤오린은 얼결에 쥬탸오룽을 쳐다보게 되였고 쥬탸오룽 역시 샤오린을 쳐다보았다.

샤오린은 마음속으로 이놈이 자기뒤에 누가 따르는 사람이 있는것을 알고 이렇게 빨리 나오는것일가 하고 생각했고 한편 쥬탸오룽은 속으로 이 사내아이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 씨름터에 무엇을 보려고 왔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순간이였다. 쥬탸오룽은 발걸음을 떼자 부지런히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못가서 앞에 있는 나무뒤에 낯익은 두 아이가 숨는것을 얼핏 보았다. 쥬탸오룽은 대번에 한 아이는 샤오망즈이고 다른 한 아이는 고우성얼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그는 삽시에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감촉했다.

하느님맙시사. 이제는 팔로군의 감시속에 들었구나.

쥬탸오룽은 어제저녁에 전시를 비롯한 거지아이들이 후이빈각을 들부시고 접대부가 팔로군한테 맞아죽은것을 놓고 분명 이 가난뱅이새끼들이 팔로군과 내통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만나게 되였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것이였다.

그는 잠시 주춤했다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척 하면서 계속 걸으며 생각을 굴리였다.

저 거지아이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저 아이들을 없애치우려면 총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로군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뿐아니라 길가던 백성들까지도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살아나갈 길은 오직 빨리 이 감시망에서 벗어나는것이다.

이때 샤오린도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보았다. 그가 얼쿠이다려관에서 류쑹타오에게 정찰정형을 보고하기 위해 갈 때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은 로정찰병 조우동무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여기에 나타난것은 쥬탸오룽을 미행하기 위해 조우동지가 보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눈짓으로 샤오망즈와 고우성얼을 보고 계속 미행하라고 암시하고는 씨름터에 있는 방공호로 내려갔다. 셋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전번에 셋째가 하는대로 우측벽에 있는 스위치를 급히 눌러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입구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전번처럼 《웅－》하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량미간을 찌프리며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다시 눌러보았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샤오린은 이상하게 여겨져 벽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스위치로부터 아래로 약 1m쯤 되는 곳에 고정되여있지 않는 벽돌이 한장 보였다. 그는 혹시 그안에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벽돌을 뽑아보았다. 그리고 그안을 들여다보니 알릴듯말듯한 전기선 끄트머리가 보였는데 그 선은 끊어져있었다. 선을 어떻게나 바투 끊었는지 도저히 련결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두말할것없이 방금전에 쥬탸오룽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입구문을 열지 못하게 하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것이 분명하였다.

샤오린은 조바심이 났다. 셋째는 지금 무얼 하고있는지? 왜 그는 나오지 않는지? 셋째도 지하실에서 나오지 못할수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굴리던 샤오린은 쥬탸오룽이 여기에 황급히 왔다간것을 보아 분명 그 어떤 음모가 있는것이라고 짐작했다. 특히 군수품창고를 폭파하는것과 관련되여있지 않겠는지. 그것이 옳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명해야 한다. 가장 빨리 해명할수 있는 방법은 쥬탸오룽을 잡아 심문하여 알아내는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샤오린은 지체하지 않고 방공호에서 나와 동쪽방향으로 달려갔다.

2

헝겊신을 신은 쥬탸오룽은 거리를 따라 냅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골목 저 골목 그리고 이 거리 저 거리로 왔다갔다하면서 종적을 감추려고 했지만 여전히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제는 꼬리를 먼데 떨구어놓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행인들속에서 아니면 전주대뒤에 혹은 집량쪽의 벽뒤에서 낯익은 거지아이들이 또 나타나군 하였다. 지난날에는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천시하던 거지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목을 조이는 무서운 존재로 된것이다.
원래 그는 얼쿠이다려관에서 나올 때 셋째를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로 데려다주고는 인차 돌아오기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만약 얼쿠이다려관으로 직접 들어가면 기필코 팔로군들이 따라올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치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눈앞의 유일한 출로는 먼저 집에 가서 숨어있다가 정세를 보아 다시 려관으로 돌아가는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쥬탸오룽은 급히 가던 걸음을 늦추며 옛성으로 가는 골목길을 에돌아 대범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한편 씨름터에서 부지런히 샤오망즈를 따라온 샤오린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손으로 아니면 눈짓으로 신호를 하면서 쥬탸오룽의 꼬리를 놓침이 없이 곧바로 집에까지 따라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쥬탸오룽과 인펑이네 집은 다같이 한 골목에 있는데 그 두 집사이에 판신위가 살고있었다. 쥬탸오룽을 따라 집 근처에 당도한 샤오린은 마침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려는 판신위를 만나게 되였다.

판신위는 반기며 샤오린의 곁으로 다가왔다.

《샤오린형, 집에 들어가 앉았다 가라요.》

《응, 지금 들릴새 없어. 하나 물어보자. 쥬탸오룽네 집뒤에 문이 있는지 모르니?》

판신위는 영문을 몰라 겨우 기여드는 소리로 되물었다.

《그건 왜 묻나?》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무슨 말이 많아?》

샤오망즈가 더 참지 못하여 어성을 높였다.

판신위는 샤오망즈의 엄한 기색을 보고 좀 주저하다가 《아, 있어요, 있어요.》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브라우닝권총을 뽑아든 샤오린은 고우성얼 등 꼬마형제들에게 뒤문에 가서 지키라고 하고 샤오망즈를 보고 담장에 바싹 붙어들어가 뜰앞에 있는 대문을 두드리라고 하였다. 자기는 담장과 몇걸음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담장에 바싹 붙어서 대문앞에 이른 샤오망즈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한 녀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누구예요?》

《나예요.》 샤오망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가 도대체 누구예요?》

《나으리요.》

이때 싸창을 꺼내들고 집안의 문뒤에서 엿듣고있던 쥬탸오룽이 거지아이들의 목소리라는것을 알아듣고는 긴장했던 마음을 풀면서 얼굴에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까지 기회를 얻지 못해 이발에 끼운 가시를 뽑지 못했는데 제발로 찾아왔으니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볼을 한번 움씰거리고나서 싸창을 허리에 찌르며 녀편네를 시켜 문을 열게 하였다.

쥬탸오룽이 문을 열게 한것은 제딴의 생각이 있어서였다. 거

지아이들이 팔로군을 달지 않고 올리 만무하다. 팔로군이 나타나기 전에 거지아이들이 왔으면 먼저 처리하는것이고 만약 팔로군이 한 둬명정도 온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제꺽 처리하고 종적을 감추자는것이였다.

녀인이 담벽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뒤에 숨은 쥬탸오룽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는가 하고 내다보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뿐아니라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녀편네에게 눈짓을 하여 밖에 나가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녀편네는 간이 콩알만 해서 문밖에 나가 좌우를 살펴보고는 얼른 손을 흔들며 아무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자 쥬탸오룽은 저으기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샤오린이 샤오망즈를 데리고 판신위의 집마당에 들어갔다가 쥬탸오룽의 녀편네가 밖에 나가 살피는 사이에 담장을 넘어들어가 나무단무지에 몰래 숨은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쥬탸오룽의 녀편네는 무슨 정황이 생기면 남편에게 알리려고 계속 문밖에 서있었다.

시간이 얼마 흘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더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문뒤에서 나온 쥬탸오룽은 긴 목을 빼들고 담장 량쪽켠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바로 그가 머리를 판신위네 집에 돌리는 찰나 한가닥의 섬광이 번쩍 하더니 한자루의 비수가 그의 머리우를 스쳐지나가면서 땅 하고 문틀에 가 박히는것이였다. 그는 《에쿠!》하고 놀라며 몸을 돌려 집안에 들어가려고 한발을 옮기는데 발목이 그 무슨 쇠장대같은것에 걸려 그만 앞으로 쾅 하고 꺼꾸러졌다. 그바람에 그의 이마가 문턱에 세게 부딪쳐 즉시 닭알만한 혹이 부풀어올랐다. 이어 뒤잔등을 큰 망돌같은것이 내리눌러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었다. 머리를 들어 왼쪽을 보면 총구가 관자노리를 겨누고 오른쪽을 보면 시퍼런 칼날끝이 뺨을 찔렀다.

(아이쿠 끝장이구나.) 쥬탸오룽은 너무 기겁하여 이마를 문턱에 대고 연송 조아리며 애걸했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주시오, 나으리!》

샤오린은 쥬랴오룽의 등을 더 세게 짓누르면서 다그쳐 물었다.
《야, 너 셋째와 함께 씨름터에 있는 지하실에 가서 뭘 했어? 말해.》
《아이구! 아, 아무것도 한것이 없소이다.》
샤오망즈가 참지 못하고 쥬랴오룽의 상판을 힘있게 내찼다.
《개같은 자식, 또 거짓말 하면 너의 대가리를 박살낼테다. 이 나으리들이 일부러 너를 복수하러 왔다.》
《아이구! 소인이 감히 거짓말 하다니요. 정말…》
쥬랴오룽의 입에서 《정말 한것이 없다.》라는 말이 더 나오기 전에 샤오린은 시퍼런 비수를 또다시 쥬랴오룽의 눈밑에 있는 문턱에 박아놓았다. 칼과 눈사이는 종이장두께만한 간격이였다. 그는 너무 바쁜 나머지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찍소리도 못하고있었고 바지가랭이는 이미 축축히 젖어있었다.
《예, 예, 말하겠소. 내가 말…》
《빨리 말해. 또 거짓말 했다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예.… 구나이린참모장이 날보고 셋째를 데리구 씨름터의 지하실에…》
《뭘 하러?》
《스위치를 눌러…》
《무슨 스위치를? 이놈아, 오줌싸는것보다 말하기 더 힘들어?》
샤오망즈가 주먹으로 쥬랴오룽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다.
《군… 수… 품창고를… 폭파…》
《몇시?》
《저녁… 아니, 밤 9… 9시에.》
《지하실입구문이 왜 열리지 않아?》
《구참모장이 셋째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팔로군이 들어가지 못하게 날보구 전원선을 끊으라구 해서…》
《씨름터의 지하실외에 스위치를 눌러 폭파시키는 장소가 또 없어?》
《없소이다.》
《허튼수작말아! 둔덕아래켠의 평지붕집에두 없어?》

이 말을 들은 쥬탸오룽은 상대방이 이처럼 말끔히 알고있는데 대해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고 더 뻗칠래야 뻗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깡패두목이고 일제의 충실한 주구인 이 쥬탸오룽은 비록 오래동안 마치를 따라다녔지만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왔었다. 그것은 악독하고 잔인하기가 이를데 없는 마치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가차없이 죽기때문이였다. 얼마전에도 정보를 잘못 제공한탓에 마치한테 죽을번한 쥬탸오룽으로서는 결코 그것을 계산할줄 모르거나 앙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은것이 아니다. 다만 어디에 갈데가 없어서 그냥 있는것이지 가붙을 곳이 있으면 벌써 떠나간지도 오랬을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팔로군의 손아귀에 잡힌 벌레가 되여 아무때건 발로 꾹 밟으면 당장 죽을판인데 무엇을 더 생각할것이 있는가? 그래 마치를 위해, 구나이린을 위해 아니면 인평년을 위해? 아니다. 무엇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런 《충효성》을 바치겠는가. 다만 이 죽음의 고비를 어떻게 하나 넘겨 살길을 찾으면 될것이다.

그리하여 쥬탸오룽은 인평의 주장대로 마바에게 지시하여 기폭기의 시간을 9시에 조절해놓은 다음 9시전으로 마바이하 모든 졸병들을 데리고 성 동쪽에 있는 관위절간으로 모였다가 다시 북쪽에 있는 매부리산에 집결하기로 된데 대해서 죄다 말하였다. 그리고는 눈물을 질질 짜면서 애원하였다.

《나으리, 한번만 사정을 봐주시우. 이 개같은 목숨을 제발 좀 용서해주시우. 내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 않겠소이다. 만약 또 이런짓을 하면 칼탕을 쳐서 죽이시우.》

《그놈의 말을 듣지 말어! 그놈을 죽여야 해. 죽여버려야 해.》

고우성얼이 판신위의 집 담장우에서 성급히 샤오도우즈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뜰안에는 방금 소문을 듣고 달려온 꼬마형제들이 쥬탸오룽의 녀편네를 증오의 눈초리로 쏴보고있었다. 쥬탸오룽의 녀편네는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진짜 우는지 아니면 가짜로 우는지 흐느끼고있었다. 담장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쥬탸오룽이 샤오린한테 취조받는 광경을 구경하고있었다.

쥬탸오룽이 다 털어놓자 샤오망즈는 그놈을 즉시 죽여버리려고 하였다. 그는 아침에 꼬마형제들과 함께 세 비적두목놈과 쥬탸오룽을 반드시 죽이고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던것을 생각했다.

옆에 서있던 꼬마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쥔 샤오망즈는 쥬탸오룽의 목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샤오린이 제꺽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한마디 귀띔했다.

《우리 팔로군은 포로를 죽이지 않게 되여있어. 이런 문제는 망탕 처리하면 안돼.》

샤오망즈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으며 그 말의 뜻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샤오린형이 자기보다 아는것이 많기때문에 그의 말이 옳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삽을 마지못해 내려놓았다. 다른 꼬마형제들도 손을 대려고 하다가 샤오린의 눈짓을 보고 그만두었다.

이윽하여 쥬탸오룽의 잔등을 밟고있던 샤오린은 발을 내려놓으며 명령조로 분부했다.

《이놈아, 가자!》

쥬탸오룽은 꾸물꾸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맞잡은 두손으로 배를 가리우고 가을호박같은 번대머리를 숙인 그는 두눈알을 디룩거리며 량쪽옆을 살펴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를 취조하던 사람들이 모두 코밑에 솜털도 나오지 않은 애숭이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순간 그는 마음을 달리 먹고 슬그머니 옆에서 감촉하지 않게 옷섶을 거머쥐였다.

이때 샤오린은 쥬탸오룽의 옷섶짬으로 싸창자루가 드러난것을 제꺽 알아보았다. 그때에야 그는 자기가 조급하게 행동한탓에 그의 몸을 수색하지 못했다는것이 생각났다.

그는 재빨리 브라우닝권총을 뽑아들고 《손들엇!》하고 소리치려고 하는데 벌써 쥬탸오룽이 먼저 손을 썼다. 쥬탸오룽이 불의에 머리로 샤오린을 냅다 받고나서 동시에 두자루의 목갑총을 꺼내였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샤오망즈가 표범같이 몸을 날려 쥬탸오룽에게로 덮쳐들며 쇠꼬챙이같은 두손가락으로 그놈의 두눈을 찔

렸다. 그러자 쥬타오룽의 《앗!》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땅 하는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였다. 그것은 쥬타오룽이 눈을 찔리우는 순간에 싸창의 방아쇠를 얼결에 당긴것인데 그만 그 총알이 샤오망즈의 가슴을 뚫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거의 동시에 샤오린의 브라우닝권총에서 《땅땅땅!》하는 세방의 총소리가 울리였다. 샤오린의 복수탄을 받은 쥬타오룽이 가슴을 부여잡고 비칠비칠하다가 땅바닥에 꺼꾸러졌다.

담장우에 있던 고우성얼이 샤오망즈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것을 보고 황급히 뛰여내려 다른 꼬마형제들과 함께 돌과 삽을 들고 독뱀을 짓조기듯 쥬타오룽을 죽탕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다음 샤오망즈를 에워쌌다.

《망즈형! 망즈형!…》

꼬마형제들의 부름소리에 간신히 눈을 뜬 샤오망즈는 샤오린과 고우성얼 그리고 모든 꼬마형제들을 차례로 둘러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망즈형!》

고우성얼과 꼬마형제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떤 아이는 샤오망즈의 입에 대고 바람을 불어넣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자기 가슴을 쥐여뜯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주먹으로 땅바닥을 연방 내리치면서 샤오망즈를 애타게 불렀다. 그러나 그처럼 듬직하고 고지식한 샤오망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였다.

샤오린은 두팔로 샤오망즈를 그러안고 실성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너무도 뜻밖에 벌어진 일이여서 그자신도 어안이 벙벙했다. 지어 샤오망즈가 이미 숨졌다는것조차 믿어지지 않았다.

벽을 사이둔 이웃사람들이 달려왔고 판신위와 그의 어머니도 집에서 나와 샤오망즈의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를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할것없이 모두 이 불쌍한 샤오망즈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리였다. 비록 사람들은 그자리에서 이 가난한 아이의 숭고한 소행에 대해 다는 알수 없었지만 분명 나쁜 놈인 쥬타오룽과의 싸움끝에 희생되였다는것만은 똑똑히 알았다. 특히 판신위와

그의 어머니 전리화는 이미전에 마음이 정직하고 성품이 바른 이 아이와 대상해보았기때문에 더욱 비통해하였다.

문득 샤오린은 샤오망즈를 안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샤오린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샤오망즈를 능히 구원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우성열은 자리에서 일어서자 뒤번 비칠거리다가 다시 풀썩 땅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잃었던것이다. 그러자 꼬마형제들은 또다시 그를 에워싸고 찾고 부르며 안타까와하였다. 그러다가 그를 둘쳐업고 샤오린이 가는쪽으로 따라 달렸다. 이 불우한 아이들이 서로 부여잡고 《망즈형! 망즈형!》하고 애타게 찾는 웨침소리와 통곡소리가 온 거리에 메아리쳐갔다.

제 21 장

1

오후 3시경 지하군수품창고를 전문 관리하는 마바가 갑자기 마치로부터 암호로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기폭기시간을 밤 9시에 조종해놓은 다음 즉시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에 있는 사람들과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 동쪽에 있는 관위절간으로 철수하라는것이였다.

마치는 전화에서 샤오디얼에 대한 말을 마바에게 하지 않았다. 때문에 마바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있었다.

군수품창고를 폭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바는 그닥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이때까지 천과 통졸임을 비롯한 그 많은 물자들을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없애버리게 되였다는것이였다.

마바는 자기 형 마치와는 전혀 달랐다. 마치는 정계와 군부에 속

하는 인물이지만 마바는 만저우국때 전문 일본제꽃천들을 가지고 장사거래를 해왔었다. 그러던것이 일본놈들이 망한 후 얼마 안있어 마치가 우연히 생긴 이 무시무시한 군수품창고를 제 동생인 마바에게 책임지웠다. 그리고 앞으로 거사가 성공하면 천, 통졸임, 술, 밀가루같은 물자는 다 마바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하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있던 마바였는데 이제 당장 폭파해야 한다고 하니 왜 아쉽지 않겠는가.

마바는 군수품창고의 어느 한 암실에 이르렀다.

이 암실은 오직 마바만이 드나들수 있다. 암실의 오른쪽벽에는 자그마한 유리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안에는 시계가 놓여있었다. 그 시계는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시계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 시계는 직접 기폭기와 련결되여있었다. 기폭기는 발화장치와 같다. 시계에다 필요한 시간을 맞추어놓으면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이 군수품창고의 각 요소마다에 장치한 대량의 폭약들이 일시에 폭발하게 되는것이다.

마바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시계의 바늘을 9시에 조종해놓았다. 그다음 유리창문을 살그머니 닫았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긴장했던탓에 팔소매가 창문짬에 끼운것을 모르고 창문을 닫은 다음에야 그것을 알게 되였다. 마바가 아무 생각없이 팔소매를 뽑으려고 창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불현듯 일본놈들이 인계해줄 때 시간을 조종해놓고 창문을 닫은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주던 말이 생각났다. 일순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동시에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내배였다.

마바는 너무 기겁하여 빨리 가위를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때 밖에서 마바의 고함소리를 들은 화초공이 얼른 가위를 가지고 달려와 부들부들 떨고있는 마바의 팔소매를 잘라버렸다. 아마 팔소매가 아니라 손가락 아니, 한쪽팔이 끼웠대도 대담하게 자르라고 했을것이다.

원래 일본놈들은 이 비밀지하군수품창고를 건설할 때 기폭기의 시계에 시간을 조종해놓고 창문을 닫은 다음 다시 여는 경우에 주변의 벽짬에 설치해놓은 기관총들이 일제히 발사되게 설계했

던것이다. 그것은 일단 기폭기의 시간을 조종해놓고 가동시킨 다음에는 다른 사람(적측인원)이 와서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팔소매를 자르고나서 안도의 숨을 내쉰 마바는 잘리운 팔소매끝을 한동안 퀭 해서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개똥같이, 저따위 놀이감때문에 천당에 갈번 했구나.》

마바는 이마의 땀을 닦은 다음 화초공들과 경비를 서던 졸병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마치의 지시를 전달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총과 탄알, 술과 통졸임 등 물건들을 가지고갈수 있는껏 휴대하라고 명령했다.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팔로군의 습격을 막기 위해 문앞에는 기관총을 가진 보초병도 여러명 배치해놓았다.

비적들은 마바의 분부대로 각기 헤쳐갔다.

마바는 심복부하 한명을 데리고 넓은 지하도로 들어갔다.

이 지하도는 자동차도 달릴수 있는 넓은 갱도였다. 갱도의 중간에 여러개의 가죽문들이 달려있고 또한 옆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갱도들이 뻗어있었다. 갱도의 입구마다에는 철문들이 닫겨져있는데 이것은 전동장치에 의해서만 열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그 스위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했기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열수도 없고 여러 갈래의 지하도를 찾을수 없게 되여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일본놈들이 이 지하군수품창고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마바는 걸어가면서 머리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흥! 래일이면 이 지하군수품창고가 어떻게 될것인가?)

2

이미 군수품창고의 지하도에 들어가있던 샤오류와 전시 그리고 기타 동무들도 가죽문 량쪽에 은페하여 적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미국제카빈총과 싸창을 들고있었는데 모두 긴장하여 두 눈은 까딱하지 않고 줄곧 가죽문을 바라보고있었다.
카빈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는 샤오류는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자 저도모르게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샤오디얼은 살았는지? 샤오린이며 샤오망즈며 고우성얼이네는 지금 뭘 하고있는지?…)
샤오류의 옆에 붙어있는 전시도 지금 자기의 친동생보다도 더 가까운 샤오도우즈를 생각하고있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먼 하늘끝에 가있대도 꼭 찾으러 갈것이다. 그러나 샤오도우즈는 영원히 돌아올수 없다. 전시는 반드시 샤오도우즈의 복수를 하리라 다시한번 마음다졌다. 그리고 그는 샤오디얼을 생각했고 샤오망즈와 고우성얼 등 꼬마형제들을 생각했고 또한 샤오린과 샤오류를 비롯한 팔로군들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싸워 많은 비적들과 나쁜 놈들을 잡아 없애치우겠다고 결심하였다. 하여 원한을 품고 돌아간 부모들과 모든 천대받고 수모받으며 살아온 가난한 사람들의 원한을 기어이 풀어주리라 속다짐을 하였다. 전시는 오른손으로 류처장이 준 권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전투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샤오류는 문짬에 대고 귀를 강구고있는데 갑자기 약하기는 하나 터벅터벅하는 발자국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샤오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일가 하고 긴장하게 엿듣고 있는데 갑자기 등불이 환히 켜지는것이였다. 불빛이 어찌나 밝은지 눈을 뜰수 없을 정도였다.
전시는 흠칫 놀라 다급히 샤오류에게 물었다.
《샤오류형, 이건 뭐야?》
샤오류가 곧 명령조로 뒤에 있는 동지들에게 말했다.
《적들이 오고있소. 전투준비!》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가죽문이 열리더니 마바와 비적 한 놈이 나타났다. 《상업계인물》은 물샐틈없는 이 지하군수품창고안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다나니 뜻밖에 팔로군들이 자기앞에 불쑥 나타나자 처음에는 무슨

도깨비를 만나지 않았는가 하고 착각했다가 분명 팔로군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몸을 돌려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졸병놈이 오히려 마바보다 더 앞서 달리였다. 샤오류는 쏜살같이 뒤따라가면서 웨쳤다.

《서라! 투항하면 죽이지 않는다.》

전시도 뒤지지 않고 샤오류와 함께 달려갔다. 그들은 달려가면서도 놈들을 쏘지 않았다. 그것은 마바를 죽이면 입구앞에 있던 비적들이 문을 닫을수 있기때문에 이미 사전에 약속했던것이다.

샤오류는 마바와의 거리가 한보반밖에 되지 않았기때문에 결코 따라가지 못해서 그를 잡지 않은것이 아니였다. 그가 입구를 벗어난 다음 그놈을 잡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할 작정이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마바앞에서 달리던 심복졸개가 입구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목을 조인 사람처럼 미친듯이 고아댔다.

《팔로군이다! 팔로군이 있다!》

만약 이 졸개놈이 벽에 있는 전기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입구의 문이 닫기게 된다. 비적놈의 행동을 샤오류뿐아니라 마바도 제꺽 알아차렸다. 그래서 마바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문을 닫지 말라! 내가 나간 다음 닫으라!》

그러나 졸개는 그 소리를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목숨만 보존하면 그만이였던것이다. 아마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마바가 아니라 제 친애비라고 해도 서슴없이 내버려두었을것이다.

드디여 졸개가 비밀스위치를 누르려고 손을 벽에 갖다대려고 할 때였다. 샤오류는 더 생각할새없이 총구를 들어 비적놈에게 불벼락을 안겼다. 그러자 그놈은 손을 든채 스르르 나자빠졌다. 뒤미처 샤오류는 마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따라갔다. 밖에 있는 비적들이 총소리를 들었을것이다. 빨리 입구밖을 벗어나지 못하면 놈들이 입구를 봉쇄할수 있었다. 마바를 거의 따라선 샤오류는 그놈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나꾸챘다. 마바가 비칠거리면서 발악하려고 하자 샤오류는 주먹으로 놈의 배부위를 힘껏 타격했다. 마바가 《아이쿠!》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부러진 갈비대를 두손으로 부여잡고 나딩굴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오던 공병인 창동무가 그놈을 사로잡았다. 한편 전시도 샤오류의 뒤를 따라 함께 달렸다. 이때 그의 심정은 손오공처럼 날아가지 못하는것이 여간 안타깝지 않았고 금고봉을 휘둘러 비적놈들을 삼대같이 쓸어눕히지 못하는것이 아쉬웠다.

지하도입구로 달려나오니 입구를 지키고있던 졸개들이 총소리를 듣고 불의에 샤오류쪽으로 돌아섰다. 놈들은 샤오류와 전시가 입구밖으로 달려나오는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무작정 사격을 가했다. 샤오류는 몸을 재빨리 피하면서 이어 그놈들을 향해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놈들은 배를 그러안고 쓰러졌다. 전시도 자기쪽으로 달려오는 놈을 단방에 쓸어눕혔다.

그런데 이때 샤오류는 오른쪽으로 기여드는 비적을 보지 못했다. 전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샤오류가 비적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전시는 《샤오류형!》하고 소리치면서 그 비적놈을 향해 인차 사격했으나 그만 명중하지 못하였다. 그 비적놈은 자기에게 총을 쏜 쪽을 바라보다가 한때 자기들을 위해 군수물자를 나르던 전시를 알아보았고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 순간 전시의 총구가 먼저 불을 토했다. 그놈이 꺼꾸러지자 전시는 다른 비적을 따라가서 또 한놈을 쏴눕혔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한 비적놈이 몰래 쏜 총알이 전시를 맞혔다. 전시는 비칠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였다. 전시는 이발을 사려물고 왼손으로 벽을 짚고 자기를 쏜 비적에게 반격하려고 하는데 옆에 쓰러져있던 샤오류가 마지막 힘을 모아 총을 들어 그놈을 쏘았다.

전시는 샤오류를 향해 소리치려고 했으나 맥이 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간신히 샤오류가 있는데로 한발한발 다가갔다. 샤오류도 다가오는 전시를 바라보며 그에게로 기여갔다. 전시는 샤오류옆에 거의 다 왔을 때 끝내 자기 몸을 더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푹 쓰러졌다. 샤오류는 손을 천천히 내밀어 전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전시!》

전시도 간신히 입을 열었다.

《샤오류형도 부상을 당했구만요.…》

《우린 승리했어.》

《옳아요. 우린 이겼어요.…》

두 소년은 서로 부둥켜안았다.

전시의 귀에는 마치 환희로운 북소리와 징소리가 들려오는듯 하였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속에 기쁨에 넘쳐 샤오도우즈와 샤오망즈며 여러 꼬마형제들과 샤오디얼이며 그리고 샤오린이 달려왔다.

샤오도우즈는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전시형, 전시형…》하고 소리쳐불렀고 자기는 샤오도우즈를 안고 《도우즈야, 도우즈야…》하고 소리쳐불렀다.…

이때 평지붕집의 맞은켠에 있는 수림속에 매복하고있던 팔로군전사들이 지하도입구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비적들을 소탕하는 전투에 진입하였다. 이 자그마한 평지붕집주변은 삽시에 원쑤격멸의 복수장으로 변하였다. 개별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온 놈들은 왕쟈루꽉대기에서 매복하고있던 팔로군전사들의 사격을 받아 모두 황천객이 되였다. 마치 온 공간이 하나의 웨침소리로 메아리치는것 같았다.

《비적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

어느덧 총소리가 잦아들고 전투가 거의 끝날무렵에야 지하도의 다른 곳에서 전투를 벌리던 동무들과 입구밖에서 전투를 하던 동무들이 달려와 샤오류와 전시가 서로 그러안은채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땅바닥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있었다. 그들은 이미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동지들은 군모를 벗어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여 묵도하였다. 뜨거운 눈물이 동지들의 얼굴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이 전투과정에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적개심은 더욱 굳세여졌다.

샤오류여! 전시여! 우리의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부디 고이 잠들라.

사람들이 극도의 비분에 잠겨있을 때 경험이 풍부한 공병들이 마바를 끌고 암실벽에 설치한 시계쪽으로 다가갔다. 《찰칵찰칵》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한 젊은 공병이 서두르며 시계를 가리운 유리창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때 마바가 대번에 《아야!》하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싸쥐고 넙적 엎드리는것이였다. 로공병 창동무가 《가만!》하고 소리치며 제꺽 손을 내밀어 젊은 공병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마바의 뒤덜미를 잡아일으키고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뭘 하는거야? 빨리 말해!》

《그, 그야 시계지요.…》 마바는 이렇게 말했지만 눈에는 공포의 빛이 완연했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땅에 엎드리려고만 하였다.

창동무의 눈길이 문득 마바의 오른쪽팔소매에 가닿았다. 팔소매끝이 무엇에 잘리운 자리가 났는데 그 유리창문짬에 끼워있는 천쪼박이 신통히 색갈도 같고 크기도 비슷했던것이다. 그것도 찢어진것이 아니라 가위로 자른것이 분명하였다. 창동무는 다시 마바의 목덜미를 잡아일으켰다.

《똑바로 말해. 네놈의 팔소매가 유리창문에 끼워있는것을 가위로 자른것 같은데 왜 유리창문을 열고 뽑지 않고 가위로 잘랐는가?》

《난 잘…》

《모르는체 하지 말라!》

창동무는 마바의 목덜미를 놔주고는 담담하면서도 엄숙한 어조로 선언하듯 말했다.

《네놈이 오그랑수를 써도 필요없어. 그래 우리가 저기에 설치한 기폭기를 몰라서? 그리구 네놈이 폭파시간을 밤 9시에 조종해놓았다는것도 다 아는데두 아직 모르쇠를 해? 다시 말하지만 네놈이 오그랑수를 써도 소용이 없어. 이젠 마치도 끝장이구 〈광복군〉도 망했는데 네놈은 뭘 기다리구 또 누구를 믿고 그냥 버티려고 그래?… 우리의 포로정책은 일관하다. 〈자백하면 관대하고 반항하면 엄하게 처벌하며 주동은 치고 피동은 용서할뿐아니라 공을 세운자는 표창한다.〉 우리는 말한 그대로 하며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자, 두갈래의 길이 너의 앞에 놓여있다. 죽겠는가 아니면 살겠는가? 립장을 똑똑히 밝히라.》

줄곧 귀를 기울이고있던 마바는 련속 머리를 조아렸다.

《살겠습니다, 살아야 하구 말구요.…》
《살려면 솔직히 말해.》
옆에 있던 팔로군전사들도 일제히 소리쳤다.
《아아, 말하겠습니다. 다 터놓겠습니다.…》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사실은… 사실은… 야, 이거…》
창동무는 이놈이 계속 갑자르면서 말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전사에게 지시하였다.
《이놈을 기둥에 매놓구 우린 가자구.》
그러자 전사들이 그놈을 일으켜 기둥이 있는데로 끌고가는데 마바가 너무 기겁해서 두발을 딱 버티고 머리를 연송 조아리며 두손을 삭삭 빌었다.
《팔로군어른, 말하겠습니다. 제발… 말하겠습니다. 내 목숨만 정말 살려준다면 죄다 말하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해줬지. 솔직하게 자수하는 사람은 용서해준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하지요.…》
드디여 마바는 총전원장치의 위치와 차단방법과 기폭기의 해제방법을 모두 털어놓았다.…

제 22 장

지금 류처장은 쑹쟝시군관제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책상우에 주런이 놓여있는 전화기를 통하여 여러 지역의 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그의 맞은켠에는 군관제위원회 주임이 서서 긴장한 눈길로 줄곧 전화기를 바라보며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전투정황에 따르는 지시를 주었다. 한쪽구석에는 너무 울어 눈언저리가 벌겋게 상기

된 고우성얼을 비롯한 꼬마형제들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방안은 너무 조용하여 떨어지는 바늘소리까지 들릴상싶었다. 비록 아이들은 샤오망즈의 희생으로 하여 마음이 몹시 침울했지만 이 시각만은 모든 주의가 전투정황에 쏠려있었다.

갑자기 다급한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그 종소리가 어찌나 귀를 자극했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기기라도 하는듯 했다.

류쑹타오가 얼른 수화기를 들자 《여보시오.…》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방안이 너무 조용하다나니 수화기에서 울리는 말소리가 똑똑히 들리였다.

《1호 초소에서 보고합니다. 둔덕아래켠 평지붕집앞에서 전투가 시작되였습니다. 수림속에 매복하고있던 우리 동무들이 평지붕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군관제위원회의 주임이 즉시 지시를 하달했다.

《그들에게 알리시오. 적들이 어디에 비밀폭파장치를 설치했겠는데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시오.》

류쑹타오는 수화기에 대고 주임의 지시를 재차 하달하였다.

《주임동지의 지시요. 적들이 비밀폭파장치를 설치했겠는데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시오.》

이어 또다시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2호 초소가 보고합니다.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의 전동장치의 전원이 샤오린동무와 공병동무들에 의해 련결되였습니다. 우리가 입구의 자동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 되여 쓰러져있는 셋째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보니 셋째가 이미 기폭기와 련결된 스위치의 전원선을 모조리 끊어놓고 사발시계는 깨서 내동댕이쳤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셋째는 샤오린동무에게 평지붕집의 지하도에 기폭장치가 있는데 빨리 가서 해제하라는 말을 하고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린동무가 그를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빨리 1호 초소에 평지붕집의 지하도에 기폭장치가 있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밤 9시에 전원스위치를 누를데 대한 지시

를 구나이린으로부터 받은 셋째는 쥬타오룽을 따라 씨름터밑에 있는 지하실로 들어왔다. 이때 쥬타오룽이 술 한병과 통졸임 두통을 셋째에게 주면서 밤 9시에 스위치를 누른 다음 거기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 자기가 올 때 같이 가자고 하였다. 셋째는 마치가 군수품창고를 폭파하려는 기미를 간파하고 쥬타오룽이 나간 다음 이 소식을 샤오린과 전시네들에게 알리려고 타산하였다. 그런데 쥬타오룽이 나가면서 전원선을 끊고 갔을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그래서 셋째는 입구문을 까부셔보려고 지하실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마침내 약간 끊어진 지레대 하나와 낡은 삽을 한자루 찾아쥔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폭기와 련결된 스위치를 까부신 다음 입구문주변에 구멍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머리와 손 등에 부상을 당한데다 너무 기진하여 쓰러졌던것이다.

마침내 샤오린과 공병동무들이 전원선을 련결하고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서야 셋째를 발견하였다.

류쑹타오는 2호 초소에서 걸어온 전화를 받고 즉시 1호 초소에 전화를 걸어 방금 보고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평지붕집에서의 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숨어있는 놈들을 모조리 소멸하고 마치의 동생 마바를 비롯해서 10여명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로공병인 창동무가 마바놈에게서 알아낸 시한탄기폭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지 않아도 그곳 지하도에 폭파장치가 있다는것을 동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던 참이요. 다른 소식은 없소?》

《그런데…》

《그런데 뭐요? 인원손실이 있소?》

《지하도에서 마바를 생포한 후에 지하도입구를 지키고있던 놈들과의 격전끝에… 샤오류와 전시동무들이… 장렬하게 희생되였습니다.》

《뭐라구?!》

옆에서 이 말을 들은 고우성얼을 비롯한 끄마형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것을 본 류쑹타오는 급히 손짓하여 그들

을 그자리에 앉게 하였다.

이어 또다시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3호 초소가 보고합니다. 비적두목 마치와 구나이린은 우리한테 맞아죽고 인평년은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정황은 이렇습니다. 얼쿠이다려관의 비적들이 동쪽교외에 있는 관위절간으로 이동해가는것을 소멸하는 과정에 얼쿠이다려관의 경리 자오리앤인을 놓쳐댔습니다. 그런데 자오리앤인이 관위절간으로 가는 도중 공교롭게도 못생긴 관위절간지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오리앤인이란 놈은 절간지기를 보고 어디로 가는가고 물었는데 절간지기는 자오리앤인이가 좋은 사람인줄 알고 지금 관위절간에 비적들이 많이 와 숨어있다는것을 팔로군에게 알려주려 간다고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오리앤인놈은 그 절간지기를 길가의 곡식밭으로 끌고가서 칼로 찔러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근방에 매복하고있던 청잉창중대의 한동무가 먼저 그놈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비적 자오리앤인놈도 죽었습니다.》

《좋소. 얼쿠이다려관의 적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멸되였고 평지붕집의 적들도 다 소멸했으니 이제 관위절간에 더 모일 비적들이 없을거요. 그러니 절간수림속에 매복하고있는 4호 초소동무들에게 빨리 절간에 집결되여있는 비적들을 소탕하라고 하시오. 동시에 5호 초소의 동무들 보고 시내에 대한 수색전을 벌려 곳곳에 숨어있는 비적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찾아내여 소멸하라고 하시오!》

군관제위원회 주임이 단호한 어조로 지시하였다.

류쑹타오는 주임의 지시를 전달하고나서 다시한번 《더 빨리! 더 드세게!》하고 힘있게 강조했다.

이윽고 어느정도 마음을 놓은 주임과 류쑹타오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이때까지 전투지휘에 방해가 될가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줄곧 눈물만 흘리며 앉아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주임에게로 달려왔다.

주임은 두팔을 벌려 고우성얼을 비롯한 방랑아들을 한품에 안으

며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이번 전투에서 너희들은 자기의 뜨거운 피와 목숨으로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했다. 너희들은 큰 공을 세웠다.》

고우성얼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주임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저씨!…》

다른 아이들도 모두 주임을 부여잡고 목놓아울었다. 그들은 전사한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가 생각나서 울었고 잊지 못할 좋은 형들인 전시와 샤오류를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다.

종 장

이듬해 봄이였다.

쑹쟝시 남쪽교외의 한 공지에 아름답고 화려한 《아동공원》이 꾸려졌다. 창공에 솟아오른 찬란한 해빛이 공원의 곳곳에 눈부신 빛발을 한껏 뿌리고있다. 평지로부터 공원의 높은 정문에까지 넓고 화려한 대리석계단이 정갈하게 깔려있고 공원의 로대에는 긴 란간이 빙 둘러 설치되여있다. 드넓은 아동공원의 네 둘레에는 사철푸른 어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고 곧은 나무줄기며 높이 쳐든 나무가지들은 마치 주련이 늘어선 꼬마전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공원 왼쪽에는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자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뿜어나오는 물보라는 주변의 땅을 한껏 적셔주고 나무잎과 꽃잎들마다에 령롱한 물기를 함뿍 뿌려주고있다. 공원의 크고작은 꽃밭들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있었다. 꽃들중에는 다른 공원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따완화가 많이 피여 향기를 뿜고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꽃밭들은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한송이의 해바라기꽃모양이였다.

공원의 가운데에는 소담하게 자란 어린 나무숲과 어울려 화강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큰 묘비가 숭엄하게 세워져있다.

묘비의 정면에는 《어린 렬사들의 묘》라고 주홍빛나는 일곱글자가 새겨져있고 그 뒤면에는 전시, 샤오류, 샤오망즈, 샤오도우즈 등에 대한 감동적인 영웅사적이 기록되여있다.

묘비앞에는 어린 렬사들의 장렬한 최후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생동한 조각상들이 한줄로 세워져있다.

공원이 준공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경건한 마음으로 렬사들을 우러르며 그들을 감회깊이 추억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처럼 살며 일하리라 결의도 다진다.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동공원의 주임인 로세대혁명가 싱아바이가 그때의 두 꼬마전사와 방랑아들이 동북혁명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떻게 싸웠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장렬하게 희생되였는가에 대해 늘 이야기해주군 한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속에는 렬사들과 어깨겯고 함께 싸운 전우들도 있고 생전에 그들을 알고있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매번 올때마다 모두 묘비앞에 경건히 서서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리였고 이미 가버린 렬사들과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들속에는 왕샤오린, 류쑹타오, 위즈란 그리고 샤오디얼, 고우성얼 등 살아있는 모든 꼬마형제(그후 고우성얼과 꼬마형제들은 모두 보육원에서 생활하였음.)들, 또한 런다융과 청잉창중대장, 쉬성페이정치지도원, 그밖에 샤오핑구오와 샤오마오얼, 지어 함께 생활했던 혁명렬사유자녀보육원의 원아들, 아울러 판신위와 그의 어머니 전리화(그후 왕샤오린의 소개로 보육원에서 일하게 되였음.)도 있다.…

청소년학생동무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을 때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줄달음쳐나갈 때,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기쁨을 맛볼 때나 혹은 실패를 당하여 잠시나마 주저하고있을 때 언제나 그들을 잊지 마시라. 전시와 샤오류, 샤오망즈와 샤오도우즈와 같은 소년들

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혁명선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는가를.

그리고 잊지 마시라. 티앤안문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로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혁명렬사묘비들을!

그러면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때로는 준절히 타일러도 주며 기대에 찬 눈길로 우리들을 떠밀어주고 큰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장편소설

어린 나무숲속의 묘비

저 자 무 칭
역 자 권광욱 편 집 림성찬
표지 및 삽화 조정철 교 정 조분영

낸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4월 2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4월 25일

ㄱ－16691ㄴ 값 150원